

한영
대역

적벽가
바디벌 전집 3

정응민 바디 · 박봉술 바디

Jeong Eung-min Version Jeokbyeokga
(Sung by Jeong Gweon-jin)
Bak Bong-sul Version Jeokbyeokga
(Sung by Song Sun-seop)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병기 바디벌 전집3

2011년 11월 25일 인쇄

2011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전산 : 오석형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930-4 04810

978-89-5925-927-4 (전3권)



전병가

바디벌 전집 3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관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 2010년에는 〈수궁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적벽가〉 다섯 바탕과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 그리고 단가를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적벽가 바디별 전집》(1-3), 《심청가 바디별 전집》(5), 《관소리 단가》의 다섯 권으로 책을 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사업은 끝을 맺는다.

올해 제작한 적벽가 다섯 바탕은 박동진 바디, 송만갑 바디, 정웅민 바디, 김연수 바디, 유성준 바디이다. 이 중에서 유성준 바디는 현재 거의 부르지 않고 있지만, 임방울이라는 대명창의 〈적벽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올해 특별히 단가를 포함시킨 것은 관소리 속에는 당연히 단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를 보충한 것은 정웅민 바디는 정권진,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이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뺨 경우 자막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다섯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5년간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책으로 치면 스물한 권이다. 해마다 시간에 쫓기어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렇다고 머뭇거리기만 할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말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결과물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과감하게 도전에 나선 용기만은 가상하다고 보아주신다면 고맙겠다.

판소리는 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판소리는 흥행예술이다. 그런데도 판소리가 흥행예술로서는 이미 생존을 마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연대회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옛 명창들은 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재 빈 자리가 많이 생겼는데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했던 판소리 바디들이 자꾸만 줄

어든다. 이렇듯 상황은 분명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안타깝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그 희망의 작은 불씨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한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 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 다시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늘 쓸쓸하지만, 올 가을만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깊은 가을날에
지은이 씀

차 례

■ 책머리에•4

* 정응민 바디 적벽가(정권진 창)

1. 삼고초려	14
2. 장비의 급한 성질	20
3. 공명의 유비 영접	22
4. 유비 간청 1	24
5. 유비 간청 2	26
6. 박망파 전투	26
7. 노숙 공명을 만남	32
8. 공명 동오로 건너감	36
9. 공명 주유 격동	38
10. 공명의 계책	42
11. 공명의 화살 획득	46
12. 조조 호기	48
13. 군사들 노는 모양	50
14. 군사 설움 타령 1	52
15. 군사 설움 타령 2	54
16. 군사 설움 타령 3	58
17. 군사 설움 타령 4	60
18. 군사 호기	64

19. 싸움타령	66
20. 늙은 군사 탄식	68
21. 오작남비	70
22. 조조 장수 분발	72
23. 공명 동남풍 기원	76
24. 공명 하산	80
25. 조자룡 탄궁	82
26.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90
27. 관운장 항의	94
28. 황개 화선	98
29. 화공	100
30. 오림 패주	104
31. 새타령	106
32. 조자룡 출현	110
33. 조조 신세 한탄	112
34. 장비 출현	114
35. 정욱과 군사 탄식	116
36. 장승타령	118
37. 군사 점고	124
38. 허무적이	128
39. 골내종이, 박덜령이	132
40. 왕덩방이, 구먹쇠, 목읍출이	136
41. 조조 탄식	140
42. 관운장 출현	142
43. 조조 목숨 애걸	148

44. 관운장 호령	152
45. 조조 살아 돌아감	156

★ 박봉술 바디 적벽가(송순섭 창)

1. 도원결의	224
2. 삼고초려 1	228
3. 삼고초려 2	230
4. 공명 유비 영접	234
5. 유비 간청	236
6. 공명 출전	238
7. 조자룡 두 부인 구출	244
8. 장관교 싸움 1	246
9. 장관교 싸움 2	248
10. 공명 동오로 건너감	252
11. 조조 호기	256
12. 군사들 노는 모양	258
13. 군사 설움 타령 1	258
14. 군사 설움 타령 2	260
15. 군사 설움 타령 3	264
16. 군사 호기	268
17. 싸움타령	270
18. 오작남비	272
19. 조조 장수 분발	274
20. 주유 탄식	278

21. 공명 동남풍 기원	280
22. 공명 하산	284
23. 조자룡 탄궁	286
24.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294
25. 관운장 항의	298
26. 관운장 행군	298
27. 조조 장담	302
28-A. 화공(송순섭)	304
28-B. 화공(김일구)	312
29. 오림 폐주	320
30. 새타령	324
31. 조조 조자룡 피해 도망	326
32. 조조 신세 한탄	330
33. 조조, 장비 피해 도망	332
34. 정욱과 군사 탄식	336
35. 장승타령	338
36. 군사 점고	344
37. 골래종이, 전동다리, 구먹쇠	348
38. 관운장 출현	354
39. 조조 목숨 애걸	358
40. 관운장 호령	362
41. 주창의 재촉	366
42. 관운장이 조조를 놓아줌	370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정권진 창

Sung by Jeong Gweon-jin

1. (삼고초려)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뜻을 모았는데, 모사인 서서가 떠나면서 제갈공명을 천거한다.

[아니리] 천하¹⁾ 합구즉분²⁾하고 분구즉합³⁾이라.

주나라⁴⁾ 말엽에 진시황⁵⁾이 통일하고

한고조⁶⁾ 황제 인의⁷⁾로 통일하여 사백 년 지보터니,⁸⁾

헌제⁹⁾에 이르러 한실¹⁰⁾이 쇠약하니

사방에 난신적자¹¹⁾ 구름 일듯 할 제

동은¹²⁾ 손권¹³⁾이요, 서는 유비¹⁴⁾요, 북은 조조¹⁵⁾라.

삼웅¹⁶⁾이 정좌¹⁷⁾하여 천하대세¹⁸⁾를 잡으려 할 제,

조조 위인¹⁹⁾은 치세지능신²⁰⁾이요, 난세지간웅²¹⁾으로

협천자이령제후²²⁾하니, 기세를 난당이라.²³⁾

각설²⁴⁾ 유현덕²⁵⁾은 관공²⁶⁾ · 장비²⁷⁾로 더불어 도원결의²⁸⁾할 제,

오우백마²⁹⁾ 피를 내어 삼혈위맹³⁰⁾하니,

천금같은³¹⁾ 그 언약 대장부의 신의³²⁾로다.

모사³³⁾는 서서³⁴⁾인데, 조조가 피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가 허

창³⁵⁾에 가두고,

1. (Three Visits)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make a resolution in a peach orchard. Their strategist, Xu Shu(徐庶), recommends Kong Ming(孔明) to them as he leaves.

[Aniri] In the world, a long time of division inevitably leads to unity, and a long time of unity inescapably leads to division. Qin Shi Huang(秦始皇) unified ancient China at the end of the Zhou(周) Dynasty.

Liu Bang(劉邦),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unified ancient China through his virtues, and his dynasty lasted for 400 years.

The Han(漢) Dynasty became weak when King Xian(獻) was on the throne.

Traitorous subjects arose like clouds everywhere.

In the east is Sun Quan(孫權), in the west is Liu Bei(劉備), and in the east is Cao Cao(曹操).

The three people are watching for an opportunity to seize power.

Cao Cao's(曹操) character is as follows: He is a talented politician in a peaceful time, and a wicked man in a chaotic time.

He rules over feudal lords, taking advantage of the emperor. His force is formidable.

Meanwhile, Liu Bei(劉備) makes a resolution with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in a peach orchard.

They get blood from a black cow and a white horse and make a pledge on it.

The pledge is invaluable and is a sign of trust between men. Their strategist is Xu Shu(徐庶). Cao Cao(曹操) imprisons Xu Shu's(徐庶) mother as a part of his scheme.

필적³⁶⁾을 위조하여 서서에게 보내니,
 서서 보고 낙심³⁷⁾하여 현덕에게 보일 제,
 유현덕 대경³⁸⁾하여, “아이고, 이게 웬 말이요!
 범이 바람을 잃고 용이 구름을 잃은 격이외다!³⁹⁾
 자모지정⁴⁰⁾에 아니 갈 수 없사오니,
 미약한 우리 한살⁴¹⁾ 뉘 손 빌려 건지리까?
 선생은 돌아가 모부인⁴²⁾을 위로하고, 조조를 섬겨 대사성공⁴³⁾하옵소서.”
 서원직⁴⁴⁾이 가로되, “조조에게 몸이 잡혀 종신⁴⁵⁾이 되더라도 불설일
 모⁴⁶⁾하겠내다.”⁴⁷⁾
 하릴없이 떠나갈 제, 현덕이 통곡하며,
 “여봐라, 제장⁴⁸⁾들아. 저기 일수목⁴⁹⁾을 어서 급히 베어다오.⁵⁰⁾
 선생의 자취 잠시라도 더 보겠다.”
 서서 가다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니
 현덕이 반겨하여,⁵¹⁾ “어찌 선생이 다시 오시니까?”
 “잇고 간 말이 있나이다. 양양성외⁵²⁾ 이십리지허⁵³⁾에 만고기재⁵⁴⁾ 있
 사운데,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양이요, 자⁵⁵⁾는 공명이요, 도호⁵⁶⁾는 와룡⁵⁷⁾이
 라 하옵니다.
 불러 보지 못할 테니 친히⁵⁸⁾ 찾아보옵소서.”
 현덕 왈, “선생 말씀 아니어든⁵⁹⁾ 유안맹인⁶⁰⁾될 뻔했소.” 이렇듯 작
 별 후,
 나라 점점 쇠약해질 제, 공명을 만나려고 남양⁶¹⁾ 강중⁶²⁾ 찾아갔으되
 첫 번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 갈 제,

He forges her handwriting and sends a letter to Xu Shu(徐庶). After reading the letter, Xu Shu(徐庶) is disheartened and shows it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is surprised. "I can'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For me to lose you is like for a bird to lose its wings.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a son, you have no choice but to go.

Whose help I can seek to save this weak Han(漢) Dynasty? Please go and console your mother. Serve Cao Cao(曹操) well and make your life a big success."

Xu Shu(徐庶) speaks, "Even if Cao Cao(曹操) captures me alive and puts me to death, I won't give away our strategy."

Xu Shu(徐庶) hesitantly leaves. Liu Bei(劉備) speaks in tears. "Hello, officers. Cut down that tree blocking my view right away.

I want to see Xu Shu(徐庶) for as long as I can."

Xu Shu(徐庶) turns his horse around and comes back.

Liu Bei(劉備) is delighted. "Why are you coming back?"

"I forgot to tell you something. A historical hero lives near Xiangyang(襄陽) Castle.

His last name is Zhu Ge(諸葛), his first name is Liang(良), his adult name is Kong Ming(孔明), and his nickname is Wo Long(臥龍).

You can't bring him here without going there yourself. Please visit him in person."

Liu Bei(劉備) responds, "Without your words, I would have been ignorant of him." He says goodbye to Xu Shu(徐庶).

The country becomes weak little by little. Liu Bei(劉備) visits Nanyang(南陽) Hill to meet Kong Ming(孔明).

Liu Bei(劉備) fails to meet Kong Ming(孔明) on his first visit. It is on his second visit now.

원학⁶³⁾은 상친⁶⁴⁾하고 송죽⁶⁵⁾은 교취한데,⁶⁶⁾ 경개⁶⁷⁾를 바라보니,
 표연⁶⁸⁾한 선비 하나 글상⁶⁹⁾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있는 거동⁷⁰⁾
 와룡⁷¹⁾인가 반겼더니, 세째 아우 균일레라.⁷²⁾
 지필⁷³⁾을 청하여 정찰⁷⁴⁾ 써 두고 돌아와
 십여 일만에 세 번째 찾아갈 제,
 [진양조] 당당한⁷⁵⁾ 유현주⁷⁶⁾는 신장⁷⁷⁾은 칠 척 오 촌⁷⁸⁾이요,
 면여관옥⁷⁹⁾하고, 자고기이⁸⁰⁾하여, 수수과슬⁸¹⁾이라.
 오모홍포⁸²⁾에 쌍고검⁸³⁾ 빗겨⁸⁴⁾ 차고
 적추마상⁸⁵⁾에 두렷이 앉은 거동 태조⁸⁶⁾의 기상이요,
 관공 위엄 보거드면⁸⁷⁾ 홍안,⁸⁸⁾ 봉목,⁸⁹⁾
 삼각수⁹⁰⁾ 거사리고,⁹¹⁾ 쌍봉투구,⁹²⁾ 몸에는 녹포은갑⁹³⁾이라.
 청룡도⁹⁴⁾ 빗겨 들고 적토마상⁹⁵⁾에 앉은 거동⁹⁶⁾ 위풍⁹⁷⁾이 늠름하
 고,⁹⁸⁾
 장비 위엄 보거드면, 곰의 등, 표범 머리,
 먹장 얼굴,⁹⁹⁾ 쌍고리눈,¹⁰⁰⁾ 제비턱,¹⁰¹⁾
 따박수염,¹⁰²⁾ 몸에는 앵무전포,¹⁰³⁾ 머리에는 녹건¹⁰⁴⁾이라.
 장팔¹⁰⁵⁾ 사모장창¹⁰⁶⁾ 눈 위에 솟겨 들고¹⁰⁷⁾

Monkeys and cranes are on good terms with each other. Pine trees and bamboos are green. Liu Bei(劉備) looks around the landscape.

An elusive scholar reads a book in front of a reading table. Liu Bei(劉備) gladly thinks he is Kong Ming(孔明), but he is Jun(均), Kong Ming's(孔明) third brother.

He asks for a sheet of paper and a brush, writes a conscientious letter to Kong Ming(孔明), and he returns to his home.

After a dozen days, he leaves for Kong Ming(孔明) for the third time.

[Jinyangjo] Liu Bei(劉備) is majestic and tall.

He is handsome with large earlobes. His arms are long enough to reach his knees.

He wears a black helmet and a red coat, carrying a wide sword obliquely.

On a good horse, he looks like the first emperor of a dynasty. Behold Guan Yu(關羽). His face is red, and his eyes are like those of phoenix.

The end of his triangled beard goes up. A couple of phoenixes are attached to his helmet. He wears a green coat and silver armor.

He holds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on a red horse. He looks stately and awesome.

Behold Zhang Fei(張飛). His back looks like that of a bear, and his head that of a leopard.

His face is black. Two white circles surround each of his eyes, and the end of his chin is flat.

His beard is thick and short. His military coat is yellow. On his head is a green silky hat.

He holds high up a long spear whose end looks like the head of a snake.

흑충마상¹⁰⁸)에 앉은 거동 명장일시¹⁰⁹) 분명쿠나.

초려¹¹⁰)를 찾아가서 하마고비한대,¹¹¹⁾

2. (장비의 급한 성질) 동자가 공명이 잠을 자므로 깨우기 어렵다고 전하자, 장비가 화를 낸다.

[아니리] 동자¹¹²)가 나오거늘, “선생이 계옵시냐?”

동자대왈,¹¹³⁾ “이제야 도산¹¹⁴)하여

서책¹¹⁵)을 보시다 초당¹¹⁶) 춘수¹¹⁷) 깊었사오니 기침키¹¹⁸) 어렵사옵
니다.”

“오, 그러면 고치¹¹⁹) 말라.” 현덕이 팔짱 끼고 계하¹²⁰)에 서 있을 제,

[중모레] 익덕의 성질은 급한지라,

고리눈¹²¹) 부릅뜨고, 검은 팔을 뒤건으며¹²²) 고성대갈 왈,¹²³⁾

“아! 우리 가가¹²⁴)는 금지옥엽¹²⁵)이라.

저만한 사람을 보려하고 삼고초려¹²⁶) 지극커늘, 저렇게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꽤어¹²⁷) 무찌르고, 한 끄림지¹²⁸) 불을 쐼아 바짝 지
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니 참말인가 가수¹²⁹)인가,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보리라!”

우루루루루루 달려드니, 현덕이 만류한다.

“현제¹³⁰)야, 현제야, 현제야, 아우는 그리 말라. 그런 법이 없느니라.

비성이면 불성이라.¹³¹⁾

은나라 탕임금¹³²)도 이윤¹³³)을 볼 양으로¹³⁴) 신야¹³⁵)에 삼빙¹³⁶)
하고,

On a horse which is bluish white except the black mane, he looks like a great warrior.

They get off their horses in front of the cottage and knock at a twig gate.

2. (Zhang Fei's(張飛) Impatience) The boy says he can't wake Kong Ming(孔明) up. Zhang Fei(張飛) gets angry.

[Aniri] A boy comes out. "Is Kong Ming(孔明) around today?" The boy answers, "He finally came back.

While reading books, he went into a deep sleep in his cottage. I can't wake him up."

"Then, don't tell him we're here." He stands still near a stairway with his arms folded.

[Jungmori] Zhang Fei(張飛) is hot-tempered.

He opens up his white-circled eyes, folds up his black sleeves, and speaks loudly in anger.

"My brother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He visited this cottage three times to see that little man. How can that man be so arrogant?

I'll break this cottage into pieces and burn it to the ground.

I heard he has magical power. I'll see if that is true, if he pretends to sleep, if he sleeps or wakes up, and if he dies or lives."

He runs to the cottage. Liu Bei(劉備) stops Zhang Fei(張飛).

"Brother, don't act like that. Your behavior does not conform to a rule of etiquette. You cannot accomplish anything without a conscientious effort.

King Tang(湯) of the Yin(殷) Dynasty visited Xinye(新野) three times to see Yi Yin(伊尹).

춘추 때¹³⁷⁾ 제 환공¹³⁸⁾도 동괵야인¹³⁹⁾ 보려하고 다섯 번 찾아갔다
겨우 한 번 보았었고,
주 문왕¹⁴⁰⁾도 강태공¹⁴¹⁾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와룡
선생¹⁴²⁾을 보리로다.

3. (공명의 유비 영접) 공명과 유비가 마주 앉아 서로의 영 웅될 기상을 알아본다.

[아니레 운장¹⁴³⁾은 익덕¹⁴⁴⁾ 데리고 저편 멀리 가 하회¹⁴⁵⁾를 기다리라.”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글 한 수¹⁴⁶⁾ 읊었으되,
“초당에 춘수죽하니, 창외일지지요, 대몽을 수선각고, 평생을 아자지
라.”¹⁴⁷⁾

을기를 다한 후 동자 불러 물으시되, “밖에 속객¹⁴⁸⁾이 오셨느냐?”
동자 대답하되, “전일¹⁴⁹⁾ 왔던 유황숙¹⁵⁰⁾ 세 번째 대류¹⁵¹⁾하여 반
일¹⁵²⁾이 되었사옵니다.”

“응, 그러면 어찌 진작 고치¹⁵³⁾ 아니 하였는고?”

[중모레 공명이 거동 보아라.

후당¹⁵⁴⁾으로 들어가 이욕히¹⁵⁵⁾ 진정타가, 의관¹⁵⁶⁾을 정제¹⁵⁷⁾하고 현
덕을 양접하여¹⁵⁸⁾

단¹⁵⁹⁾에 올라 예필¹⁶⁰⁾ 좌정¹⁶¹⁾ 후, 공명이 현덕을 살펴보니
면여관옥¹⁶²⁾이요, 자고기이¹⁶³⁾하여, 순약도지¹⁶⁴⁾하고, 수수과슬¹⁶⁵⁾
이라.

오모홍포¹⁶⁶⁾의 두렛이¹⁶⁷⁾ 얹은 모양 중홍¹⁶⁸⁾할 인군¹⁶⁹⁾이요,

In the Chunqiu(春秋) Era of ancient China, the feudal lord Huang(桓公) of Qi(齊) Country managed to meet a scholar to the east of a castle on his fifth visit.

King Wen(文) of Zhou(周) Country treated Lu Shang(姜太公) well. Likewise, we will treat Kong Ming(孔明) with respect.

3. (Kong Ming(孔明) Welcomes Liu Bei(劉備).) Kong Ming(孔明) and Liu Bei(劉備) sit face-to-face and recognize that they will become heroes.

[Aniri] Guan Yu(關羽), please take Zhang Fei(張飛) over there and wait for my call.”

Just then, Kong Ming(孔明) wakes up and recites a poem.

“I had a sound spring sleep in this cottage. The day gets longer and longer outside the window. After waking up from a big dream, I came to know about my whole life.”

After he finishes reciting, Kong Ming(孔明) calls the boy. “Do we have guests outside?”

The boy answers, “An uncle of the emperor came here for the third time and has been waiting for you for a quarter of a day.”

“If so, why didn’t you report to me right away?”

[Jungmori] Behold Kong Ming(孔明).

He enters the separate house in the rear, puts on formal clothes, and welcomes Liu Bei(劉備) with respect.

He climbs up a high place, bows to Liu Bei(劉備), and sits down. Kong Ming(孔明) takes a close look at Liu Bei(劉備).

He is handsome with large earlobes. His lips are red, and his arms are long enough to reach his knees.

With a black helmet and a red coat, he looks like a king to strengthen the weak nation.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보니,
 머리 위에 윤건¹⁷⁰⁾이요, 몸에는 학창의¹⁷¹⁾라.
 백우선¹⁷²⁾ 손에 들고 엄연히¹⁷³⁾ 앉은 거동,
 기질¹⁷⁴⁾이 쇠약하여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할 듯하나,
 미간¹⁷⁵⁾에 천지조화며 강산 정기¹⁷⁶⁾가 어렸으니,
 운주유악지중하여 결승천리지외할¹⁷⁷⁾ 당시 영웅이 분명구나.

4. (유비 간청 1) 유비가 공명에게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아니레 현덕이 공명을 아무리 보아도 영웅이라.
 유헌숙 끓어 앓어 지성¹⁷⁸⁾으로 비는 말이,
 [중모레 “선생, 잠깐 들조시오.¹⁷⁹⁾
 한실¹⁸⁰⁾이 미약하고 국운¹⁸¹⁾이 망극¹⁸²⁾이라,
 종묘사직¹⁸³⁾이 망재조석¹⁸⁴⁾인데,
 초야¹⁸⁵⁾에 문헌 선비 한탄이 무궁¹⁸⁶⁾하고,
 장사¹⁸⁷⁾는 말을 타고 도무¹⁸⁸⁾를 싫어하니
 가련한 게 사직¹⁸⁹⁾이요, 불쌍한 게 백성이라.
 북풍은 샅샅하고¹⁹⁰⁾ 백설은 분분한데,¹⁹¹⁾
 손 불어 축천¹⁹²⁾하고 발 굴러 쉬어 올 제,¹⁹³⁾
 뉘를¹⁹⁴⁾ 보려 예¹⁹⁵⁾ 오리까? 선생의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래오니,
 경천위지지재¹⁹⁶⁾와 안방보국지심¹⁹⁷⁾으로 어린¹⁹⁸⁾ 나를 구하소서.”

Liu Bei(劉備) also turns his eyes up and takes a close look at Kong Ming(孔明).

Kong Ming(孔明) wears a silk towel on his head and a coat with large sleeves on his body.

He sits stately, holding a fan of white feathers.

Physically weak, he appears unable to endure his clothes.

But the principles and the energy of nature are between his two eyebrows.

He can think up a strategy to win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the battlefield. He is certainly a hero of this time.

4. (Liu Bei's(劉備) Plea 1) Liu Bei(劉備) asks Kong Ming(孔明) to help him to salvage the world.

[Aniri] Liu Bei(劉備) takes a long look at Kong Ming(孔明). Kong Ming(孔明) is certainly a hero.

Liu Bei(劉備) kneels down and talks to Kong Ming(孔明) with respect.

[Jungmori] "Please listen to me for a minute, sir.

The royal family of the Han(漢) Dynasty is weak. The luck of this country has hit rock bottom.

The royal family and the country might collapse in a day.

A hero languishing in a remote country sighs deeply.

The strong and the courageous hate fighting on horses.

The royal family is pathetic, and the people are poor.

A cold wind blows, and white snow flies around.

I came here, blowing on my cold hands, praying to heaven, stamping my cold feet, and taking breaks.

I came here to see none other than you. I've heard of your high fame for a long time.

Please help me with your magical talent and loyalty to the country."

5. (유비 간청 2) 공명이 나설 뜻이 없자, 유비가 눈물로 호소하며 다시 간청한다.

[아니리] 공명이 절하고 여짜오되, 배사주왈,¹⁹⁹⁾ “양²⁰⁰⁾이 본시 무식하와,
포의천사²⁰¹⁾로 남양²⁰²⁾에 밭 갈기와 강호²⁰³⁾의 고기 낚기, 글을 좀 좋아 일삼거든,
천하도모²⁰⁴⁾한단 말씀 만불성설²⁰⁵⁾이라.
낭설포문²⁰⁶⁾ 하시고 존가²⁰⁷⁾ 허행²⁰⁸⁾을 하셨나이다.”
형익도²⁰⁹⁾ 펼쳐 놓고 중원 시사²¹⁰⁾ 운운하여,
이해로만 말씀뿐이요,²¹¹⁾ 나을 뜻은 없는지라. 현덕이 기가 막혀,
[진양조] 다시 끓어 여짜오되,
“여보, 선생, 헤아려 보오. 지금 삼국이 분분하여²¹²⁾
사방은 난신적자²¹³⁾ 구름 일듯 하옵기로,
억조창생²¹⁴⁾이 소연,²¹⁵⁾ 십실이 구공이라.²¹⁶⁾
미약한 우리 한실 선생이 아니시면 뉘라²¹⁷⁾ 부흥하오리까?”
오열²¹⁸⁾한 소리 끝에 흐르나니 눈물이요, 쉬나니 한숨이라.
현덕의 일편심²¹⁹⁾이 구천²²⁰⁾에 사무친다.

6. (박망과 전투) 공명이 유비를 따라 나와 박망과 전투에서 대승한다.

[아니리] 공명이 그제야 감탄하고 함루²²¹⁾하며,
“천단한²²²⁾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현주²²³⁾를 도와 견마지력²²⁴⁾
을 다하겠나니다.”²²⁵⁾

5. (Liu Bei's(劉備) Plea 2) As Kong Ming(孔明) is not willing to move, Liu Bei(劉備) asks Kong Ming(孔明) in tears.

[Aniri] Kong Ming(孔明) bows to Liu Bei(劉備) with respect, and speaks, "I'm not an educated person.

I'm a humble scholar, cultivating a field, fishing in a river and a lake, and reading books.

It is absurd that I can conquer the world.

Having heard a false rumor, you came here for nothing."

Kong Ming(孔明) unfolds a map of China, explaining the political situation of China.

Kong Ming(孔明) states historical facts without going further. Liu Bei(劉備) is stunned.

[Jinyangjo] Liu Bei(劉備) kneels down again and speaks.

"Hello sir. Be mindful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in chaos now. Rebellious forces rise up like clouds everywhere.

Numerous people are unstable, and most houses are empty. Who will revive this weak royal family if not you?"

After Liu Bei(劉備) finishes, he sheds tears and sighs.

His resolution rises up to the sky.

6. (Bowangpo(博望坡) Battle) Kong Ming(孔明) comes out with Liu Bei(劉備), and wins a huge victory in Bowangpo(博望坡) Battle.

[Aniri] Kong Ming(孔明) is now moved, and tears are in his eyes.

"You don't give up on my trivial talent. I'll dedicate myself to you, a virtuous lord."

현덕이 반겨 듣고 운장과 익덕을 불러 단례²²⁶⁾를 나눈 후에,
 “이 사람은 내 둘째 아우 운장이요, 이는 내 셋째 아우 익덕아옵니다.”
 공명이 반겨하며 아우 균을 불러,
 “이애, 균아. 유·관·장²²⁷⁾ 세 분께서 날같은 천사²²⁸⁾를 대접코저
 포수금백²²⁹⁾ 예물로써 삼고초려²³⁰⁾ 지극하시니,
 지은을 난망이라²³¹⁾ 이 몸을 허락하니,
 후원의 매화를 버리지 말며, 내 공성신퇴²³²⁾할 날이나 기다려라.”
 “예, 형장²³³⁾은 대사²³⁴⁾ 성공하시고 수이²³⁵⁾ 환가²³⁶⁾하시기 바라나
 이다.”
 아우에게 이렇듯 당부하고 현덕과 신야²³⁷⁾로 돌아오니,
 병불만천²³⁸⁾이요, 장불만십²³⁹⁾이라.
 천하시²⁴⁰⁾를 의논할 제, 이때에 운장은 못마땅히 여겨,
 “공명이 나이 어리고 진실한 재주 없거늘, 형장이 너무 태과히²⁴¹⁾ 대
 접함이 불가²⁴²⁾한가 하나이다.”
 현덕 왈, “내가 공명을 얻음이 고기가 물을 얻음과 같은지라. 아우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루는 공명이 하는 말이, “주공,²⁴³⁾ 빨리 군사를 초모²⁴⁴⁾하소서.”
 현덕이 백성 삼천 인을 모집하여, 공명이 시시로²⁴⁵⁾ 진법²⁴⁶⁾을 가르
 치되,
 때마침 조조가 하후돈²⁴⁷⁾으로 하여금 십만 군을 이끌고 짓쳐온다²⁴⁸⁾
 하거늘
 공명 왈, “운장이 군령²⁴⁹⁾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²⁵⁰⁾을 빌리소서.”²⁵¹⁾ 현덕이 허락하고.

Delighted, Liu Bei(劉備) calls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and offers silk as a present.

“This is my second brother, Guan Yu(關羽). This is my third brother, Zhang Fei(張飛).”

Pleased, Kong Ming(孔明) calls his brother, Jun(均).

“Hey Jun(均)! These gentlemen visited my cottage three times to see me, a little scholar, bringing dried food, gold, and silk presents.

Being unable to forget their favor, I’m following them.

Don’t desert the plum blossoms in the backyard. Wait for the day when I’ll come back after achieving a success.”

“Brother, I hope you accomplish a feat and come back home soon.”

Passing along a request to his brother, Kong Ming(孔明) follows Liu Bei(劉備) to Xinye(新野).

They have less than one thousand soldiers and ten officers.

They discuss world affairs. Meanwhile, Guan Yu(關羽) is not happy.

“Kong Ming(孔明) is young and doesn’t have a true talent. It is not reasonable for you to treat him too well.”

Liu Bei(劉備) replies, “I am to him as a fish is to water. Brother, don’t say like that.”

One day, Kong Ming(孔明) speaks, “Your Majesty, please gather soldiers right away.”

Liu Bei(劉備) selects three thousand people. Kong Ming(孔明) trains them how to arrange soldiers on a battlefield.

Just then, Cao Cao(曹操) had Xia Jiao Dun(夏侯惇) lead 100,000 troops to attack them.

Kong Ming(孔明) says, “Guan Yu(關羽) is not likely to obey my order.

So let me borrow your sword and the iron symbol of your office.” Liu Bei(劉備) complies.

[중모레] 일일은²⁵² 공명이 장대²⁵³에 높이 올라 제장²⁵⁴을 분발²⁵⁵할 제,
 “운장은 일천 군을 거느리고 안립²⁵⁶ 숲에 가만히 매복²⁵⁷하였다가,
 적병이 지나되 양초²⁵⁸ 뒤에 있을 것이니,
 남방²⁵⁹ 봉화²⁶⁰를 보아 박망성²⁶¹ 향하여 양초에 불을 놓으라.
 조운²⁶²은 선봉²⁶³이 되어 적장²⁶⁴을 유인하고,
 익덕은 중군²⁶⁵이 되어 적군이 이르거든 일시에 엄살²⁶⁶하라.
 주공은 일군²⁶⁷을 거느리고 뒤를 집웅²⁶⁸하소서.”
 운장 익덕 대소왈,²⁶⁹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집 속에 편히
 있고저 한단 말가?”²⁷⁰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 인이 예²⁷¹ 있으니 위령자²⁷²는 참²⁷³하리라!”
 벽력²⁷⁴같은 호령소리, 위엄이 추상²⁷⁵같다. 현덕이 무안²⁷⁶하여,
 “현제²⁷⁷여, 현제여, 운주유악지중 결승천리지외²⁷⁸를 어이 모르는
 고? 두 아우는 추호²⁷⁹ 영을 어기지 말라.”
 이 때여 하후돈, 우금,²⁸⁰ 이전²⁸¹이 박망파²⁸²에 이르러 현덕 진을
 보더니,
 대소하며 하는 말이, “견양²⁸³을 몰아다가 맹호²⁸⁴를 침범함이로다.”
[자진모레] 조운²⁸⁵이 말을 놓아²⁸⁶ 급급히²⁸⁷ 달려오다, 하후돈과
 서로 맞아 십여 합²⁸⁸ 싸우더니,
 조운이 패하는 체 오던 길로 닫는지라,²⁸⁹ 하후돈 의기양양 쫓기로
 작정하니,

[Jungmori] One day, Kong Ming(孔明) stands on a commanding post, giving orders to his officers.

Guan Yu(關羽) will stay in ambush in An(安) Forest with one thousand troops.

The enemy will pass by with food at the rear of the formation. When you see a signal fire in the south, turn fire on the food and hay in the direction of Bowang(博望) Castle.

Zhao Zi Long(趙子龍) will lead our front unit and lure the enemy head into a trap.

Zhang Fei(張飛) will take charge of the middle unit. If the enemy reaches you, surround them and kill them quickly.

Your Majesty will take charge of one thousand troops and confront the enemy at the back.”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laugh at Kong Ming(孔明). “While we’re fighting the enemy, are you staying home in comfort?”

Kong Ming(孔明) yells at them. “I have this sword and symbol. Anybody disobeying my order will be beheaded.”

His shout is as loud as thunder and as chilly as frost. Liu Bei(劉備) is ashamed.

“Brothers, he can think up a strategy to win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the battleground. Brothers, obey his order.”

Meanwhile, Xia Jiao Dun(夏侯惇),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arrive at Bowangpo(博望坡) and gaze at Liu Bei’s(劉備) camp.

They laugh loudly and say, “A group of dogs and sheep try to attack a tiger.”

[Jajinmori] Zhao Zi Long(趙子龍) rides a horse fast. He fights Xia Jiao Dun(夏侯惇) a dozen times.

Zhao Zi Long(趙子龍) pretends to be defeated and flees to his previous place. Xia Jiao Dun(夏侯惇) intends to chase him in triumph.

우금과 이전이 왈, “적을 경시²⁹⁰)하면 패한다 하였으며,
 길이 좁고, 갈수석²⁹¹)과 수목이 총잡²⁹²)한데,
 만일 불로 치거드면²⁹³) 그 일을 어찌리오?” 돈이 듣고 옹게 여겨 군사
 를 거둔지라.
 뜻밖에 사면에서 화광²⁹⁴)이 충천,²⁹⁵) 화성²⁹⁶)은 우루루루루 후닥
 딱 꿈.
 자룡이 말을 놓아 좌충우돌²⁹⁷) 쫓아오니,
 하후돈 대경²⁹⁸)하여 쥐 숨듯 도망하고, 그 뒤 장익덕은 고리눈 부릅
 뜨고,
 “네 이놈, 우금, 이전아! 단지²⁹⁹) 말고 창 받아라!”
 우레같은 큰 소리 산악이 깨어지는 듯, 우금을 몰아치고 또 그 뒤를
 바라보니 후봉대장³⁰⁰) 관운장이라.
 벽력같은 큰 소리에 이전이 황급³⁰¹)하여 정신없이 달아날 제, 그 때
 여 공명선생 군사를 거둔지라.
 ‘공명의 신기묘산³⁰²) 귀신도 난측³⁰³)이라’
 운장 익덕 이하 장졸들이 모두 다 경탄³⁰⁴)을 하는구나.

7. (노숙 공명을 만남) 노숙이 유비의 진영을 염탐하러 와 서 공명을 만나 함께 동오로 가자고 설득한다.

[중모리] 공명의 높은 재주 박망을 소둔³⁰⁵)하고,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speak, “It is said if you look down on your enemy, you will lose.

The road is narrow, stones are on a dry stream, and trees and grasses are thick.

What if they attack us with fire?” Persuaded, Xia Jiao Dun(夏侯惇) stops his troops.

All of a sudden, fire rises up from every direction, filling up the sky. The sounds of fire are loud.

Zhao Zi Long(趙子龍) on a horse chases Xia Jiao Dun(夏侯惇), killing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Petrified, Xia Jiao Dun(夏侯惇) flees like a mouse. Behind him, Zhang Fei(張飛) opens up his white-circled eyes.

“You villains!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Don’t run away. Here goes my spear!”

His voice is so loud that it sounds as if a mountain cracks. He chases Yu Jin(于禁). Behind him is Guan Yu(關羽) in charge of the back unit.

Horried at his loud shout, Li Dian(李典) flees in panic. Kong Ming(孔明) now takes his soldiers back.

“Even God cannot fathom Kong Ming’s(孔明) clever strategy.’ Guan Yu(關羽), Zhang Fei(張飛), officers, and soldiers are impressed by Kong Ming(孔明).

7. (Lu Su(魯肅) Meets Kong Ming(孔明).) Lu Su(魯肅) of Wu(吳) Country comes to observe Liu Bei’s(劉備) army secretly, meets Kong Ming(孔明), and proposes to go to Wu(吳) Country.

[Jungmori] Highly talented, Kong Ming(孔明) defeated his enemy in Bowang(博望).

두 번째 출전하여 백하³⁰⁶)에 엄몰³⁰⁷)하니 공명선생 높은 이름 삼국이
진동터라.

그 때여 조승상³⁰⁸)은 팔십만 병 거느리고 손권에게 격서³⁰⁹)를 보낸지라.
조조 격서를 손권이 본 연후³¹⁰) 묘책³¹¹)을 의논할 제,
노숙³¹²)이 여짜오되, “동오³¹³)와 서한³¹⁴)이 기왕 화친³¹⁵) 약조³¹⁶)하
였으니,

원컨대³¹⁷) 현주³¹⁸)께서는 강하³¹⁹)에 가옵시어, 유비와 동심협력³²⁰)
하시어 조조 진을 치을진대³²¹) 가히 대사를 이루리다.”

손권이 옳게 여겨 노숙을 강하로 보낸지라.

이 때여 유현덕은 조조 파할³²²) 묘책을 상의할 제,
수문장³²³)이 여짜오되, “강동³²⁴) 손권의 밀사³²⁵) 노숙이 와서 뵈옵겠
다 하옵니다.”

공명 듣고 대소³²⁶)하며,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겼도다. 대사³²⁷)를 이
루리라.

노숙이 우리 군중을 탐지³²⁸)하러 온 일이니, 만일 조조 동정³²⁹)을
문삽거든³³⁰) 나에게로 미루소서.”

노숙을 청하여 현덕과 면담할 제, “유현주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래
오나, 조조와 싸워 보니 장졸³³¹) 병세가 어떠하나이까?”

“그 일은 공명선생이 아나이다.” 노숙이 다시 공명과 면담할 제,
“선생이 기왕 전쟁에 허신³³²)하셨으면 어진 인군³³³)을 도움이 몇몇
한 일이어늘, 무도한³³⁴) 유황숙을 무엇하러 따라오셨나이까?”

In his second battle, he drowned his enemy in Baihe(白河) River. The great name “Kong Ming(孔明)” resound over the three countries.

Meanwhile, Cao Cao(曹操) has a large army of 800,000 troops. He sends a letter to Sun Quan(孫權).

After reading Cao Cao's(曹操) letter, Sun Quan(孫權) discusses the matter with his officers to come up with a clever plan.

Lu Su(魯肅) speaks.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Han(漢) Country in the west already signed a peace treaty.

Your Majesty, please go to Jiangxia(江夏) and attack Cao Cao(曹操) in cooperation with Liu Bei(劉備). We'll surely accomplish a feat.”

Thinking Lu Su(魯肅) is right, Sun Quan(孫權) sends Lu Su(魯肅) to Jiangxia(江夏).

Meanwhile, Liu Bei(劉備) tries to think up a clever plan to defeat Cao Cao(曹操).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gate reports to Liu Bei(劉備). “Lu Su(魯肅), a secret envoy from Sun Quan(孫權), wants to see you.”

Kong Ming(孔明) is pleased. “Something good happened. We'll accomplish something great.

Lu Su(魯肅) came here to observe our army secretly. If he asks a question about Cao Cao's(曹操) army, please let me answer him.”

Lu Su(魯肅) comes and meets with Liu Bei(劉備). “I've heard of your great name for a long time. You fought Cao Cao(曹操) before. How strong is his army?”

“Kong Ming(孔明) knows about that the most.” Lu Su(魯肅) meets with Kong Ming(孔明) again.

“You already got yourself into a war. You should help a virtuous king. Why do you help Liu Bei(劉備), a bad person?”

[중중모레] “나를 따라 강동갑세, 나를 따라 강동 가세.

우리나라 손장군³³⁵)은 총명인혜³³⁶)하고, 경현례사³³⁷)하며, 육군³³⁸)
을 웅거³³⁹)하며 장병³⁴⁰)이 십만이요,
군량³⁴¹)이 무한하고, 문무³⁴²)가 구비³⁴³)하여 영웅이 집래³⁴⁴)하니,
나를 따라 강동 가면 대사 성공할 것이니, 나를 따라감이 어떠하오?”

8. (공명 동오로 건너감) 공명이 유비와 약속하고 속는 체 하며 동오로 건너간다.

[아니레] 공명이 거짓 속은 체 가기로 허락하고 현주께 하직하니, 현
덕이 탄식하되,

“분분한 천하득실³⁴⁵) 선생만 민삽거든, 이게 웬 말씀이오?”

공명이 현덕 전 은근히³⁴⁶) 여짜오되,

“삼국이 분분한 중 위부오강³⁴⁷)하고 한실³⁴⁸)이 미약하니,

오나라에 한번 들어가 손권을 달래이고, 주유³⁴⁹)를 격동³⁵⁰)시켜 조조
를 치게 한 연후 수이³⁵¹) 돌아올 것이니,

자룡에게 군사 백 명만 주어, 금월³⁵²) 동짓달 이십일 갑자³⁵³)시 남병
산하³⁵⁴) 오강³⁵⁵) 뒤로 보내시되, 삼가 어기지 마옵소서.”

[중모레] 하직하고 물러나와,

공명의 거동 보소. 머리에 팔각 윤건,³⁵⁶) 몸에는 학창의³⁵⁷)라.

[Jungjungmori] “Follow me to Jiangdong(江東).

My king, Sun Quan(孫權), is intelligent, wise, and nice, respecting a wise scholar. 100,000 troops are defending six regions of our country.

The military food is abundant. Heroes gather in our country because we respect the sword and the pen.

If you follow me to Jiangdong(江東), you will enjoy wealth and honor. Will you follow me?”

8. (Kong Ming(孔明) Goes to Wu(吳) Country.) Kong Ming(孔明) makes a promise with Liu Bei(劉備). He goes to Wu(吳) Country, pretending he is on their side.

[Aniri] Kong Ming(孔明) says he will go, pretending that he is persuaded. Kong Ming(孔明) says goodbye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sighs.

“I am relying only on you in this chaotic world. I can’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Kong Ming(孔明) secretly tells something to Liu Bei(劉備).

“Of the rivaling three countries, Wei(魏) Country is rich, Wu(吳) Country is strong, and the Han(漢) Dynasty is weak.

I’ll go into Wu(吳) Country and win Sun Quan’s(孫權) favor. I’ll come back after I prod Zhu Yu(朱瑜) to attack Cao Cao(曹操). Give Zhao Zi Long(趙子龍) one hundred troops. Send him to Wu(吳) River at the bottom of Nanping(南屏) Mountain on December 20th without fail.”

[Jungmori] Kong Ming(孔明) leaves Liu Bei(劉備).

Behold Kong Ming(孔明). Kong Ming(孔明) wears a silk towel on his head and a coat with large sleeves on his body.

백우선³⁵⁸) 손에 들고 오나라 들어갈 제, 일엽편주³⁵⁹) 급하도다.
 노숙이 인도하여 관역³⁶⁰) 안헐헐 제³⁶¹)
 공명이 좌정³⁶²) 후 좌우를 살펴보니,
 아관박대³⁶³) 장소³⁶⁴) 등 이십여 인이 공명에게 하는 말이,
 “선생은 관중악의지재³⁶⁵)를 흉중³⁶⁶)에 품었다 하옵는데,
 유현주³⁶⁷)는 선생 얻기 이전보다 더함이 없사오니,
 그리고 어찌 장자방³⁶⁸)의 재주에 비교하리오?”
 공명이 대답하되, “붕비만리³⁶⁹)에 군조³⁷⁰)가 기지하지오?”³⁷¹)
 공명의 높은 언재³⁷²) 그 뉘라 당하리오.
 이 때 황개³⁷³)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왈,
 “대사³⁷⁴) 급박³⁷⁵)한데 무슨 수작³⁷⁶)이 장황³⁷⁷)한고?
 선생은 관용³⁷⁸)하시옵고, 주공³⁷⁹)과 의론하시와 좋은 모책³⁸⁰)을 이
 르사이다.”³⁸¹)

9. (공명 주유 격동)³⁸²) 공명이 주유와 손책의 아내를 조조 에게 보내면 강동이 편안할 것이라고 답하여 주유를 분 노케 한다.

[아니래] 공명선생 손권에게 들어가니,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랜지라,
 선생의 힘을 빌려 조조를 폐하고자³⁸³) 하나이다.”
 공명이 이른 말이, “주공은 힘 알아 항복을 하옵소서.”

He holds a fan of white feathers as he goes to Wu(吳) Country.
 A small boat moves fast.
 With Lu Su's(魯肅) help Kong Ming(孔明) takes a rest in an official inn.
 Kong Ming(孔明) takes a seat and looks around.
 About twenty officials, including Zhang Zhao(張昭), speak to Kong Ming(孔明).
 "Sir, we've heard you are as wise as Guan Zhong(管仲) and Le Yi(樂毅).
 But Liu Bei's(劉備) situation hasn't gotten better after he obtained you.
 How can you be as smart as Zhang Zi Fang(張子房)?"
 Kong Ming(孔明) replies, "How could a little bird understand the thoughts of a big bird?"
 Who could beat Kong Ming(孔明) in a debate?
 At that moment, Huang Gai(黃蓋) shouts at people loudly.
 "We have an urgent business. Cut the long silly talk out.
 Kong Ming(孔明), please forgive them. Let's have a discussion with our king. Let's think up a great strategy."

9. (Kong Ming(孔明) Incites Zhu Yu(朱瑜.) Kong Ming(孔明) infuriates Zhu Yu(朱瑜) by saying that if Zhu Yu(朱瑜) and Sun Quan(孫權) offer their wives to Cao Cao(曹操), their country will be safe.

[Aniri] Kong Ming(孔明) meets with Sun Quan(孫權). "I've heard about you for a long time.
 I hoped to defeat Cao Cao(曹操) with your help."
 Kong Ming(孔明) speaks. "Know yourself, and surrender to Cao Cao(曹操)."

손권이 대노³⁸⁴)하여, “그러면 유현주는 어찌할지?” 공명이 대답하되,
[자진모리] “우리 성군³⁸⁵) 유현주는 한실이 종친³⁸⁶)이요,
지혜 있고 의기³⁸⁷)가 넉넉하여 세상에 덮였으니 남의 나라에 굴하리
오?”³⁸⁸)

손권이 대노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네 급히 파양³⁸⁹)에 가 주유³⁹⁰)를
불러오라!”

이 때 사자³⁹¹) 급히 보내어 주유를 청해 들어 공명과 면담할 제,
“선생의 높은 재주 들은 지 오래오나, 인제 보니 만시지탄.³⁹²)
선생의 깊은 피를 이르사³⁹³) 적을 막게 하옵소서.”

공명이 대답하되, “강동은 염려 없고 편한 일이 있더이다.”

“무슨 일로 편하리까?” “조조 내심 음흉하여 동작대³⁹⁴) 지은 뜻은
강동을 무찌르고 교공³⁹⁵)의 딸 천하일색³⁹⁶) 대교 소교³⁹⁷) 두 계집을
양편에다 거느리고 호강³⁹⁸)코저 한 일이니,
만일에 두 계집을 조조에게 보내시면 강동은 염려 없이 그 아니 편하
리오?”

주유 듣고 화를 내어, “선생은 그 속³⁹⁹)을 어찌 아오?”

“조조의 둘째 아들 동작대를 두고 지은 글⁴⁰⁰)을 사방 선비 외우기로
나도 그 글을 외웠내다.”⁴⁰¹) “그 글 좀 들어지이다.”⁴⁰²)

공명이 좌정한 후 글을 잠깐 외우는데,

“중명후이희유혜여, 등충대이오정이요,

견태부지광개혜여, 관성덕지소영이며,

Sun Quan(孫權) is exasperated. “Then, what will become of Liu Bei(劉備)?” Kong Ming(孔明) replies,

[Jajinmori] “My virtuous king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of the Han(漢) Dynasty.

His wisdom, talent, and courage cover the whole world. How can he surrender to another country?”

Going berserk, Sun Quan(孫權) looks around. “You, go to Poyang(鄱陽) Lake immediately and bring Zhu Yu(朱瑜) here.” He sends a messenger to Poyang(鄱陽) Lake to bring Zhu Yu(朱瑜) and talks with Kong Ming(孔明).

“I’ve heard for a long time you were a talented man. I regret I didn’t meet you earlier.

Please tell us about a smart plan to defeat the enemy.”

Kong Ming(孔明) replie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Jiangdong(江東).”

“What makes you think so?” “Wicked in his deep mind, Cao Cao(曹操) built a tower in his capital city.

He plans to invade Jiangdong(江東) with the view to living happily with Sir Qiao’s(喬) two beautiful daughters.

If you offer the two girls to him,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Jiangdong(江東).”

Zhu Yu(朱瑜) is exasperated. “How do you know about that?”

“Many scholars recite the poem which Cao Cao’s(曹操) second son wrote about Tongque(銅雀) Tower.

I memorized the poem myself.” “Let me hear a little bit of the poem.”

Kong Ming(孔明) takes a seat and recites the poem for a minute.

“I followed a wise king and we had fun together. We climbed a tower and had a good conversation.

We looked over the wide capital city. I could fathom what the virtuous king wants.

건고문지차아혜여, 부쌍궐호태청이요,
 입중천지화관혜여, 연지각호서성이며,
 임장수지장류혜여, 망원과지자영이요,
 입쌍대어좌우혜여, 유옥룡여금봉이며,
 남이교어동남혜여, 낙조석지여공이라.”⁴⁰³⁾
 주유 듣고 분노하여, 칼을 들어 문을 치며,
 “음골⁴⁰⁴⁾의 노적⁴⁰⁵⁾놈이 그다지 무례한가?”
 공명이 모르는 체, “옛날 한 고조⁴⁰⁶⁾도 흉노⁴⁰⁷⁾를 달래어서 화친⁴⁰⁸⁾
 을 하였거든,
 나라 대사 위급한데 민간의 아녀자⁴⁰⁹⁾를 그다지 아끼리까?”

10. (공명의 계책) 공명이 삼일 안에 화살 십만 개를 장만하여 조조를 대적하겠다고 하니 주유가 비웃는다.

[아니리] 주유 이른 말이, “선생은 모르리다.
 대교라 하는 이는 내 손백부⁴¹⁰⁾의 안택⁴¹¹⁾이요, 소교라 하는 이는
 나의 아내외다.”
 공명이 놀라는 체, “에, 그게 웬 말씀이요? 나는 과연 모르고 실언⁴¹²⁾
 을 하였나이다.”
 주유 또 이른 말이, “선생은 어쨌든 힘을 모아 조조를 패하게 하소서.”
 하고 손권에게 들어가니,

Two gates are erected high. Two palaces are high.
 A high tower shines brightly. It looks as if it flies over to a west castle.
 I stand by a long river. I wish for the trees in the garden to
 bear a lot of fruit.
 The two towers are built on the left and on the right. They are
 Yulong(玉龍) Tower and Jinfeng(金鳳) Tower.
 I'll bring Sir Qiao's(喬) two beautiful daughters. I'll have a party
 day and night with them.”
 Zhu Yu(朱瑜) is indignant. He holds up his sword and hits the
 door.
 “The old bastard is lewd and rude.”
 Kong Ming(孔明) pretends he is ignorant.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appeased Xiongnu(匈奴) and got along with
 them.
 This country is in jeopardy. What's the point of cherishing the
 two women?”

**10. (Kong Ming's(孔明) Scheme) Kong Ming(孔明) says
 that he will fight Cao Cao(曹操), after he gets
 100,000 arrows within three days. Zhu Yu(朱瑜)
 laughs at him.**

[Aniri] Zhu Yu(朱瑜) says, “Sir, you might not know this.
 The elder Qiao(大喬) is Sun Ce's(孫策) wife, and the younger
 Qiao(小喬) is my wife.”
 Kong Ming(孔明) pretends he is surprised. “Gee! I can't believe
 what you said. I didn't know that, and I made a mistake.”
 Zhu Yu(朱瑜) speaks again. “Sir, please help us quash Cao Cao
 (曹操).” Zhu Yu(朱瑜) goes to Sun Quan(孫權).

손권이 주유에게 하는 말인즉, “조조가 기병⁴¹³)하여
 하구⁴¹⁴)에 둔취⁴¹⁵)하고 격서⁴¹⁶)를 보냈으니 이 일을 어찌리오?”
[자진모리] 주유 듣고 대답하되, “노적⁴¹⁷)이 방자⁴¹⁸)하여 우리를 능
 육⁴¹⁹)하니,
 결단코 늙은 도적을 산 채로 잡아 오겠내다.”
 손권이 대회⁴²⁰)하여 즉석⁴²¹)에서 주유를 대도독⁴²²)으로 삼은지라.
 주유는 물리나와 공명에게 묻는 말이,
 “팔십만 대적군⁴²³)을 무엇으로 대전⁴²⁴)하리오?”
 공명이 속마음에 불로 처야 할 것인 줄 엄연히⁴²⁵) 알면서도, 짐짓
 대답하는 말이,
 “살⁴²⁶)로 대전하리이다.” 주유 내념⁴²⁷)에, ‘저런 것을 어찌 모사⁴²⁸)라
 할 것인가?’
 공명 죽일 작정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열흘 말미⁴²⁹) 줄 것이니, 선생
 은 어찌하든 살 십만 개를 만드시오.”
 공명이 이른 말이, “적선⁴³⁰)이 가까운데 열흘을 가오리까? 삼일 말미
 만 주사이다.”⁴³¹)
 주유 더욱 기뻐하여, “그러면 군령⁴³²)에 다짐하오?” “다짐하지요.”
 다짐하고 물리나와 노숙께 허는 말이,
 “주도독⁴³³)이 삼일 간에 살 십만 개를 만들라 하오니, 어디 가 얻어
 올꼬?”
 노숙이 대답하되, “자취지화군⁴³⁴)이니 뉘를⁴³⁵) 원망하오리까?”

Sun Quan(孫權) says as follows: “Cao Cao(曹操) mobilized his army.

Stationed at Xiakou(夏口), he declared war against us. What should we do?”

[Jajinmori] Zhu Yu(朱瑜) replies, “Arrogant, the old bastard is insulting us.

I’ll catch the old bandit alive without fail.”

Pleased, Sun Quan(孫權) appoints Zhu Yu(朱瑜) as the head of the military immediately.

After leaving Sun Quan(孫權), Zhu Yu(朱瑜) asks Kong Ming(孔明) a question.

“How can we confront the huge army of 800,000 troops?”

Kong Ming(孔明) knows that they should attack the enemy with fire. His word does not match his thought.

“We’ll attack them with arrows.” Zhu Yu(朱瑜) thinks to himself, ‘How can he be a military strategist?’

He wants to kill Kong Ming(孔明). “If so, I will give you ten days. Please you come up with 100,000 arrows?”

Kong Ming(孔明) answers, “How can we take ten days, when the enemy ships are already close to us? Give me just three days.”

Zhu Yu(朱瑜) is all the more glad. “Can you make a pledge as a general?” “Yes, I can.”

After making the pledge, Kong Ming(孔明) goes to Lu Su(魯肅) and says to him.

“Zhu Yu(朱瑜) told me to come up with 100,000 arrows. How can I get them?”

Lu Su(魯肅) responds, “You caused the trouble yourself. Whom can you blame?”

11. (공명의 화살 획득) 공명이 배에 갈대와 쉼 가득 싯고
안개 속으로 조조의 진영을 찾아가서, 조조의 군사가
쏜 화살을 많이 얻어서 돌아온다.

[아니레 “자경⁴³⁶)은 나를 도와, 군사 백 명과 전선⁴³⁷) 십여 척에 대와
쉴⁴³⁸)을 많이 싯어

청포장⁴³⁹)으로 둘러 주면 살을 얻어 오리이다.”

노숙 왈, “살은 어디 가 얻나이까?” “아, 적벽강 조조에게 얻어오지요.”

노숙 듣고 어이없어, “여보, 그런 푸석푸석한⁴⁴⁰) 말 마오.

차라리 여기 앓아 통죽음⁴⁴¹)을 하고 말지,

거기 가서 더운 죽음⁴⁴²)을 한단 말이오?”

공명 함소 왈,⁴⁴³) “못 얻으면 죽는 게 아니겠소? 내 말대로만 하여
주오.”

“그대로 하여 주지.”

[중중모레 공명선생 배를 타고 적벽강⁴⁴⁴)으로 떠들어갈 제,

일락서산⁴⁴⁵) 황혼 되어 안개 차차 강산을 덮는지라.

쟁⁴⁴⁶) · 북 · 광쇠⁴⁴⁷) · 바라⁴⁴⁸)를 일제히 두드려, 나발은 흥앵흥앵흥
앵, 고함을 뒤지르며⁴⁴⁹) 중강⁴⁵⁰)에 뗏구나.

조조 장수 모개⁴⁵¹) 우금⁴⁵²) 조조에게 품고⁴⁵³)하되,

“적선이 들어오니 어서 방비⁴⁵⁴)하사이다.”

조조 듣고 이른 말이, “안개가 끼었으니 아예 요동⁴⁵⁵)하지 말고 활로
만 대고 쏘라.”

또 육진⁴⁵⁶)에 분부하여 장요⁴⁵⁷) 허저⁴⁵⁸)를 불러들여,

“궁노수⁴⁵⁹) 삼천 명을 강변에 급히 보내 북소리 나는 곳을 그저 활로
쏘게 하라.”

11. (Kong Ming(孔明) Gets Arrows.) Kong Ming's(孔明) goes through fog to Cao Cao's(曹操) camp with ships filled with reeds and grasses. He comes back with a lot of arrows which Cao Cao's(曹操) soldiers have shot.

[Aniri] “Lu Su(魯肅), give me a hundred troops and ten warships filled with reeds and grasses.

If you cover them with blue cloth, I will get you arrows.”

Lu Su(魯肅) asks, “How can you get the arrows?” “I’ll get them from Cao Cao(曹操) on the Chibi(赤壁) River.

Lu Su(魯肅) is at a loss. “Stop this absurd talk.

I would rather die here along with the others.

Why would you want to go far away from here to die by fire?”

Kong Ming(孔明) laughs. “I’ll die anyway if I don’t get you arrows. Please do as I ask you to do.”

“I’ll do as you told me to do.”

[Jungjungmori] Kong Ming(孔明) proceeds to the Chibi(赤壁) River by ships.

As the sun sets below a west mountain, fog covers the river. Kong Ming's(孔明) soldiers hit gongs and drums, and play trumpets, while shouting in the middle of the river.

Cao Cao's(曹操) officer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report to Cao Cao(曹操).

“Let’s prepare for the approaching enemy ships.”

Cao Cao(曹操) says, “Since it is foggy, don’t move at all, and just shoot arrows.”

Cao Cao(曹操) calls his officers, Zhang Liao(張遼) and Xu Chu(許褚) who are in their camp.

“Send three thousand archers to the riverside right away. Have them shoot arrows towards the sound of the drums.”

이렇듯 영을 받고 수만 조조 군사 일시에 달려들어 활을 쏘니,
 허다한⁴⁶⁰ 많은 살이 공명 탄 배 갈슘⁴⁶¹에 가 모두 다 박힌지라.
 만선⁴⁶²이 되도록 살을 많이 받은 후에,
 “승상이 살을 이다지 후히 주니 은혜 백골난망⁴⁶³이오.”
 조조가 대노하여, “아차차차, 돌렸구나.⁴⁶⁴ 네 바빠 공명을 잡아오라!”
 장요 허저 비선⁴⁶⁵ 타고 아무리 쫓아간들 잡을 수가 있겠느냐?

12. (조조 호기)⁴⁶⁶ 조조가 천여 척의 배로 연환계를 만들어 두고, 보름날 밤 병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호기를 부린다.

[아니레 이 때여 공명선생 살 얻어다 주유 주며
 그 수를 헤아려 보니, 십일만 팔천 개라.
 감택⁴⁶⁷의 사향서⁴⁶⁸와 황개⁴⁶⁹의 교육계⁴⁷⁰며,
 방통⁴⁷¹의 연환계⁴⁷²를 귀신도 난측⁴⁷³이라.
 그 때여 조조는 적벽강에다 대진⁴⁷⁴을 칠 적에,
 [진양조] 천여 척 전선⁴⁷⁵으로 연환계 굳이 무어⁴⁷⁶ 강상육지⁴⁷⁷ 삼
 아 두고,
 일등 명장 유진⁴⁷⁸하여, 말 달려 창 쓰기와 활 쏘아 칼 쓰기며, 십팔
 기⁴⁷⁹ 사습⁴⁸⁰하기

Under the order, Cao Cao's(曹操) numerous soldiers shoot arrows at once.

Numerous arrows get stuck in the reeds and grasses of Kong Ming's(孔明) ships.

The ships are filled with arrows.

“Mr. Premier, you gave me a lot of arrows. I can't forget your favor.”

Cao Cao(曹操) is infuriated. “Alas! I am fooled. Catch Kong Ming(孔明) right away!”

Zhang Liao(張遼) and Xu Chu(許褚) get on a fast ship and chase Kong Ming(孔明) in vain.

12. (Cao Cao's(曹操) Heroic Temper) Cao Cao(曹操) ties one thousand ships together, and plays the hero while throwing a party.

[Aniri] Meanwhile, Kong Ming(孔明) brings the arrows to Zhu Yu(朱瑜).

He counts the arrows, which turned out to be about 118,000. Kan Ze(闕澤) made a plot to make a false surrender. Huang Gai(黃蓋) made a second plot to sacrifice himself to deceive the enemy.

Pang Tong(龐統) made a third plot to burn the enemy's ships after telling them to tie the ships with chains. Even a god cannot imagine such ruses!

Meanwhile, Cao Cao(曹操) builds a formation on the Chibi(赤壁) River.

[Jinyangjo] Cao Cao(曹操) ties up a thousand ships together with iron chains. The river becomes the land.

Able officers stay in camps, throwing spears from horses, shooting arrows, and wielding swords. They exercise martial arts by themselves.

만군중⁴⁸¹)이 요란할 제, 동산 월색⁴⁸²)은 여동백일⁴⁸³)이요,
 장강⁴⁸⁴) 일대⁴⁸⁵)는 여형소련⁴⁸⁶)이라.
 조그마한 병교,⁴⁸⁷) 호기⁴⁸⁸) 취중에 자아내어 제장다려⁴⁸⁹) 하는 말이,
 “남병산색⁴⁹⁰)은 영롱하여 그림 병⁴⁹¹)을 들렀는데,
 동을 가리켜 시상경⁴⁹²)이요, 서를 보니 하구경⁴⁹³)이요,
 남을 보니 번성⁴⁹⁴)이요, 북을 보니 오림⁴⁹⁵)이로구나.
 사면이 광활⁴⁹⁶)하니 이 아니 좋을쏜가?
 내 나이 오십삼 세라, 여득강남이면⁴⁹⁷) 동작대⁴⁹⁸) 높이 짓고
 이교녀⁴⁹⁹)를 가취하여⁵⁰⁰) 노년향락⁵⁰¹)이 내 원에⁵⁰²) 족할지라.⁵⁰³)
 어와, 제장,⁵⁰⁴) 영⁵⁰⁵) 들어라! 명일⁵⁰⁶) 대전 시살⁵⁰⁷)할 제,
 승부를 결단하여 대공⁵⁰⁸)을 이룬 자는 천금중상⁵⁰⁹)의 만호후⁵¹⁰)를
 봉하리라.”

13. (군사들 노는 모양) 병졸들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제각기 논다.

[아니레] 이렇듯 영을 하니, 수만 군병들이 술 밥 고기 싹껏 먹고 각심
 소원으로⁵¹¹) 노는데,
 [중모래] 노래 불러 춤추는 놈, 설움 겨워 곡⁵¹²)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밥 먹는 놈, 떡 먹는 놈, 술 먹는 놈,
 고기 먹는 놈,
 잔뜩 먹고 토하는 놈, 투전⁵¹³)하다 다투는데, “나는 지면 돈 꼭꼭 내
 는데,

The whole military is noisy. The moon over the east mountain is as bright as the sun.

The Yangzi(揚子) River looks as if the white silk cloth is unfold. Drunk, a small officer, Cao Cao(曹操), plays the hero. He says to his officers,

“Nanping(南屏) Mountain is of a bright color, looking as though it were covered by a folding screen.

In the east is the boundary of Chaisang(柴桑) Castle, in the west the border of Xiakou(夏口) Castle,

in the south Fan(樊) Castle, and in the north Wulin(烏林) Forest. Isn't the vast open field in every direction great?

I am now fifty three. If I get Jiang Nan(江南), I will build high Tongque(銅雀) Tower.

I will obtain two Qiao(喬) sisters and live a happy old life. Officers and soldiers! Listen to my order! You will fight hard tomorrow in a battlefield.

Anybody accomplishing a great feat will be awarded a lot of money and will be appointed as a feudal lord.”

13. (The Soldiers Have Fun.) The soldiers have fun, after helping themselves to wine and meat.

[Aniri] With the order, soldiers help themselves to wine, rice, and meat, enjoying themselves in their own manner.

[Jungmori] Some sing and dance. Some cry, overtaken with sorrow.

Some laugh while chatting. Some eat rice, some rice cake, some wine, and some meat.

Some throw up after eating a lot. Some have quarrels while gambling. “Whenever I lose, I give money.

너는 지면 무슨 턱으로⁵¹⁴⁾ 돈 아니 주느냐? 네가 군중의 일등장⁵¹⁵⁾ 이냐?”

작수막수⁵¹⁶⁾ 다투는 놈, 어우! 시름 잡고 앉지는⁵¹⁷⁾ 놈, 팔씨름하다 다리씨름 하는 놈,

“웃이야!” “삿이야!”⁵¹⁸⁾ “모, 걸로 방쳐라!”⁵¹⁹⁾

“이 자식, 말 속이지 마라. 삼대 빌어먹는단다.”

잠에 지쳐 서서 자며 조식조식⁵²⁰⁾ 조는 놈,

한편을 바라보니 고향 생각 우는 군사, 부모 생각 우는 군사, 처자 그려⁵²¹⁾ 우는 군사,

처처이⁵²²⁾ 싸인⁵²³⁾ 군사 병루즉장위불행이라.⁵²⁴⁾

14. (군사 설움 타령 1) 한 군사가 부모와 아내를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리] 어떠한 늙은 군사 하나, 병치⁵²⁵⁾ 벗어 드러메고⁵²⁶⁾ 그저 우 두머니⁵²⁷⁾ 서서 우는데,

[진양조] “고당상⁵²⁸⁾ 학발양친⁵²⁹⁾ 배별⁵³⁰⁾한 지가 몇 날이나 되던고? 부혜여 생아하시고, 모혜여 육아하시니,⁵³¹⁾

육보지덕택인댄 호천망극이로구나.⁵³²⁾

화목하던 절내권당,⁵³³⁾ 규중⁵³⁴⁾의 젊은 처자⁵³⁵⁾ 천리 전장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이 올거나, 내일이나 기별⁵³⁶⁾이 올거나 기다리고 바랄 적에,

서산에 해는 기울어진데 출문망⁵³⁷⁾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 날에 의려출망⁵³⁸⁾이 몇 날이나 되던고?

소중량장의 홍안거래⁵³⁹⁾ 편지를 뉘 전하며,

Why don't you give money when you lost? Are you the first warrior here?"

Some fight anyone, taking him as their enemy. Some throw others over their shoulders in a wrestling match. Some do arm do wrestling and leg wrestling.

"The best outcome!" "The second best outcome!" "Take a shortcut!"

"Don't deceive others. Or your family will be beggars for three generations."

Some feel sleepy, and they doze off while standing up.

In a certain place, some soldiers weep while missing their hometowns, parents, wives, and children.

Soldiers are everywhere. A soldier's weeping is an ill omen.

14. (A Soldier's Sad Song 1) A soldier sighs, missing his parents and wife.

[Aniri] An old soldier carrying his fur hat on his back stands vacantly and cries.

[Jinyangjo] "Numerous days have passed since I left my old parents.

My father has begotten me, and my mother has reared me.

I want to return their favor, but it is limitless.

My family and relatives got along with each other. My young wife said goodbye to me leaving for the distant battleground.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about me.

How many times did she wait for me outside the house and the town at the sunset on the windy and rainy day?

Su Wu(蘇武) sent a letter to his country, using a wild goose.

But I can't send a letter to my wife.

상사곡⁵⁴⁰ 단장회⁵⁴¹)는 주야수심⁵⁴²)이 맺혔도다.

방패 창을 드러메고 육전⁵⁴³) 수전⁵⁴⁴)을 섞어 할 적, 생사가 조석이로
구나.⁵⁴⁵)

만일 객사⁵⁴⁶)를 하거드면,⁵⁴⁷) 뉘라 내 몸 업토⁵⁴⁸)를 하며,
골폭사장⁵⁴⁹)에 흠어져 오연⁵⁵⁰)의 밥이 된들 뉘라 손뺌을 두드리며,
후여 처⁵⁵¹) 날려 줄 이가 뉘 있더라 말이나.”

북천⁵⁵²)을 바라보며, “어느 때나 고향을 갈거나. 일일사친십이시⁵⁵³)
로구나.”

15. (군사 설움 타령 2) 또 한 군사가 집에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한 군사 썩 나서며, “부모 생각 네 설움은 충효지심 거룩하
다.⁵⁵⁴) 그러나 또 한 설움 들어보아라.”

[중중모레] “이 내 설움을 들어라. 이 내 설움 들어라.

나는 오대독신⁵⁵⁵)으로 열여섯 살 장가들어,
사십이 장근토록⁵⁵⁶) 슬하⁵⁵⁷) 일점혈육⁵⁵⁸) 없어 매일 부부 한탄할 제,
아따,⁵⁵⁹)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⁵⁶⁰)을 다 드릴 제,
명산⁵⁶¹) 대찰,⁵⁶²) 영신당⁵⁶³)과 고묘,⁵⁶⁴) 총사,⁵⁶⁵) 석왕사⁵⁶⁶)며, 석
불,⁵⁶⁷) 미륵⁵⁶⁸) 서 계신 데 허유허유⁵⁶⁹) 다니시며,
가사시주,⁵⁷⁰) 인등시주,⁵⁷¹) 열왕불공,⁵⁷²) 칠성불공,⁵⁷³) 나한불공,⁵⁷⁴)
백일산제⁵⁷⁵) 가지가지 다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 남기⁵⁷⁶)
가 꺾어지랴!

아따, 우리 집 마누라가 십삭⁵⁷⁷) 태교⁵⁷⁸) 베풀할 제,⁵⁷⁹)
석부정부좌⁵⁸⁰)하고, 할부정불식⁵⁸¹)하고,

I miss my family day and night so much that my intestines might disintegrate.

I carry a spear and a shield. I fight on land and water, and I could die at any time.

If I die away from home, who will bury me?

If my bones are scattered on the sand and become food for crows and eagles, who will chase the birds away by clapping his hands?"

The soldier looks at the north sky. "When can I go back home? I miss my parents all day long."

15. (A Soldier's Sad Song 2) A soldier grieves, while missing his child at home.

[Aniri] Another soldier steps forward. "You are a good son to miss your parents, but listen to my sorrow."

[Jungjungmori] "Listen to my grief and sorrow.

I am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 got married at sixteen. Approaching forty but not having a child, my wife and I sighed everyday.

Gee, my wife made every effort to have a baby.

She prayed to famous mountains, Buddhist temples, Buddhist shrines, Buddhist statues, and the statues of Buddhist Saints.

She paid for building a house and for the candles in temples. She prayed to the god of death, the Great Bear, and a Buddhist saint. She held a ritual on a mountain for a hundred days. Her conscientious efforts finally paid off.

While my wife was pregnant for ten months, she behaved as follows:

She did not sit on a seat, if it were not straight. She did not eat food, if it were not cut straight.

이불청음성,⁵⁸²⁾ 목불시악색⁵⁸³⁾하여,
 지음 지어⁵⁸⁴⁾ 정견정면,⁵⁸⁵⁾ 하월미월⁵⁸⁶⁾하여 순산⁵⁸⁷⁾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도 반가울 제, 깨묵불알⁵⁸⁸⁾에 고추자지⁵⁸⁹⁾가 대랑대랑 달려,
 열 손에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연 없고,
 오줌 똥 가려가며 오륙삭⁵⁹⁰⁾이 넘어가니, 장판방⁵⁹¹⁾에 살이 올라 얼
 굴은 관옥⁵⁹²⁾이요,
 풍채⁵⁹³⁾는 두목지⁵⁹⁴⁾라. 터덕터덕⁵⁹⁵⁾이 노는 양,⁵⁹⁶⁾
 빵긋 웃는 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⁵⁹⁷⁾ 쥐얌,⁵⁹⁸⁾ 잘깡⁵⁹⁹⁾ 내 아들,
 아범 수염 검쳐 잡고⁶⁰⁰⁾ 안기어서 틀불기⁶⁰¹⁾와
 웃고름에 큰 돈 끌러 감 사 껌질을 벗겨 손에 쥐어 빨리며,
 주야 사랑 애중⁶⁰²⁾할 제 자식밖에 또 있는가? 한참 이리 사랑할 제,
 뜻밖에 급한 난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천아
 성⁶⁰³⁾ 부르는 소리, 아니 갈 수 없더구나.
 사당문⁶⁰⁴⁾ 열어 놓고 통곡재배⁶⁰⁵⁾ 하직할 제,
 간간한⁶⁰⁶⁾ 어린 자식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유정한⁶⁰⁷⁾ 가숙⁶⁰⁸⁾ 얼굴 한 데⁶⁰⁹⁾ 대고 눈물지며,
 ‘아이고, 마누라. 나는 전장을 가거니와, 마누라는 이걸 길러 나의 후
 사⁶¹⁰⁾를 전케 하오.’
 생이별⁶¹¹⁾ 하직하고 전장에 나왔으나,
 어느 때나 고향에 돌아가 그림던 아해⁶¹²⁾ 품에 안고 ‘아가, 응아.’ 열
 러볼거나?⁶¹³⁾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설운지고.”

She did not hear indecent words. She did not see bad colors.
She wrote a dictum and put it in front of her. She waited for
the birthday and gave an easy birth.

Even a daughter would have been good. His brown balls and
pepper-like penis hung down, moving back and forth.

I always held him with my hands, so he never lay down on
the ground.

He was potty-trained. After five or six months, he became plump
and handsome.

His appearance was imposing. He managed to play alone.

He smiled and said 'mommy' and 'Daddy.' He shook his head,
folded and unfolded his fingers. I dandled my son.

Grabbing my beard while in my arms, he let air out through
between his lips and made sounds.

I took money out, bought a persimmon, peeled it, and let him
hold it and suck it.

For me, only my child was a precious thing. I loved my son
as said above.

The sudden trumpet sound 'A war broke 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came in my
ear, so I couldn't help but leave my house.

I bowed twice to the family shrine and bid farewell to my
ancestors.

I put my cute little child on my knees.

My affectionate wife and I rubbed each other's faces in tears.
'Honey, I am going to the battlefield. Please rear this child well
and have him continue my family line.'

I came to this battlefield after a hard parting with my family.
When will I go back home, hug my lovely child in my arms,
and dandle him? Alas! Woe is me!"

16. (군사 설움 타령 3) 또 한 군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또 한 군사 나서면서, “네 설움 들어 보니 별 설움 아니다. 너는 죽더라도 자식이 있으니, 후사는 잘 전하겠구나. 또한 내 설움 들어보아라.”

[중모레] “이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일가친척 바이없고,⁶¹⁴ 사고무친⁶¹⁵ 이 내 몸이

이성지합⁶¹⁶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얌전하고, 봉제사,⁶¹⁷ 접빈객⁶¹⁸과 치산⁶¹⁹ 범절,⁶²⁰ 가장⁶²¹ 공경 세상에 짝이 없어 주야 사랑 애중⁶²²할 제,

뜻밖에 급한 난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천아성⁶²³ 부르는 소리, 족불리지⁶²⁴ 나를 끌어내니 아니 갈 수 없더구나.

군복 입고, 전립⁶²⁵ 쓰고, 창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마누라 거동 보소.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었디지며,⁶²⁶ ‘아이고, 가군.⁶²⁷ 이 지경이 웬일이요?’

이팔청춘⁶²⁸ 젊은 것을 나 혼자만 여기다 두고 전장을 가려시오?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 제,⁶²⁹ ‘어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 전장 출신⁶³⁰이 아니면은 장부 절개가 아니라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소.’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더구나.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⁶³¹ 내던지고 전장에 나왔으나, 일부일전쟁⁶³²은 불식⁶³³이라.

16. (A Soldier's Sad Song 3) Another soldier sighs,
while missing his wife.

[Aniri] Another soldier moves forward. "It appears to me your sorrow is trivial.

You can carry on your family line even if you die on this battleground. Listen to my sorrow."

[Jungmori] "Listen to my sorrow. Having no relative, I had nobody to turn to.

I married a beautiful and virtuous woman.

She held rituals for my ancestors attentively, served guests heartily, managed her home well, had all the good manners, and respected her husband very well, holding him dearly.

All of a sudden, a war broke 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The trumpet sound left me no choice but to come to this battlefield.

I put on a military uniform and a fur hat. As I was leaving, I was carrying a spear and my wife acted as follows:

She ran to me with only socks on her feet. She hugged me and kneeled down.

'Honey, I can't believe this.

I am young. How can you go to the battlefield, leaving me here?'

I appeased my wife. 'Honey, don't cry.

If a man doesn't go to war after he was born, he is not a true man.

Please don't weep.' She didn't calm down, even if I appeased her and expressed anger at her.

I shook her hand off and came to this battleground. This war continues day after day.

망망창해⁽⁶³⁴⁾ 가⁽⁶³⁵⁾ 없는 곳, 동서남북으로 수직⁽⁶³⁶⁾을 하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싸인 내가 고기로구나.
 고향을 바라보니 구름만 답답⁽⁶³⁷⁾하고, 아득 정신 기막히네.
 언제나 내가 고향을 가서 그림던 아내 손길⁽⁶³⁸⁾ 잡고 만단정회⁽⁶³⁹⁾를
 언제 풀어 볼꼬? 어어어어어어.”
 봇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우는구나.

17. (군사 설움 타령 4) 또 한 군사가 첫날밤에 전장에 잡혀 온 사연을 말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울 제 또 한 군사 내달으며,
 “이애, 네 설움 들어 보니 나와 똑같은 연처지정⁽⁶⁴⁰⁾이다마는,
 네 설움 들여놓고 내 설움 좀 들어 보아라.
 내 설움은 언문 잔주⁽⁶⁴¹⁾에도 없고, 예기⁽⁶⁴²⁾ 춘추⁽⁶⁴³⁾에도 없고,
 군중⁽⁶⁴⁴⁾에도 없는 별별⁽⁶⁴⁵⁾ 설움이다.”
 “그 설움 대단하다. 어디,⁽⁶⁴⁶⁾ 하여라. 들어보자.”
 [중중모레] “여봐라, 군사들아. 이 내 설움을 들어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부모님의 덕택으로 열일곱 장가들어, 스물다
 섯 상처⁽⁶⁴⁷⁾하고,
 서른다섯 간신히 구혼⁽⁶⁴⁸⁾하여 사주단지⁽⁶⁴⁹⁾ 보낸 후,
 택일⁽⁶⁵⁰⁾ 기별⁽⁶⁵¹⁾이 왔더구나. 일습기재⁽⁶⁵²⁾ 차릴 적에
 장풍헌네⁽⁶⁵³⁾ 비루먹은⁽⁶⁵⁴⁾ 말과 이좌수대⁽⁶⁵⁵⁾ 좁안장,⁽⁶⁵⁶⁾
 박도령 쌍언청이,⁽⁶⁵⁷⁾ 공도령 안판낙포⁽⁶⁵⁸⁾ 두 쌍으로 중시⁽⁶⁵⁹⁾ 세우고,

The blue sea is vast and without limit. We are watched from four directions.

We are like a tiger in a pit and a fish in a net.

My gaze in the direction of my home only meets clouds. I am confused and stunned.

When can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wife's hands, and talk with her as much as I like? Alas!"

He cries as if a dam were burst.

17. (A Soldier's Sad Song 4) Another soldier moans, telling how he was forced to come to the battleground on his wedding night.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jumps forward.

"Hey, I got your sorrow. Your sorrow and mine are both about wives.

But put your sorrow aside and listen to mine.

My grief is not specified in a Confucius book.

Nor is my special sorrow felt by people."

"Your grief must be special. Tell us about it."

[Jungjungmori] "Hey soldiers. Listen to my sad story.

Thanks to my parents, I got married at seventeen and lost my wife at twenty five.

I managed to propose to a girl at thirty five, sending a letter to her house.

She responded with the wedding date. Many things were prepared.

I got on a sick horse with no hair. The saddle was moth-eaten. Mr. Bak was double hare-lip. Mr. Gong was a hunchback. They escorted me.

정동장⁽⁶⁶⁰⁾ 함진애비,⁽⁶⁶¹⁾ 집안 중 외눈통이,⁽⁶⁶²⁾
 전동다리⁽⁶⁶³⁾ 피수아비,⁽⁶⁶⁴⁾ 외삼촌 상객⁽⁶⁶⁵⁾으로 꺼명⁽⁶⁶⁶⁾ 암소 안장
 지어 투덕투덕⁽⁶⁶⁷⁾ 건너갈 제,
 사모품대⁽⁶⁶⁸⁾ 능라호사⁽⁶⁶⁹⁾ 호기 있게 건너가,
 초레청⁽⁶⁷⁰⁾에 전안⁽⁶⁷¹⁾하고, 대레청⁽⁶⁷²⁾ 대레하고,
 신부방으로 들어가 차담⁽⁶⁷³⁾을 든든히 먹은 후에, 일락함지⁽⁶⁷⁴⁾ 해가
 지니
 저녁밥 갓은 반상⁽⁶⁷⁵⁾ 싫도록 먹은 후에, 담배 한 대를 얼른 피고 가만
 히 앉았으니,
 어따, 우리집 마누라가 들오는데, 옆눈지어⁽⁶⁷⁶⁾ 살펴보니
 명조⁽⁶⁷⁷⁾가 똥똥 뜨고 영풍⁽⁶⁷⁸⁾이 깃들었다.
 상하 한 벌을 훑어보니, 머리 위에 화관⁽⁶⁷⁹⁾이요, 몸에는 원삼⁽⁶⁸⁰⁾이라.
 외삼촌댁 처남의 댁⁽⁶⁸¹⁾이 신부를 옹위⁽⁶⁸²⁾하여 옆 밀거니, 등 밀거니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방으로 들어와,
 병풍 뒤에 앉혀놓고 내⁽⁶⁸³⁾ 나가듯 다 나가고
 신부 혼자 앉았기에, 곰곰 앉아 생각하니,
 옛 노인 하신 말씀 첫날밤 신랑이 신부 손길을 먼저 잡으면은 공방
 수⁽⁶⁸⁴⁾가 든다기로,
 놀래잖게 뒤로 가만히 돌아가 신부 허리를 년짓⁽⁶⁸⁵⁾ 안고,
 화관 원삼 훨훨 벗겨 병풍에 걸어 놓고,
 나도 훨훨 벗은 후에 에후리쳐⁽⁶⁸⁶⁾ 보듬어 안고 정담⁽⁶⁸⁷⁾을 하랴 할 제,
 뜻밖에 웨는⁽⁶⁸⁸⁾ 소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나오
 너라!’ 부르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Mr. Jeong carried a present box. A one-eyed servant was from a good family.

A lame man, a clever man, my uncle, and a cow with a black saddle came to the wedding hall.

I went proudly to my bride's house, wearing a hat, a belt, and silk clothes for the wedding.

She and I bowed to each other and drank in the wedding hall. After I entered her room and had a snack, the sun set in the west.

I helped myself to a great dinner. I smoked quickly and sat quietly.

My bride entered the room. I took a side glance at her.

Her face was bright and brilliant.

I took a look at her entire costume. She wore a gorgeous wedding hat and ceremonial attire.

Her brothers' wives escorted her on the left and right and pushed her to me.

'let's go quickly.' They got into the room.

They placed her behind a folding screen and left quietly.

The bride sat there alone. I pondered for a moment.

An old saying holds that if you touch your bride's hands at the wedding night, she will be fated to be a widow.

I approached her from behind her slowly for fear of scaring her and hugged her softly around her waist.

I took off her wedding hat and attire and hung them on the folding screen.

I took off my clothes too, hugged her with my arms, and tried to have an affectionate talk.

All of sudden, the sh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the Chibi(赤壁) River! Come out!' shook mountains and rivers.

저기 있는 저 군사가 우루루루 달려들어,
 군복을 입히거니, 전립⁽⁶⁸⁹⁾을 씌우거니, 등 밀거니, 옆 밀거니 달미⁽⁶⁹⁰⁾
 치고 나올 적에,
 어따, 우리 마누라가 첫날밤 무슨 정이 그다지 많이 들었는지,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의 손목 부여잡고,
 ‘아이고, 가군.’⁽⁶⁹¹⁾ 나는, 나는 어찌라고 이 지경이 웬일이요? 떨치고
 나왔으나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그림던 아내 손길을 잡고 만단정회⁽⁶⁹²⁾를
 풀어 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설운지고.”

18. (군사 호기) 한 군사가 나서서 우는 군사를 탓하며, 큰 공을 이루어 돌아가자고 호기를 부린다.

[아니레] 여러 군사 나왔으며,
 “네 설움 들어 보니, 위부모보처자⁽⁶⁹³⁾라 하였는데 부모 생각 아니하
 고, 처만 생각하니 음남⁽⁶⁹⁴⁾의 아들놈이로고.”
 이 놈 눈 흘기며⁽⁶⁹⁵⁾ 장막 밖으로 나가면서 “저희놈들은 정남 정녀⁽⁶⁹⁶⁾
 의 덧붙이기⁽⁶⁹⁷⁾ 아들놈인가?”
 또 한 군사 나오는데, 키는 작달막하고, 수염은 우무가사리⁽⁶⁹⁸⁾같고,
 코는 무덤같이 생긴 놈이 조그마한 착도⁽⁶⁹⁹⁾ 하나를 들고 외치고 나오
 는데, 호걸제⁽⁷⁰⁰⁾였다.
 [중중모리] “너희 울 제 줌놈⁽⁷⁰¹⁾이라. 너희 울 제 줌놈이라.
 위국지는 불고가라⁽⁷⁰²⁾ 옛글에도 있거니와,
 남아하필연처자리오?⁽⁷⁰³⁾ 막향강촌노장년하소.⁽⁷⁰⁴⁾

A soldier standing there ran at me.
He put a military uniform and a fur hat on me, pushed my back
and waist, and grabbed my neck, as we came out.
My wife must have fallen in love with me at the first night.
She ran to me and grabbed my hands.
'Honey, I can't believe this. What will become of me?' I shook
her hands off and came here.
When can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wife's hands, and
talk with her as much as I can? Alas. Woe is me."

**18. (A Soldier Plays the Hero.) A soldier rebukes
sobbing soldiers. He acts like a hero, proposing
to go back home after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Aniri] Several soldiers jump in.

"After listening to your sorrow, I can tell that you are a lustful
man. After all, you miss not your parents but your wife."

He stares at him as he gets out of the tent. "Are you the sons
of pure fathers and faithful mothers?"

Another soldier comes forward. He is small and has a long sharp
beard.

His nose looks like a tomb. He carries a small commanding
sword and shouts in a loud voice as he comes out.

[Jungjungmori] "If you cry, you are brats.

There is a saying that a patriot cannot take care of his family.
How can you miss your wives and children? All of you, forget
about your homes.

우리 몸이 군사 되어 전장에 나왔다가,
 공명⁷⁰⁵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⁷⁰⁶ 돌아가면 부끄럽지 아니하뇨?⁷⁰⁷
 요 내 심중⁷⁰⁸ 평생 소원, 요하⁷⁰⁹ 삼척⁷¹⁰ 드는 칼로 오한⁷¹¹ 양
 진⁷¹² 장수 머리를 쟁그렁청 베어 들고 본국⁷¹³으로 돌아가면,
 부모형제 처자권술⁷¹⁴ 원근친척⁷¹⁵ 반겨 나와,
 ‘반갑구나, 반가워. 천 리 전장 갔던 낭군 살아오니 반가워.’
 서로 서로 반길 적에 그 아니 좋더란 말이나?
 우지 말라면 우지 마. 우지 말라, 우지를 마라. 군사들아, 우지 마라.”

19. (싸움타령) 한 군사가 나서며 싸움타령을 한다.

[아니레] 여러 군사들이 이 말 듣더니, “독불장군⁷¹⁶이로구나. 너 혼자
 충신이라. 네 진정 그럴진대 항도령⁷¹⁷이라 불러 주마.”

또 한 군사가 내달으며, “우리가 전장에 나왔으니 싸움타령이나 좀
 모두 들어보소.”

싸움타령을 하는데,

[중모레] “습용간과⁷¹⁸ 현원씨⁷¹⁹ 여염제로⁷²⁰ 판천싸움,⁷²¹

능작대무 치우작관⁷²² 사로잡힌 탁록싸움,⁷²³

주나라 쇠한 천지⁷²⁴ 분분하다 춘추싸움,⁷²⁵

위북진황⁷²⁶ 늙은 후의 투식산동⁷²⁷ 육국싸움,⁷²⁸

봉기제장⁷²⁹ 요란하다 팔년풍진⁷³⁰ 초한싸움,⁷³¹

We became soldiers and were taken to this battleground.
Wouldn't it be a disgrace to go back home without a meritorious deed?

It is my long time wish to go back home after cutting off the heads of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with one move of my long sword.

Parents, brothers, sisters, wife, children, and relatives will welcome us.

'I am happy. I am pleased to see my husband coming back alive from a distant battlefield.'

Wouldn't it be great to welcome each other?

Soldiers, don't weep. Don't sob, soldiers."

19. (War Song) A soldier steps forward and sings a war song.

[Aniri] Several soldiers respond, "You are a maverick and a loyal subject alone. If you act like that, we will call you Xiang Yu(項羽)." Another soldier comes forward. "We are on a battlefield. Listen to my war song."

He sings a war song.

[Jungmori] "In the Banquan(阪泉) War, Xuan Yuan Shi(軒轅氏) who invented the spear and the shield fought against Yan Di(炎帝). In the Zhuolu(涿鹿) War, Chi Wang(蚩尤) who could create fog was captured alive.

After the Zhou(周) Dynasty became weak, there were a lot of wars amongst ancient countries during the Chunqiu(春秋) era. After powerful and wealthy Qin Shi Huang(秦始皇) became old, six countries fought each other in the Shandong(山東) area. Many generals fought fiercely in the war between Chu(楚) Country and Han(漢) Country for eight years.

태공⁷³²) 여후⁷³³) 잡히겠다 서북대풍 수수싸움,⁷³⁴
 마상천하⁷³⁵) 하였구나 한 유방⁷³⁶)의 지혜싸움,
 칠십여후⁷³⁷)들 혼이 없다 항도령⁷³⁸)의 우벽싸움,⁷³⁹)
 통일천하 언제 할꼬? 위·한·오의 삼국싸움,
 동남풍이 훨훨 불며 위태롭다 적벽싸움,⁷⁴⁰)
 공성신퇴⁷⁴¹) 가고지고.”
 “예, 아서라, 싸움타령, 가슴 끔적 기막한다.”

20. (늙은 군사 탄식) 늙은 군사가 나서며 내일 싸움에서는 승부와 관계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며 걱정한다.

[아니래] 또 한 군사가 나서며,
 “어따, 이 사람들아. 동방이 회번⁷⁴²)하니
 제 세상인 줄 알고 거덜거리지⁷⁴³) 말어라.
 마두각⁷⁴⁴)하는 줄 너 어이 알며, 오두백⁷⁴⁵)하는 줄 너 어이 아느냐?”
 늙은 군사 이 말 듣고 탄식하여 하는 말이,
 [중모래] “옳더니라, 옳더니라.
 너희들 아직 술잔⁷⁴⁶)이나 먹고 재담,⁷⁴⁷) 괴담,⁷⁴⁸) 장담,⁷⁴⁹) 취담⁷⁵⁰)
 하거니와,
 명일 대전 시살⁷⁵¹)할 제 승부를 뉘 알쏘냐?
 유능제강이요 약능제성이라⁷⁵²) 병가⁷⁵³)의 징험이요,⁷⁵⁴)

Liu Bang's(劉邦) parents and wife were taken as hostages in a war during which a northwest wind blew hard in favor of Liu Bang(劉邦).

Liu Bang(劉邦) waged war wisely and obtained ancient China. Seventy feudal lords were confused in Xiang Yu's(項羽) war. When will China be unified? Wei(魏), Han(漢), and Wu(吳) Countries are fighting each other.

Some are in danger in the Chibi (赤壁) War where a southwest wind blows.

I wish to accomplish a feat and go back home.”

“Hey, stop the war song. I feel suffocated.”

20. (An Old Soldier Sighs.) An old soldier worries that they will die in the war tomorrow whether they win or lose.

[Aniri] Another soldier steps forward.

“Hey folks! The sun is about to rise in the east.

This is a cold world. Don't be arrogant.

You will never see a horn grows on a horse and a crow's head become white.”

Hearing this, an old soldier sighs and speaks.

[Jungmori] “Yes, that's right.

Drunk, you are telling witty stories, strange stories, confident stories, and drunken stories.

We will kill enemies mercilessly in the war tomorrow, but who will win?

A military expert knows from his experience that a soft thing might defeat a hard thing, and that a weak thing might beat a strong thing.

홍망성쇠 재덕이라.⁷⁵⁵⁾

이번 싸움의 승부간에 익사,⁷⁵⁶⁾ 횡사,⁷⁵⁷⁾ 겁사,⁷⁵⁸⁾ 몰사,⁷⁵⁹⁾ 화사,⁷⁶⁰⁾ 멸사⁷⁶¹⁾를 할 적에 너희놈들 건디어 보이라.”

21. (오작남비)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니 조조가 취흥에 겨워 시를 읊는데, 장수 유복이 불길한 징조라 말하였다가 죽임을 당한다.

[아니레] 여러 군사 이 말 듣고 회심⁷⁶²⁾ 걱정하올 적에,

[진양조] 뗏다, 보이라, 저 까마귀.

월명심야⁷⁶³⁾에 남천을 무릅쓰고⁷⁶⁴⁾ 공중에 높이 떠서, ‘까옥 까르르르’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물어 왈, “저 까마귀 여하명고?”⁷⁶⁵⁾

[아니레] 좌우 답왈,⁷⁶⁶⁾ “견명월의시천효⁷⁶⁷⁾하여 남천⁷⁶⁸⁾에 떠 우나이다.”

조조 취흥이 도도하여⁷⁶⁹⁾ 글 지어 읊었으되,

“월명성희 오작이 남비하니,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로다.⁷⁷⁰⁾

저 까마귀 우리 진중 바라보고 울고 가니 어떻게 이르리오?”

제장⁷⁷¹⁾ 중 유복⁷⁷²⁾이 여짜오되, “월명성희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란 곡조는 임전시⁷⁷³⁾ 불길지조⁷⁷⁴⁾로소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요설⁷⁷⁵⁾이라 집탈⁷⁷⁶⁾하고 취중에⁷⁷⁷⁾ 살해하니, 근들⁷⁷⁸⁾ 아니 불쌍하랴!

We will rise or fall, depending on whether we are virtuous or not.

Whether we win or lose this war, we will be drowned, will die of a disaster, die of fear, will all die together, will die of fire, and will all perish completely. Suffer from death.”

21. (A Crow and A Magpie Fly in the South Sky) A crow flies, crying. Liu Fu(劉馥), a general, gets murdered by Cao Cao(曹操) after saying that a crow is an ominous sign.

[Aniri] Many soldiers are persuaded and worried.

[Jinyangjo] Lo, behold that crow!

When the moon is bright in the deep night, a crow cries high to the south sky and flies away.

Cao Cao(曹操) asks, “What made that crow cry?”

[Aniri] They answer, “It cries and flies to the south sky because the moon is bright, and it is thinking the daybreak has come.”

Cao Cao(曹操) writes and recites a poem, ela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Crows and magpies fly to the south whil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sparse.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That crow is looking at this camp and flies away while crying. What does that show us?”

Liu Fu(劉馥), a general, responds, “The bright moon, sparse stars, and crows and magpies flying to the south.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which is an ominous sign ahead of a battle.”

Infuriated, Cao Cao(曹操) murders Liu Fu(劉馥) while drunk for speaking the wicked words. How pathetic he is!

22. (조조 장수 분발) 조조가 싸울 준비를 하는데, 주유는 조조의 진중을 살펴보고 동남풍이 불지 않음을 한탄한다.

[자진모래] 차일⁷⁷⁹의 수군도독⁷⁸⁰ 모개,⁷⁸¹ 우금,⁷⁸²
연쇄전선 필쇄하고,⁷⁸³ 즉일⁷⁸⁴ 진병⁷⁸⁵ 재촉할 제,
조조 누선⁷⁸⁶에 높이 앉아 수륙제장⁷⁸⁷ 오색기호⁷⁸⁸로 분발⁷⁸⁹할 새,
수진⁷⁹⁰의 중협총⁷⁹¹ 모개, 우금이요,
전협총⁷⁹² 장합⁷⁹³이며, 좌협총⁷⁹⁴ 문빙⁷⁹⁵이요,
우협총⁷⁹⁶ 여통⁷⁹⁷이며, 후협총⁷⁹⁸ 여건⁷⁹⁹이요,
수진⁸⁰⁰ 전사파⁸⁰¹ 서황⁸⁰²이며, 좌사파⁸⁰³ 악진⁸⁰⁴이요,
우사파⁸⁰⁵ 하후연⁸⁰⁶이며, 후사파⁸⁰⁷ 이전⁸⁰⁸이요,
수륙응접사⁸⁰⁹ 하후돈,⁸¹⁰ 조인⁸¹¹이며,
호위사⁸¹² 허저,⁸¹³ 장요⁸¹⁴라.
수진에 발방왈,⁸¹⁵ ‘관기정착 이청금고 목시정기
가선여마 건적쟁선 동주공명소,
도적중양 군기관초 고동기거야.’⁸¹⁶
육진⁸¹⁷에 분부하되, ‘유유소설하며,
가위소시하며, 시여천여라.’⁸¹⁸

22. (Cao Cao's(曹操) Officers Move.) Cao Cao(曹操) prepares for a battle, Zhu Yu(朱瑜) laments over the absence of southeast wind, while gazing at Cao Cao's(曹操) camp.

[Jajinmori] On that day,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charge of Cao Cao's(曹操) navy.

They tied the warships together, ready to move the troops. Cao Cao(曹操) is high on an observation ship, sending signals with a five-colored flag to his army and navy officer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the middle of the navy formation,

Zhang He(張郃) in the front, Wen Pin(文聘) on the left, Lu Tong(呂通) on the right, and Lu Qian(呂虔) at the back, Xu Huang(徐晃) in the front of the troops, Le Jin(樂進) on the left,

Xia Jiao Yuan(夏侯淵) on the right, and Li Dian(李典) at the back.

Xia Jiao Dun(夏侯惇) and Cao Ren(曹仁) are communications officers.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protect Cao Cao(曹操).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Follow the orders indicated by flags. Listen to gongs with ears and see flags with eyes.

Ride a ship as if you rode a horse. If you see enemies, fight and move forward. Live or die together with your ship.

If the enemies reach the middle, wave flags to send a message, hit gongs and raise flags.'

He issues an order to the camps on the land. 'take your time and prepares for a war calmly little by little.

Gi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lenient to enemies. Take a hard look at enemies like at the sky.

가증여탈되며 적불급거이 각대정제하여

불허참전 월후하라.’⁸¹⁹⁾

각웅성필⁸²⁰⁾에 전선⁸²¹⁾ 풍범⁸²²⁾으로 연선⁸²³⁾ 평지같이 왕래하니,
조조 장대상⁸²⁴⁾에 높이 앉아 연습을 관망⁸²⁵⁾하고 심중에 대희하
여⁸²⁶⁾

방사원⁸²⁷⁾의 연환 계책⁸²⁸⁾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⁸²⁹⁾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을진대⁸³⁰⁾ 어찌 피하오리까?”

조조 하하 웃고, “화공⁸³¹⁾은 바람을 빙자⁸³²⁾하나 동설⁸³³⁾ 서북풍에
동남풍이 있을쏘냐?

적진은 남진이요, 내 진은 북진이니,

만일 불로 칠 양이면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드시 승첩⁸³⁴⁾할
묘법”이라.⁸³⁵⁾

수륙군⁸³⁶⁾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 제,

이 때의 오나라 주유는 진세⁸³⁷⁾를 살펴보니,

광풍⁸³⁸⁾이 홀기⁸³⁹⁾하여 조채황기⁸⁴⁰⁾는 강중⁸⁴¹⁾에 떨어지고,

오진⁸⁴²⁾ 깃발은 주유 면상⁸⁴³⁾ 치고 가니 화공할 징조로되,

동남풍 없었으니 육파무계⁸⁴⁴⁾하여 한 소리 크게 웨고,⁸⁴⁵⁾ 토혈⁸⁴⁶⁾
기색⁸⁴⁷⁾ 가련토다.

주도독⁸⁴⁸⁾의 신병이 점점 질어 일지⁸⁴⁹⁾ 못한지라.

공명이 자청⁸⁵⁰⁾하고 주유 병을 볼 제, “양약⁸⁵¹⁾을 먹일지라.”⁸⁵²⁾

가만히 십륙 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육파조병인댄 의용화공이니,

If enemies do not chase you when you get out of the enemy camp, get your unit ready for a fight.

Don't get involved in the fight. Leave the enemies to the units behind you.

Soldiers take order, tie warships together, and walk on them like on the land.

Cao Cao(曹操) is delighted, sitting on the commanding post and watching his soldiers practice.

He boasts of Pang Shi Yuan's(龐士元) strategy of tying ships together.

Cheng Yu(程昱) asks, "How can fend off their fire attack?"

Cao Cao(曹操) laughs. "A fire attack depends on the direction of the wind. How can a southeast wind blow when a northwest wind blows?"

They are in the south, and we are in the north.

A fire attack will backfire on their camp, so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a victory without fail."

Cao Cao(曹操) prepares the navy and the army for a war.

Meanwhile, Zhu Yu(朱瑜) of Wu(吳) Country examines military camps.

Suddenly, a strong wind blows. A yellow flag falls down into the river.

A flag in Zhu Yu's(朱瑜) camp hits Zhu Yu's(朱瑜) face and flies away, which is a sign of a fire attack.

Without a southeast wind, he cannot defeat the enemy, so he shouts. He is about to throw up blood, which is pitiful.

His illness gets worse little by little, and he can't get up.

Kong Ming(孔明) voluntarily diagnoses Zhu Yu(朱瑜). "Give him cool medication."

Kong Ming(孔明) gives him a note of sixteen letters.

The note reads, 'Only a fire attack can demolish Cao Cao's(曹操) troops.

만사구비하되 지흠동남풍이라.⁸⁵³⁾ 하였거늘,
 주유 절절⁸⁵⁴⁾ 탄식 왈, “바람은 천지 조화⁸⁵⁵⁾오니 어찌 인력⁸⁵⁶⁾으로
 하오리까?”
 공명이 여짜오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⁸⁵⁷⁾
 나 할 일만 다 하오면, 천의⁸⁵⁸⁾야 어찌하오리까? 남병산⁸⁵⁹⁾ 한번 올라
 바람을 비오리다.”

23. (공명 동남풍 기원)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한다.

[아니리] 노숙과 상의하고 공명이 바람을 빌려 할 제,
 [중중모레] “오백 군졸 영솔⁸⁶⁰⁾하여, 오백 군졸 영솔하여,
 일백이십 정군인⁸⁶¹⁾은 기를 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⁸⁶²⁾하라.”
 노숙과 병마⁸⁶³⁾하여 남병산 올라가,
 남방의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⁸⁶⁴⁾하여 삼층단⁸⁶⁵⁾을 높이 쌓으니,
 방원⁸⁶⁶⁾ 이십사 장⁸⁶⁷⁾이요, 매 일층 고⁸⁶⁸⁾ 삼 척이니, 합고⁸⁶⁹⁾ 구
 척이라.
 하 일층⁸⁷⁰⁾ 이십팔수⁸⁷¹⁾ 각색 기를 꽂았다.
 동방 칠면⁸⁷²⁾ 청기⁸⁷³⁾에는 각향저방심미기,⁸⁷⁴⁾
 교룡학호토호표⁸⁷⁵⁾를 안검⁸⁷⁶⁾하여 청룡을 그려 곱고,
 북방 칠면 흑기⁸⁷⁷⁾에는 두우여허위실벽,⁸⁷⁸⁾

Everything is prepared except a southeast wind.'

Zhu Yu(朱瑜) sighs. "Heaven controls wind. How can a human do anything about it?"

Kong Ming(孔明) answers, "A human makes a plan, and heaven makes it work.

We just do our best and then wait for the will of heaven. I will climb Nanping(南屏) Mountain and pray for a wind."

23. (Kong Ming(孔明) Prays for a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climbs Nanping(南屏) Mountain,
makes an altar, and prays for a southeast wind.

[Aniri] After talking with Lu Su(鲁肃), he goes to pray for wind.

[Jungjungmori] "Lead five hundred soldiers! Lead five hundred soldiers!

One hundred twenty well-trained troops! Hold flags and wait for my order!"

He and Lu Su(鲁肃) ride horses side by side and climb Nanping(南屏) Mountain.

Kong Ming(孔明) makes the soldiers build a three-tier altar with red earth from the south.

The altar is 72 meters wide, and each story of the altar is 0.9 meters high. Its height is 2.7m.

There are 28 flags of diverse colors on the first tier.

Blue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east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east.

On the blue flags are the figures of a salamander, a dragon, a badger, a fox, a hare, a tiger, and a leopard.

Black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north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north.

해우복서연자유⁸⁷⁹)로다.
 작현무지세⁸⁸⁰)하고,
 서방 칠면 백기⁸⁸¹)에는 규루위묘필자삼⁸⁸²)
 구랑치계오후원⁸⁸³)으로 안검하여 거백호지위⁸⁸⁴)하고,
 남방 칠면 적기⁸⁸⁵)에는 정귀유성장익진⁸⁸⁶)
 안양장마녹사인⁸⁸⁷)으로 안검하여 성주작지상⁸⁸⁸)하고,
 제일 층 층위에는 황기⁸⁸⁹)를 세웠으되, 육십사면의 육십사괘⁸⁹⁰)를
 풀어 팔위⁸⁹¹)를 비립⁸⁹²)하고,
 상 일층 용사인⁸⁹³)하여 각인⁸⁹⁴)에 속발관⁸⁹⁵) 씌우고,
 흑포 봉의⁸⁹⁶) 박대⁸⁹⁷) 주리⁸⁹⁸) 방군⁸⁹⁹)을 입히고,
 전좌⁹⁰⁰)에 입일인하여⁹⁰¹) 수집장간하고,⁹⁰²)
 간첩상⁹⁰³) 용계우보하여 이초풍신하고,⁹⁰⁴)
 전후에 입일인하여 계칠성호대⁹⁰⁵)하여 이표풍세⁹⁰⁶)하고,
 후좌⁹⁰⁷) 일인은 봉보검⁹⁰⁸)하고,
 후우⁹⁰⁹) 일인은 봉향로⁹¹⁰)하여,
 단하⁹¹¹)에 이십사인⁹¹²)은 각각 정기⁹¹³) 보개⁹¹⁴) 하라.
 대극,⁹¹⁵) 장창,⁹¹⁶) 황모,⁹¹⁷) 백월,⁹¹⁸) 주변⁹¹⁹) 조독⁹²⁰)을 잡고 환요
 사면⁹²¹)하라!”
 차시에⁹²²) 공명이는 목욕재계⁹²³) 정히⁹²⁴) 하고,
 전조⁹²⁵) 단발⁹²⁶) 신영백모⁹²⁷)하여 단상에 이르러,
 분향⁹²⁸) 헌작⁹²⁹) 재배하고,⁹³⁰)

They stand for a mythical lion, a cow, a bat, a mouse, a swallow, a pig, and a wolf.

A beast symbolizes a shamanistic god.

White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west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west.

On the white flags are the figures of a dog, a wolf, a pheasant, a chicken, a crow, a monkey, and a gibbon.

Red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south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south.

On the red flags are the figures of a wild dog, a sheep, a deer, a horse, a snake, and an earthworm.

A yellow flag erected on the top floor unfolds 64 principles and represents eight directions.

On the top tier, four people tie their hair together and put on formal hats.

They wear large clothes of black silk, large belts, red shoes, and formal clothes.

On the front left, a man stands and holds up a long pole.

At the end of the pole is a chicken feather to produce a wind.

In the front and at the back, a man stands and holds up a flag of the Great Bear to indicate the power of the wind.

On the back left, a man stands and holds up a precious sword.

On the back right, a man stands and holds up an incense burner.

Twenty four soldiers below the altar block the sunshine with flags.

They carry large spears, large swords, yellow flags, white axes, red flags, and black flags, forming a circle around the altar.

Meanwhile Kong Ming (孔明) carefully takes a bath.

He cuts his fingernails and hair, decorates himself with white bands, and gets on the platform.

He burns incense, offers wine, and gives a bow twice.

양천독축⁹³¹)한 연후에 노숙다려 말씀하되,
 “자경⁹³²)은 군중에 내려가 조병⁹³³)함을 도우라.
 만일 내 비는 바 응함이⁹³⁴) 없어도 괴이함⁹³⁵)을 두지 말라.”
 약속을 한 연후에 수다⁹³⁶) 장졸⁹³⁷)을 불러 엄숙히 분부하되,
 “불허천리방위⁹³⁸)하고, 불허교두접이⁹³⁹)하며, 불허실구난언⁹⁴⁰)하며,
 불허대경소이⁹⁴¹)하되, 만일 위령자⁹⁴²)는 군법으로 참⁹⁴³)하리라!”

24. (공명 하산) 공명이 빌기를 마친 후 산을 내려와서 조자룡과 함께 떠나간다.

[아니리] 공명이 완보⁹⁴⁴)로 단에 올라 분향⁹⁴⁵) 헌작⁹⁴⁶)하고,
 단하에 꿇좌⁹⁴⁷)하여 조용히 양천암축⁹⁴⁸)하고,
 다시 일어나 이십사위⁹⁴⁹) 풍세⁹⁵⁰)를 살펴다가 상단 삼차 올라서
 니,⁹⁵¹)
 벌써 술해방⁹⁵²)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얻은지라.
 이 때에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것다.
 [진양조] 공명이 거동 보아라.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학창의⁹⁵³)를 거듬거듬 흥당⁹⁵⁴)에 걸어 안고,
 단에 내려 장막⁹⁵⁵) 뒤로 가만가만 남병산⁹⁵⁶) 내려갈 제,
 때마침 오경⁹⁵⁷)시라. 강촌⁹⁵⁸)은 요락⁹⁵⁹)한데,

He recites a written prayer toward the sky and speaks to Lu Su (魯肅).

“Please go down to the camp and help Zhu Yu (朱瑜) to train his soldiers.

Don’t be puzzled even if my prayer is not answered.”

After the promise, Kong Ming(孔明) issues a grave order to the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Don’t leave your post. Don’t whisper to each other. Don’t make frivolous remarks.

Don’t be surprised at a strange thing. Anybody disobeying this order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24. (Kong Ming(孔明) Climbs Down the Mountain.) **Kong Ming(孔明) climbs down the mountain after the prayer, and leaves with Zhao Zi Long(趙子龍).**

[Aniri] Kong Ming (孔明) climbs up the platform slowly, burns incense, and offers wine.

He kneels down below the altar, quietly looks up at the sky, and chants a spell.

He stands up again, observes 24 directions for an indication of a wind, and climbs up the altar three times.

A flag flutters in the direction of northwest. A wind is produced. He observes the four directions. It is quiet with officers and soldiers sleeping.

[Jinyangjo] Behold Kong Ming(孔明)!

He unties his hair and takes his shoes off. He carries his formal coat in front of his chest.

He steps down from the altar, goes around behind the tent, and slowly goes down Nanping(南屏)Mountain.

It is before dawn. A river village can be seen from a distance.

셋별⁹⁶⁰⁾이 등실등실 떠 가무랴고⁹⁶¹⁾ 둥그랴게 떠, 지는 달 비졌는
 데,⁹⁶²⁾
 성희월락시⁹⁶³⁾에 오강변⁹⁶⁴⁾을 내려가니,
 그 때여 조자룡은 군사 백 명을 배에 싣고 오강 어구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공명 오는 거동 보고 반겨 뛰어 내려와 공명전⁹⁶⁵⁾ 예하야⁹⁶⁶⁾ 여짜오되,
 “선생은 위방진중⁹⁶⁷⁾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기하야⁹⁶⁸⁾ 자룡 손길⁹⁶⁹⁾을 답쭙⁹⁷⁰⁾ 잡더니,
 “현주⁹⁷¹⁾ 이세⁹⁷²⁾ 옥체⁹⁷³⁾ 평안하옵시며, 제장군줄⁹⁷⁴⁾이 무사호아?”⁹⁷⁵⁾
 함께 배에 뛰어 올라 순풍에 돛을 달고 도용도용⁹⁷⁶⁾ 떠나간다.

25. (조자룡 탄궁)⁹⁷⁷⁾ 주유가 공명을 죽이려고 장군을 보냈으나 조자룡이 활을 쏘아 격퇴한다.

[아니리] 이 때에 오나라 주유는 노숙다려 말씀하되,
 “공명이 진실로 허언⁹⁷⁸⁾이라. 용동⁹⁷⁹⁾ 때에 동남풍이 어찌 있을쏘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봐도 재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
 자⁹⁸⁰⁾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허언을 허오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⁹⁸¹⁾ 이 말이 지듯마듯,⁹⁸²⁾

The morning star is dim in the sky, and it passes near the setting moon.

Kong Ming(孔明) arrives at the Wu(吳) River when stars are sparse and the moon sets.

Meanwhile, Zhao Zi Long(趙子龍) has been waiting for Kong Ming(孔明) with 100 soldiers on a boat at the mouth of the Wu(吳) River.

After spotting Kong Ming(孔明), he is pleased, gets off the boat, and bows to Kong Ming(孔明).

“Sir, are you all right in this hostile country?”

Also pleased, Kong Ming(孔明) swiftly grabs Zhao Zi Long’s(趙子龍) hands.

“How are His Majesty and his son doing? Are the officers and soldiers all right?”

They get on the boat, raise a sail in a smooth wind. Their boat rocks gently as they leave.

25. (Zhao Zi Long(趙子龍) Shoots an Arrow.) Zhu Yu(朱瑜) sends officers to kill Kong Ming(孔明). Zhao Zi Long(趙子龍) repels them by shooting an arrow.

[Aniri] Just then, Zhu Yu(朱瑜) of Wu(吳) Country says to Lu Su(魯肅),

“Kong Ming (孔明) told us a lie. How can a southeast wind blow in winter?”

Lu Su (魯肅) replies, “I observed him briefly. His talent is that of a hero. His character is that of a saint.

How could a heroic saint tell a lie about such an important matter?

Let’s wait for a minute.” Something happens the moment he finishes his words.

[자진모레] 말이 맞지⁹⁸³⁾ 못하여 일시에 동남풍이 뚜루루루루.
 주유 대경⁹⁸⁴⁾ 탄식 왈, “이 사람의 조화⁹⁸⁵⁾는 귀신도 난측⁹⁸⁶⁾이라.
 만일 오래 두었다는 동오⁹⁸⁷⁾의 화근⁹⁸⁸⁾이라. 일찍 죽여 옳다.” 하고
 서성,⁹⁸⁹⁾ 정봉⁹⁹⁰⁾ 양장⁹⁹¹⁾을 불러,
 “너희 이대로 남병산 빨리 올라가 공명을 보거들랑, 묻도 말고 대칼
 에⁹⁹²⁾ 목을 텅그랑 베어 오라!”
 서성, 정봉 양 장수 장창 대검을 비껴 들고 비신상마⁹⁹³⁾하여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데 없고, 기 잡은 군사들만 단하에 가 서 있거늘,
 “여봐라, 군사야!” “예이.” “공명이 어디로 가던고?”
 저 군사 여짜오되, “선생이 제⁹⁹⁴⁾ 지내고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요 너머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⁹⁹⁵⁾
 남병산 빨리 내려 오강 어귀를 당도하니,
 원근창과⁹⁹⁶⁾ 물결이 위리리 출렁 출렁. 수줄⁹⁹⁷⁾이 서 있거늘,
 “여봐라, 수줄아.” “예이.” “공명이 어디로 가던고?”
 “오나라 수줄이 한나라 공명을 알 수 있소마는, 유표⁹⁹⁸⁾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냐?”
[중중모레] “작일⁹⁹⁹⁾ 일모시,¹⁰⁰⁰⁾ 작일 일모시, 강안¹⁰⁰¹⁾에 매인 배,
 양양강수¹⁰⁰²⁾ 맑은 물, 고기 낚던 어선,

[Jajinmori] The moment Lu Su(魯肅) finishes his sentence, a southeast wind blows.

Zhu Yu(朱瑜) is surprised. “Even a god can’t fathom what Kong Ming(孔明) can do.

If I leave him alone, he will bring a disaster to Wu(吳) Country. I should kill him early.”

Zhu Yu(朱瑜) calls two warriors: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Go to Nanping(南屏) Mountain quickly. If you come across Kong Ming(孔明), cut his head off with a single slash without saying anything. Bring his head here!”

Carrying long spears and long swords obliquely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quickly get on horses.

They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look around.

Kong Ming(孔明) is gone. Only soldiers are holding flags below the altar.

“Hey soldier!” “Yes.”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The soldier answers, “After holding a ritual, he produced a wind. He went over there with his hair loosened and with his feet bare.”

“Oh yes! He must be Kong Ming(孔明).”

They climb down Nanping(南屏) Mountain swiftly and arrive at the mouth of the Wu(吳) River.

The waves move in the close and distant blue river. A sailor is standing.

“Hey sailor.” “Yes.”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I am just a sailor of Wu(吳) Country, so I don’t know Kong Ming(孔明) of Han(漢) Country. But there was something unusual.”

“What was it?”

[Jungjungmori] “At sunset yesterday I saw what appeared to be a fishing boat on the bank of the river.

십리장강벽파상¹⁰⁰³) 왕래하던 거루선,¹⁰⁰⁴ 동강칠리탄¹⁰⁰⁵) 엄자
룽¹⁰⁰⁶)의 낚싯배,

오호상연월야에 범상공의 가는 뱌지,”¹⁰⁰⁷)

[자진모리 “만단¹⁰⁰⁸) 의심을 하였더니, 만단 의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피발도선¹⁰⁰⁹)에 내려오니,
강안의 매인 배 일원¹⁰¹⁰) 대장이 나오는 데,
눈은 소상강¹⁰¹¹) 물결같고, 인¹⁰¹²)의 허리,
곰의 팔에 서부령섭적¹⁰¹³) 나오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¹⁰¹⁴) 고개를 까딱까딱, ‘호히 하히’ 하시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살같이¹⁰¹⁵) 가더이다.” “웁다, 그것이 공명일다.”
강변에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 “에이.”

“네 배를 더디 저어 공명 탄 배 못 잡으면,
태중한¹⁰¹⁶) 내 분함에 대칼에 네 목을 텅그링 베어 이 물에 풍덩 들이
치면¹⁰¹⁷)

어복고혼¹⁰¹⁸)이 될 것이니, 어서 급히 배질¹⁰¹⁹)하라!”

사공이 겁을 내어 닻 감고 노질¹⁰²⁰)을 할 제,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위겨라¹⁰²¹) 위겨라 위겨라’ 살같이 떠나갈 제,
십리 탄강¹⁰²²) 뚫는 배 공명 탄 배가 분명커늘,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배 머물러. 우리 도둑¹⁰²³) 청래¹⁰²⁴)
하오!”

공명이 ‘하하’ 웃고, 자룽 불러 하는 말이,
“동오의 주도독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 정봉 양장으로 저렇게 쫓아오
니 이 일을 어이하리?”

It might have been a traveling boat on the Yangzi(揚子) River.
It might have been Yan Zi Ling's(嚴子陵) fishing boat.
It might have been Fan Li's(范蠡) leisure boat floating on lakes
in the foggy moonlight."

[Jajinmori] "I was very suspicious of the boat.

To my surprise, a man came down from the boat with his hair
loosened and his feet bare.

An officer got off the boat on the river.

His eyes looked like the water of Xiao Xiang(瀟湘) River. His
waist was like a giraffe.

His arms were like those of a bear. He moved elegantly.

They grabbed hands together, nodded, and laughed.

They got on the boat and left quickly." "Oh yes! He must be
Kong Ming(孔明)."

They go down to the riverside. "Hey boatman!" "Yes"

"Row your boat fast. Catch up with Kong Ming's(孔明) boat.
Or I'll be very angry, cut your head with this long sword, and
throw it into the river.

You will become a lonely soul in the belly of a fish. So row
your boat fast!"

Terrified, the boatman pulls up the anchor and rows with the
oars.

'Yo-ho! Yo-heave-ho! Yo-ho! Yo-heave-ho.' Their boat moves
fast.

A boat floats on the fast water. It must be Kong Ming's(孔明) boat.

"Hi there, Kong Ming(孔明)! Stay where you are. Stop the boat.
Zhu Yu(朱瑜) wants to see you!"

Kong Ming(孔明) bursts into laughter and talks to Zhao Zi Long
(趙子龍).

"Zhu Yu(朱瑜) of Wu(吳) Country sent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to kill me. What should we do?"

자룡이 이 말 듣고 “선생은 아무 염려 마사이다.¹⁰²⁵⁾
 저기 오는 서성 정봉아, 너희 도둑 살해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후일
 보자 회보하라!¹⁰²⁶⁾
 우리 선생 높은 재주 너의 나라 들어가서 성공하고 오시는데, 무슨
 일로 해하는다?¹⁰²⁷⁾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국 화친¹⁰²⁸⁾을 생각하여 죽이든 아니하려
 니와,
 나의 수단¹⁰²⁹⁾이나 네 보아라. 전일에 못 들었나?
 장판교 큰 싸움에 맹덕¹⁰³⁰⁾의 팔십만병¹⁰³¹⁾ 팔공산 초목 베듯¹⁰³²⁾
 일전¹⁰³³⁾에 다 베었거늘,
 조그마한 일엽편주¹⁰³⁴⁾ 내 어이 그저¹⁰³⁵⁾ 두리?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바우지¹⁰³⁶⁾ 나의 화살을 못 바우리라.”
 장궁¹⁰³⁷⁾에 철전¹⁰³⁸⁾ 먹여¹⁰³⁹⁾ 들고, 비정비팔¹⁰⁴⁰⁾의 흉허복실¹⁰⁴¹⁾
 하여,
 하삼지¹⁰⁴²⁾ 돋워 쥐고, 주먹이 툭 터지게 줌통¹⁰⁴³⁾을 짹 쥐고,
 앞뒤 귀미¹⁰⁴⁴⁾ 노잡게¹⁰⁴⁵⁾ 대투¹⁰⁴⁶⁾ 뺏뺏,
 머리 숙여 각지손¹⁰⁴⁷⁾ 줄라 똑 떼뜨리니,¹⁰⁴⁸⁾
 번개같은 빠른 살이 살대¹⁰⁴⁹⁾ 해상¹⁰⁵⁰⁾에 수루루루루루루 떠들어가,
 서성 탄 배 돛대 지끈,¹⁰⁵¹⁾ 거꾸로 물에 풍!
 또 한 개 쏘아놓으니, 오던 배 가로접쳐¹⁰⁵²⁾ 뱃머리 빙빙 돌며,
 연파만경상¹⁰⁵³⁾ 그저 뒤뚱뒤뚱 떠나가는구나.

Zhao Zi Long(趙子龍) replies, “Don’t worry about that, sir. Hey there,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I know about Zhu Yu’s(朱瑜) intention to murder Kong Ming(孔明). Go back and tell him to see me later.

Being talented, Kong Ming(孔明) did a great thing for your country and is coming back. Why are you trying to hurt him? You deserve to die by my hands. But I won’t kill you because of the goo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Just enjoy watching my ability. Haven’t you heard about me? I killed Cao Cao’s(曹操) 800,000 soldiers in the Changban(長坂) Battle as if I cut the trees and grasses on Bagong(八公) Mountain.

Why would I leave a small boat alone?

It is easier to block lightning with a gourd than to block my arrow.”

Zhao Zi Long(趙子龍) loads a large bow with an iron arrow. He gets his legs ready to shoot and breathes out.

He strains his lower three fingers and grabs the center of the bow with his fist firmly.

He firmly fixes the arrow on the bow and stiffens the back of his neck.

He puts his head down and releases his thumb.

The arrow flies as fast as lightning over the water.

It breaks down the mast of Xu Sheng’s(徐盛) boat. The mast turns upside down into the water.

He shoots another arrow. The boat jolts and swirls around.

It goes away, staggering, on the foggy river.

26.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주유는 적벽강 불지를 차비를 하고, 공명은 여러 장수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아니리] 한가히 가는지라.

서성 정봉 혼이 없어, 겁주하여¹⁰⁵⁴ 돌아와서 그 사연을 회보¹⁰⁵⁵하니, 주유 듣고 탄식하되, “천지도 무심하다. 주유를 내셨거든 공명을 내잖거나,¹⁰⁵⁶ 공명을 내셨거든 주유를 내잖거나, 한 천하에 영웅을 이리 내계시니, 허허 이 일을 어이할꼬?” 길이 탄식하다,

“아서라, 조조를 먼저 치고 한나라를 후도¹⁰⁵⁷하자.”

약속을 다시 하고 수륙군¹⁰⁵⁸ 분발¹⁰⁵⁹할 제,

주유가 삼국 명장 중에 수전¹⁰⁶⁰의 제일 명장이었다.

[중모레] “감녕¹⁰⁶¹은 채중 항졸¹⁰⁶² 거느리고 조조 진중 들어가 거화 위호하라!¹⁰⁶³

전영¹⁰⁶⁴의 태사자¹⁰⁶⁵와 좌영¹⁰⁶⁶ 여몽,¹⁰⁶⁷

중영¹⁰⁶⁸ 능통,¹⁰⁶⁹ 우영¹⁰⁷⁰ 동습,¹⁰⁷¹

후영¹⁰⁷² 반장¹⁰⁷³ 등은 각술삼천¹⁰⁷⁴ 수륙군 분발 각처¹⁰⁷⁵ 매복¹⁰⁷⁶하고,

병영¹⁰⁷⁷ 군관¹⁰⁷⁸ 제일대¹⁰⁷⁹ 한당¹⁰⁸⁰이요, 제이대¹⁰⁸¹ 주태¹⁰⁸²요,

제삼대¹⁰⁸³ 장흠¹⁰⁸⁴이요, 제사대¹⁰⁸⁵ 진무¹⁰⁸⁶ 등은 삼백 전선¹⁰⁸⁷

일자¹⁰⁸⁸로 파열¹⁰⁸⁹하고,

26. (Zhu Yu(朱瑜), Kong Ming(孔明), and Officers Prepare for War.) Zhu Yu(朱瑜) prepares to set fire to the Chibi(赤壁) River. Kong Ming(孔明) assigns tasks to his officers.

[Aniri] Kong Ming's(孔明) boat goes away slowly.

They return to their camp, horrified, and report to Zhu Yu(朱瑜). Zhu Yu(朱瑜) sighs. "God is cruel. If he had sent Zhu Yu(朱瑜) here, he should not have sent Kong Ming(孔明) here, and vice versa.

He sent two heroes to this world. What should we do?" He sighs heavily.

"Forget it. I will defeat Cao Cao(曹操) first and then the Han(漢) Country."

After promising to himself, he unfolds his army and navy.

He is the best warrior in the three countries in naval warfare.

[Jungmori] "Gan Ning(甘寧)! You lead Cai Zhong's(蔡中) prisoners of war into Cao Cao's(曹操) camp and send a signal with a torch.

Tai Shi Ci(太史慈) is at the front of the formation and Lu Meng(呂蒙) is on the left.

Ling Tong(凌統) is in the middle of the formation and Dong Xi(董襲) is on the right.

Pan Zhang(潘璋) is at the back of the formation. Each of them leads 3,000 army and navy soldiers and stay in ambush everywhere.

Han Dang(韓當)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first unit and Zhou Tai(周泰) the second unit.

Jiang Qin(蔣欽)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third unit and Chen Wu(陳武) the fourth unit. Three hundred of their warships stand in a row.

상부도독¹⁰⁹⁰) 주유, 정보,¹⁰⁹¹ 서성, 정봉, 선봉장에¹⁰⁹² 육손¹⁰⁹³)이라.”
 주유 장중에¹⁰⁹⁴) 하령¹⁰⁹⁵)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승화연여운하여 일제 응진하고, 봉총의 부휴대하여
 산봉여장도라 하였으니,¹⁰⁹⁶
 황개 화선¹⁰⁹⁷) 거화¹⁰⁹⁸) 보아 황혼시¹⁰⁹⁹) 호령출¹¹⁰⁰)을 각선에¹¹⁰¹)
 청후하라!”¹¹⁰²)
 [아니레] 이 때여 공명은 일엽 풍범¹¹⁰³) 빨리 놓아¹¹⁰⁴) 본국으로 돌아
 와 현덕을 뵈은 후로,
 [중모레] 금고¹¹⁰⁵)를 꾹꾹 올리면서 장졸을 분발한다.
 진군장군¹¹⁰⁶) 자룡 불러, “그대는 삼천 병마¹¹⁰⁷) 거느리고 오림¹¹⁰⁸)
 갈대 숲 속에 둔병매복¹¹⁰⁹) 하였다가,
 조병¹¹¹⁰)이 절반이나 지나거든 불 놓아 엄살¹¹¹¹)하라!”
 장익덕 불러, “그대도 삼천 병마 거느리고 호로곡¹¹¹²)에 복병¹¹¹³)하
 여 있으면,
 내일 오시¹¹¹⁴)에 조조 비 맞고 그리 갈 것이니 엄살하여 사로잡으라.
 이번 출전은 익덕의 공이 적지 아니하리라.”
 미방,¹¹¹⁵) 미축,¹¹¹⁶) 유봉,¹¹¹⁷) 삼장¹¹¹⁸)을 불러,
 “그대는 어선인 체 강상에 등실 높이 뗏다 조조 패군 기계¹¹¹⁹)를 앓
 아¹¹²⁰) 오라.”
 이렇듯이 분발할 제,

Zhu Yu(朱瑜), Cheng Pu(程普),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are high commanding officers. Lu Xun(陸遜) is the officer at the vanguard.”

Zhu Yu(朱瑜) gives an order to the multitude.

“A military strategy holds that we should move when fire and smoke rise up like a cloud, and attack the enemy with rifles and axes as if you were breaking a mountain into pieces.

Huang Gai(黃蓋) in the fire ship! When you see the torch at dusk, send an order to each ship!”

[Aniri] Meanwhile, Kong Ming(孔明) moves his sailing boat fast. After returning to his country, he meets with Liu Bei(劉備).

[Jungmori] Kong Ming(孔明) hits a gong hard, moving his officers and soldiers.

He calls Zhao Zi Long(趙子龍). “You, lead three thousand soldiers and hide in ambush behind trees and grass in Wulin(烏林) Forest.

If half of Cao Cao’s(曹操) soldiers have passed by, put them death by fire!”

Kong Ming(孔明) calls Zhang Fei(張飛). “You also lead 3,000 soldiers and stay in ambush in Hulu(葫蘆) Valley.

Cao Cao(曹操) will pass by through rain around noon tomorrow. Attack him and catch him alive.

You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war.”

Kong Ming(孔明) calls the three officers: Mi Fang(糜芳), Mi Zhu(糜竺), and Liu Feng(劉封).

“Stay afloat on the water like fishing boats, and pick up the weapons from the defeated soldiers.”

Kong Ming(孔明) prepares for war as said above.

27. (관운장 항의) 관운장이 공명에게 조조를 사로잡아 올 것을 다짐하고 화용도로 행군한다.

[엇모레]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와,
봉목¹¹²¹)을 부릅뜨고, 삼각수¹¹²²) 거사리고,¹¹²³)
청룡도¹¹²⁴) 빗겨 들고 호기 있게 들어와 궤좌¹¹²⁵)하여 여짜오되,
“과연 소장이 팔년 간과¹¹²⁶)에 척춘지공¹¹²⁷)은 없사오나, 허다한¹¹²⁸)
전장에 낙후¹¹²⁹)함이 없삽더니,¹¹³⁰)
여차¹¹³¹) 환란시¹¹³²)에 소장을 쓰지 아니하니 생불여사¹¹³³)라, 죽기
만 같지 못하외다.”¹¹³⁴)

[아니레] 공명 왈, “장군을 의논컨대, 용맹이 출천¹¹³⁵)하고 지혜무
궁¹¹³⁶)한 줄 내 이미 알거니와,
그대, 황건적 패를 만나¹¹³⁷) 조조 나라 들어가 깊은 은혜를 입어,
조조를 잡고도 도로 놓고¹¹³⁸) 올 듯하기에 이번 소임¹¹³⁹)을 정치¹¹⁴⁰)
아니한 것이니 허물치¹¹⁴¹) 말라.”

관공이 여짜오되, “재연후 지경중이요, 도연후 지장단이라.¹¹⁴²)
군중에 무사정이오니¹¹⁴³) 무슨 사정을 두오리까? 만일 조조를 잡고도
도로 놓고 온다면 군법으로 참¹¹⁴⁴)하소서.”

공명 왈, “장군이 진심으로 그러하면 군율¹¹⁴⁵)에 다짐¹¹⁴⁶)하라.”
관공 다짐하였오되. “살등¹¹⁴⁷) 소장¹¹⁴⁸) 관모¹¹⁴⁹)는 지별¹¹⁵⁰)이 수미
나¹¹⁵¹) 충의는 진성이라,¹¹⁵²)

27. (Guan Yu's(關羽) Complaint) Guan Yu(關羽) departs for Huarong(華容) Road after pledging to Kong Ming(孔明) that he will catch Cao Cao(曹操) alive.

[Eonmori] A general comes in.

He opens his eyes wide which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His whiskers and beard look like a triangle whose end goes up. He holds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He struts in, kneels down, and says,

"I went to war for the past eight years without accomplishing a feat. But I did not fall behind others in numerous battlefields. You don't assign a task to me in this war. I would rather die than doing nothing."

[Aniri] Kong Ming(孔明) replies, "I already know you are exceptionally brave and wise.

You came across Yellow-Hooded Robbers, fled to Cao Cao's(曹操) country, and received a favor from him.

It seems you will release Cao Cao(曹操) after catching him. That's why I did not assign any task to you. Don't blame me." Guan Yu(關羽) says, "We can know the weight of luggage only after it is weighed. We can know the length of a thing only after it is measured.

In the military, I can't act on a personal feeling. If I release Cao Cao(曹操) after catching him, behead me in accordance with military law."

Kong Ming(孔明) responds, "If you are serious, pledge under military law."

Guan Yu(關羽) makes a pledge: "I am a low-ranking officer. My social standing is low, but my loyalty is high.

회도원에 결의하니¹¹⁵³⁾ 망사생지동십이요,¹¹⁵⁴⁾ 전장출이간고하니,¹¹⁵⁵⁾ 불위기령이갈력이라.¹¹⁵⁶⁾

기병이공토하니,¹¹⁵⁷⁾ 방조이하착고?¹¹⁵⁸⁾

여피소아생금함이 무이탐낭취물이니,¹¹⁵⁹⁾ 약이위령이옴거든,¹¹⁶⁰⁾ 상고¹¹⁶¹⁾ 처치 의당사라.”¹¹⁶²⁾

공명이 군령장¹¹⁶³⁾ 받고 허락하되,

“장군이 화용도¹¹⁶⁴⁾로 들어가 산에 불 놓아¹¹⁶⁵⁾ 조조를 유인하여 사로잡아 오라.”

관공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돌아오니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 들어오면 어찌 하오리까?”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 들어오면 나도 참하시오.” 상호군령장¹¹⁶⁶⁾ 한 연후에,

[회도리] 관공이 대희하여¹¹⁶⁷⁾ 화용도로 행군한다.

청도기¹¹⁶⁸⁾ 벌였는데, 청도¹¹⁶⁹⁾ 한 쌍, 홍문¹¹⁷⁰⁾ 한 쌍,

주작,¹¹⁷¹⁾ 남동각,¹¹⁷²⁾ 남서각,¹¹⁷³⁾ 홍초,¹¹⁷⁴⁾ 남문¹¹⁷⁵⁾ 한 쌍, 청룡,¹¹⁷⁶⁾

동남각,¹¹⁷⁷⁾ 서남각,¹¹⁷⁸⁾ 남초,¹¹⁷⁹⁾ 황문¹¹⁸⁰⁾ 한 쌍, 백호,¹¹⁸¹⁾ 동북각,¹¹⁸²⁾

서북각,¹¹⁸³⁾ 흑초,¹¹⁸⁴⁾ 현무,¹¹⁸⁵⁾ 북동각,¹¹⁸⁶⁾ 북서각, 홍신, 백신, 황신, 청신,

흑신,¹¹⁸⁷⁾ 표미,¹¹⁸⁸⁾ 금고¹¹⁸⁹⁾ 한 쌍, 호초¹¹⁹⁰⁾ 한 쌍,

나¹¹⁹¹⁾ 한 쌍, 적¹¹⁹²⁾ 한 쌍, 바라¹¹⁹³⁾ 한 쌍, 새납¹¹⁹⁴⁾ 두 쌍, 고¹¹⁹⁵⁾ 두 쌍,

In a peach orchard, Liu Bei(劉備), Zhang Fei(張飛), and I pledged to live and die together. We went through hardships in wars, obeyed orders, and did our best.

We are leading an army to destroy the enemy. How can I set Cao Cao(曹操) free and come back?

To catch Cao Cao(曹操) is as easy as to catch a thing in a pocket. If I disobey your order, I will report to my boss and will be deserved to be killed.”

Kong Ming(孔明) grants Guan Yu's(關羽) wish after receiving the written pledge to be punished.

“You go to Huarong(華容) Road, lure Cao Cao(曹操) by making a fire on a mountain, and bring him here alive.”

Guan Yu(關羽) asks, “There are two roads there. What if Cao Cao(曹操) does not come to Huarong(華容) Road?”

“If Cao Cao(曹操) does not come to Huarong(華容) Road, you can behead me too.” The two people make the pledges.

[Whimori] Elated, Guan Yu(關羽) marches to Huarong(華容) Road. They are carrying flags: a pair of cheongdos(清道), a pair of hongmuns(紅門),

jujak(朱雀), namdong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cho(紅綃), a pair of nammuns(藍門), blue dragon(青龍)

dongnamgak(東南角), seonamgak(西南角), namcho(藍招), a pair of hwangmuns(黃門), white tiger(白虎), dongbuggak(東北角),

seobuggak(西北角), heukcho(黑綃), hyeonmu(玄武), bukdonggak(北東角), bukseogak(北西角), hongsin(紅神), baeksin(白神),

hwangsin(黃神), cheongsin(青神),

heuksin(黑神), and pyomi(豹尾). They carry a pair of iron drums, a kind of a pair of flags.

He carries musical instruments: a pair of bass instruments, a pair of flutes, a pair of cymbals, two pairs of wind instruments, and two pairs of drums.

영기¹¹⁹⁶) 두 쌍, 군뢰직열¹¹⁹⁷) 두 쌍, 좌마¹¹⁹⁸) 독¹¹⁹⁹) 이요,
 난후,¹²⁰⁰) 친병,¹²⁰¹) 교사,¹²⁰²) 당보¹²⁰³) 각 두 쌍으로 좌르르르 가는
 거동,
 기세는 영웅이요, 검광¹²⁰⁴) 여상이라.¹²⁰⁵) 현덕, 공명 칭찬하고,
 주유 용병¹²⁰⁶) 간심차¹²⁰⁷)로 번구¹²⁰⁸)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짐기로
 다.¹²⁰⁹)

28. (황개 화선) 정욱이 동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방비를 하자고 하나, 조조는 의심치 않고 황개의 화선을 보며 좋아한다.

[아니리] 이 때에 조조는 장대에 높이 앉아 제장¹²¹⁰)과 상의할 제,
 정욱이 여짜오되, “동남풍이 일었사오니 미리 제방하사이다.”¹²¹¹)
 조조 왈, “동지 후 일양이 시생하니,¹²¹²) 동남풍인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개¹²¹³) 약속 기다릴 제,

[중모리] 이 때에 황개 화선¹²¹⁴) 들어온다.

이십 화선 거느리고, 청룡아기¹²¹⁵) 선기상에¹²¹⁶) ‘선봉대장¹²¹⁷) 황개’
 라 두렛이¹²¹⁸) 꽃고,
 청포장¹²¹⁹) 둘러치고, 삼승돛¹²²⁰) 추여 달고,¹²²¹)
 오강¹²²²) 여울¹²²³) 바람 맞혀 조조 진중 바라보고 지국총¹²²⁴) 소리하
 며 은은히¹²²⁵) 떠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대희¹²²⁶)하여, “정욱아, 정욱아. 저 배 보아라.

They carry two pairs of commanding flags. There are two pairs of prison guards. They carry an extra horse for the commanding officer and a commanding flag.

There are guards in the back and around the commander. There are training officers and scouts in pairs.

Guan Yu(關羽) looks like a hero, and his sword shines awesomely.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praise Guan Yu(關羽).

Zhu Yu(朱瑜) moves to Fankou(樊口) to take a look around. A southeast wind begins to blow.

28. (Huang Gai's(黃蓋) Fire Ship) Cheng Yu(程昱) perceives a southeast wind and proposes to prepare for it. Unsuspicious, Cao Cao(曹操) is only pleased to see Huang Gai's(黃蓋) fire ship.

[Aniri] Meanwhile, Cao Cao(曹操) sits on the high commanding post and holds a meeting with his officers.

Cheng Yu(程昱) says, "A southeast wind blows. Let's take an action in advance."

Cao Cao(曹操) replies, "The day gets longer gradually after the winter solstice. Don't be suspicious of the southeast wind."

He waits for Huang Gai(黃蓋) to show up.

[Jungmori] Just then, Huang Gai's(黃蓋) fire ship comes.

Leading twenty fire ships, he carries a blue dragon flag which clearly reads: 'Huang Gai(黃蓋), the vanguard officer.'

His ship is covered with a blue cloth, and the sail of hemp cloth is spread high.

Huang Gai(黃蓋) moves, while creaking, to Cao Cao's(曹操) area with the help of the flow of the Wu(吳) River and the wind. Cao Cao(曹操) is exuberant. "Cheng Yu(程昱), look at that ship!

황공복¹²²⁷)이 날 위하여 양초¹²²⁸) 싣고 오는 바는 하늘이 나를 도움
이로구나. 히히 하하하하하하.” 대소¹²²⁹)하니,

29. (화공) 주유의 군사가 조조의 진영에 불을 지르자 싸움 터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조조는 패하여 도망한다.

[아니리]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¹²³⁰) 실은 배량이면¹²³¹) 선중이 온중
할데,¹²³²)

강상에 등등실 높이 떠 요요하고¹²³³) 범류하니,¹²³⁴) 만일 간계¹²³⁵)
있을진댄¹²³⁶) 어찌 피하오리까?”

[자진모래] 조조 이 말에 의심하여, 문빙¹²³⁷) 불러 방색¹²³⁸)타가 살
맞아 떨어지니,

황개 화선 이십 척이 거화포¹²³⁹) 신기전¹²⁴⁰)과 때때때 나발¹²⁴¹) 소리,
두리둥둥 뇌고¹²⁴²) 치며 번개 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버섯,¹²⁴³)
두 번째 불붙으니 강산이 무너지고 우주가 바뀌는 듯, 화염¹²⁴⁴)이 충
천,¹²⁴⁵)

천지가 따그르르르르르, 풍성¹²⁴⁶)은 우루루루루루, 물결은 출
렁, 전선 뒤뚱,¹²⁴⁷)

용충,¹²⁴⁸) 활대,¹²⁴⁹) 노사육대,¹²⁵⁰) 삼판나리,¹²⁵¹) 족판,¹²⁵²)

행장,¹²⁵³) 명예,¹²⁵⁴) 각 포대¹²⁵⁵)가 물에 풍 꺼꾸러져, 기치¹²⁵⁶) 펄펄,
장막,¹²⁵⁷) 화전,¹²⁵⁸) 궁전,¹²⁵⁹) 방패, 창과 통노구,¹²⁶⁰) 북, 징, 팽과리
위리령 철철 산산이 깨어져

풍파강상¹²⁶¹) 화광¹²⁶²)이 훔훔, 수만 전선¹²⁶³)이 간 데가 없고

Huang Gai(黃蓋) is coming to me with the food for men and horses. Heaven is helping me. Hahaha.” He laughs loudly.

29. (Fire Attack) Zhu Yu's(朱瑜) soldiers set Cao Cao's(曹操) ships on fire. The battlefield turns into chaos. Defeated, Cao Cao(曹操) flees.

[Aniri] Cheng Yu(程昱) asks, “If the ships are loaded with the military food, they must be heavy.

But they float high on the water and move easily along with the waves. What if a wicked plan is involved with the ships?”

[Jajinmori] Persuaded, Cao Cao(曹操) has Wen Pin(文聘) block Huang Gai's(黃蓋) ships. Wen Pin(文聘) is shot by an arrow and falls down.

Huang Gai's(黃蓋) twenty fire ships shoot arrow rockets and blow trumpets.

Hitting drums, Huang Gai's(黃蓋) soldiers set ships on fire like lightning.

With another fire, it is as if mountains and rivers collapse and the universe changes. Flames rise up to the sky.

Heaven and the earth shake. A wind blows, the water slops, and warships totter.

What drops into the water is a rope for a sail, a piece of wood supporting a sail, a long oar, a small boat, a board, tools, a keel, and casemate. A flag flutters.

What gets broken into pieces are a tent, a fire arrow, an arrow, a bow, a shield, a spear, a brass pot, a drum, a gong, and a musical instrument.

Flames move around on the waves of the windy river. Thousands of warships are destroyed.

적벽강이 뒤끓으니¹²⁶⁴ 불빛이 낮빛¹²⁶⁵이로구나.
 가련할손¹²⁶⁶ 백만 대병 날도 뛰도 못하고 적벽에 몰살¹²⁶⁷할 제,
 황개의 제장 군졸 일시에 달려들어,
 여덟 팔 자 빗겨¹²⁶⁸ 서서 편전¹²⁶⁹을 따르르르르르르 깎지손¹²⁷⁰을
 떼뜨리니,¹²⁷¹
 번개같은 빠른 살이 사모¹²⁷² 꿰어 건너가고, 쇠도리깨¹²⁷³ 휘휘 둘
 리 어름과¹²⁷⁴를,
 신기전¹²⁷⁵이 픽 시그르르르르르르르, 방패 맞아 박살¹²⁷⁶하고, 일
 등명장¹²⁷⁷ 다 죽을 제,
 칼 들고 옹지난¹²⁷⁸ 놈, 활 들고 기는 놈과, 적벽강 위진¹²⁷⁹ 군사
 화염 중에 다 죽는다.
 숨 막히고, 기막히고, 활도 맞고, 창에 찔려,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일시에¹²⁸⁰ 다 죽을 제,
 한 군사 내달으며 저 죽을 줄 짐작하고,
 “내가 아무 때나 이런 봉변 당하면은 먹고 죽으려고 비상¹²⁸¹ 사 넣었
 더니라.” 내어 와삭와삭 먹고 죽고,
 또 한 군사는 돛대 끝으로 기엄기엄¹²⁸² 올라서더니마는,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오. 나는 오대독신¹²⁸³이오.”
 또 한 군사는 선미¹²⁸⁴에 우뚝 서서 고향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머니. 학발양친¹²⁸⁵과 규중처자¹²⁸⁶를 못 보고 원수놈의
 적벽강 귀신이 되오그러.
 어느 때나 뵈오리까?” 세설¹²⁸⁷하며 물에 풍 빠져 죽고,
 수하¹²⁸⁸의 죽은 군사 모두 뒤둥그러져¹²⁸⁹ 적벽강이 뻑뻑.¹²⁹⁰

The Chibi(赤壁) River is boiled, and it is as bright as the day with flames.

The pitiful million soldiers can't move at all, and they are massacred.

Huang Gai's(黃蓋) officers and soldiers launch an attack simultaneously.

A soldier's legs take positions to shoot an arrow, and he releases a sharp arrow.

The arrow, as fast as lightning, goes through the hat of a soldier.

Another soldier threatens his enemy by wielding a flail.

Arrows fired from an arrow rocket destroy shields and kill all the top warriors.

A soldier falls flat on his face with his sword in his hand.

Another crawls with a bow in his hand. The soldiers of Wei(魏) Country all die of the fire on the Chibi(赤壁) River.

Some are suffocated and stunned. Some are shot by arrows and pierced by spears. Some are burned by fire and drowned. They all die at once.

A soldier steps forward, thinking he will die soon.

"I was carrying poison to take in case I fall into such a misfortune." He wildly crunches the poison between his teeth and dies.

Another soldier climbs up the top of the mast slowly. "Oh god, help me! I am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Another stands on the stern of the ship and looks in the direction of his hometown.

"Oh my mother! I am dying on the damned Chibi(赤壁) River without seeing my old parents, wife, and children.

When can I meet them?" He grumbles, falls into the river, and dies.

The Chibi(赤壁) River is filled with the bodies of dead soldiers.

일등명장이 쓸 데가 없고 날랜 장수가 무용¹²⁹¹)이로구나.
 조조는 솟빛이요, 정옥¹²⁹²) 면상¹²⁹³) 불빛이라,
 허저¹²⁹⁴)는 창만 들고, 장요¹²⁹⁵)는 활만 들고,
 죽을 뻔¹²⁹⁶) 도강¹²⁹⁷)하여 겨우겨우 달아날 제,
 황개 쫓아가며 웨는¹²⁹⁸) 말이, “붉은 강포¹²⁹⁹) 입은 놈이 조조니라!”
 조조의 혼 기겁¹³⁰⁰)하여 홍포¹³⁰¹) 벗어 던져 버리고, 군사 전립¹³⁰²)
 앓어¹³⁰³) 쓰고,
 “참 조조¹³⁰⁴)는 저기 간다!” 제 이름을 제 부르며 피탈양탈¹³⁰⁵) 도망
 할 제,
 좌우편 한당¹³⁰⁶) 장흠¹³⁰⁷) 우번¹³⁰⁸) 진무¹³⁰⁹) 주태¹³¹⁰) 주유¹³¹¹)
 정보¹³¹²) 서성¹³¹³) 정봉¹³¹⁴) 합병하여¹³¹⁵) 쫓아가며 고성¹³¹⁶)이 진
 동하니,
 조조 겹겹에¹³¹⁷) 말을 거꾸로 타고, “아이고, 이 말이 퇴불여전¹³¹⁸)하
 여 적벽으로만 뿌두득뿌두득¹³¹⁹) 들어가니,
 주유, 노숙이 육전¹³²⁰) 축지법¹³²¹)을 못하는 줄 알았건마는,
 상부팀¹³²²) 땅을 짚어 우기나부다.¹³²³)
 정옥아, 정옥아, 정옥아, 날 살려라, 날 살려라.”

30. (오림 패주) 조조가 오림으로 달아나다가 메추리를 보 고 놀란다.

[중모레] 창황분주¹³²⁴) 도망할 제 새만 푸르르르르르르르 날아가도
 복병¹³²⁵)인가 의심을 하고,

The first-rate generals and warriors are useless.
 Cao Cao's(曹操) face becomes black, and Cheng Yu's(程昱) face becomes red.
 Xu Chu(許褚) holds only a spear, and Zhang Liao(張遼) holds only a bow.
 They manage to go across the river, narrowly escaping from their deaths.
 Chasing them, Huang Gai(黃蓋) shouts, "That man in the red silk clothes is Cao Cao(曹操)."
 Petrified, Cao Cao(曹操) takes off his red coat, snatches a soldier's hat, and puts it on.
 "The real Cao Cao(曹操) goes over there!" He calls his name, playing a trick, and runs away.
 As Han Dang(韓當), Jian Qin(蔣欽), Yu Fan(虞翻), Chen Wu(陳武), Zhou Tai(周泰), Zhu Yu(朱瑜), Cheng Pu(程普),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chase Cao Cao(曹操) together, their shouts tremble.
 Frightened, Cao Cao(曹操) gets on the horse backward. "Alas! This horse moves not forward but backward to the Chibi(赤壁) River.
 I thought Zhu Yu(朱瑜) and Lu Su(魯肅) couldn't shorten a distance in a land battle.
 But it appears they are pulling up the ground from above.
 Hey Cheng Yu(程昱)! Help me."

30. (Fleeing to Wulin(烏林) Forest) As Cao Cao(曹操) flees to Wulin(烏林) Forest, he is frightened by a quail.

[Jungmori] As Cao Cao(曹操) flees in a hurry, he takes flying birds to be ambushing soldiers.

낙엽만 버섯 떨어져도 한장¹³²⁶)인가 의심을 한다.

[아니레] 조조 가끔 목을 움츠려,

“정욱아, 귀에서 화살이 수루루루루루 지나가고, 목 너머로 칼날이
번듯번듯 하는구나.”

정욱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승상님 목을 늘여 사면
을 살피소서.”

“아, 인제 진정 조용하냐?” “예, 조용합니다.” 조조 막 목을 늘이려
할 제,

의외의¹³²⁷) 메추리¹³²⁸) 한 마리가 조조 말굽 사이에서 푸루루루
루¹³²⁹) 날아가니,

“아이고, 정욱아! 내 목 있나 보아라!”

정욱이 웃고 대답하되, “승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쑥을 허오리까?”
조조 무색¹³³⁰)하여, “그게 메추리더냐? 소금 발라 바싹 구우면 한 잔
술 안주감 좋으니라.”

“이 급한 중 입맛은 꼭 아시오그려.” “메추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사문
어타인¹³³¹)이로다.”

조조 정신을 차려 경개¹³³²) 잠깐 살펴보는데,

31. (새타령) 조조가 경개를 살펴보는데, 죽은 장졸의 원혼 이 새가 되어 울음을 운다.

[중모레] 산천은 험준¹³³³)하고 수목¹³³⁴)은 총잡¹³³⁵)한데,

만학¹³³⁶)에 눈 쌓이고, 천봉¹³³⁷)에 바람이 칠 제,

앵무 원앙이 끊쳐지고,¹³³⁸)

화초목실¹³³⁹) 바이없어¹³⁴⁰) 새가 어이 올라마는,¹³⁴¹)

He takes falling leaves to be officers of the Han(漢) Dynasty.
[Aniri] Cao Cao(曹操) occasionally pulls in his head.
 “Hey Cheng Yu(程昱)! I still hear flying arrows and still see flashing swords.”
 Cheng Yu(程昱) responds, “There is nothing now. Please put your head out and take a look around.”
 “Oh, is it really quiet now?” “Yes, it is.” Cao Cao(曹操) is about to stick his head out.
 All of sudden, a quail flies up from between his horse’s legs.
 “My goodness, Cheng Yu(程昱)! Check whether I still have a head!”
 Laughing, Cheng Yu(程昱) answers, “Mr. Premier, how could you speak without a neck?”
 Cao Cao(曹操) is ashamed. “Was it a quail? It is good if it is roasted with salt.”
 “You didn’t lose the taste even in such trouble.” “Keep it a secret that I was frightened by a quail.”
 After collecting himself, Cao Cao(曹操) takes a look around the surroundings.

31. (Bird Song) As Cao Cao(曹操) looks around the surroundings, birds cry which are the malignant spirits of the dead officers and soldiers.

[Jungmori] Mountains are steep, and forests are thick.
 Snow is piled up in numerous valleys, and a wind blows on many mountain tops.
 Neither a parrot nor mandarin duck flies any longer.
 There can’t be sounds of birds because there are no flowers, grass, or fruit.

적벽강 객사¹³⁴² 원귀¹³⁴³ 고향 생각 한조¹³⁴⁴들이 조승상¹³⁴⁵을 원
망하여 우는데, 이게 모두 귀성¹³⁴⁶이라.

도탄¹³⁴⁷에 쌓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¹³⁴⁸

귀촉도¹³⁴⁹ 불여귀¹³⁵⁰라 슬피 우는 저 촉혼조.¹³⁵¹

여산군량¹³⁵² 소진¹³⁵³하여 촌려노략¹³⁵⁴이 한 때로구나.¹³⁵⁵ 솟탱
솟탱 저 흥년새.

백만 군사 자랑티니 금일 패군¹³⁵⁶이 웬 일일꼬? 히빠죽 저 빠죽새.
자칭 영웅 간 데 없고, 백계도생¹³⁵⁷ 피로만 논다.¹³⁵⁸ 피꼬리 수리루
리루 저 피꼬리.

초평대로¹³⁵⁹를 마다하고 심산총림,¹³⁶⁰ 까옥까옥 저 까마귀.

가련하다, 주린 장졸 냉병¹³⁶¹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빠국 빠빠국.
장요¹³⁶²는 활만 들고, 살이 없다 설위 마라, 살 간다, 수루루루루루
저 호반새.

반공¹³⁶³에 둥둥 높이 떠 동남풍을 내가 막아 주마, 너울너울 저 바람
막이.¹³⁶⁴

철망에¹³⁶⁵ 벗어났다. 화병¹³⁶⁶아, 우지마라. 노고지리 노고지리 저
종달새.

황개 호통¹³⁶⁷ 겁을 내어 벗은 홍포¹³⁶⁸ 내 입었다. 따옥따옥 저 따오기.
오림이 불원이라.¹³⁶⁹ 적벽풍파¹³⁷⁰가 밀어온다. 어서 가자 저 게오
리.¹³⁷¹

웃는 끝에 겁낸 장졸 갈수록 알망굿다.¹³⁷²

북병¹³⁷³을 보고서 도망을 한다.

이리로 가며 팽당그르르,¹³⁷⁴ 저리로 가며 행똥행똥.¹³⁷⁵ 사설¹³⁷⁶
많은 저 할미새.

적벽 오전¹³⁷⁷ 패군지장,¹³⁷⁸

순금 갑옷 어디 두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찢려,

The evil spirits of the soldiers who died on the Chibi(赤壁) River
 away from their homes are reborn into birds and cry resentfully
 against Cao Cao(曹操).
 How many years are the painful soldiers away from their homes?
 The cuckoo says sadly that it cannot go back home.
 The huge military food store is exhausted, and soldiers are
 looting villages. So cries a hungry bird.
 How can Cao Cao(曹操) be defeated after bragging about one
 million soldiers? So cries a sarcastic bird.
 The self-proclaimed hero has gone only after playing a trick to
 survive. So cries a parrot.
 Cao Cao(曹操) chose a deep mountain with green trees over a
 wide road with thick grass. So cries a crow.
 How poor! Hungry soldiers must have suffered from the cold
 weather. So consoles a cuckoo.
 Zhang Liao(張遼) holds only a bow. Don't worry you don't have
 an arrow. Here go arrows. So cries a kingfisher.
 I will fly high in the sky and block the southeast wind. So cries
 a bird with its wings wide open.
 Don't weep, cook soldier. You escaped from an iron net. So
 cries a skylark.
 I put on a red coat after Huang Gai's(黃蓋) horrifying shout. So
 cries a sacred ibis.
 Wulin(烏林) Forest is close. The strong waves of the Chibi(赤壁)
 River are coming. Let's go quickly. So cries a duck.
 Soldiers were intimidated after laughing, and then became
 ill-tempered.
 They fled from an ambush.
 So cries a talkative wagtail, turning around here and there.
 An officer was defeated in the fierce Chibi(赤壁) War.
 Without his golden body armor, he was shot by an arrow and
 a spear.

기한¹³⁷⁹)에 골몰¹³⁸⁰)하여, 내 단장¹³⁸¹)을 부러 말고 상처 독기를 쏘아주랴?

속 텅 빈 고목을 안고 뽀쪽한 긴 부리로, 오르며 떼그르르르,¹³⁸²) 내리며 뽕떼그르르, 또드락 질끈 꾸벅 떼그르르, 저 탁목조,¹³⁸³) 처량하다 각 새 소리.

32. (조자룡 출현) 조조가 헛웃음을 웃다가 조자룡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장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한다.

[아니리] 조조가 듣고 탄식하다 ‘히히 하하’ 대소¹³⁸⁴)하니, 제장이 여짜오되, “근근도생¹³⁸⁵) 창황중¹³⁸⁶)에 슬픈 근심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¹³⁸⁷)

“내 웃는 바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피가 없고, 공명이 슬기 없으니 내 아니 웃을쏘냐?

아, 이 병목¹³⁸⁸)같은 좁은 곳에 복병하여 두었으면 우리를 쥐 잡듯 아니하겠느냐?”

[엇도리] 말이 맞지¹³⁸⁹) 못하여 오림산곡¹³⁹⁰) 양봉¹³⁹¹)에서 고성¹³⁹²) 화광¹³⁹³)이 충천.¹³⁹⁴)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와.

얼굴은 형산¹³⁹⁵) 백옥¹³⁹⁶) 같고, 눈은 소상강¹³⁹⁷) 물결이라.

인¹³⁹⁸)의 허리, 곰의 팔에 장창¹³⁹⁹)을 빗겨 들고,

우레같이 큰 소리 벽력¹⁴⁰⁰)같이 뒤질러,¹⁴⁰¹) “너 이놈, 조조야!

상산¹⁴⁰²)의 조자룡을 아느냐,¹⁴⁰³) 모르는다?¹⁴⁰⁴) 목 늘어 칼 받아라!”

He is hungry and cold. Don't envy my neat look. Do you want me to peck your poisonous wound?

A woodpecker climbs up and down an old hollow tree, creating sounds with its sharp long beak.

Each bird cries plaintively.

32. (Zhao Zi Long(趙子龍) Shows Up.) Cao Cao(曹操) comes across Zhao Zi Long(趙子龍). He narrowly escapes his death with the help of his generals.

[Aniri] After listening to the birds' cries, Cao Cao(曹操) sighs and laughs loudly.

Officers ask, "We are barely hanging on. How can you laugh instead of worrying in such a serious situation?"

"I laugh because Zhu Yu(朱瑜) is stupid, and Kong Ming(孔明) is dumb. How could I not laugh?"

This is a narrow place, so if they lie in ambush here, wouldn't we be all dead?"

[Eonmori] Before Cao Cao(曹操) finishes his sentence, loud sounds and flashes of flame rise to the sky from the two peaks of Wulin(烏林) Forest.

A warrior comes out.

His face looks like the white jade from Jing(荊) Mountain. His eyes look like the water of the Xiao Xiang(瀟湘) River.

His waist is like that of a giraffe, and his arms are like those of a bear. He carries a long spear obliquely.

He shouts as loudly as thunder. "Cao Cao(曹操)! You bastard! Do you know about Zhao Zi Long(趙子龍) from Changshan(常山)? Put your head out. Here goes my sword!"

번개같이 달려들어, 동을 얼러¹⁴⁰⁵⁾ 서를 치고,
 남을 얼러 북을 쳐,
 여가¹⁴⁰⁶⁾ 번듯 하면 제가¹⁴⁰⁷⁾ 쟁그렁 베고, 제가 번듯하면 예와 쟁그
 령 베고,
 좌우로 충돌하며, 어릅과¹⁴⁰⁸⁾ 어릅과 어릅과.
 백송골¹⁴⁰⁹⁾이 땡 차듯,¹⁴¹⁰⁾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¹⁴¹¹⁾ 칼 빼듯, 여름날에 번개 치듯 횡행¹⁴¹²⁾ 쳐들어갈 제,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¹⁴¹³⁾이로구나.
 피 흘러 내¹⁴¹⁴⁾가 되고 주검이 여산¹⁴¹⁵⁾이라.
 서황,¹⁴¹⁶⁾ 장합¹⁴¹⁷⁾ 쌍접하여¹⁴¹⁸⁾ 겨우겨우 방어하고 호로곡¹⁴¹⁹⁾으
 로 도망을 하는구나.

33. (조조 신세 한탄) 도망하던 조조가 신세를 한탄한다.

[진양조] 바람은 우루루루루 썰 지둥치듯¹⁴²⁰⁾ 불고 굵은비는 퍼붓
 는데,
 갑옷 젖고, 기계¹⁴²¹⁾ 잃고, 어디로 가잔 말이나?
 조조 군사 굶었으되 행중에¹⁴²²⁾ 양식 없어 말도 잡어 군사를 구
 급¹⁴²³⁾하고,
 젖은 옷 쇠뿔¹⁴²⁴⁾하며 한 곳을 바라보니,
 한수¹⁴²⁵⁾ 여울¹⁴²⁶⁾ 내린 물은 이릉¹⁴²⁷⁾으로 닿았는데,
 “적적산곡¹⁴²⁸⁾ 청계상¹⁴²⁹⁾에 쌍쌍 백구¹⁴³⁰⁾는 홀리뻤다.¹⁴³¹⁾
 우후청강¹⁴³²⁾ 좋은 홍미,¹⁴³³⁾ 묻노라, 저 백구야, 홍요월색¹⁴³⁴⁾이 어
 느 곳고?¹⁴³⁵⁾

Zhao Zi Long(趙子龍) is as fast as lightning. He threatens them
 in the east and destroys them in the west.
 He threatens them in the south and destroys them in the north.
 He appears here and there abruptly, cutting heads off.
 He clashes with them fiercely left and right.
 He looks like a hawk attacking a pheasant, and like a toad
 snatching a fly.
 He attacks them as a woman pulls out an ornamental silver
 knife, and as lightning appears in the summer sky.
 The officers and soldiers' heads fall as leaves fall down by an
 autumn wind.
 Their blood forms a river, and their bodies a mountain.
 Xu Huang(徐晃) and Zhang He(張郃) manage to confront Zhao
 Zi Long(趙子龍), fleeing to Hulu(葫蘆) Valley.

33.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mself)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mself, as he flees.

[Jinyangjo] The wind blows hard, making loud sounds, and
 perverse rain pours heavily.
 Cao Cao's(曹操) soldiers' armor is wet, and they have lost their
 weapons. Where should they go?
 While marching, they are hungry but have no food. So they eat
 horses as a temporary measure.
 After drying their wet clothes with the wind, they look at a
 certain place.
 They reach Yiling(彝陵) Bridge below which the water of
 Hanshui(漢水) River flows.
 "White herons fly in pairs over a clear stream of a quiet valley.
 The clear river after the rain gives rise to a good feeling. I ask
 you, white herons! Where is the moon reflected on a grass?

어적수성¹⁴³⁶)이 적막한데, 뉘¹⁴³⁷) 기약¹⁴³⁸)을 기다리고,
 범피창파¹⁴³⁹) 홀리며 오락가락 승유¹⁴⁴⁰)하고, 나는 어이 무삼¹⁴⁴¹) 죄
 로 천리 전장에 나왔다가
 백만 군사 몰사¹⁴⁴²)를 시키고, 풍파여상¹⁴⁴³) 곤한¹⁴⁴⁴) 신세 반생반
 사¹⁴⁴⁵) 고양난¹⁴⁴⁶)이로구나.”

34. (장비 출현) 조조가 장비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나, 장수들의 구원으로 간신히 피하여 화용도로 도망한다.

[아니리] 이려고 자탄 끝에 또 대소하니, 정욱이 어이없어 군사다
 려¹⁴⁴⁷) 이르기를,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정신들 차려라. 승상님이 웃으셨다.”
 조조 앞은 속¹⁴⁴⁸)에 화를 내어, “고안 놈들, 내가 웃으면 복병¹⁴⁴⁹)이
 꼭 난단 말이나?
 내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무리 웃어도 복병 커녕 뱃병¹⁴⁵⁰)도 안 나더라.”
 [자진모레] 말이 맞지 못하여 호초¹⁴⁵¹) 함성이 천지를 뒤덮는다.
 정욱이 혼이 없어, “여보시오, 승상님, 어서 한없이 웃음이나 웃으시
 오. 죽어도 원이나 없게 어서 웃으시오.”
 조조 묻는 말이, “오는 장수 거 누구냐?” “무서운 장비요.”
 조조 웃음 간 데 없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¹⁴⁵²) 방황할 제,
 표독한¹⁴⁵³) 저 기상¹⁴⁵⁴)에 낮빛¹⁴⁵⁵)은 검푸르고, 고리눈,¹⁴⁵⁶) 따박수
 엮,¹⁴⁵⁷)
 사모장창¹⁴⁵⁸) 빗겨 들고,¹⁴⁵⁹) 불꽃같은 급한 성정¹⁴⁶⁰) 맹호¹⁴⁶¹)같이
 쭉 나서며,

This place is quiet except for the sounds of flutes by fishermen.
Who are you waiting for?
You have fun, moving back and forth on the blue water. I had
a bad fate to be on a battlefield away from home.
I massacred a million soldiers. I am in hardship and jeopardy,
half alive and half dead.”

**34. (Zhang Fei(張飛) Shows Up.) After being attacked
by Zhang Fei(張飛), Cao Cao(曹操) manages to flee
to Huarong(華容) Road with the help of his
officers.**

[Aniri] After sighing, Cao Cao(曹操) laughs loudly again.
Stunned, Cheng Yu(程昱) says to the soldiers,
“We will all die. Watch out. The premier laughed again.”
Narrow-minded, Cao Cao(曹操) loses his temper. “You fools! Are
we ambushed when I laugh?
No matter how hard I laughed at home, I was not ambushed at all.”
[Jajinmori] Before Cao Cao(曹操) finishes his sentence, a guard’s
shout makes the world tremble.
Cheng Yu(程昱) is confused. “Mr. Premier. Laugh heartily. Laugh
heartily.”
Cao Cao(曹操) asks, “Who is the warrior coming over there?”
“He is formidable Zhang Fei(張飛).”
Cao Cao(曹操) stops laughing, opens his eyes in fear, and
wonders around in panic.
Zhang Fei(張飛) looks ferocious with his black face. White
circles surround his eyes, and his beard is strong.
He pulls up a long triangle-shaped spear obliquely. Hot-tempered,
he moves forward like a fierce tiger.

“네 이놈, 조조야! 내 장창 받아라! 팔랑개비¹⁴⁶²)라 비상천¹⁴⁶³)하며,
두더쥐라 땅을 뿔까?”¹⁴⁶⁴)

우레같은 큰 소리 벽력같이 뒤지르니¹⁴⁶⁵) 나는 새도 떨어지고, 길짐
승도 못 단는다.¹⁴⁶⁶)

조조 정신 없어, “여봐라, 정욱아. 내 갑옷 입고 여기 잠깐만 서 있거
라. 나 똥 좀 누고 오마.”

“그런 얇은 피 쓰지 마오.” 조조 정신 혼미하여¹⁴⁶⁷) 갑옷 벗어 후리치
고,¹⁴⁶⁸)

군사와 한 데 섞여 자빠지며 엎터지며¹⁴⁶⁹) 화용도¹⁴⁷⁰)로 도망을 하는
구나.

35. (정욱과 군사 탄식) 도망하던 정욱과 군사들이 자신의 신세를 탄식한다.

[중모레] 이 때 인마¹⁴⁷¹) 기진¹⁴⁷²)하고, 데인¹⁴⁷³) 노약¹⁴⁷⁴) 막대 짚고,
눈비 섞어 오는 날에 산고곡심¹⁴⁷⁵) 험한 길에,

휘어진 장송 뒤엎크러진¹⁴⁷⁶) 총림¹⁴⁷⁷) 휘청휘청¹⁴⁷⁸) 검쳐잡고,¹⁴⁷⁹)
“후유, 축도지난¹⁴⁸⁰)이 험타한들 이에서¹⁴⁸¹) 더할쏘냐?”

허저,¹⁴⁸²) 장요,¹⁴⁸³) 서황¹⁴⁸⁴) 등은 후군¹⁴⁸⁵)을 방어하고,

정욱이 눈물지며 탄식하여 우는 말이,

“평생 소약지심¹⁴⁸⁶)하여 운주결승¹⁴⁸⁷)하겠더니 제부중시불여의라.¹⁴⁸⁸)
초행노숙¹⁴⁸⁹) 어인 일고?¹⁴⁹⁰)

망측한 우리 승상, 일빈일소¹⁴⁹¹) 탓이로다.”

“You villain! Cao Cao(曹操)! Here goes my spear. You can neither fly like a pinwheel nor dig like a mole to escape.”

Zhang Fei(張飛) shouts like thunder. Petrified, flying birds fall down, and crawling animals can't run.

Cao Cao(曹操) is in panic. “Hey Cheng Yu(程昱). Put on my clothes and stay here for a moment. I'll take a shit and come back.”

“Don't play a shallow trick.” Confused, Cao Cao(曹操) takes off his armor and throws it away.

Blending himself with his soldiers, he falls over repeatedly and runs away to Huarong(華容) Road.

35. (Cheng Yu(程昱) and Soldiers Lament) While fleeing, Cheng Yu(程昱) and soldiers lament over their misfortune.

[Jungmori] Men and horses are tired. A old man suffering from a burn uses a cane.

It snows and rains, and the road is treacherous with many high mountains and deep valleys.

Soldiers stagger, grabbing old pine trees and tangled grasses. “Isn't this the most rugged road ever in the world?”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Xu Huang(徐晃) protect the back of the formation.

Cheng Yu(程昱) laments in tears.

“I promised to myself I would win this war, using various methods, but things didn't work out.

I can't believe I wander around the field and sleep outdoors. All this happened because my wicked premier is capricious.”

애고 애고 울고 나니, 전별장¹⁴⁹²)이 울고 난다.¹⁴⁹³)
 “적벽 오전¹⁴⁹⁴) 무삼¹⁴⁹⁵) 일고? 승상은 망상하여¹⁴⁹⁶) 주색¹⁴⁹⁷)보면
 한사¹⁴⁹⁸)하고,
 임전¹⁴⁹⁹)하면 궤병터니, 삼부육사¹⁵⁰⁰) 간 데 없고,
 백만 군사 몰사¹⁵⁰¹)를 하니 모사¹⁵⁰²)도 허사¹⁵⁰³) 되고, 장수 또한 공
 수¹⁵⁰⁴)로구나.
 전복병¹⁵⁰⁵)에 놀랜 군사 후복병¹⁵⁰⁶)이 다시 나면 이를 어쩔거냐?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이렇듯 울고 나니,
 [중모레 화병¹⁵⁰⁷)이 울고 난다. “수인씨 교인화식¹⁵⁰⁸) 나 혼자 맡았
 을까?
 녹록하다¹⁵⁰⁹) 이내 신세, 취반화기¹⁵¹⁰) 걸머지고 못군사¹⁵¹¹) 밥짓기와,
 양식마저 떨어지고 호로¹⁵¹²) 함박¹⁵¹³)뿐이로다.
 표자¹⁵¹⁴)나 께어 차고 우리 집을 가고지고.” 애고 애고 울고 나니,
 범군¹⁵¹⁵)이 울고 난다.
 “환도¹⁵¹⁶)는 집¹⁵¹⁷)만 남고 군복조차 불에 타고,
 적수공권¹⁵¹⁸) 외상투¹⁵¹⁹)에 절룩절룩 이 내 다리로 위국¹⁵²⁰) 고향을
 어이 가리?
 다만 내 몸에 남은 것은 가죽방망이¹⁵²¹) 밖에 또 있느냐?”

36. (장승타령) 조조가 장승을 문초하라 하니, 장승이 조조 의 꿈속에 나타나 원통한 사정을 말한다.

[아니레] 애고 애고 통곡하니,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사생¹⁵²²)이 유명커든¹⁵²³) 울기는 왜 우느냐?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
 로 참하리라.”¹⁵²⁴)

Because Cheng Yu(程昱) cries, so does an officer.
 “What was the fierce Chibi(赤壁) War for? The premier was greedy, seeking wine and women too much.
 Because he pretended to be ill on a battlefield, his high officials are gone.
 As his million soldiers were massacred, his plan came to nothing. His generals gained nothing.
 We survived the past ambush. What if we are ambushed again? Alas! Woe is me.” He cries as said above.
[Jungmori] A cook steps forward, weeping. “Am I the only cook who learned how to cook with fire from Sui Ren Shi(燧人氏)? How poor my fate is? Carrying cooking tools, I cook for many soldiers.
 But I don’t have provisions. I only have a gourd.
 I carry a gourd dipper and go back home.” Since he sobs, so does every soldier.
 “I lost my long sword, having only the scabbard and my uniform is burned up.
 I have nothing in my hands, and I hobble along. How can I go back to my Wei(魏) Country?
 Nothing remains in my body but a penis.”

36. (Song of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tells soldiers to interrogate a wooden statue. The statue shows up in his dream and sobs out his sad story.

[Aniri] Since the soldiers are wailing, Cao Cao(曹操) is angry. “Our life is up to heaven. How can you sob? Anybody weeping from now on will be beheaded by the military law.”

이렇듯 분부하고, 초원 산곡¹⁵²⁵) 아득한 데
 두세 번 머물러 낙후패줄¹⁵²⁶) 영거¹⁵²⁷)할 제, 앞에 군사 전포¹⁵²⁸)하되,
 “자나간 말 발자국과 패인 통노구¹⁵²⁹) 자리 훈기¹⁵³⁰)가 있사오니 복
 병 의심 있나이다.”
 조조 듣고 대답하되, “이곳이 명산이라 산제¹⁵³¹) 신공¹⁵³²) 드리는 자
 리라. 걱정 말고 어서 가자.”
 일행을 재촉하여 한 곳에 다다르니,
 적적산중¹⁵³³) 송림간¹⁵³⁴)에 소리 없는 키 큰 장수 취안¹⁵³⁵)을 쨍그리
 고 은은히 서 있거날, 조조 깜짝 놀라
 “여봐라, 정욱아. 날 보고 우뚝 섰는 장수 예¹⁵³⁶) 보던 얼굴 같다.
 만일 관공¹⁵³⁷)이면 내 어이 살아가리.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장이 여짜오되, “그게 장승¹⁵³⁸)이오.”
 조조 더욱 놀래어, “아니 장비네 한 장수란 말이냐?”
 “아니오. 그 화용 십리 목장승¹⁵³⁹)을 보시고 그다지 놀라시오?”
 조조 그제야 숨을 내쉬며, “후유. 허, 풍운건곤¹⁵⁴⁰) 나 속일 리가 없더
 니마는,
 요망한 장승놈이 나를 속여 놀랬단 말이냐? 네 장승놈 잡아 들여라!”
 좌우군병¹⁵⁴¹) 소리치고, “장승 뽑아 잡아들였소!”
 정욱 시켜 분부하되, “네 비록 목신¹⁵⁴²)으로 승상의 혼 경동케¹⁵⁴³)
 하였으니 군법으로 참하리라!”
 호령하고 조조 겁심¹⁵⁴⁴) 풀 양으로,
 “네 여봐라, 술 한 잔 가져오너라.” 술 한 잔 먹고 취하여 잠깐 조는데,

He tells them as said above. A green valley is distant.
 Cao Cao(曹操) leads his defeated soldiers, taking a few breaks.
 A soldier in the front explains in detail.
 “Footprints of horses and a warm hollow surface for a brass pot indicate an ambush.”
 Cao Cao(曹操) replies, “People hold rituals for a god on this famous mountain. So don’t worry. Let’s go.”
 Cao Cao(曹操) presses his soldiers to move and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tall silent warrior in the pine grove of a mountain grimaces and stands up without moving. Cao Cao(曹操) is scared.
 “Hey Cheng Yu(程昱)! The warrior looking at me over there looks familiar to me
 If he is Guan Yu(關羽), I don’t know how I can live. Take a close look at him.”
 Officers reply, “Aha! It is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is all the more scared. “Is he Zhang Fei’s(張飛) officer?”
 “No. How can you be scared by a wooden statue indicating how far Huarong(華容) Road is?
 Cao Cao(曹操) now breathes a sigh of relief. “Oh god! Nobody can deceive me in this chaotic world.
 Did a wicked wooden statue scare me? Arrest the statue and bring it here.”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shout, “We brought the statue here.”
 Cao Cao(曹操) has Cheng Yu(程昱) give an order. “Although you are the god of wood, you will be beheaded by a military law for frightening the premier!”
 After yelling, Cao Cao(曹操) intends to calm himself down.
 “Hey, bring me a glass of wine.” After drinking a glass of wine, he dozes off briefly.

비몽사몽간에¹⁵⁴⁵) 장승 혼령이 현몽¹⁵⁴⁶)을 하겠다.

[중중모리] “천지만물¹⁵⁴⁷) 생겨날 제, 각색초목¹⁵⁴⁸)이 먼저 나
유소씨¹⁵⁴⁹) 신농씨¹⁵⁵⁰) 구목위소¹⁵⁵¹)를 하여 있고,
현원씨¹⁵⁵²)는 작주거¹⁵⁵³) 이제불통¹⁵⁵⁴) 하였으니 그 나무 편타¹⁵⁵⁵)
하며,
석상의 오동목¹⁵⁵⁶)은 오현금¹⁵⁵⁷) 복판¹⁵⁵⁸)이 되어, 대순¹⁵⁵⁹) 슬
상¹⁵⁶⁰) 빗겨¹⁵⁶¹) 안고 남풍시¹⁵⁶²)를 지어내어 스리렁 등덩¹⁵⁶³) 올려
노니 봉황도 춤을 추고,
문왕 때 감당목¹⁵⁶⁴)은 비파성¹⁵⁶⁵)을 띠어 있고,
진황제 오후목¹⁵⁶⁶)과 시상촌 오류목¹⁵⁶⁷)은 춘홍¹⁵⁶⁸)이 그지없
네.¹⁵⁶⁹)

고루거각¹⁵⁷⁰) 동량목¹⁵⁷¹)은 용성화채¹⁵⁷²)가 찬란하여 반공¹⁵⁷³)에 솟
아 있고,
사후영귀¹⁵⁷⁴) 관관목¹⁵⁷⁵)은 백골신체¹⁵⁷⁶)를 안장¹⁵⁷⁷)하고,
신발실당¹⁵⁷⁸)하울 적에 제율목¹⁵⁷⁹)은 신주¹⁵⁸⁰)가 되어
사시절¹⁵⁸¹) 귀부인이 만반¹⁵⁸²) 설위¹⁵⁸³)를 하고,
분향,¹⁵⁸⁴) 헌작,¹⁵⁸⁵) 독축¹⁵⁸⁶)할 제 그로 좋다 하거니와,
이 내 일신 어이하여 상중하품 벗어나서¹⁵⁸⁷)
하산작량¹⁵⁸⁸)이 몇 해리고?¹⁵⁸⁹)

궁궐 동량¹⁵⁹⁰)은 못 될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대광관¹⁵⁹¹)이나 바
랐더니,
무죄한 몸쓸 놈들이 이내 몸을 작벌¹⁵⁹²)하여, 가지 찢어 방천말¹⁵⁹³)
과 마관,¹⁵⁹⁴) 구유,¹⁵⁹⁵) 작두바탕,¹⁵⁹⁶) 소용대로¹⁵⁹⁷) 다한 후에,

He falls into a trance where the spirit of the statue shows up.
[Jungjungmori] “Grasses and trees were the first things created
in the world.

You Chao Shi(有巢氏) and Shen Nong Shi(神農氏) taught us how
to make a house with trees.

Xuan Yuan Shi(軒轅氏) taught us how to make a ship and a
wagon, making it possible to travel to an untrodden place, so
wood brought about convenience.

A paulownia tree on a rock became the body of a pentachord
and was sat obliquely on King Shun's(舜) knee when it was
played. Even a phoenix danced.

King Wen's(文) wild pear tree became a lute.

Qin Shi Huang's(秦始皇) Wu Jiao(五侯) Tree and five willows
in Chai Sang(柴桑) Village give rise to a spring mood.

A crossbeam of a grand house on which a picture of a dragon
is engraved rises high to the sky.

Boards of a coffin in which white bones are kept bring wealth
and fame to a dead person.

When a person dies, a chestnut tree becomes a divine tag in
a family shrine.

A noble lady offers good food every year around.

Incense is burned, wine is offered, and a written prayer is
recited, which is good.

My fate is neither too good nor too bad.

How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was taken down from a
mountain and became a pillar of a small house?

Although I did not wish to be a pillar in a palace, I wished to
be a wide board.

But bad people cut me down and used my branches to make
a stake, a board of a barn, a manger, and the bottom of a
straw-cutter.

남은 동¹⁵⁹⁸)은 목수 보여 어느 귀신의 얼굴인지, 주먹코,¹⁵⁹⁹) 방울
눈,¹⁶⁰⁰)

주토킬,¹⁶⁰¹) 팔자 없는¹⁶⁰²) 사모품대,¹⁶⁰³)

‘화용 십오 리 장승이라’ 복판에 이름 새겨 대도상¹⁶⁰⁴)에 세워노니,
입이 있어 말을 하며, 손이 있어 빌어 보며,

발이 있어 도망하며, 눈이 있으면 볼 수가 있소?

불피풍우¹⁶⁰⁵)하고 우두머니¹⁶⁰⁶) 서서 진퇴유곡¹⁶⁰⁷)하는 나를 승상은
모르시고 그다지¹⁶⁰⁸) 놀라시니,

기군찬역¹⁶⁰⁹) 아닌 나를 구로행형¹⁶¹⁰)하랴시니 목신¹⁶¹¹)에게 무삼
죄요?

물구즉신¹⁶¹²)이오니 심량¹⁶¹³) 처분하옵심을 천만천만¹⁶¹⁴) 바라내
다.”¹⁶¹⁵)

37. (군사 점고) 조조가 한나라 장수들의 험담을 늘어놓다 가 군사 점고를 하니, 군사들이 모여든다.

[아니레] 조조 잠을 깨어, “장승 보고 놀란 내가 도리어 실체¹⁶¹⁶)로구
나. 장승 방송¹⁶¹⁷)하랴.” 영을 하고,

“네 여봐라. 내 속이 시끄럽다, 술 좀 가져오너라.” 이르더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대취하여,

“네 여봐라, 이 손¹⁶¹⁸)들아. 이번 싸움에 내가 패전은 하였으나 내
속¹⁶¹⁹)은 다 있다.

오한 양진 장수¹⁶²⁰) 근본¹⁶²¹)인즉 또다또다¹⁶²²) 모두 줌놈¹⁶²³)들이다.

The remaining part of my body was taken to a carpenter who made a ghostly face, a flat nose, and big eyes out of it. He pasted red dirt over me and put an official hat on my head that I was not fated to put on.

I was set up on a wide road after my name 'Huarong(華容) Road 6 km' was engraved in the middle of my body.

Can I speak when I don't have a mouth? Can I beg when I don't have hands?

Can I run away when I don't have legs? Can I see even though I have eyes?

I can't avoid the rain and the wind, standing up vacantly without moving forward or backward. Mr. Premier, you didn't know about me and was scared by me.

I didn't rebel against a king, but you were trying to punish me. What am I, the god of wood, guilty of?

If a thing goes old, it becomes a ghost. I sincerely wish that you think harder about me."

37. (Inspection of Soldiers) After speaking ill of the warriors of the Han(漢) Dynasty, Cao Cao(曹操) inspects his soldiers who gather together.

[Aniri] Cao Cao(曹操) wakes up and issues an order. "I am ashamed to be frightened by the statue. Set the statue free."

"Hey, my stomach is noisy. Bring some wine." With the order, everybody drinks wine and gets drunk.

"Hey folks! Please pay attention to me. Although I was defeated in this war, I have my own thoughts.

But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are of low background.

유현덕, 한종실¹⁶²⁴ 중산정왕¹⁶²⁵ 후에¹⁶²⁶인 척하고 거드름¹⁶²⁷ 빼
거니와,

양산 채마전¹⁶²⁸에서 돛자리¹⁶²⁹나 짜고 쪼신 삼아 생활하던 궁
반¹⁶³⁰이요.

관공이 기운 있는 체하고 사람은 잘 찌르거니와 하동¹⁶³¹ 점인¹⁶³²이
었다.

장비¹⁶³³가 표독¹⁶³⁴하여 우직은 하거니와 제 탁군¹⁶³⁵ 제육장
사¹⁶³⁶놈이여.

그런 놈들이로되, 그놈의 고리눈¹⁶³⁷ 좋다 하고, 현덕이 결의형
제¹⁶³⁸하였것다.

근래 인심 괴이하여,¹⁶³⁹ 주먹이 좀 단단하다고 약간 힘만 믿고, 이놈
들 버르장머리¹⁶⁴⁰ 없이

내가 지체¹⁶⁴¹는 고하간에¹⁶⁴² 저희들보다는 나이 실존장¹⁶⁴³이 되
건마는 여차하면,¹⁶⁴⁴ ‘조조야, 조조야.’ 함부로 부르니,

그놈의 소리를 들으면 세육¹⁶⁴⁵에 뜻이 없어지거든, 아이고, 이 원수
놈들!

그리고 그 이상한 조자룡이란 놈 벼룩 삼시랑¹⁶⁴⁶이라.

날새끼¹⁶⁴⁷처럼 펄펄 뛰어다니며 우리 진중 다니면서 아까운 인물만
씩씩 빼어 가는구나.

그놈은 외갓집도 없고, 상산¹⁶⁴⁸ 바위틈에서 근본¹⁶⁴⁹ 없이 쑥 불거
진¹⁶⁵⁰ 놈.

제갈량이가 슬기 있는 체하고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마는 남양¹⁶⁵¹에서
밭 갈아 먹던 농토생¹⁶⁵²이었다.

초륜소박¹⁶⁵³으로 데려다가 저희들끼리 선생이니 후생¹⁶⁵⁴이니,
이후로 저희놈들 갓을 못 쓰고 두문불출¹⁶⁵⁵할 놈들이다.

너희들, 그놈들 보고 저리지¹⁶⁵⁶ 마라. 천하에 보리봉태¹⁶⁵⁷라.

Liu Bei(劉備) acts arrogant, saying he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But he was of a fallen upper class person, growing vegetables on Yan(陽) Mountain and weaving a mat and shoes with straw for a living.

Pretending to be strong, Guan Yu(關羽) pierces people with a spear, but he used to make and sell pottery in Hedong(河東). Zhang Fei(張飛) is fierce and simple, but he used to sell pork in Zhuo(涿) County.

Liu Bei(劉備) made a resolution to be brothers with such a person because white circles surround his eyes.

People are getting weird these days. Relying on their physical strength, they are rude and impolite.

Forget about the ranks. I am older than they, but they often call me, ‘You villain, Cao Cao(曹操).’

When they say things like that to me, I want to give up all my worldly greed. Darn foes!

Zhao Zi Long(趙子龍) is a weird bastard.

He runs around like a bird, killing my great officers on the battlefield.

Without parents, he popped up from a crevice of a rock on Changshan(常山).

Even though Kong Ming(孔明) pretends to be wise and eloquent, he was a trivial farmer cultivating a field in Nanyang(南陽).

He only appears to be respected as a teacher or something like that.

But they shouldn’t wear hats and shouldn’t meet people outside their house.

Hey folks! Don’t be intimidated by them. They are worthless punks.

내 소시 때¹⁶⁵⁸ 관공¹⁶⁵⁹과 나와 씨름을 하여,
내 앞무릎치기에 세 번이나 나가 떨어져 면상¹⁶⁶⁰이 벗겨지고,
장비는 내 생꼭지¹⁶⁶¹에 된 땅¹⁶⁶²에 처박혀 장독¹⁶⁶³이 나서 얼굴이
그리 검푸르니라.”

정욱이 하는 말이, “왕후장상이 씨가 있으리까?¹⁶⁶⁴ 그런 장담¹⁶⁶⁵
말으시고 어서 군사 점고¹⁶⁶⁶나 허사이다.”¹⁶⁶⁷

“점고할 거 뭣 있냐? 정욱이, 너, 나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 알겠다.”

“그래도 군법이 그렇지 않은 것이니 어서 점고허사이다.”

산줄¹⁶⁶⁸을 모으고 점고할 제, “명금이하 취타하라!”¹⁶⁶⁹ 나 노니노나
따때 처르르르르르 꿈.

[중모레 허튼¹⁶⁷⁰ 군사 모여들 적, 살 맞아 팔 못 쓰고, 다리 절고
눈먼 놈과,

문노라 한국¹⁶⁷¹ 장졸, 한신,¹⁶⁷² 팽월¹⁶⁷³ 죽단 말가?¹⁶⁷⁴

보국충신¹⁶⁷⁵ 다 죽었네. 한 군사 거동 보소.

깨어진 통노구¹⁶⁷⁶를 불타진 맹석¹⁶⁷⁷에 따르르르 말아 들어메고 전
동전동¹⁶⁷⁸ 걸어서 들어온다.

38. (허무적이) 조조가 허무적이를 죽이려 하자, 허무적이 가 조조에게 대든다.

[아니리] 조조 보고, “남은 군사 무던하다.¹⁶⁷⁹ 바빠 불러라.”

정욱이 영을 듣고 장대상¹⁶⁸⁰에 높이 서서,

좌수¹⁶⁸¹에 홀기¹⁶⁸² 들고 우수¹⁶⁸³에 칼을 쥐고 군중에 호령하되,
“만일 점고 불참자¹⁶⁸⁴는 군법으로 참¹⁶⁸⁵하리라!”

When I was young, I wrestled with Guan Yu(關羽).
 I kicked him down three times, and his face skin was peeled off.
 I threw Zhang Fei's(張飛) head on the ground hard. As a result,
 his face has gone bad and become bluish black."
 Cheng Yu(程昱) speaks, "One can raise his social status
 regardless of his family background. Stop your confident talk.
 Let's inspect the soldiers."
 "There are not many to be inspected. Cheng Yu(程昱), you, and
 me. It is easy to count."
 "But let's inspect soldiers as the military law requires."
 They gather the scattered soldiers and inspect them. "Play the
 music! Here goes Mr. Premier!" Musical sounds are heard.
[Jungmori] The scattered soldiers fall in. Arrows have made
 some arms useless. Some hobble, and some are blind.
 I ask you. Did the officers and soldiers of the Han(漢) Dynasty,
 Han Xin(韓信), and Peng Yue(彭越) die?
 All the loyal subjects are dead. Behold a soldier.
 Carrying a broken brass pot covered with a burned mat, he
 hobbles in.

38. (Heomujeok) Cao Cao(曹操) tries to kill Heomujeok, and Heomujeok stands up to him.

[Aniri] Cao Cao(曹操) says, "The remaining soldiers look bad.
 Call them quickly."
 With the order, Cheng Yu(程昱) stands up high in a
 commanding post.
 He issues an order, carrying a written order in the left hand and
 a sword in the right hand.
 "Those who don't take part in inspection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전진¹⁶⁸⁶의 안이명이!” “물고¹⁶⁸⁷요.”

조조 듣고, “아니 안이명이가 어디서 죽었던 말이나?”

“오림서 조자룡 만나 창 맞아 죽었소.”

“아차차차, 참 아까운 놈 죽었다. 그 근본 없는 놈한테 허망히 죽었구나. 또 불리라.”

“전부우사¹⁶⁸⁸ 천충소¹⁶⁸⁹에 허무적이!”

[중모레] 허무적이가 울며 들어오네.

투구¹⁶⁹⁰ 벗어 손에 들고, 갑옷 벗어 들어메고,

한 팔 늘이우고, 한 다리 절룩절룩, 통곡으로 우는 말이,

“고향을 바라보니 구름만 댄¹⁶⁹¹하고, 가솔¹⁶⁹²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 측량¹⁶⁹³없소.”

가고지고,¹⁶⁹⁴ 가고지고, 우리 고향을 가고지고.”

[아니레] 애고 애고 통곡하니, 조조 보고,

“너는 천충의 도리로 오연불배¹⁶⁹⁵ 꽤 씹하니, 네 이놈 목 베어라!”
허무적이 여짜오되,

[중모레] “승상님, 내 말을 들어 보오. 여보, 승상님, 듣조시오.¹⁶⁹⁶

적벽강 급한 난리 화전¹⁶⁹⁷을 피하려다 뜻밖에 살 한 개가 수루루루
떠들어와 팔 맞아 부러지고 다리조차¹⁶⁹⁸ 맞았으니,

전연¹⁶⁹⁹ 군례¹⁷⁰⁰할 수 있소? 어서 목을 베어 주오.

혼비혼환¹⁷⁰¹ 둥둥 떠서 그림던 부모와 애중한¹⁷⁰² 처자 권술¹⁷⁰³
얼굴이나 보고지고.

어서 급히 죽여주오!”

“Animyeong, in the front of the formation!” “He died.”

Cao Cao(曹操) says, “Where did Animyeong die?”

“He died by Zhao Zi Long’s(趙子龍) spear in Wulin(烏林) Forest.”

“Alas! He was a good soldier. He was killed by a villain having no a family background. Call the next!”

“Heomujeok, an officer in the right of the formation!”

[Jungmori] Heomujeok comes in, weeping.

He holds his helmet in his hand and hangs his armor over his shoulder.

He hangs an arm down loose, drags one leg, and weeps.

“I looked in the direction of my home and saw only a quiet cloud. When I think about my family, a sad feeling overtakes me.

I wish to go back home.”

[Aniri] As Heomujeok wails, Cao Cao(曹操) says,

“Even though you are an officer, you didn’t salute to me. You are arrogant. Cut his head off!” Heomujeok responds,

[Jungmori] “Mr. Premier, please listen to me.

When I was trying to avoid a fire in the Chibi(赤壁) River, an arrow unexpectedly flew at me and broke my arm and leg.

How can I salute to you? Cut my head off right away.

My soul will fly and see my parents, affectionate wife and children that I miss so much.

Please kill me immediately!”

39. (골내종이, 박덜렁이) 골내종이는 성한 데가 없는 몸으로 들어오고, 박덜렁이는 성한 몸으로 들어와 각각의 사연을 말한다.

[아니레] 조조 망발¹⁷⁰⁴로 생각하고,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네 부모가 즉 내 부모요, 내 부모가 즉 네 부모라.”

달래어 내보내고, “또 불러라.” “좌기병¹⁷⁰⁵ 골내종이!”¹⁷⁰⁶

[중중모레] 골내종이가 들어온다. 골내종이 들어온다. 안판낙포¹⁷⁰⁷ 곱사등¹⁷⁰⁸에 눈시울¹⁷⁰⁹은 찢어지고,

입할차¹⁷¹⁰ 비틀어져, 귀 하나 떨어지고, 왼팔이 쪽 늘어져, 다리 절고, 곱배팔¹⁷¹¹ 거침없이 휘저으며, 꺽충꺽충 모듬발¹⁷¹²로 뛰어 들어와, “에이!”

[아니레] 조조 보고 대소하며, “야, 그놈 병신 부자놈이로구나.

저놈 어디서 낮잠 자다가 산벼락¹⁷¹³ 맞은 놈 아니냐?

저런 것들 군중에 두어야 후환거리¹⁷¹⁴라.

우리는 앞에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처졌다가 우리 간 데만 꼭꼭 적병에게 일러 줄 테이니,

저것 없애버리자. 좋은 수 있다. 저 놈을 잘 씻어 폭 삶아라. 한 그릇씩 아주 먹고 가자.”

골내종이 어이없어 조조를 물끄러미 눈이 찢어지게 한참 쳐다보더니 마는,

“승상님 눈구녕¹⁷¹⁵ 생긴 것이 꼭 인장식¹⁷¹⁶하게 되었소.”

“저것 보기 싫다. 몰아내라.” “우기병,¹⁷¹⁷ 박덜렁이!”

[중중모레] 박덜렁이가 들어온다. 박덜렁이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쥔고,

39. (Gollaejong and Bak Deolleong) Gollaejong comes in. Every part of his body is damaged. Bak Deolleong comes in. No part of his body is damaged. They tell their own stories.

[Aniri] Cao Cao(曹操) thinks he misspoke. "Don't weep. Your parents are my parents, and vice versa."

He sends him out nicely. "Call the next." "Gollaejong, the left flag soldier!"

[Jungjungmori] Gollaejong comes in. His chest and back are bent, and the ends of his eyes are slit.

His mouth is crooked, and his earlobe has been cut off. His left arm hangs down, and he hobbles.

He wields his deformed arm, and he jumps, putting both his feet on the ground at the same time. "Yes!"

[Aniri] Cao Cao(曹操) bursts into a laughter. "Hey, he is filled with deformations.

Doesn't he look like he was hit by lightning while taking a nap? A person like him is a root of evil in a multitude.

If we flee, he will fall behind and tell the enemy ambush where we were headed.

Let's get rid of him. I've got an idea. Wash him and cook him thoroughly. Let's drink a bowl of the soup and take off."

Struck dumb, Gollaejong stares at Cao Cao(曹操) vacantly for a long time.

"Your eyes look as if you will eat a human being."

"I hate this guy. Get him out of here." "Bak Deolleong, the right flag soldier!"

[Jungjungmori] Bak Deolleong comes in. He holds a broken spear upside down.

두 눈을 부릅뜨고 덜렁거리고 들어와, 조조 앞애가 우뚝 서서,
“예이!” 하고 달려든다.

[아니레] 조조 보고 질색¹⁷¹⁸)하여, “아이고, 저거, 저 저 거, 저 저 장비¹⁷¹⁹) 군사 아니냐?”

박달령이 하는 말이, “아니 뉘 아들놈이 장비 군사란 말이요? 조조 군사지.”

“네 이놈, 조조라니?” “아, 이 녀¹⁷²⁰) 군사도 몰라본단 말씀이요?”

“네가 내 군사 같으면 왜 그리 성하냐?”¹⁷²¹) “아, 성하거든 회쳐¹⁷²²) 잡수시오.”

“이애, 그제 웬 말이냐?” “아까 병든 놈은 국 끓여 먹는다 했으니 성한 놈은 회쳐 잡썰야지요.”

“너는 별로¹⁷²³) 성하기에 반가워서 하는 말이로다.”

“아, 군사놈들이 모두 미련해서 죽고 병신 되고 그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참 싸울 때 살짝 빠져 산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싸움곳¹⁷²⁴)인즉은 제일 좋습니다.

쟁¹⁷²⁵) 치면 앞장서서 들어와서 호군¹⁷²⁶) 먹고.”

“저놈, 저 매우 실군사¹⁷²⁷) 놈이로구나. 네 이놈, 창날은 어찌고 창대만 지팡이 삼았느냐?”

“아, 오다가 창날은 배고파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남은 돈으로는 바늘 한 켤¹⁷²⁸) 샀지요.”

“이 난리통에 바늘은 어따¹⁷²⁹) 쓸려고 샀는고?”

“어떤 염병¹⁷³⁰) 앓다 죽을 놈이 맨날¹⁷³¹) 이렇게 지는 전쟁통¹⁷³²)에 만 있으리까?”

[중모레] “우리 집에 돌아가면, 그림던 마누라가 우루루루 달려들어, 우수¹⁷³³)로 손길 잡고 좌수¹⁷³⁴)로 목을 안어,

Opening his eyes wide, he walks in a care-free manner and stands up in front of Cao Cao(曹操).

"Yes!" He gets too close to Cao Cao(曹操).

[Aniri] Cao Cao(曹操) is petrified. "My goodness! Isn't he Zhang Fei's(張飛) soldier?"

Bak Deolleong responds, "Who is Zhang Fei's(張飛) soldier? I am Cao Cao's(曹操) soldier."

"You villain! How dare you call me Cao Cao(曹操)?" "How can you not recognize your own soldier?"

"If you are my soldier, how come you are not wounded at all?"

"Since I am not wounded, please eat me raw."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You said you would cook and eat a wounded soldier, so you should eat an unwounded soldier raw."

"I said that because I was glad to see you unwounded."

"The soldiers died and were crippled because they were fools. Speaking of the battle, when the fight was fierce, I ran away, climbed up a mountain, and I observed the battle which was quite a show.

If they hit a gong, I came back and ate food."

"That villain is a true soldier. You bastard! Why is it that the blade of your spear is gone, and you are using the spear as a cane?"

"I was hungry on my way here, so I sold the blade to buy food and drink, and I bought a pack of needles with the rest of the money."

"What did you buy the pack of needles for in such a chaos?"

"Would I, a bad fated man, continue to be in such defeating wars?"

[Jungmori] "If I go back home, my dear wife will run to me. Her right hand will hold my hand, and her left hand will hug my neck.

‘반가워라, 반가워라. 천리 전장 갔던 낭군 살아오니 반가워라.’
눈물로 반길 적에, 이 바늘을 정표¹⁷³⁵⁾ 주고,
사시¹⁷³⁶⁾ 의복 지어 얻어 입혀가며 알뜰살뜰 살아 붙잡고요.”

40. (왕당방이, 구먹쇠, 목음출이) 왕당방이, 구먹쇠, 목음출이가 들어와 조조에게 각기 사연을 말한다.

[아니레] 조조 듣고, “그놈, 장히 치산가¹⁷³⁷⁾로구나.
저놈 내보냄과 동시에 구연장¹⁷³⁸⁾을 잔뜩 진껴라.¹⁷³⁹⁾ 또 불러라!”
“후기병,¹⁷⁴⁰⁾ 왕당방이!”

[중모레] 왕당방이 거동을 보소. 엉덩이를 양손에 받쳐 들고 뭉그적뭉그적¹⁷⁴¹⁾ 밀고 나오는구나.

조조 보고 어이없어, “너는 어찌 하신¹⁷⁴²⁾ 힘을 못 쓰는고?”
“승상님 들조시오.¹⁷⁴³⁾ 난중에 치질 생겨 엉망진창 수라장이요.
나 죽기는 싫잖으나, 팔십당년¹⁷⁴⁴⁾ 늙은 노모를 뉘게다¹⁷⁴⁵⁾ 의탁¹⁷⁴⁶⁾
을 하잔 말이오?”

[아니레] 조조 대소하며, “오냐, 네 속¹⁷⁴⁷⁾ 내 잘 알겠다.
너 죽더라도 나 살아 돌아가 너의 부모 만나겠다. 또 불러라!”
“마병장¹⁷⁴⁸⁾에 구먹쇠!” “예!”
이놈은 말 다 어디다 두고 말채¹⁷⁴⁹⁾만 손에 들고 걱정 없이 들어와,

‘Hurrah! I am glad my husband has come back alive from war far away.’

When she greets me in tears, I will give her this pack of needles as a sign of my love.

We will make clothes of four seasons with these needles, living simple and happy lives.”

**40. (Wangdeongbang, Gumeoksoe, and Mogumchul)
Wangdeongbang, Gumeoksoe, and Mogumchul
come in and tell their own stories to Cao Cao(曹操).**

[Aniri] Cao Cao(曹操) says, “That villain is interested in collecting a property.

Get him out of here and get him carry a lot of tools. Call the next!” “Wangdeongbang, the rear flag soldier!”

[Jungmori] Behold Wangdeongbang! He moves forward awkwardly, pulling up his butt with his two hands.

Cao Cao(曹操) is confused. “Why is the lower part of your body powerless?”

“Mr. Premier, listen to me. I am in a mess, suffering from piles in this war.

I don’t mind dying. But to whom should I leave my eighty year old mother?”

[Aniri] Cao Cao(曹操) bursts into a laughter. “Okay. I understand your internal affair.

Even if you die, I will meet your parents alive. Move onto the next!”

“Gumeoksoe, the officer in charge of horses!” “Yes!”

Having lost his horses, he only has a whip in his hand, and comes in in a care-free manner.

“무엇허랴오?”¹⁷⁵⁰⁾ “너는 전장에 잃은 것은 없느냐?”
 “예, 하나도 없소.” “아, 거 참 신통하다. 모두 이리 가지고 오너라.”
 “아니오. 대한총¹⁷⁵¹⁾ 좋은 말에 구연장을 다뺏¹⁷⁵²⁾ 싣고 오는데, 오림¹⁷⁵³⁾에서 조자룡 만나 다 쥐버렸소.”
 조조 화를 내어, “이놈, 목 베어라.”
 “내 말 좀 들어 보오. 내가 그냥 준 것이 아니오라, 그놈의 망아지 새끼도 추세¹⁷⁵⁴⁾를 따름디다그려.
 말끔¹⁷⁵⁵⁾ 자룡 진으로 비호같이¹⁷⁵⁶⁾ 도망쳐 가 버리니,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본시¹⁷⁵⁷⁾ 없는 셈 치고 그냥 나만 살아 온 것도 다행이지요.”
 “네 이놈! 이 난중에¹⁷⁵⁸⁾ 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나?”
 “아, 승상님. 말 좋아하지 마시오. 대로는 복병이 너무 심하니, 말 탈 것 없이 들것¹⁷⁵⁹⁾을 만들어 타고 가시든지, 더 편하게 가실 양이면 발대지계¹⁷⁶⁰⁾에 담아 짊어지고,
 산곡¹⁷⁶¹⁾ 좁은 길로 빠져나가기 좋고, 좋은 경치 구경해 가며, 설령설령¹⁷⁶²⁾ 한가히 가옵시면 만사태평¹⁷⁶³⁾하실 것이요.”
 “이놈, 내가 앓은뱅이란 말이나? 저놈 아무 걱정 없이 말하는 게, 저놈의 눈구녕¹⁷⁶⁴⁾ 생긴 것이 일낼 놈이로고.”
 “아, 눈구녕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상님 눈이 꼭꼭 큰일만 났지요.”
 “이놈, 우악¹⁷⁶⁵⁾하다. 몰아내고 구연장을 또 있는 대로 잔뜩 진껴라.¹⁷⁶⁶⁾ 또 불러라!”
 “후군장¹⁷⁶⁷⁾에 목욕출이!” “예!”
[자진모레] 목욕출이 들어온다. 목욕출이 들어와. 이놈은 양손에 턱고이고 아장아장¹⁷⁶⁸⁾ 들어오며,
 “아이고, 모가지야.” “너 이놈, 네 목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오림 이릉 양곡¹⁷⁶⁹⁾에서 일원¹⁷⁷⁰⁾ 장수 쫓아오며, ‘조조란 놈 어디로 가더냐?’

“What do you want?” “What didn’t you lose anything on the battlefield?”

“No, I lost nothing.” “That’s strange. Bring me what you have.”
“Oh, I was carrying a lot of tools on good horses, but I gave them all to Zhao Zi Long(趙子龍) in Wulin(烏林) Forest.”

Cao Cao(曹操) is indignant. “Cut this bastard’s head off.”

“Please listen to me. I didn’t give up my possessions for nothing. My horses follow a powerful man.

They ran away to Zhao Zi Long’s(趙子龍) camp. I couldn’t follow them into the enemy zone.

I persuaded myself I didn’t have them in the first place and I am lucky to be alive.”

“You rat! How can we move without horses in this war?”

“Mr. Premier, please forget about horses. A wide road is teeming with ambush.

Please get on a stretcher instead of a horse. If you want a more comfortable ride, you can ride an A-frame carrier.

A narrow road in a valley and a mountain is a good escape route. We can enjoy the beautiful scenery.

We will be happy and free of worry if we walk leisurely.”

“You fool! Am I handicapped? That bastard talks thoughtlessly. His damn eyes indicate he will cause trouble.”

“Speaking of eyes, your eyes are more ominous than mine.”

“This fool is ignorant and cruel. Get him out of here and have him carry as many tools as possible. Call the next!”

“Mogumchul,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back of the formation!”

“Yes!”

[Jajinmori] Mogumchul comes in. He walks in unsteadily with his hands on his chin.

“My neck aches.” “Hey villain! What happened to your neck?”

“A warrior was chasing me in the two valleys: Yiling(彝陵) and Wulin(烏林). He asked ‘Where did damn Cao Cao(曹操) go?’”

“네 이놈, 조조란 놈이라니?” “아이고, 그 장수 말씀이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래, 일렸느냐? 만일에 일렸으면 달아나자.”

“글쎄 들어 보시오. 취안¹⁷⁷¹을 쟁그리고 승상 간 데만 이르라니, 아생연후살타라.”¹⁷⁷²)

“아뿔사! 일렸구나.” “글쎄 들으시오.

내가 안 일러도 이리 온 흔적 있고, 또 본 사람이 있을 테니, 일러도 죽일 테요, 안 일러도 죽일 테니 어찌해야 옳단 말이오?”

“허허, 그 녀석, 그 장수를 데려다가 이 근처에 숨겨 놓고 나 잡으러 온 놈이제.

이런 죽일 놈! 그래 일렸단 말이나? 일렸으면 달아나자. 갑갑하여 나 죽겠다.”

“내 말 좀 들어 보요.” “그래 말해 봐라. 어서 들어보자.”

“죽자 하고 잡아떼니, 그 장수 주먹으로 후닥딱! 한 번 맞은 것이 이렇게 목이 들어갔소.”

조조 좋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저리 점고하여 보니 백여 명 남은 군사 병신뿐이로구나. 불쌍하고 가련한지라.

41. (조조 탄식) 조조가 탄식하다 헛웃음을 웃으니 제장들이 겁을 낸다.

[진양조] 행군¹⁷⁷³)하여 떠나갈 제, 반생반사¹⁷⁷⁴) 남은 군사 팔 못 쓰고, 다리 절고,

불에 타 눈먼 놈과 허리 빼어 기는 놈, 다리 없어 목발로 뛰어간 놈,

“You rascal! How can you say damn Cao Cao(曹操) to me?” “My goodness. The warrior said so, not me.”

“Did you tell the truth? If you did, let’s run away.”

“Please listen. He distorted his red face and told me to tell him about where you went. A saying holds ‘I can kill others after I survive.’”

“Gosh! You told him where I went!” “Please listen.

Even if I didn’t tell him about where you went, there are signs that you are here and there must be people who saw you.

So we will die whether or not I told him the truth. What should we do?”

“You fool! You brought the warrior and hid him here to capture me.

You bastard! Did you tell the truth? If you did, let’s flee. Tell me!”

“Please listen to me.” “Okay. Speak. I want to hear.”

“I refused to tell him the truth. He hit me quickly on my neck! With the blow, my neck caved in.”

Cao Cao(曹操) is exuberant. “How poor you are!”

The inspection reveals there are only about 100 wounded soldiers. How pathetic and pitiful they are!”

41. (Cao Cao(曹操) sighs.) As Cao Cao(曹操) sighs and laughs without reason, officers are frightened.

[Jinyangjo] They move forward. Half alive and half dead, some soldiers can’t move their arms, and some hobble.

Some are blind because their eyes were burned by fire, and some crawl because their backbones are broken. A soldier runs on crutches because he doesn’t have legs.

“아이고, 아퍼 나 죽겠네!” 외마디¹⁷⁷⁵)로 큰소리친 놈,
조조 보고 기가 막혀, “아이고, 내 일이야.
내 일신¹⁷⁷⁶) 먹은 마음, 분분천하¹⁷⁷⁷) 봉기제장¹⁷⁷⁸) 날날이 항복 반
아 일통천하¹⁷⁷⁹) 하겠더니,
황개¹⁷⁸⁰)의 교육계¹⁷⁸¹)와 방통¹⁷⁸²)의 연환계¹⁷⁸³)며, 공명의 얇은 계
교에 빠져서 백만 대병을 몰살하고,
무슨 낮으로 고향을 갈거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니레] 이렇듯 탄식하다 또 ‘히히 하하’ 대소하니,
중관¹⁷⁸⁴)이 겁을 내어, “승상님, 큰일 났소.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니
어찌자고 웃나이까?”
정욱이 나서며, “여봐라, 제장들아. 모두 조심들 하여라. 승상이 웃으
셨다.”
“글쎄 애들아, 웃음 아니 날까 보냐? 주유, 제갈량을 뉘다려¹⁷⁸⁵) 모
사¹⁷⁸⁶)라 할꼬?
이런 곳에 복병하여 두었으면 조조 말고 메조¹⁷⁸⁷)라도 살아가겠느냐?”

42. (관운장 출현) 관운장이 나타나자 정욱이 조조에게 빌 어보라고 한다.

[자진모레] 이 말이 지듯마듯¹⁷⁸⁸) 뇌고소리¹⁷⁸⁹)가 ‘꿍!’
정욱이 혼겁하여,¹⁷⁹⁰) “승상님, 이게 무슨 소리요?”
“이 애들 겁도 많다. 이곳에 명산 절이 있어 사시공양¹⁷⁹¹) 큰 복소리다.”
만학천봉¹⁷⁹²) 사이로 검극¹⁷⁹³)이 뽀죽뽀죽, 대풍¹⁷⁹⁴)이 일어나 깃발
이 펄펄.

“Ouch! I am dying of pain!” He shouts a sentence loudly.
Looking at him, Cao Cao(曹操) is stunned. “Alas! Woe is me!
I made up my mind to unify the world after defeating all the
rebellious generals.

I lost a million soldiers because of Huang Gai’s(黃蓋) plot to
sacrifice himself, Pang Tong’s(龐統) plot to burn the enemy’s
ships, and Kong Ming’s(孔明) shallow plot.

How can face the people back home? Alas! Woe is me.”

[Aniri] After sighing as said above, Cao Cao(曹操) laughs loudly.
‘Heehee Haha!’

His subjects are horrified. “Mr. Premier, we are in trouble! Your
laugh always brings an ambush. Why did you laugh?”

Cheng Yu(程昱) moves forward. “Officers! Watch out. The
premier laughed.”

“Hey folks! Don’t you think I will laugh?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are not qualified to be strategists.

If they laid an ambush here, nobody including me could
survive.”

42. (Guan Yu(關羽) Shows Up) As Guan Yu(關羽) shows up, Cheng Yu(程昱) asks Cao Cao(曹操) to beg for mercy.

[Jajinmori] The moment Cao Cao(曹操) finishes, incessant drum
sounds are heard.

Cheng Yu(程昱) is petrified. “Mr. Premier, what are the sounds?”

“You coward! There is a Buddhist temple on this famous
mountain. The drum sounds are from a ritual for Buddha.

Swords and spears shine from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
peaks. A wind blows hard, and flags flutter.

정육이 방색¹⁷⁹⁵)할 제, 좌편에서 ‘꿈!’ 우편에서 ‘꿈!’ 안산¹⁷⁹⁶) 후
면¹⁷⁹⁷)에서 ‘꿈! 꿈!’

조조 그제야 겁을 내어, “아이고, 내 사냥¹⁷⁹⁸) 났나 보다.”

무수한 천병만마¹⁷⁹⁹) 물밀 듯이 들어온다. 툭 켕 처르르르르르 뛰
뚜 우우우우 꿈!

정육이 정신차려 기색¹⁸⁰⁰)을 살펴보니,

‘대원수¹⁸⁰¹) 관공¹⁸⁰²) 삼군¹⁸⁰³) 대병’¹⁸⁰⁴)이라 뚜렷이 새겼는데,

“승상님, 어서 웃음이나 원 없이 웃으시오.”

“애, 비소¹⁸⁰⁵) 말고 오는 장수 살펴보아라.”

전후좌우 살펴보니 청도기¹⁸⁰⁶)를 벌였는데,

청도¹⁸⁰⁷) 한 쌍, 홍문¹⁸⁰⁸) 한 쌍,

주작¹⁸⁰⁹) 남동각¹⁸¹⁰) 남서각¹⁸¹¹) 홍초¹⁸¹²)

남문¹⁸¹³) 한 쌍, 청룡¹⁸¹⁴) 동남각¹⁸¹⁵) 서남각¹⁸¹⁶)

남초¹⁸¹⁷) 황문¹⁸¹⁸) 한 쌍, 백호¹⁸¹⁹) 동북각¹⁸²⁰)

서북각¹⁸²¹) 흑초¹⁸²²) 현무¹⁸²³) 북동각¹⁸²⁴) 북서각¹⁸²⁵)

홍신, 백신, 황신, 청신, 흑신¹⁸²⁶) 표미¹⁸²⁷)

금고¹⁸²⁸) 한 쌍, 호초¹⁸²⁹) 한 쌍,

나¹⁸³⁰) 한 쌍, 적¹⁸³¹) 한 쌍,

바라¹⁸³²) 한 쌍, 새납¹⁸³³) 두 쌍,

고¹⁸³⁴) 두 쌍, 영기¹⁸³⁵) 두 쌍,

군뢰직열¹⁸³⁶) 두 쌍, 좌마¹⁸³⁷) 독¹⁸³⁸) 이요,

Cheng Yu(程昱) goes into a defensive mode. Thumping sounds are heard from the left, the right, and the back of the front mountain.

Cao Cao(曹操) is now scared. "They must be hunting me." Numerous soldiers and horses come like a tidal wave. Bump! Thump!

Cheng Yu(程昱) collects himself and observes the colors of the flags carefully.

A flag clearly reads, 'General Guan Yu(關羽) in Charge of Three Units.'

"Mr. Premier, laugh to your satisfaction."

"Don't laugh at me. Take a close look at the general coming at us."

On close observation, they are carrying flags:

a pair of cheongdos(淸道), a pair of hongmuns(紅門),
jujak(朱雀), namdong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cho
(紅綃),

a pair of nammuns(藍門), blue dragon(青龍), dongnamgak(東南
角), seonamgak(西南角),

namcho(藍招), a pair of hwangmuns(黃門), white tiger(白虎),
dongbuggak(東北角),

seobuggak(西北角), heukcho(黑綃), hyeonmu(玄武), bukdonggak
(北東角), bukseogak(北西角),

hongsin(紅神), baeksin(白神), hwangsin(黃神), cheongsin(青神),
heuksin(黑神), pyomi(豹尾),

a pair of iron drums(金鼓), and a pair of hocho(號招).

They carry musical instruments: a pair of a percussion
instrument, a pair of flute,

a pair of cymbals, two pairs of wind instruments,

two pairs of drums, two pairs of yeonggi(令旗),

They carry two pairs of ropes for tying prisoners, an extra horse
for a commander, and a front flag.

난후,¹⁸³⁹) 친병,¹⁸⁴⁰) 교사,¹⁸⁴¹) 당보¹⁸⁴²) 각 두 쌍으로 등 갱 처르르르르.

좌르르르 벌인 거동, 기치¹⁸⁴³) 창검은 일광¹⁸⁴⁴)을 희롱하고, 뇌고¹⁸⁴⁵) 함성은 천지를 움직인다.

한 장수 나오는데, 늠름하다. 주안,¹⁸⁴⁶) 봉목,¹⁸⁴⁷) 삼각수¹⁸⁴⁸) 거사리고,¹⁸⁴⁹)

황금 투구, 청룡도¹⁸⁵⁰) 빗겨 들고, “이놈, 조조야!” 호통하니, 조조 혼미¹⁸⁵¹)하여,

“여봐라, 정욱아. 전후 검광¹⁸⁵²)이 서리같고¹⁸⁵³) 좌우 복병이 뱀 같으니, 오는 장수 거 누구냐?”

제장이 여짜오되, “기색은 홍색이요, 풍신¹⁸⁵⁴)은 인후¹⁸⁵⁵)하니, 관공 일시¹⁸⁵⁶) 적실¹⁸⁵⁷)하오.”

“관공이면 내 더욱 어찌 살아가리? 옥퇴무처요,¹⁸⁵⁸) 옥탈무계¹⁸⁵⁹)라. 너희들 죽기로서 대적¹⁸⁶⁰)이나 하여 보아라.”

제장이 울며 하는 말이, “관공의 높은 용맹, 호통 소리 한번 나면 기는 짐승 갈 수 없고, 검광이 번듯 하면 나는 새도 떨어지니,

적수단검¹⁸⁶¹)으로 오관참장¹⁸⁶²) 하던 수단,¹⁸⁶³)

더욱¹⁸⁶⁴) 인마¹⁸⁶⁵) 기진¹⁸⁶⁶)하였으니 어찌 당적¹⁸⁶⁷)하오리까?”

[아니레] “전후좌우 복병¹⁸⁶⁸)이웁고 진퇴유곡¹⁸⁶⁹)이웁니다.

전일 승상께서는 관공에게 깊은 은혜 있사오니 극진¹⁸⁷⁰) 빌어 보옵소서.” 조조 하릴없이¹⁸⁷¹) 빌 차로 들어가는데, 그 정상¹⁸⁷²)이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There are two pairs of back soldiers, commander bodyguards, training officers, and scouts.

This is how they look. Flags, spears, and swords outshine the sun. Incessant drum sounds shake the world.

A majestic warrior comes out. His face is red, and his eyes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The end of his triangle-shaped beard goes up.

He wears a golden helmet and holds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Cao Cao(曹操), you villain!” With the yell, Cao Cao(曹操) is confused.

“Hey Cheng Yu(程昱)! The flash of swords is formidable. It looks this is an ambush. Who is that warrior looking like a tiger?” Officers answer, “The color of the flag is red. He looks like a nice man. He must be Guan Yu(關羽).”

“If he is Guan Yu(關羽), how can I survive? I have no place to flee to, and I can’t escape from him.

Do your best and confront him at the risk of your lives.”

Officers say in tears, “Guan Yu(關羽) is a brave warrior.

If he yells, a crawling animal can’t move. If his sword flashes, a flying bird falls down.

He was skillful enough to kill six of our officers only with a sword, going through five gates.

Moreover, our men and horses are exhausted. How can we face him?”

[Aniri] “Since ambushes are everywhere, we can move neither forward nor backward.

Because you did a favor to Guan Yu(關羽) before, please beg him for mercy.”

Cao Cao(曹操) moves to beg for mercy. How pathetic he looks!

43. (조조 목숨 애걸) 관운장이 호령하자 조조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과거사를 이른다.

[중모리] 투구 벗어 땅에 놓고, 갑옷 벗어 말 위에 얹고,
장검은 빼어서 땅에 찌르고, 대아머리¹⁸⁷³) 고추상투¹⁸⁷⁴) 가는 목을
움츠리고,
간교한 웃음으로 ‘히히 하하하’ 복배¹⁸⁷⁵)하며 들어가,
“장군 본지 적연터니¹⁸⁷⁶) 기체¹⁸⁷⁷) 무양하시니까?”¹⁸⁷⁸)
관공이 호통하여, “이놈! 목 늘어 칼 받아라!”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장군님, 한 말씀만 들조시오.”¹⁸⁷⁹) 탁명한
사¹⁸⁸⁰) 조맹덕은 천자¹⁸⁸¹)의 명을 받아,
만군¹⁸⁸²)을 거느리고 분분천하¹⁸⁸³) 봉기제장¹⁸⁸⁴) 낱낱이 항복 받아
충공¹⁸⁸⁵)을 이루려고 장졸 쉴 날이 전연¹⁸⁸⁶) 없이 주야장전¹⁸⁸⁷)을
하옵다가,
오적¹⁸⁸⁸)의 패를 만나 대군을 몰살하고, 초수¹⁸⁸⁹) 오산¹⁸⁹⁰) 험산¹⁸⁹¹)
길에 갈 길이 막연하니 살려 보내 주옵소서.”
관공이 인후하여 호의¹⁸⁹²)로 답하시되,
“너는 한나라 적신¹⁸⁹³)이요, 나는 한나라의 의장¹⁸⁹⁴)이라.
너를 보고 놓겠느냐?”¹⁸⁹⁵) 목 늘어 칼 받아라!”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다시 통촉¹⁸⁹⁶)하옵소서. 옛일을 모
르시오?

43.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As Guan Yu(關羽) yells at Cao Cao(曹操),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talking about a past story.

[Jungmori] Cao Cao(曹操) takes off his helmet and puts it on the ground. He takes off his armor and puts it on his horse. He pulls out his long sword and pushes it into the ground. He is bald, and his topknot looks like a pepper. He sticks his slim neck in.

He laughs wickedly ‘Heehee. Hahaha.’ He gives a big bow to Guan Yu(關羽).

“General,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Guan Yu(關羽) yells, “You bastard! Stick your head out. Here goes my sword!”

Cao Cao(曹操) is petrified. “General, please listen to me. I was a poor scholar. But I took charge of many soldier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king.

I suppressed the officers who rose up in revolt. I led officers and soldiers in wars day and night to distinguish myself for the king.

I ran into Sun Quan(孫權). I lost a large force. I was on a hard journey, going through the rivers of Chu(楚) Country and the mountains of Wu(吳) Country. Please spare my life.”

Gentle and lenient, Guan Yu(關羽) responds politely,

“You are a rebel against the Han(漢) Dynasty, but I am a righteous general of the Han(漢) Dynasty.

How can I release you? Stick your head out. Here goes my sword!”

“Hold on, general! General, please accept my wish. Don’t you remember the past?”

절흥¹⁸⁹⁷⁾같은 흥노¹⁸⁹⁸⁾로되 백등칠일지위¹⁸⁹⁹⁾하여 한고조¹⁹⁰⁰⁾를 살
 리시고,
 지백지신 예양¹⁹⁰¹⁾이도 조양자¹⁹⁰²⁾를 살해코저 변형으로¹⁹⁰³⁾ 협비수
 하고¹⁹⁰⁴⁾ 궁중도측¹⁹⁰⁵⁾을 하였더니,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¹⁹⁰⁶⁾이라 이르시고 오근피지¹⁹⁰⁷⁾하였으니,
 장군 선심¹⁹⁰⁸⁾ 깊은 정에 소장¹⁹⁰⁹⁾을 살리시고 삼가 피하소서.”
 관공이 대노¹⁹¹⁰⁾ 왈, “네 말이 간사하다.
 예양은 의인이요, 한고조는 천중대인¹⁹¹¹⁾이라 일편¹⁹¹²⁾ 그리하거니와,
 네 죄를 자신이 모르느냐? 누세한록지신¹⁹¹³⁾으로 능상갑하¹⁹¹⁴⁾ 불륜
 함¹⁹¹⁵⁾과
 일통천하¹⁹¹⁶⁾ 삼분함¹⁹¹⁷⁾도 너로 하여 정립하고,¹⁹¹⁸⁾
 기린각충의인¹⁹¹⁹⁾도 너로 하여 망신하니 너 죽어 마땅하다. 잔말 말
 고 쉬 죽어라!”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유정하신¹⁹²⁰⁾ 장군님, 전사¹⁹²¹⁾를 잊으니
 까?¹⁹²²⁾
 황건적¹⁹²³⁾ 패를 만나,¹⁹²⁴⁾ 도원형제¹⁹²⁵⁾ 분산하여 거주¹⁹²⁶⁾를 모르
 실 제
 내 나라로 모셔 들여, 미부인¹⁹²⁷⁾ 감부인¹⁹²⁸⁾ 별궁¹⁹²⁹⁾ 지어 조석출
 반¹⁹³⁰⁾ 봉양하고 장군 위로 극진할 제,
 삼일소연¹⁹³¹⁾하고 오일대연¹⁹³²⁾하며, 미인 삼십 명씩 골라내어 색 갈
 아 대례하고,¹⁹³³⁾

Although heinous, Xiungnu(匈奴) Tribe released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after surrounding him for seven days in Baideng(白登).

Zhi Bo's(智伯) subject, Yu Rang(豫讓) tried to kill Xiang Zi(襄子) of Zhao(趙). Carrying a dagger secretly, he disguised himself as a bathroom painter in the palace.

Being a nice man, Xiang Zi(襄子) called Yu Rang(豫讓) a righteous man and avoided him.

General, you are a generous man. Please spare me and avoid me.”

Guan Yu(關羽) is infuriated. “Your language is sly.

The pardon was possible because Yu Rang(豫讓) was a righteous man and Xiang Zi(襄子) was a virtuous king.

Don't you know about your guilt? Your family served the Han (漢) Dynasty for several generations. But you looked down on your superiors and threatened your subordinates into obedience. The unified China was divided into the three countries because of you.

You tarnished the names of loyal subjects in Qilinge(麒麟閣) Shrine, so you deserve to die. Stop arguing. Die now.”

“General! Kind General! Did you forget what happened between us?

You encountered Yellow-Hooded Robbers. After the firm resolution in the peach orchard, you guys were separated and wandered around.

I invited you to my country. Building a special house for Lady Mi(糜) and Lady Gan(甘), I served them food everyday and conscientiously consoled you.

I threw a small party every three days and threw a big party every five days. I selected thirty new beautiful women and had them serve you.

여포¹⁹³⁴)칩 초선¹⁹³⁵)이를 별방¹⁹³⁶)으로 드렸더니,
 한 말씀 간사타고 청룡도로 베이신들 무슨 말을 하더이까?
 상마할 때 금 일천 냥,¹⁹³⁷) 하마할 때 은 일천 냥¹⁹³⁸) 말로 되어¹⁹³⁹)
 드렸내다.
 지난 일을 생각하여 잔명¹⁹⁴⁰)을 살리소서.”

44. (관운장 호령) 관운장이 과거의 은혜는 이미 다 갚았다 며 칼을 받으라고 소리치니 조조가 살려달라고 빈다.

[중모레 관공이 또 답하시되, “내 그 때 너의 나라 갔을 적에, 하북대
 장¹⁹⁴¹) 안량¹⁹⁴²) 문추¹⁹⁴³) 기용이 상범키로,¹⁹⁴⁴) 네 나라 수다¹⁹⁴⁵)
 명장 모두 다 죽거늘,
 나라서 자칭¹⁹⁴⁶)하고, 후은¹⁹⁴⁷)을 생각하여 단검필마¹⁹⁴⁸)로 전장에
 나갈 적에,
 그대 손수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거늘, 공이 없이 그 술 먹기 체면에
 당참기로,¹⁹⁴⁹) 잔을 잠시 머물러 놓고,
 날랜 장수 안량 문추 일합에¹⁹⁵⁰) 베어 들고 너의 진을 돌아오니,
 네가 그제¹⁹⁵¹) 술을 들고 나 오기만 기다리되 술이 식지 아니하여,
 적장¹⁹⁵²) 혼겁 중으로¹⁹⁵³) 백마위진¹⁹⁵⁴) 면하였고,
 벽산도¹⁹⁵⁵) 오천 리 땅 내 일전¹⁹⁵⁶)에 다 앗아 네 안책¹⁹⁵⁷)에 기록하
 였으니 그 은혜 갚은지라.
 내 길이 충급¹⁹⁵⁸)하니 어서 목 늘어 칼 받아라!”

I gave you Lu Bu's(呂布) wife, Diao Chan(貂蟬), as your concubine.

Although you killed her with the Blue Dragon Sword for being wicked, I didn't complain at all.

I gave you a lot of gold and silver when you get on and off a horse.

Please think about the past and spare my life."

44. (Guan Yu(關羽) Yells.) As Guan Yu(關羽) yells at Cao Cao(曹操) that he already returned his favor and that he should accept his death, Cao Cao(曹操) begs for mercy.

[Jungmori] Guan Yu(關羽) replies, "When I went to your country,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the brave commanders in Hebei(河北), killed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of yours.

Thinking about your favor, I volunteered to go to the battlefield even if I had only a sword and a horse.

You offered me wine, but I was ashamed to drink it before I did something for you, so I refused the wine for the time being. I beheaded the fast warriors,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in one move, and came back to your camp.

I waited for you to come out with the wine which was still warm.

The enemy general was petrified, you escaped from the siege in Baima(白馬).

I went to war, took a wide area, and I gave it to you, so I returned your favor.

I am in a hurry. Stick out your head. Here goes my sword!"

[아니리] 조조 깜짝 놀라 목을 딱 움치니,¹⁹⁵⁹⁾ 관공이 비긋이¹⁹⁶⁰⁾ 웃으시며,

“쪽박¹⁹⁶¹⁾을 쓰고 벼락을 피할망정, 네 옷깃으로 내 칼을 어이 바우랴!”¹⁹⁶²⁾

“아이고, 장군님, 초행노숙¹⁹⁶³⁾하옵다가 초풍¹⁹⁶⁴⁾할까 조급¹⁹⁶⁵⁾하오니, 관공은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날과¹⁹⁶⁶⁾ 유정타¹⁹⁶⁷⁾ 하면서 어찌 가까이 못 서게 하느냐?”

“장군님은 유정하오나, 청룡도¹⁹⁶⁸⁾는 무정지물¹⁹⁶⁹⁾이니 고의¹⁹⁷⁰⁾를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중모레] “영풍¹⁹⁷¹⁾하신 관공님은 대의¹⁹⁷²⁾로서 살려 주옵소서.

천하득실은 재천이요,¹⁹⁷³⁾ 조조 생시는 재장군이오니¹⁹⁷⁴⁾ 별반통촉¹⁹⁷⁵⁾을 하옵소서.

쓰신 투구, 입으신 갑옷, 청룡도와 타신 말은 소장이 드렸는데, 그 칼로 이 몸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제발 덕분에 살려 주옵소서.” 관공이 또 호의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잡는다고 군령다짐¹⁹⁷⁶⁾하였으니,

너 놓고¹⁹⁷⁷⁾ 나 죽기는 그 아니 절박¹⁹⁷⁸⁾하냐?” 조조 다시 복지하여,¹⁹⁷⁹⁾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유현주와 공명선생은 장군님을 민삽기를¹⁹⁸⁰⁾ 오른팔로 여기는데,

초개¹⁹⁸¹⁾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바치기로 의율시행¹⁹⁸²⁾을 하오라까? 옛날 유공사, 자탁유자¹⁹⁸³⁾ 두 사람을 생각하여 제발 덕분에 살려 주옵소서.”

수다¹⁹⁸⁴⁾ 장졸이 모두 다 끓어 었저,¹⁹⁸⁵⁾

“장군님 덕행으로 우리 승상 살려 주시면, 여산여해¹⁹⁸⁶⁾ 깊은 은혜 천추만세¹⁹⁸⁷⁾를 하오리다.”

[Aniri] Startled, Cao Cao(曹操) pulls his neck in. Guan Yu(關羽) smiles.

“You might as well use a gourd to protect you from lightning. How can you protect yourself from my sword with your sleeve?”

“General, I am wandering around, sleeping in cold places. I am afraid I will be shocked.

General, please don’t stand near me.”

“You said I am friendly. How can you tell me not to stand near you?”

“You are friendly, but your Blue Dragon Sword is cold-hearted. I am worried that it might cut our friendship“

[Jungmori] “Bright general, please be righteous and spare my life.

It is up to heaven whether you obtain the world or not. It is up to you, general, whether I live or die. Please be kind to me. Your helmet, armor, Blue Dragon Sword, and horse were my presents.

Wouldn’t it be unfair if I die by that sword? Please be merciful to me.”

Guan Yu(關羽) speaks favorably, “I pledged to catch you under the military law.

Wouldn’t it be crazy for me to die for releasing you?” Cao Cao(曹操) kneels down again.

“General, general!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take you as their right hand.

Given that I am a trivial person, will they execute you for not offering me to them?

Think about Yu Gong Si(分公斯) and Zi Zhuo Ru Zi(子濯孺子) and have mercy on me.”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kneel down.

“If you spare our premier through your virtue, we will be deeply grateful to you forever.”

수만 장졸들이 모두 다 꿰어 엮겨 양천통곡¹⁹⁸⁸⁾을 하는구나.

45. (조조 살아 돌아감) 관운장이 조조를 살려주고 돌아오니 공명이 용서한다.

[아니레] 관공의 어진 마음 조조를 쾌히¹⁹⁸⁹⁾ 놓아 주고,
“중군¹⁹⁹⁰⁾은 하산하라.” 회마하여¹⁹⁹¹⁾ 돌아와 공명께 복지주왈,¹⁹⁹²⁾
“용렬한¹⁹⁹³⁾ 관모¹⁹⁹⁴⁾는 조조를 놓았사오니¹⁹⁹⁵⁾ 의율시행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손을 잡고 회답하되,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
로¹⁹⁹⁶⁾ 장군을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오?” 세인¹⁹⁹⁷⁾이 노래하되,
[엇중모레] 제갈량은 칠종칠금¹⁹⁹⁸⁾하고, 연인¹⁹⁹⁹⁾ 장익덕은 의석엄
안²⁰⁰⁰⁾하고,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맹덕²⁰⁰¹⁾을 살렸단 말가?²⁰⁰²⁾
천고²⁰⁰³⁾의 늪틈한 대장군은 한수정후²⁰⁰⁴⁾ 관공이라.
더질더질.²⁰⁰⁵⁾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prostrate themselves and cry sadly.

45. (Cao Cao(曹操) Goes Back Alive.) Guan Yu(關羽) comes back after releasing Cao Cao(曹操) Kong Ming(孔明) forgives him.

[Aniri] Benevolent, Guan Yu(關羽) happily sets Cao Cao(曹操) free.

“The unit in the middle of the formation! Climb down the mountain,” Guan Yu(關羽) turns his horse around, come back to his camp, and kneels down in front of Kong Ming(孔明).

“Silly and inferior, I set Cao Cao(曹操) free. Please execute me in accordance with the law.

Kong Ming(孔明) steps down and grabs Guan Yu’s(關羽) hands.

“Cao Cao(曹操) is not to be killed, so I sent you there.

Who could know what I had in mind?” Folks sing a song as follows:

[Eotjungmori] Kong Ming(孔明) captured an enemy king seven times and released him seven times. Zhang Fei(張飛) from Yan (燕) Country, being righteous, released Yan Yan(嚴顏).

Guan Yu(關羽) set Cao Cao(曹操) free in narrow Huarong(華容) Road.

Guan Yu(關羽) is a majestic hero forever.

-
- 1) 天下. 온 세상.
 - 2) 合久則分. 합한 지가 오래면 반드시 나뉘어짐.
 - 3) 分久則合. 나뉜 지가 오래면 반드시 합해짐.
 - 4) 周나라. 중국의 옛날 왕조. 섬서성에서 일어나 문왕(文王) 때 번영했다. 아들인 무왕(武王)이 동방의 은나라를 쳐부수고 호경(鎬京)에 도읍했다. 기원 전 770년에 만족의 침입을 피하여 동방의 낙양으로 천도했는데, 천도 이전을 서주, 천도 이후를 동주 시대라고 한다. 동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데, 제후들의 세력에 눌려 주나라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무력한 작은 나라로 되어, 기원 전 256년에 진나라에게 망했다.
 - 5) 秦始皇. 진나라의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를 고쳐 천하를 군현으로 나누었으며 흉노 및 남월을 쳐서 강토를 확장한 다음 만리장성을 쌓았음.
 - 6) 漢高祖. 중국 전한의 고조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양,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7) 仁義. 어짊과 의로움.
 - 8) 持保터니. 지탱하여 보존하더니.
 - 9) 獻帝. 후한의 마지막 왕으로, 동탁(董卓)이 소제(少帝)를 폐한 뒤 세운 임금.
 - 10) 漢室. 한나라 왕실.
 - 11) 亂臣賊子.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와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 12) 東은. 동쪽은. 여기서는 양자강의 동쪽, 지금의 강소성 지방을 가리키는 말.
 - 13) 孫權. 자는 중모(仲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임금.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무찌른 뒤 다시 위나라와 손을 잡고 임금이 되었음.
 - 14) 劉備. 161년에 나서 223년에 죽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건실자. 이름은 비(備), 자(字)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제(昭烈帝)임.
 - 15) 曹操. 자는 맹덕(孟德). 후한 현제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16) 三雄. 세 영웅. 유비, 손권, 조조를 이룸.
 - 17) 鼎坐. 옛날 솥은 밑에 다리가 셋 붙어 있는데, 그 다리처럼 서로 버티고 앉음.
 - 18) 天下大勢. 온 세상의 큰 흐름.
 - 19) 爲人. 사람됨.
 - 20) 治世之能臣.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잡힌 세상의 능력 있는 신하.
 - 21) 亂世之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22) 挾天子而令諸侯. 천자를 끼고 앉아 제후를 호령함.
 - 23) 其勢難當이라. 그 세력을 당하기가 어렵다.
 - 24) 却說. 화제를 돌리어 딴 말을 꺼낼 때에 첫머리에 쓰는 말.
 - 25) 劉玄德. 유비.

- 26) 關公. 관우(關羽)를 높여서 일컫는 말. 자(字)는 운장(雲長). 산서(山西) 사람. 시호는 충의후(忠義侯).
- 27) 張飛. 자는 익덕(翼德).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 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28) 桃園結義.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밭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은 일을 가리키는 말.
- 29) 烏牛白馬. 검은 소와 흰 말.
- 30) 敵血爲盟. 피로써 맹세함. ‘삼혈’은 무엇을 두고 맹세할 때 그 표시로 짐승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거나 바르는 일.
- 31) 千金같은. 많은 돈처럼 아주 귀중한.
- 32) 信義.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33)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34) 徐庶.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자(字)는 원직(元直). 단번에 의기가 통하여 유비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 조조가 그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거짓 서면으로 유인하는 통에 그에게로 갔으나, 어머니는 자식의 무모함을 꾸짖고 자살하였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한 가지의 꾀도 바치지 않고 아까운 재주를 썩혔다.
- 35) 許昌. 중국의 지명. 조조가 헌제를 맞아 새로 도읍을 정한 곳.
- 36) 筆跡. 손수 쓴 글씨의 모양.
- 37) 落心.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 38) 大驚. 크게 놀람.
- 39) 格이외다. 격이웁니다. ‘격’은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
- 40) 子母之情.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정.
- 41) 漢室. 한나라 왕실.
- 42) 母夫人.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43) 大事成功. 큰일을 이루어냄.
- 44) 徐元直. 서서. 원직은 서서의 자(字).
- 45) 終身. 죽음.
- 46) 不說一謀. 한 가지의 꾀도 말하지 않음.
- 47)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48) 諸將. 여러 장수들.
- 49) 一樹木. (앞을 가리는) 나무 한 그루.
- 50) 배어다오.
- 51) 반가와 하여.
- 52) 襄陽城外. 양양성 밖. ‘양양’은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는데, 이곳 서쪽에 있는 복룡산(伏龍山)이 제갈공명의 은거지였음.

- 53) 二十里之許. 이십 리쯤 되는 곳.
- 54) 萬古奇才. 만고에 뛰어난 인재.
- 55) 字. 본 이름 이외에 부르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 56) 道號. 본래는 ‘불도에 들어간 뒤에 붙이는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호로 쓰였음.
- 57) 臥龍. 누워 있는 용. 와룡은 비구름을 만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므로,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함.
- 58) 親히. 직접. 몸소.
- 59) 아니었으면.
- 60) 有眼盲人. 눈은 있으나 앞을 못 보는 소경.
- 61)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62) 岡中. 구릉 속.
- 63) 猿鶴. 원숭이와 학.
- 64) 相親. 서로 친하게 지냄. ‘원학이 상친하다’는 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일컫는 말.
- 65)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 66) 交翠한데. 푸르른데.
- 67) 景概. 경치.
- 68) 飄然.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가는 모양.
- 69) 글을 읽을 때 책을 올려놓는 작은 상.
- 70) 舉動. 행동이나 태도.
- 71) 臥龍. 제갈량의 호.
- 72) 균이었더라.
- 73) 紙筆. 종이와 붓.
- 74) 情札. 따뜻한 정으로 써주는 편지.
- 75) 堂堂한. 버젓하고 정대한.
- 76) 劉賢主. 유씨 성을 가진 어진 임금이란 뜻으로 유비를 가리키는 말.
- 77) 身長. 키
- 78) 七尺五寸. 일곱 자 다섯 치. 약 225cm 정도.
- 79) 面如冠玉. 얼굴이 관옥과 같음. ‘관옥’은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80) 自顧其耳. 두 귀를 손수 돌아봄.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크다는 뜻.
- 81) 垂手過膝.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옴.
- 82) 烏帽紅袍.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
- 83) 雙股劍. 넓적다리 모양으로 생긴 칼.
- 84) 비스듬히.
- 85) 赤驄馬上. 적추마 위에. ‘적추마’는 온 몸이 붉고 갈기만 검은 좋은 말.
- 86) 太祖.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
- 87) 본다고 하면. 보면.
- 88) 紅顏. 혈색이 좋은 얼굴.

- 89) 鳳目. 봉의 눈.
- 90)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91)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92) 雙鳳투구. 봉황 한 쌍을 조각한 투구.
- 93) 綠袍銀甲. 녹색의 도포에 은으로 만든 갑옷.
- 94)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95) 赤兔馬上. 적토마 위. '적토마'는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에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 96) 舉動. 행동이나 태도.
- 97) 威風. 위엄 있는 풍채.
- 98) 凜凜하고. 위태롭고 두려우며. 여기서는 그 기세가 거세고 매서운 모양을 나타냄.
- 99) 먹처럼 검은 얼굴.
- 100) 눈동자의 둘레에 두 개의 흰 테가 있는 눈.
- 101) 제비처럼 밀이 두툼하고 넓은 턱.
- 102)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짧은 수염.
- 103) 鸚鵡戰袍. 앵무새의 빛깔처럼 노랑고 아름다운 전포. '전포'는 장수가 입던 옷.
- 104) 綠巾. 녹색 비단으로 만든 모자.
- 105) 丈八. 일장 팔척. 일장은 10척임. 1척(자)은 약 30cm.
- 106)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 107) 눈 위로 올라가게 솟구쳐 들고.
- 108) 黑驄馬上. 흑총마 위. '흑총마'는 몸은 청백색이고, 갈기만 검은 말.
- 109) 名將일시. 훌륭한 장수인 것이.
- 110) 草廬. 오막살이.
- 111) 下馬叩扉한대. 말에서 내려 사립문을 두드리니.
- 112) 童子. 사내아이.
- 113) 童子對曰. 사내아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 114) 到山. 밖에 나갔다가 산속 초당에 도착함.
- 115) 書冊. 책.
- 116) 草堂.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117) 春睡. 봄날에 자는 잠.
- 118) 起寢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 119) 告치. 고하지. 알리지.
- 120) 階下. 계단 아래.
- 121)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122) 뒤집어 겹으며.
- 123) 高聲大喝曰. 큰 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 124) 哥哥. 형을 일컫는 말.
- 125) 金枝玉葉. 임금의 집안과 그 자손들을 일컫는 말.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유비가

- 하나라 왕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함.
- 126) 三顧草廬. 오막살이집을 세 번 찾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일컫는 말.
- 127) 사정없이 마구 때려.
- 128) ‘꾸러미’의 방언. ‘꾸러미’는 꾸리어 썬 물건. 여기서는 ‘짚이나 풀 따위를 길게 묶은 묶음’을 가리킨 듯.
- 129) 假睡. 거짓으로 자는 잠.
- 130) 賢弟. 아우뻘이 되는 사람이나 남의 아우를 높여 이르는 말.
- 131) 非誠이면 不成이라. 정성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
- 132) 湯임금. 은나라의 첫 번째 왕. 이름은 이(履). 하나라의 걸왕이 폭정을 일삼았으므로 이를 치고 왕위에 올랐음.
- 133) 伊尹. 은나라 탕임금 때의 재상. 본래는 밭을 갈고 살다가, 탕임금이 세 번이나 찾아가 모시고자 하므로 벼슬길에 나서 탕임금을 도와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내고 선정을 베풀었음.
- 134) 의향이나 의도로.
- 135)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136) 三聘. 세 번 찾아감.
- 137) 春秋 때. 중국 춘추시대. 주나라가 쇠약해져서 서울을 동쪽으로 옮긴 때부터 진(晉)나라가 한(韓)·위(魏)·조(趙)나라로 나뉘기까지를 말하는데, 같은 시대의 공자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은 역사책인 《춘추(春秋)》의 이름을 따서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 138) 齊桓公. 제나라의 제후. 이름은 소백(小白). 관중을 재상으로 맞아들여 경제를 충실히 하고 천하를 제패했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근방에 있었으며, 강태공이 세운 나라이다.
- 139) 東郭野人. 성의 동쪽에 사는 선비. 제나라 환공이 성의 동쪽에 산다는 현명한 사람을 구하려고 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가 겨우 만났다고 하는데, 성이 환공과 같은 강(姜)이라고 하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 140) 周文王. 주나라의 문왕. 주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아버지. 성은 희(熙), 이름은 창(昌). 은나라의 주(紂)왕 때 서백(西伯). 주왕이 문왕으로 하여금 은나라의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장으로 삼은 데서 일컫는 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으며,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제후들이 그를 좇아 주군으로 섬겼음.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고 주나라를 세운 뒤, 문왕으로 추존되었음.
- 141) 姜太公. 이름은 여상(呂尙). 무왕을 도와 재상이 되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웠으며, 후에 제나라의 임금에 봉해졌다.
- 142) 臥龍先生. 제갈량을 따로 부르는 이름. 제갈량의 호. ‘와룡’은 누워 있는 용. 와룡은 비구름을 만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므로,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함.
- 143) 雲長. 관우(關羽)의 자(字).
- 144) 翼德. 장비(張飛)의 자(字).
- 145) 下回. 뒷사람의 회답.
- 146) 首.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

- 147) 草堂에 春睡足하니, 窓外日遲遲요, 大夢을 誰先覺고? 平生을 我自知라. 제갈량이 읊은 원문은, '대몽수선각 평생아자지 초당춘수족 창외일지지(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 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임.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칠까. 평생을 내 스스로 아네. 초당에 봄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 창밖의 해가 점차 길어진다.
- 148) 俗客. 세상 손님. 자신이 사는 곳을 선계(仙界)로 보고, 다른 곳을 속계로 보는 제갈 양의 뜻이 들어 있는 말.
- 149) 前日. 전날.
- 150)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151) 待留. 와서 오래 기다림.
- 152) 半日. 반 나절.
- 153) 告치. 고하지. 알리지.
- 154) 後堂. 본채의 뒤에 있는 집.
- 155) 은근히.
- 156)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 157) 整齊.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함.
- 158) 仰接하여. 공손히 맞이하여.
- 159) 壇.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
- 160) 禮畢. 인사를 마침.
- 161) 坐定. 자리를 잡고 앉음.
- 162) 面如冠玉. 얼굴이 관옥과 같음. '관옥'은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163) 自顧其耳. 두 귀를 손수 돌아봄.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크다 뜻.
- 164) 脣若塗脂. 입술이 연지를 바른 것과 같이 붉음.
- 165) 垂手過膝.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옴.
- 166) 烏帽紅袍.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
- 167) 영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 168) 中興. 쇠하던 것을 다시 일으킴.
- 169) 人君. 임금.
- 170)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 171)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윗옷.
- 172)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173) 儼然히. 의젓하고 점잖게.
- 174) 氣質. 기력이나 체질.
- 175) 眉間. 두 눈썹 사이.
- 176) 精氣. 사물의 순수한 기운.
- 177) 運籌帷幄之中하여 決勝千里之外할. 장막 안에서 산가지(점치는 도구)로 점을 쳐서, 천 리 밖에 나가 싸움에 이길 것을 판단할.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능히 승패를 가름할 지략을 짜낸 만화'의 뜻으로 쓰인다.
- 178) 至誠. 지극한 정성.

- 179) 들어주십시오.
- 180) 漢室. 한나라 왕실.
- 181) 國運. 나라의 운수.
- 182) 罔極. 한이 없음. 여기서는 ‘한없이 슬픈 지경에 이르렀음’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 183) 宗廟社稷. 종묘와 사직. ‘종묘’는 임금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따라서 ‘종묘사직’은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84) 亡在朝夕. 하루 아침이나 저녁에 망할 판임.
- 185) 草野. ‘풀이 난다’는 뜻으로 시골의 궁벽한 곳을 이룸.
- 186) 無窮. 끝이 없음.
- 187) 壯士. 기개와 체질이 굳센 사람.
- 188) 陶武. 무술을 단련하는 일.
- 189)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190) 颯颯하고. 바람 부는 소리가 매우 쌀쌀하고.
- 191) 白雪은 紛紛한데. 흰 눈은 어지럽게 흩날리는데.
- 192) 祝天. 하늘에 빌.
- 193) (언 발을 녹이려고) 발을 구르며 쉬면서 올 제.
- 194) 누구를.
- 195) 여기.
- 196) 經天緯地之才. 하늘을 주름잡고 땅을 누비는 재주. 곧, 천하를 잘 다스릴 재주.
- 197) 安邦輔國之心. 나라를 편안히 하고, 나라 일을 돕는 마음.
- 198) 어리석은.
- 199) 拜辭奏曰. 삼가 절하고 사양하며 아뢰기를.
- 200) 亮. 제갈량
- 201) 布衣賤士. 벼슬이 없는 가난한 선비가 자신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
- 202)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203) 江湖. 강과 호수.
- 204) 天下圖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함.
- 205) 萬不成說.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 206) 浪說飽聞. 근거 없는 헛소문을 많이 들음.
- 207) 尊駕. 귀하신 분의 행차.
- 208) 虛行. 헛걸음.
- 209) 衡翼圖. 형주와 익주의 지도.
- 210) 中原 時事. 한나라 조정의 정세. ‘중원’은 오늘날의 하북성과 산둥성 지방인데 ‘중국’ 또는 ‘천하’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 211) 利害로만 말씀뿐이요. 어떻게 하면 이득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해가 있다는 말씀뿐이요.
- 212) 紛紛하여.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워서.
- 213) 亂臣賊子.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와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 214)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 215) 騷然. 소란하고.

- 216) 十室이 九空이라. 열 집 가운데서 아홉 집은 비어 있다. 곧 난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꺾꺾이 흩어지거나 죽어 없어졌음을 이룸.
- 217) 누가.
- 218) 嗚咽. 목이 메어 흐느낌.
- 219) 一片心.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오직 한 가지 마음.
- 220)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221) 含淚. 눈물을 머금음.
- 222) 淺短한. 얇고 짧은.
- 223) 賢主. 어진 임금.
- 224) 犬馬之力. 개나 말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과도 같은 충성됨.
- 225) 다하겠습니다.
- 226) 緞禮. 예물로 주는 비단.
- 227) 劉·關·張. 유비·관우·장비를 아울러 일컫는 말.
- 228) 賤士. 천한 선비. 보잘 것 없는 선비.
- 229) 脯脩金帛. 말린 음식물과 금과 비단.
- 230) 三顧草廬. 오막살이집을 세 번 찾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일컫는 말.
- 231) 至恩을 難忘이라. 지극한 은혜를 잊기 어려우니라.
- 232) 功成身退. 공을 세우고 물러남.
- 233)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 234) 大事. (나라의) 큰 일.
- 235) 쉬. 빨리.
- 236) 還家. 집으로 돌아옴.
- 237)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238) 兵不滿千. 병사가 천 명이 되지 못함.
- 239) 將不滿十. 장수가 겨우 열 명도 못됨.
- 240) 天下事. 온 세상의 일.
- 241) 太過히. 너무 지나치게.
- 242) 不可. 옳지 않음.
- 243)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244) 招募. 불러 모음.
- 245) 時時로. 때때로.
- 246) 陣法. 싸움에서 군대를 배치하는 법.
- 247)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248) 함부로 몹시 쳐 온다고.
- 249) 軍令. 군대의 명령.

- 250) 印. 관직의 표시로 차던 쇠붙이로 만든 조각물.
- 251) 빌려주십시오.
- 252) 一日은. 하루는.
- 253) 將臺. 장수가 자리를 잡고 명령을 내리는 곳.
- 254) 諸將. 여러 장수.
- 255) 分撥. 나누어 펼침.
- 256) 安林. 박망파 왼쪽에 있는 숲. ‘박망파(博望坡)’는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
- 257) 埋伏.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258)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 259) 南方. 남쪽 방향.
- 260) 烽火. 변란이 있을 때에 변경에서부터 서울까지 경보를 알리게 만든 불.
- 261) 博望城.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성.
- 262)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263) 先鋒. 맨 앞장 또는 앞장에 서는 사람.
- 264) 敵將. 적의 장수.
- 265) 中軍. 중앙에 배치하는 군대.
- 266) 掩殺. 에워싸서 죽임.
- 267) 一軍. 온 군대. 중국 주나라 때에는 일만 명의 군병으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을 가리켰음.
- 268) 接應. 맞아 싸움.
- 269) 大笑曰.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 270) 말인가?
- 271) 여기.
- 272) 違令者. 명령을 어긴 사람.
- 273) 斬. 목을 베.
- 274) 霹靂. 벼락.
- 275) 秋霜. 가을의 찬 서리. 위엄이나 기세가 매우 당당하고 엄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276) 無顏. 수줍고 부끄러워 볼 낯이 없음.
- 277) 賢弟. 아우뻘이 되는 사람이나 남의 아우를 높여 이르는 말.
- 278) 運籌帷幄之中 決勝千里之外. 장막 안에서 산가지(점치는 도구)로 점을 쳐서, 천 리 밖에 나가 싸움에 이길 것을 판단함.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능히 승패를 가름 할 지략을 짜낼 만한’ 뜻으로 쓰인다.
- 279) 秋毫. 조금도.
- 280)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져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281)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破虜將軍)에 이르렀다.
- 282) 博望坡.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
- 283) 犬羊. 개와 양.
- 284) 猛虎. 사나운 호랑이.
- 285)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286) (빨리 가게 하기 위하여) 힘을 더하여.
- 287) 急急히. 매우 급함.
- 288) 十餘合. 십여 차례의 싸움. ‘합’은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서로 한 차례 맞붙는 것을 이름.
- 289) 달려가는지라.
- 290) 輕視. 얕잡아 봄.
- 291) 渴水石. 개울물이 말라 드러난 돌.
- 292) 叢雜. 나무나 풀이 우거져 뻘뻘함.
- 293) 친다고 하면. 공격한다고 하면.
- 294) 火光. 불빛.
- 295)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 296) 火聲. 불이 타는 소리.
- 297) 左衝右突. 닥치는 대로 이리저리 찌르고 치고 받고 함.
- 298) 大驚. 크게 놀람.
- 299) 달려지. 달아나지.
- 300) 後鋒大將. 부대의 맨 뒤를 맡은 대장.
- 301) 遑急. 정신없이 급함.
- 302) 神奇妙算. 교묘하게 잘 세운 전략.
- 303) 難測. 짐작하기 어려움.
- 304) 驚歎. 몹시 놀라며 감탄함.
- 305) 燒屯. 주둔지를 불태움. 박망파 전투에서 공명이 불을 놓아 하후돈을 크게 무찌른 것을 가리킴.
- 306) 白河. 신야 가까이 있는 강 이름.
- 307) 淹沒. 물에 빠뜨림. 조조의 군사가 백하에 다다랐을 때 운장이 포대로 백하를 막았다가 터서 조조의 군사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을 가리킴.
- 308) 曹丞相. 승상 벼슬에 있는 조조.
- 309) 檄書. 군병을 모으거나 적을 피거나 욕하려고 보내는 글.
- 310) 然後. 뒤에.
- 311) 妙策. 묘책은 매우 긴요한 피. 뽕쪽한 수.

- 312)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자는 자경(子敬). 임회군(臨淮郡) 동성현(東城縣) 사람. 주유의 천거로 손권의 부하가 되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유가 죽은 뒤에 병권을 장악하였다.
- 313) 東吳, 동쪽에 있는 오나라.
- 314) 西漢, 서쪽에 있는 한나라.
- 315)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이 의종게 지냄.
- 316) 約條, 조건을 붙여서 약속함.
- 317) 願컨대, 바라옵건대, 바라기를.
- 318) 賢主, 어진 군주.
- 319)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 320) 同心合力, 한 가지 마음으로 힘을 합침.
- 321) 치신다면, 공격하신다면.
- 322) 破할, 격파할, 무너뜨릴.
- 323) 守門將, 문을 지키는 장수.
- 324)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 325) 密使, 비밀리에 보낸 사신.
- 326) 大笑, 큰 소리를 내어 웃음.
- 327) 大事, 큰 일.
- 328) 探知,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
- 329) 動靜, 어떤 현상이 움직이거나 벌어지는 김새.
- 330) 묻거든.
- 331) 將卒, 장수와 병졸.
- 332) 許身, 몸을 바침.
- 333) 人君, 임금.
- 334) 無道한, 도리를 어겨 막된.
- 335) 孫將軍, 손권을 가리킴.
- 336) 聰明仁惠, 총명하고 어질고 자애로움.
- 337) 敬賢禮士, 어진 현인을 떠받들고 선비를 예의로 대함.
- 338) 六郡, 오나라 땅을 이루는 여섯 개의 군.
- 339) 雄據, 어떤 곳에 자리잡고 굳게 막아 지킴.
- 340) 將兵, 장수와 병졸.
- 341)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 342) 文武, 문신과 무신.
- 343) 具備, 함께 갖추.
- 344) 集來, 모여 들어옴.
- 345) 天下得失, 세상을 얻고 잃음.
- 346) 慇懃히, 행동 따위가 함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 347) 魏富吳強, 위나라는 물산이 풍부하고 오나라는 군대가 강함.
- 348) 漢室, 한나라 왕실. 여기서는 유비의 진영을 가리킴.

- 349)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350) 激動. 몹시 흥분하도록 충동함.
- 351) 쉬. 빨리.
- 352) 今月. 이번 달.
- 353) 甲子. 갑자일. 육십갑자의 맨 처음.
- 354) 南屏山下. 남병산 아래.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355)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356) 綸巾. 붉은 실로 만든 머리에 쓰는 모자의 일종.
- 357)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358) 白羽扇. 하얀 새의 깃을 모아 만든 부채.
- 359)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360) 館驛. 관역에. '관역'은 관청의 공문을 전달하고, 사신의 왕래나 관리의 부임 때에 말을 대주는 일을 맡은 곳.
- 361) 安歇할 제. 편히 쉴 때에.
- 362) 坐定. 자리 잡고 앉음.
- 363) 峨冠博帶. '높은 관과 넓은 띠'라는 뜻으로 벼슬아치들을 가리킴.
- 364)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候).
- 365) 管仲樂毅之才. 관중과 악의에 비길 만한 재주.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으뜸가는 제후로 만들었고, '악의'는 연나라의 소왕을 도와 제나라의 여러 성을 항복받았다.
- 366) 胸中. 가슴속.
- 367) 劉賢主. 어진 임금인 유비. 유비를 높이 일컬은 말.
- 368)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방은 그의 자(字).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로서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음.
- 369) 鵬飛萬里. 상상 속의 큰 새인 봉새는 만 리를 날아감.
- 370) 群鳥. 못새.
- 371) 其志何知요? 그 뜻을 어찌 알겠는가?
- 372) 言才. 말 재주.
- 373)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터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374) 大事. 큰 일.
- 375) 急迫. 사태가 조금도 여유가 없이 매우 급함.
- 376) 酬酢. '다른 사람의 언행'을 업신여겨 이르는 말.

- 377) 張皇. 매우 길고 번거로움.
- 378) 寬容. 너그럽게 용납하거나 용서함.
- 379)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380) 謀策.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모면할 꾀를 세움. 또는 그 꾀.
- 381) 말하십시오.
- 382) 激動.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또는 그렇게 느낌.
- 383) 廢하고자. 없애고자.
- 384) 大怒. 크게 화를 냄.
- 385) 聖君. 인덕(仁德)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임금.
- 386) 宗親. 왕의 일가친척.
- 387) 意氣. 의지와 용기.
- 388) 屈하리오? (어떤 세력이나 어려움에) 뜻을 굽히겠는가?
- 389) 鄱陽. 강서성 양자강 중류 남쪽에 있는 큰 호수.
- 390)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391) 使者. 어떤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
- 392) 晚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393) 말씀하십시오.
- 394) 銅雀臺. 조조가 업(위나라의 수도)에 쌓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395) 喬公. 대교·소교의 아버지인 교국로(喬國老). 사람됨이 매우 진실하였다.
- 396) 天下一色. 세상에서 제일가는 아주 뛰어난 미인.
- 397) 大喬 小喬. 교공의 두 딸로 모두 미인이었음.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 398) 豪強.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 399) 감추어진 일의 내용.
- 400) 동작대를 두고 지은 글. <동작대부(銅雀臺賦)>를 가리킴.
- 401) 외웠나이다. 외웠습니다.
- 402) 들려주십시오.
- 403) 從明后而嬉游兮, 登層臺以娛情. 이요, 見太府之廣開兮, 觀聖德之所營이며, 建高門之嵯峨兮, 浮雙闕乎太清이요, 立中天地華觀兮, 連飛閣乎西城이며, 臨漳水之長流兮, 望園果之滋榮이요, 立雙臺於左右兮, 有玉龍與金鳳이며,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이라. 현명한 임금을 따라가서 즐겁게 놀고, 누대를 올라가 즐거이 교분을 나누며, 넓은 서울을 바라보니, 어진 임금의 덕이 바라는 바를 알겠도다. 높은 문을 높이 세우니, 두 궁궐이 하늘에 뜬 듯이 솟았고, 누각은 하늘 높이 솟아서 아름답게 빛나며, 나는 듯이 서성에까지 이어졌도다. 길게 흐르는 장수의 물가에 서서 정원의 과일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노라. 양 옆에 누대를 둘 세웠으니, 옥룡각과 금봉각이라. 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 본래 원문에는 마지막 두 구절이 ‘연이교어동서해(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蜺蜺)’

으로 ‘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는 뜻인데, 대교와 소교를 데려다 같이 즐기겠다는 내용으로 슬쩍 바꾸었다.

- 404) 淫骨. 음탕한 사람을 함부로 일컫는 말.
- 405) 老賊. 늙은 도적.
- 406)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劉邦).
- 407) 匈奴.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 민족.
- 408)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이 의좋게 지냄.
- 409) 兒女子. ‘여자’를 낮추어 일컫는 말.
- 410) 孫伯符. 오나라의 명장 손책(孫策), 손권의 아들이요, 손권의 형. ‘백부’는 그의 자(字).
- 411) 아내.
- 412) 失言. 말을 잘못 함.
- 413) 起兵. 군사를 일으킴.
- 414) 夏口. 중국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지명.
- 415) 屯聚. 군대가 머물러 주둔함.
- 416) 檄書. 군병을 모으거나 적을 피거나 욕하려고 보내는 글.
- 417) 老賊. 늙은 도적놈.
- 418) 放恣.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건방짐.
- 419) 凌辱. 남을 업신여기어 욕보임.
- 420) 大喜. 크게 기뻐함.
- 421) 卽席. 어떤 일이 진행되는 바로 그 자리.
- 422) 大都督.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
- 423) 大敵軍. 큰 적군. 많은 적의 군사.
- 424) 對戰. 맞아 싸움.
- 425) 嚴然히.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게.
- 426) 화살.
- 427) 內念. 마음속.
- 428) 謀士. 남을 위해 피를 내어주는 사람.
- 429) (어떤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시간.
- 430) 敵船. 적의 배.
- 431) 주십시오.
- 432) 軍令. 군대의 명령.
- 433) 朱都督.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에 있는 주유.
- 434) 自取之禍根. 스스로 얻은 화근.
- 435) 누구를.
- 436) 子敬. 노숙의 자(字).
- 437) 戰船. 전투를 할 때 쓰는 배.
- 438) 장작이 아닌 잎이나 나뭇가지, 풀 따위의 땀값.
- 439) 靑包帳. 푸른색 천으로 된 포장.

- 440) 이치에 맞지 않는.
- 441) ‘통’이 여럿이 한 속이 되어 이루는 무리나 모임이라는 뜻이므로, ‘통죽음’은 여럿이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뜻.
- 442) 불에 타서 죽는 것이므로 ‘더운 죽음’이라고 함.
- 443) 含笑曰. 웃음을 머금고 말함.
- 444) 赤壁江. 중국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을 흐르는 양자강을 이름.
- 445) 日落西山. 해가 서산에 떨어짐.
- 446) 鐙. 썰과리.
- 447) 중이 염불할 때 치는 쇠.
- 448) 낫쇠와 무쇠의 합금으로 솔뚜껑 모양의 두 짝으로 된 타악기의 한 가지.
- 449) 함부로 크게 지르며.
- 450) 中江. 강 가운데.
- 451) 毛玠. 조조 휘하의 모사.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는 효선(孝先). 적벽대전에서 우금과 함께 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음. 조정에서 근무에 매우 충실하였으나, 참소를 입어 쫓겨나 있다가 병으로 죽었음.
- 452)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져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453) 稟告. 웃어른에게 여쭙.
- 454) 防備. (침입이나 손해 따위를) 미리 막아 지킴.
- 455) 搖動. 흔들리어 움직임.
- 456) 陸陣. 육지에 있는 진.
- 457)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458)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 459) 弓弩手. 활과 쇠뇌를 쏘는 군사. ‘쇠뇌’는 잇달라 여러 개의 살이 나가도록 만든 활의 한 가지.
- 460) 許多한. 수많은.
- 461) 갈대 쉼. 갈대 잎과 줄기로 된 맥감.
- 462) 滿船. 배에 가득 참.
- 463)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만 남아도 잊지 못함. 절대 잊지 못함.
- 464) 속았구나.
- 465) 飛船. 나는 것처럼 빠르게 가는 배.
- 466) 豪氣. 거들먹거리는 기운.
- 467) 關澤. 손권의 신하. 자는 덕윤(德潤). 일찍이 집이 가난하였으나, 경서에 밝아 태자대 부에까지 이르렀던 오나라 선비인데, 황개가 고육계를 써 조조에게 거짓 항복하는 계

- 할 때, 황개가 항복하려 한다는 글을 지어 조조에게 갖다 주었다.
- 468) 詐降書. 거짓으로 항복하는 글.
- 469)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470) 苦肉計. 황개가 주유를 찾아가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문서를 보내어 적을 혼란을 빠트린 계책.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을 이름.
- 471)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외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리 라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임. 양양 사람으로 자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 세로 죽었음.
- 472) 連環計. 연환은 쇠고리로 연결함을 뜻하는데, 여기서 연환계란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473) 難測. 헤아리기 어려움.
- 474) 對陣. 마주 대하는 위치에 치는 진영(陣營).
- 475) 戰船. 전투하는 배.
- 476) 만들어.
- 477) 江上陸地. 강 위의 육지. 여기서는 배를 쇠고리로 연결하여 마치 육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킴.
- 478) 留陣. 군대의 진영에 머뭄.
- 479) 十八技.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열여덟 가지 무예.
- 480) 私習. 스승 없이 스스로 훈련하고 익힘.
- 481) 萬軍中. 모든 군대 내.
- 482) 月色. 달빛.
- 483) 如同白日. 밝은 대낮과 같음.
- 484) 長江. 양자강.
- 485) 一帶. 주변의 모든 지역.
- 486) 如橫素練.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음.
- 487) 兵校. 장교. 조조를 가리킴.
- 488) 豪氣. 거들먹거리는 기운.
- 489) 諸將다려. 여러 장수에게.
- 490) 南屏山色. 남병산의 빛깔.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 491) 그림 屏. 그림을 그린 병풍. 남병산이 병풍처럼 깎은 듯이 높고 경치가 좋음을 빗대어 하는 말.
- 492) 柴桑境. 강서성 구강현 서쪽에 있는 시상 산성의 경계.
- 493) 夏口境. 하구성의 경계. '하구성'은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손권이 쌓은 성.

- 494)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495)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496) 廣闊. 흰하계 넓음.
- 497) 如得江南이면. 만약 강남을 얻으면.
- 498) 銅雀臺. 조조가 업(위나라의 수도)에 쌓은 누대. 그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499) 二喬女. 교공(喬公)의 딸인 대교(大喬)와 소교(小喬)를 가리키는데, 둘 다 매우 미인이었다고 함.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교공은 교국로(喬國老)로, 사람이 되어 매우 진실하였다고 함.
- 500) 嫁娶하여. 시집가고 장가들어. 혹 '가취(可取)하면'으로 보기도 한다. '가취(可取)하면'은 '얻을 수 있다면'.
- 501) 老年享樂. 늙어서 누리는 즐거움.
- 502) 願에. 바라는 바에. 소원에.
- 503) 足할지라. 만족할 것이다.
- 504) 諸將. 여러 장수.
- 505) 令. 명령.
- 506) 明日. 내일.
- 507) 廝殺. 싸움터에서 마구 공격함.
- 508) 大功. 큰 공적.
- 509) 千金重賞. 수많은 돈으로 크게 내리는 상.
- 510) 萬戶侯. 만 호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후.
- 511) 各心所願으로. 저마다 원하는 대로.
- 512) 哭. 소리를 내면서 슬피 우는 울음.
- 513) 鬪戔. 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고 길이 다섯 치쯤 되게 만들어, 그림과 낱수를 그려 넣은 노름 기구, 또는 그것을 갖고 하는 노름.
- 514) 까닭으로.
- 515) 一等將. 첫째가는 장수.
- 516) 作讎莫誰. 아무나 원수로 삼아. 곧 아무나 상대로 삼고.
- 517) 고향 생각이 나자 시름에 잠겨 엎드리는.
- 518) '윳'은 윳놀이에서 윳짝이 모두 엮어진 '모'의 방언. '삿'은 윳짝이 모두 갖혀진 '윳'의 방언인 '삿'의 와전.
- 519) 모나 길이 나오도록 해서 말이 방으로 가게 해라. '방'은 윳판의 한가운데 말 이름으로, 이곳을 거치면 지름길로 통해서 일찍 끝낼 수 있다.
- 520) 꾸벅꾸벅 조는 모양.
- 521) 그리워.
- 522) 處處이. 곳곳마다.
- 523) 둘러싸인.
- 524) 病淚卽將爲不幸이라.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곧 불행한 일이 닥친다.

- 525) 병거지. 전립(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526) 둘러메고.
- 527) 우두커니.
- 528) 高堂上. 고당 위에. '고당'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529) 鶴髮兩親. 학처럼 머리가 허영게 늙으신 부모님.
- 530) 拜別. 이별의 인사를 올림.
- 531) 父兮여 生我하시고, 母兮여 育我하시니.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 532) 欲報之德澤인댄 昊天罔極이로구나. 그 덕택을 갚고자 하나, (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 533) 節內眷堂. 집안의 일가친척.
- 534) 閨中. 아녀자가 기거하는 곳.
- 535) 妻子. 아내와 자식.
- 536) 寄別. 댄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 537) 出門望. 문 밖에 나가 기다림.
- 538) 依閨出望.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539) 蘇中郎將의 鴻雁去來. '소중랑장'은 한나라 때의 소무(蘇武)로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음. 소무가 흉노에게 사신을 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발에 매어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서 19년 만에 돌아온 일을 가리킴.
- 540) 相思曲.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 541) 斷腸懷.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
- 542) 晝夜愁心. 밤낮으로 하는 근심스런 생각.
- 543) 陸戰. 육지에서 하는 전쟁.
- 544) 水戰. 물에서 하는 전쟁.
- 545) 生死가 朝夕이로구나. 죽고 사는 것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 546) 客死. 객지에서 죽는 죽음.
- 547) 한다면.
- 548) 掩土. 흙을 덮음.
- 549) 骨曝沙場.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 550) 烏鳶. 까마귀와 술개.
- 551) '후여' 하고 소리를 하며 손짓을 하여.
- 552) 北天. 북쪽 하늘.
- 553) 一日思親十二時. 하루에 12시간을 아버이를 생각함.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생각했으므로, 결국 온 종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임.
- 554) 홀로하다.
- 555) 五代獨身.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 556) 將近토록. 곧 가깝도록. 거의 다 되도록.
- 557) 膝下. 아버이의 곁.

- 558)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559)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
 560) 供. 신이나 부처에게 음식이나 재물, 기도 등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561) 名山. 이름난 산.
 562) 大刹. 큰 절.
 563)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564) 古廟. 오래 된 사당.
 565)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566) 釋王寺. 절 이름.
 567) 石佛. 돌로 만들거나 새긴 부처님.
 568) 彌勒.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569)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570) 袈裟施主. 가사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내는 일. '가사'는 중이 입는 법의(法衣)로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는 긴 네모로 된 천.
 571) 引燈施主. 절에서 불을 켤 기름이나 양초를 살 비용을 내는 일.
 572) 열왕佛供. 시왕불공(十王佛供).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는 열 대왕에게 드리는 불공.
 573)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574)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575) 百日山祭. 백일 동안 산에 제사 드리는 일.
 576) 힘들여 심은 나무가.
 577) 十朔. 열 달.
 578) 胎教. 아이를 뱀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
 579) 임신할 때에. '임신하다'를 '벼슬하다'라고 함.
 580)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581)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582)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583)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은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584) 글을 지어. '지음'은 글을 지음을 이르는 말.
 585) 正見正面. 정면에 바로 보이게. 곧, 글을 잘 보이는 정면에 붙여두고 태교를 하여.
 586) 何月未月하여. 어느 달인지, 달이 아직 차지 않았는지 하며. 곧,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다가.

- 587) 順産. 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
588) 깻묵불알. 깻묵처럼 진한 갈색의 어린 아이의 불알.
589) 고추처럼 생긴 어린 아이의 자지.
590) 五六朔. 5~6개월.
591) 壯版房. 바닥을 장판으로 바른 방. '장판'은 방바닥을 바르는 데 쓰는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
592) 冠玉.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593) 風采. 빛나서 나타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594) 杜牧之. 중국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杜牧). '목지(牧之)'는 두목의 자(字).
595) 힘에 벅차서 애처롭게 겨우 움직이는 모양.
596)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짐짓 취함을 나타내는 말.
597)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피우는 재롱.
598) 어린아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우는 재롱.
599)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600) 거머쥐어 잡고.
601) '투레질'의 방언. (아기가) 입술 사이로 바람을 내어 보내어 '트르르……'하는 소리를 내는 짓.
602) 愛重.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
603) 天鵝聲.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
604) 祠堂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의 문.
605) 痛哭再拜. 슬피 울면서 두 번 절을 함.
606)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607) 有情한. 정이 있는. 다정한.
608) 家屬. 딸린 식구.
609) 한 곳에.
610) 後嗣. 대를 이을 자식.
611) 生離別. 살아 있는 부부끼리 하는 이별.
612) 兒孩. 아이.
613)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볼거나?
614) 전혀 없고.
615) 四顧無親.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까운 친척이 없음.
616) 二姓之合. 두 성씨가 합치는 일. 두 성씨가 만나 혼인하는 일.
617)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제사를 지냄.
618) 接賓客. 손님을 접대하는 일.
619) 治産. 살림살이를 잘 다스리는 일.
620) 凡節.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621) 家長. 집안의 어른.

- 622) 愛重.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
 623) 天鵝聲.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
 624) 足不離地.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않을 아니함.
 625) 戰笠. 병거지.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626) 엮드리지면서. 잘못하여 엮어지며.
 627) 家君. 집안의 임금이니 즉, 남편을 말함.
 628) 二八青春. 16세 무렵의 꽃다운 젊은이.
 629) 달래려고 할 때.
 630) 出身.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섬.
 631) 후려쳐. 사정없이 뿌리쳐.
 632) 日復日戰爭. 하루 또 하루 계속되는 전쟁.
 633) 不息. 그치지 않음.
 634) 茫茫滄海. 넓고 넓은 푸른 바다.
 635) 끝.
 636)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637) 淡淡. (물이나 달빛 등이) 옅고 맑음.
 638) 손바닥을 펴 내민 손.
 639)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640) 戀妻之情.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641) 諺文 刊註. 옛날에 한문 경서를 배울 때에 한문의 큰 활자 밑에 한글로 자세하게 적은 주석.
 642) 禮記. 예의 이론과 실재를 기록한 책으로 유교 경전의 하나.
 643) 春秋. 공자가 쓴 노나라 역사책. 유교 경전의 하나.
 644) 群衆. 수많은 무리.
 645) 別別. 별난.
 646) 되물어 강조할 때 쓰는 말.
 647) 喪妻. 아내를 잃음.
 648) 求婚. 결혼할 상대자를 구함.
 649) 四柱單子. 혼인할 것을 정한 뒤에 신랑 될 사람의 집에서 신랑 될 사람의 사주(태어난 해, 달, 일, 시)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
 650) 擇日. 날을 잡음.
 651) 寄別. 딴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652) 一簋器材. 한 벌로 갖추어진 여러 도구.
 653) 張風憲네. 장씨 성을 가진 풍헌의. '풍헌'은 조선조 때 향소직의 하나로 면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 보았음.
 654) 털이 빠지는 병인 비루에 걸린.
 655) 李座首宅. 이씨 성을 가진 좌수의 집. '좌수'는 조선조 때 지방에 두었던 향청의 우두머리.
 656) 쫄이 먹은 안장.
 657)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두 군데가 찢어진 사람.

- 658)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붙쑥 내민 사람.
- 659) 重侍. 중시는 혼례를 치르려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갈 때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시배(侍陪)를 두 사람으로 세우는 일.
- 660) 鄭동장. 정씨 성을 가진 동장. '동장'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리던 종.
- 661) 혼례를 올리기에 앞서 신랑 집에서 신부에게 주는 예물을 담은 함을 지고 가는 사람.
- 662)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663) 절름발이.
- 664) 찌수의 아버지. 찌수 혹은 찌쇠는 찌가 많은 사람을 이름.
- 665) 上客. 혼례 때에 식구나 일가 가운데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 666) 검정.
- 667)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를 뚜렷이 내며 잇따라 걸어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668) 紗帽巾帶. 혼례 때에 신랑이 쓰던 모자와 허리띠.
- 669) 綾羅豪奢. 비단으로 사치스럽게 꾸밈.
- 670) 醺禮廳. 전안청(奠雁廳)이라고도 하는데, 전안식을 올리는 식당을 말함. 보통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을 세우고, 명석을 깔고 상을 차린다.
- 671) 奠雁. 혼례의 첫 순서로, 신랑에 신부에게 기러아비를 시켜서 가지고 간 산 기러기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겹은 남색, 안은 홍색으로 된 보자기를 간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
- 672) 大禮廳. 혼인할 때 대례를 올리는 곳. 대개 초례를 위한 차림에서 전안상만 치우고는 그대로인데, 대례에서는 먼저 신부가 절 네 번을 하면 답으로 신랑이 두 번 절하고, 청실과 홍실을 뽐 표주박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한다.
- 673) 다담(茶啖).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차와 과자 따위.
- 674) 日落咸池. 함지에 해가 떨어짐. '함지'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에 있는 큰 연못.
- 675) 飯床. 반상기(飯床器).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 676) 결혼질해서.
- 677) 明兆. 얼굴에 나타나는 밝은 징조.
- 678) 英風. 영특한 기운.
- 679) 花冠. 칠보로 꾸민 여자의 족두리.
- 680) 圓衫. 여자의 예복의 한 가지로,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아 짓는다.
- 681) 아내의 남자 형제간의 아내.
- 682) 擁衛. 좌우로 부축하여 지킴.
- 683) 연기, 혹은 냄새.
- 684) 空房數. 남편 없이 혼자 지낼 운수.
- 685) 년지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 686) '에둘러서'의 옛말. 팔을 둘러 얼씨안아.
- 687) 情談. 다정한 이야기. 정다운 이야기.
- 688) 외치는.
- 689) 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690) 뒷덜미. 목덜미.
- 691) 家君. 집안의 임금이니 즉, 남편을 말함.

- 692)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 693) 爲父母保妻子. 부모와 아내 자식을 위함.
- 694) 淫男. 음탕한 사내.
- 695)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어 못마땅하게 노려보며.
- 696) 貞男 貞女. 행실이 곧은 남자와 열녀.
- 697) 소나 돼지의 교미, 또는 '사통(私通)'의 뜻으로 쓰임.
- 698) 바다 속에 사는 붉은 말의 하나. 높이가 7-9cm이고, 가지가 갈라지며, 우무의 원료가 된다. 바다 속의 모래나 바위에 붙어 산다.
- 699) 着刀. 지휘봉으로 쓰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
- 700) 설령제라고도 하는데, 명창 권삼득이 지어냈다는 판소리 창법의 하나로, 힘차고 우렁찬 것이 특징이다.
- 701) '마음 씩씩이나 하는 행동이 보잘 것 없이 작은 사람'을 욕으로 일컫는 말.
- 702) 爲國者는 不顧家라.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 703) 男兒何必戀妻子리오? 남자가 하필이면 아내와 자식만을 그리워하겠는가?
- 704) 莫向江村老壯年하소.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고향은 생각 마소.
- 705) 功名. 공을 세워 드러난 이름.
- 706) 어찌 할 도리 없이.
- 707) 아니한가?
- 708) 心中. 마음 속.
- 709) 腰下. 허리 아래.
- 710) 三尺. 석 자. 약 90cm.
- 711) 吳漢. 오나라와 한나라.
- 712) 兩陣. 양 진영.
- 713) 本國. 고국. 자기 나라.
- 714) 妻子眷率. 아내와 자식 등의 권속(眷屬). 즉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715) 遠近親戚. 가깝고 먼 친척.
- 716) 獨不將軍. 모든 일을 제 혼자 처리하는 사람. 본디 부하가 없이 혼자서는 장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인데, 항우가 힘만 믿고 일을 제 혼자 처리한 데서 생긴 말.
- 717) 項도령. 힘이 장사였다는 항우(項羽)를 가리킴.
- 718) 習用干戈. 창과 방패의 사용법을 익혀서 처음으로 사용함. 현원씨가 제후들을 정벌하려고 창과 방패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함.
- 719) 軒轅氏.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현원(軒轅)인데, 토지의 덕으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땅의 누런 빛깔을 따서 황제(黃帝)라고도 한다. 신농씨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덕이 약해지므로 창과 방패를 만들어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통합했다고 함.
- 720) 與炎帝로. 염제에 맞서서. '염제'는 염제 유방씨(榆罔氏)이다. 신농씨와 동일계 여겨져 '염제 신농씨'라고 한다. 중국 고대 삼황의 한 사람으로 성은 강(姜)인데,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지녔다고 한다. 쟁기를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또 시장을 열어 물건을 바꾸어가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 721) 阪泉싸움. 현원씨와 염제 유방씨가 싸운 싸움. 이곳에서 현원씨가 유방씨를 이기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722) 能作大霧 蚩尤作亂.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우가 난리를 일으킴. ‘치우’는 제후임.
- 723) 涿鹿싸움. 현재의 중국 허북성 탁록현에서 현원씨와 치우가 벌인 싸움. 현원씨가 응룡(應龍)을 시켜 치우를 치게 하자, 치우는 바람 신에게 안개를 일으키게 하므로, 현원씨가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지남거를 만들어, 탁록벌에서 치우를 사로잡았음.
- 724) 衰한 天地. 점점 쇠약해져 다 된 세상.
- 725) 春秋싸움. 중국 춘추시대 천하를 놓고 다섯 나라가 다투던 싸움.
- 726) 威福秦皇. 위력 있고 부귀하던 진시황.
- 727) 鬪食山東. 기름진 화산(華山)의 동쪽 지방을 서로 차지하려던 일.
- 728) 六國싸움. 여섯 나라의 싸움.
- 729)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여러 장수들.
- 730) 八年風塵. 8년 동안의 전쟁. ‘풍진’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먼지를 가리킴.
- 731) 楚漢싸움. 초나라의 항우(項羽)와 한나라의 유방(劉邦)이 천하를 놓고 싸우던 싸움.
- 732) 太公. 한고조 유방의 아버지.
- 733) 呂后. 한고조 유방이 미친했던 시절의 아내로서, 유방이 죽자 아들 혜제(惠帝)를 섭정 하여 실권을 잡고 조왕(趙王) 여의(如意)와 척부인(戚夫人)을 살해하였다.
- 734) 西北大風 涿水싸움. 진나라가 망한 뒤에 한나라의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와 팔년 동안이나 싸우다가 마침내 해하에서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의 고조가 되었다. 유방은 수수(涿水) 싸움에서 항우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는데, 때마침 서북풍이 크게 불어 낮이 밝아져 되어 겨우 도망쳤으나, 부모인 태공과 여씨 황후는 항우에게 볼모로 잡힌 적이 있었다.
- 735) 馬上天下.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음. 곧 전쟁을 통해 천하를 얻음.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마상득천하 마상불가치천하(馬上得天下 馬上不可治天下.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임.
- 736) 漢 劉邦. 한나라 유방.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 고조.
- 737) 七十餘侯. 칠십 명이 넘는 제후들.
- 738) 項도령. 항우를 가리키는 말.
- 739) 羽壁싸움. 항우가 해하에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싸운 싸움.
- 740) 赤壁싸움. 적벽강에서의 싸움. 중국 삼국시대 때에 오나라와 한나라의 연합군과 조조의 백만대군이 싸워 조조가 대패한 싸움. ‘적벽강’은 호북성 가어현에 있는 강.
- 741) 功成身退. 공을 세우고 물러남.
- 742) 동이 트며 밝은 기운이 비침.
- 743) 거드러거리지.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굴지.
- 744) 馬頭角. 말 머리에 뿔이 남.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리킴.
- 745) 烏頭白. 까마귀 머리가 희어짐.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 746) 술 몇 잔.
- 747) 才談.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748) 怪談. 괴이한 말.
- 749)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
- 750) 醉談. 술에 취한 김에 하는 말.
- 751) 廝殺. 전투에서 적병을 마구 죽임.
- 752) 柔能制剛이요 弱能制盛이라.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약한 것이 도리어 번성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
- 753) 兵家. 군사학의 전문가.
- 754) 微驗이요. 경험에 비추어 아는 것이요.
- 755) 在德. 덕에 달려 있음.
- 756) 溺死. 물에 빠져 죽음.
- 757) 橫死. 뜻밖의 재화(災禍)로 인하여 죽음.
- 758) 怯死. 겁이 나서 죽음.
- 759) 沒死. 모조리 다 죽음.
- 760) 火死. 불에 타서 죽음.
- 761) 滅死. 죄다 없어지는 죽음.
- 762) 回心.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 763) 月明深夜. 달 밝은 깊은 밤.
- 764) 南天을 무릅쓰고. 남쪽 하늘을 무릅쓰고. '무릅쓰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어 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남쪽 하늘을 향하여 떠 있다는 뜻으로 쓰였음.
- 765) 如何鳴고? 어찌 우는가?
- 766) 左右 答曰.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답하여 말함.
- 767) 見明月疑是天曉. 달이 밝은 것을 보고 새벽이 된 줄로 얍.
- 768) 南天. 남쪽 하늘.
- 769) 醉興이 滔滔하여. 술에 취한 흥취를 막을 수 없어.
- 770) 月明星稀 鳥鵲이 南飛하니, 繞樹三匝에 無枝可依로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도다.
- 771) 諸將. 여러 장수.
- 772) 劉瓛. 조조의 부하 장수. 패국(沛國) 상현(相縣) 사람으로 양주자사(揚州刺史)를 지냈음.
- 773) 臨戰時. 내일 싸움에 임할 때에.
- 774) 不吉之兆. 불길한 징조. 좋지 못한 징조.
- 775) 妖說. 요사스런 말.
- 776) 執頗. 남의 잘못을 잡아내어 트집을 잡음.
- 777) 醉中에. 술취한 중에.
- 778) 그것인들.
- 779) 此日. 이 날.
- 780) 水軍都督. 수군의 총 대장.
- 781) 毛玠. 조조 휘하의 모사.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는 효선(孝先). 적벽대전에서 우금과 함께 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음. 조정에서 근무에 매우 충실하였으

- 나, 참소를 입어 쫓겨나 있다가 병으로 죽었음.
- 782)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저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783) 連鎖戰船. 畢鎖하고, 전투할 배를 서로 이어놓기를 마치고.
- 784) 卽日. 그 날.
- 785) 進兵. 병사를 진격시킴.
- 786) 樓船. 망을 보기 위한 다락집이 있는 배.
- 787) 水陸諸將.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
- 788) 五色旗號. 다섯 색깔의 깃발 신호.
- 789) 分撥. 나누어 펼침.
- 790) 水陣. 수군의 진영.
- 791) 中挾搥. 대오의 한가운데서 황색 기를 들고 지휘하는 장수.
- 792) 前挾搥. 대오의 앞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93)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794) 左挾搥. 대오의 왼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95)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796) 右挾搥. 대오의 오른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97) 呂通. 위나라 장수.
- 798) 後挾搥. 대오의 뒤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99) 呂虔. 조조의 부하 장수로 무성(武城) 사람. 자는 자각(子恪).
- 800) 水陣. 수군의 진영.
- 801) 前司把. 군대의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2)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803) 左司把. 군대의 왼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4)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805) 右司把. 군대의 오른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6) 夏侯淵.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묘재(妙才). 정서장군을 지냈는데, 평양관에서 촉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다.
- 807) 後司把. 군대의 뒷편을 맡은 장수.
- 808)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跋虜將軍)에 이르

렀다.

- 809) 水陸應使. 수군과 육군의 연락을 맡은 장수인 듯.
- 810)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조조와는 본디 같은 족속인데, 조조의 아버지가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달라졌다. 여러 차례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조조가 죽은 뒤 병사하였다.
- 811)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동탁을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812) 護衛司. 임금의 신변을 지키는 장수.
- 813)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 814)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남.
- 815) 水陣에 發榜曰. 진영에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 816) 官旗定捉 耳聽金鼓 目視旌旗 駕船如馬 見賊爭先 同舟共命하소. 到賊中央 軍旗關哨 鼓動旗舉아. 관기에 나타난 바를 따라, 귀로는 징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군기를 보아라. 말 타듯이 배를 타고, 적을 보면 앞을 다투며, 배와 생명을 같이 하소. 적이 중앙에 이르면 군기를 흔들어 각 초소에 연락해, 북을 치고 깃발을 올려라.
- 817) 陸陣. 육군의 진영.
- 818) 悠悠小設하며, 可謂小施하며, 視如天如라. 여유 있고 침착하게 조금씩 싸울 태세를 갖추고, 적에게 베푸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며, 하늘을 보듯이 면밀히 살펴라.
- 819) 假曾汝脫退며 敵不急據而 各隊整齊하여 不許參戰越後하라. 적진을 빠져나오는 데도 적이 급히 쫓아오지 않으면, 각 부대를 정비하여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뒤의 부대로 그 적을 넘겨라.
- 820) 各應聲畢. 각각 대답하는 소리를 마침.
- 821) 戰船. 전투하는 배.
- 822) 風帆. 돛단배.
- 823) 連船. 배를 연결함.
- 824) 將臺上. 장대 위. '장대'는 장수가 자리를 잡고 명령을 내리는 곳.
- 825) 觀望. 형세를 바라봄.
- 826)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827) 龐士元. 방통(龐統). 양양(襄陽) 사람으로 이름이 통이며, 자(字)가 사원이다. 유비의 모사(謀士)로, 조조에게 연환계(조조의 군사가 수전에 능하지 못 하므로 쇄줄로 배를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게 하자는 계략)를 쓰도록 하여 대패하게 하였다.
- 828) 連環計策. 물에 약한 조조 군사들이 배에 익숙해지도록 쇄사슬로 모든 배를 연결시키게 한 계책.
- 829)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830) 처온다면. 쳐들어온다면.
- 831) 火攻. 불로 하는 공격.

- 832) 憑藉.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 여기서는 바람의 힘을 빌려 의지한다는 말.
- 833) 冬雪. 엄동설한(嚴冬雪寒)의 준말인 듯. ‘엄동설한’은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 834) 勝捷. 전쟁에서 이김.
- 835) 妙法. 교묘한 방법.
- 836) 水陸軍. 수군과 육군.
- 837) 陣勢.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형세.
- 838) 狂風.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
- 839) 忽起. 갑자기 일어나남.
- 840) 曹寨黃旗. 진에 있는 누런 깃발.
- 841) 江中. 강물 속.
- 842) 吳陣. 오나라 진영.
- 843) 面相. 얼굴.
- 844) 欲破無計. 쳐부수고자 하나 방법이 없음.
- 845) 외치고.
- 846) 吐血. 피를 토함.
- 847) 氣塞. 심한 흥분이나 타격 따위의 과격한 정신 작용으로 호흡이 잠시 멎음. 기절.
- 848) 朱都督. 주유를 일컫음. ‘도독(都督)’은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
- 849) 일어나지.
- 850) 自請. 스스로 하기를 청함.
- 851) 涼藥. 서늘한 약.
- 852) 먹도록 하라.
- 853) 欲破曹兵인댄 宜用火攻이니, 萬事具備하되 只欠東南風이라. 조조의 군사를 쳐부수려면 마땅히 불로 쳐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 다만 동남풍이 없는 것이 흠이로구나.
- 854) 切切. 절절히. 간절하게.
- 855) 造化.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신통하게 꾸며진 사물, 또는 그런 사물을 나타내는 재간.
- 856) 人力. 사람의 힘.
- 857)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 858) 天意. 하늘의 뜻.
- 859)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860) 領率. (식구, 군대 등을) 데리고 거느림.
- 861) 精軍人. 정예 군사. 날랜 군사.
- 862) 聽令俟侯. 명령을 기다려 들음.
- 863) 竝馬. 나란히 말을 탐.
- 864) 取用. 가져다가 사용함.

- 865) 三層壇. 삼 층으로 된 단.
- 866) 方圓. 밑바닥 둘레.
- 867) 二十四丈. 스물네 장. '장'은 길이의 단위로 약 3m.
- 868) 每一層高. 각각 한 층의 높이.
- 869) 舍高. 모두 합한 높이.
- 870) 下一層. 맨 아래 1층.
- 871) 二十八宿. 해, 달, 혹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天球)를 스물여덟으로 나눈 것.
- 872) 七面. 일곱 면.
- 873) 靑旗. 푸른색 기.
- 874) 角亢氐房心尾箕.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75) 蛟龍貉狐兔虎豹.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도롱뇽, 용, 오소리, 여우, 토끼, 호랑이, 표범.
- 876) 按檢. 조사하여 살핌.
- 877) 黑旗. 검은색 기.
- 878) 斗牛女虛危室壁.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79) 獬豸蝠鼠燕豬獾.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해태,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이리.
- 880) 作玄武之勢. 현무의 형세로 벌여 놓음. '현무'는 민속에서 섬기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북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르는데,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 881) 白旗. 흰색 기.
- 882) 奎婁胃昂畢參參.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83) 狗狼雉雞鳥猴猿.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개, 이리, 꿩, 닭, 까마귀, 원숭이, 긴팔원숭이.
- 884) 踞白虎之威. 백호의 위세로 세워놓음.
- 885) 赤旗. 붉은색 기.
- 886) 井鬼柳星張翼轸.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87) 犴羊獐馬鹿蛇虺.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
- 888) 成朱雀之狀.朱雀의 형상으로 벌여 놓음. '朱雀'는 민속에서 섬기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르는데, 붉은 봉황으로 형상화한다.
- 889) 黃旗. 노란색 기.
- 890) 六十四卦. 주역의 팔괘를 여덟 번 겹쳐서 얻은 괘.
- 891) 八位. 여덟 방위.
- 892) 備立. 갖추 놓음.
- 893) 上一層 用四人. 맨 위층에는 네 사람을 써서.
- 894) 各人. 각각의 사람.
- 895) 束髮冠. 머리를 묶고, 관을 씌.

- 896) 鳳衣. 품이 넉넉한 옷.
 897) 博帶. 넓은 허리띠.
 898) 朱履. 붉은 신.
 899) 方裙. 옷자락이 네모난 옷.
 900) 前左. 왼쪽 앞부분.
 901) 立一人하여. 한 사람을 세워.
 902) 手執長竿하고. 손에 긴 장대를 잡게 하고.
 903) 竿尖上. 장대 끝.
 904) 用鷄羽葆하여 以招風信하고. 닭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바람을 부르고.
 905) 繫七星號帶. 복두칠성이 그려진 깃발을 매달.
 906) 以表風勢. 바람의 기세를 표시함.
 907) 後左. 뒷부분의 왼쪽.
 908) 奉寶劍. 보검을 받들어 들고. ‘보검’은 의식에 쓰는 칼의 한 가지.
 909) 後右. 뒷부분의 오른쪽.
 910) 奉香爐. 향로를 받들어 들고. 향로는 향을 피우는 화로.
 911) 壇下. 단의 아래.
 912) 二十四人. 스물네 사람.
 913) 旌旗. 모두 깃발인데, ‘정’은 깃대 끝을 새의 깃털로 꾸민 기임.
 914) 寶蓋. 양산처럼 생겨서 햇빛 따위를 가리는 물건.
 915) 大戟. 끝이 갈라진 큰 창.
 916) 長槍. 긴 창.
 917) 黃耗. 누런 깃발.
 918) 白鉞. 무기로 쓰던 흰 도끼.
 919) 朱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붉은 깃발.
 920) 阜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검은색 대장기.
 921) 環繞四面. 사방을 등글게 둘러싸듯 섬.
 922) 此時에. 이 때에.
 923)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924) 淨히. 깨끗이.
 925) 剪爪. 손톱을 자름.
 926) 斷髮. 머리를 자름.
 927) 身嬰白茅. 몸을 흰 띠로 싸서 짐승과 같이 꾸밈.
 928) 焚香. 향을 피움.
 929) 獻酌. 제사를 드릴 때에 술잔을 올리는 일.
 930) 再拜하고. 두 번 절하고.
 931) 仰天讀祝. 하늘을 우러러 축문을 소리 내어 읽음.
 932) 子敬. 노숙의 자(字).

- 933) 調兵. 병사를 훈련시킴.
 934) 應함이. 어떤 물음이나, 부름, 요구 따위의 사실에 맞추어 행동함.
 935) 怪異함. 이상아름함.
 936) 數多. 수 많은.
 937) 將卒. 장수와 병졸들.
 938) 不許擅離方位. 제멋대로 자리를 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939) 不許交頭接耳.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940) 不許失口亂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941) 不許大驚所異. 괴이한 것에 크게 놀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942) 違令者. 명령을 어기는 사람.
 943) 斬. 목을 베어 죽임.
 944) 緩步. 느린 걸음.
 945) 焚香. 향불을 피움.
 946) 獻酌. 술잔을 올림.
 947) 跪坐. 꿇어앉음.
 948) 仰天暗祝. 하늘을 우러러 몰래 빌.
 949) 二十四位. 이십사면의 방위.
 950) 風勢. 바람의 기세.
 951) 上壇 三次 올라서니. 세 차례 단에 올라서니.
 952) 戌亥方. 술해에 해당하는 방위. 서북쪽.
 953)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954) 胸膛. 가슴 한복판. 복장.
 955)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둘러치는 포장.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956)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957) 五更. 옛적에 하루 저녁을 다섯으로 나눈 그 다섯 번째 시간.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
 958) 江村. 강가에 있는 마을.
 959) 遙落. 멀리 떨어져 보임.
 960)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을 가리킴.
 961) 작은 불빛 따위가 사라질 듯 말 듯 약하게 움직이고.
 962) 비스듬히 비치는데.
 963) 星稀月落時. 별이 드물고 달이 지는 새벽녘.
 964)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965) 孔明前. 공명 앞에. 공명께.
 966) 禮하여. 인사를 하며.
 967) 危邦陣中. 위험한 적의 진영 속.
 968) 반가와 하여.
 969) (내밀 때에) 뻗는 손.

- 970) 덩석. 왈각 달려들어 냉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
 971) 賢主. 어진 임금. 유비를 이룸.
 972) 二世. 유비의 아들, 곧 나중에 후황제가 된 유선.
 973) 玉體. 임금의 몸.
 974) 諸將軍卒.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
 975) 無事乎아? 아무 일이 없습니까.?
 976) 滔滔滔滔. 넘실넘실.
 977) 彈弓. 활을 쏘.
 978) 虛言. 거짓말.
 979) 隆冬. 한겨울.
 980) 君子. 인품이 훌륭한 사람.
 981) 봄시다.
 982) 떨어지자마자.
 983) 마치지.
 984) 大驚. 크게 놀라.
 985)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986) 難測. 짐작하기 어려움.
 987) 東吳. 동쪽에 있는 오나라.
 988) 禍根. 재앙이나 화의 근원.
 989)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
에 능하였다.
 990)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991) 兩將. 두 장수.
 992) 한 칼에.
 993) 飛身上馬. 몸을 날려 말을 탐.
 994) 祭. 제사.
 995) 孔明이다. 공명이로다.
 996) 遠近滄波. 멀고 가까운 푸른 물결.
 997) 水卒. 수군의 병사.
 998) 有表. 표가 남.
 999) 昨日. 어제
 1000) 日暮時. 해질 때.
 1001) 江岸. 강 언덕.
 1002) 洋洋江水. 넓고 넓은 강물.
 1003)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장강(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1004) 거루船. 거룻배.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1005) 桐江七里灘.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울인데, 엄자룡이 낚시하던 곳으로 유명함.
 1006) 嚴子陵. 이름은 광(光). ‘자룡’은 그의 자(字). 한나라의 광무제와 글공부를 같이 했
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다. 황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라

는 벼슬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 1007) 五湖上煙月夜에 范相公의 가는 뱃지. 오호의 안개 자욱한 달밤에 범상공이 타고 가던 배인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호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서시를 데리고 도(陶)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 1008)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 1009) 披髮徒跣.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음. 기우재를 드릴 때에는 맨발에 머리를 풀고 단에 올라갔다고 한다.
- 1010) 一員. 한 사람.
- 1011)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 1012) 麟. 기린.
- 1013)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 1014)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고.
- 1015) 화살처럼 빠르게.
- 1016) 太重한. 매우 심한.
- 1017) 꼭 적시면.
- 1018) 魚腹孤魂. 고기의 배 속에 든 외로운 혼령, 꿈, 물고기의 밥.
- 1019) 상앗대나 노 따위를 저어 배를 가게 함. 또는 그런 일.
- 1020) 노를 젓는 일.
- 1021) 노를 저으면서 내는 소리.
- 1022) 灘江. 물살이 빠른 강물.
- 1023) 都督.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
- 1024) 請來. 오라고 청함.
- 1025) 마십시오.
- 1026) 回報하라. 돌아가서 알려라.
- 1027) 해치느냐.
- 1028)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이 의좋게 지냄.
- 1029)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꾀.
- 1030) 孟德. 조맹덕, 조조. 맹덕은 그의 자.
- 1031) 八十萬兵. 팔십만의 군사.
- 1032) 八公山 草木 베듯. 팔공산은 안휘성 봉대현의 동남쪽에 있는 산. 서진이 망한 뒤에 화북 지방에서 일어난 오호 십육국의 하나인 전진(前秦)의 임금 부견(苻堅)이 동진(東晉)을 칠 때에, 이 산에 늘어서 있는 나무들을 동진의 병사인 줄로 잘못 알고 모두 베어 버렸다고 한다.
- 1033) 一戰. 한 번 싸움.
- 1034) 一葉片舟. 한 조각 작은 배.
- 1035)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 1036) '대적하지' 또는 '피하지'의 방언.
 1037) 長弓. 큰 활.
 1038) 鐵箭. 쇠로 만든 화살.
 1039) 화살을 시위에 메어.
 1040) 非丁非八. 정(丁) 자도 아니고 팔(八) 자도 아닌 자세. 활을 쏘 때의 발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
 1041) 胸虛腹實. 숨을 다 내쉬고 배에 힘을 줌.
 1042) 下三脂. 손을 쥐었을 때, 집게 손가락 밑의 세 손가락.
 1043) 줍통. 활의 한가운데 손으로 쥐는 부분.
 1044) 활에다 먹인 화살이 활에 닿는 부분.
 1045) 놀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1046) 머리 뒤. 뒤통수.
 1047) 깍지낀 손. '깍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
 1048) 힘차게 떼어놓으니.
 1049) 화살의 대.
 1050) 海上. 바다 위. 여기서는 그저 '물 위'라는 뜻으로 썼음.
 1051) 크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052) '가로 자빠져'라는 뜻으로 쓴 듯함.
 1053) 烟波萬頃上. 물안개 낀 드넓은 호수나 바다 위.
 1054) 怯走하여. 겁에 질려 달아나.
 1055) 回報. 회보는 돌아와 알림.
 1056) 내지 않거나. 태어나게 하지 않거나.
 1057) 後圖. 나중에 계획을 세워 피함.
 1058) 水陸軍. 수군과 육군.
 1059) 分撥. 나누어 펼침.
 1060) 水戰. 물에서 하는 전쟁.
 1061) 甘寧. 오나라 장수. 손권에게 계책을 올려 황조(黃祖)를 쳐부수고, 주유와 함께 조조를 쳐서 큰 공을 세워 강표호신(江表虎臣)이라 불렸고, 벼슬은 정충장군이였다.
 1062) 蔡中 降卒. 채중의 항복한 병사들. '채중'은 유표(劉表)의 처남이자 수군대장이었던 채모(蔡瑁)의 사촌. 조조를 거짓 배반하고 주유에게 항복했다가, 이를 간파한 주유에게 역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음.
 1063) 炬火爲號하라. 횃불로 신호를 하라.
 1064) 前營. 앞을 맡은 군대.
 1065)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음.
 1066) 左營. 왼쪽을 맡은 군대.
 1067) 呂蒙. 오나라 장수. 자는 자명(子明). 주유와 함께 조조 군사를 오림에서 크게 무찔렀다. 벼슬은 남군태수(南郡太守).
 1068) 中營. 가운데를 맡은 군대.

- 1069) 凌統. 오나라 장수. 자는 공적(公績). 강하(江夏)를 정복하고, 주유와 함께 오림에서 조조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 1070) 右營. 우측을 맡은 군대.
- 1071) 董襲. 오나라 장수. 자는 원대(元代). 키가 팔 척이나 되고 힘이 장사였는데, 손책 밑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유수구에서 조조와 싸우다 폭풍우를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
- 1072) 後營. 뒷부분을 맡은 군대.
- 1073) 潘璋. 오나라 장수. 자는 문규(文珪). 집이 가난하고 술을 좋아했는데, 손권을 도와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양양태수, 평북장군, 우장군 등을 지냈다.
- 1074) 各率三千. 각각 삼천 명씩을 이끌고.
- 1075) 各處. 각각의 장소에.
- 1076) 埋伏. (적을)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1077) 兵營. 병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
- 1078) 軍官. 장교.
- 1079) 第一隊. 첫 번째 부대.
- 1080)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 1081) 第二隊. 두 번째 부대.
- 1082)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이릉 전투에선 남만장수 사마가를 죽였으며 후일 조조(曹操)와의 합비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유비(劉備)와의 싸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1083) 第三隊. 세 번째 부대.
- 1084) 蔣欽.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공혁(公奕). 수군을 통솔하는 데 뛰어나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085) 第四隊. 네 번째 부대.
- 1086) 陳武. 오나라 장수. 여강(廬江) 송자(松滋) 사람. 조조의 세 번째 남침을 맞아 싸우다 방덕(龐德)에게 칼을 맞아 전사했음.
- 1087) 戰船. 전투용 배.
- 1088) 一字. 일 자 모양으로 나란히.
- 1089) 擺列. 늘어 세움.
- 1090) 上部都督. '도독'은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상부도독은 전방 부대의 총대장을 가리키는 말인 듯.
- 1091) 程普. 오나라 장수. 우북평 토은 사람으로 자(字)는 덕모(德謀).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092) 先鋒將. 부대의 가장 앞에 나아가는 대장에.
- 1093) 陸遜. 손권의 부하 장수.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백언(伯言). 뛰어난 지략을 지닌 장수로, 뒤에 승상이 되었는데, 태자를 폐하는 데 반대하였다가 노염을 사고 몰려나 병들어 죽었다.
- 1094) 將中에. 장수 가운데. 장수들에게.

- 1095) 下令. 명령을 내림.
- 1096) 乘火煙如雲하여 一齊 應陣하고, 捧銃에 斧携帶하여 山崩如壯圖라 하였으니. 불이 붙어 연기가 구름처럼 일어날 때를 타서 일제히 군대를 움직여, 총을 들고 도끼를 들어 산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공격하라고 하였으니.
- 1097) 黃蓋 火船. 황개가 거느린 화선. '화선'은 화약과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 1098) 炬火. 횃불.
- 1099) 黃昏時. 해질 무렵.
- 1100) 號令出. 행동의 개시를 알리는 명령이 내림.
- 1101) 各船에. 모든 배에.
- 1102) 聽候하라. 청령사후(聽令俟候)하라.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라.
- 1103) 一葉 風帆 한 척의 돛단배.
- 1104) 달리게 하여.
- 1105) 金鼓. 쇠북. 징.
- 1106) 鎮軍將軍. 조운(조자룡)을 가리킴. 처음에는 익군장군(翊軍將軍)이었음.
- 1107) 兵馬. 병사(兵士)와 군마(軍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군대, 무기, 군비(軍備) 따위의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108)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109) 屯兵埋伏. 군사를 주둔시키고 숨어 있음.
- 1110) 曹兵. 조조의 군사.
- 1111) 掩殺. 에워싸서 죽임.
- 1112) 葫蘆谷. 오림에 있는 골짜기 이름.
- 1113) 伏兵. 불의에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요긴한 곳에 숨어 있음.
- 1114) 午時.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 1115) 糜芳. 미축(糜竺)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1116)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1117)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 1118) 三將. 세 장수.
- 1119) 敗軍 器械. 전쟁에서 진 군사들의 무기.
- 1120) 빼앗아.
- 1121) 鳳目. 봉황처럼 총명한 눈.
- 1122)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1123)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1124) 靑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1125) 跪坐. 꿇어앉음.
- 1126) 干戈. 방패와 창. '전쟁'을 뜻함.
- 1127) 尺寸之功. 한 치 한 자의 공. 공, 아주 작은 공.
- 1128) 許多한. 수많은.
- 1129) 落後. 뒤떨어짐.
- 1130) 없사옵더니. 없더니.
- 1131) 如此. 이러한.
- 1132) 患難時. 근심 걱정과 재난을 당할 때.
- 1133) 生不如死.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함.
- 1134) 못하오이다. 못합니다.
- 1135)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남.
- 1136) 智慧無窮. 슬기로움이 끝이 없음.
- 1137) 黃巾賊 敗를 만나. 황건적에게 패배하여. '황건적'은 후한 끝무렵에 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난리를 일으킨 장각(張角)과 그 무리를 말하는데, 조조가 황보숭과 함께 그 난리를 다스린 뒤로 세상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 1138) 놓아 주고.
- 1139) 所任. 맡은 바 책임.
- 1140) 定치. 정하지.
- 1141) 허물하지. 그릇 저지른 실수를 들어 꾸짖지.
- 1142) 載然後知輕重이요, 度然後知長短이다. 짐은 실어 본 뒤에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며, 물건은 재어 본 뒤에야 길고 짧음을 안다.
- 1143) 軍中에 無私情이오니. 군대 내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두지 못하오니.
- 1144) 斬. 목을 베어 죽임.
- 1145) 軍律. 군대의 법.
- 1146) 앞으로 할 일이 틀림없음을 조건 붙여 말하거나 글로 남기는 것.
- 1147) 白등(白等). 이두식 표기로 '사퇴건대'라는 뜻. 말쑤를 올리건대.
- 1148) 小將. 장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1149) 關某. 관 아무개. 관우가 제 스스로를 이르는 말.
- 1150) 地闊. 개인의 지위와 가문의 사회적 지위.
- 1151) 雖微나. 비록 보잘 것 없으나.
- 1152) 忠義는 眞誠이라. 충성과 의리는 참되고 지성스럽다.
- 1153) 會桃園에 結義하니. 도원에 모여 의형제를 맺었으니.
- 1154) 望死生之同心이요. 살고 죽기를 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며.
- 1155) 戰場出而艱苦하니. 싸움터에 나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니.
- 1156) 不違其令而竭力이라.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온 힘을 다한 것이다.
- 1157) 起兵以共討하니. 군대를 이끌고 가 함께 토벌을 하니.
- 1158) 放曹而何著고. 조조를 놓아 주고 어찌 돌아올 것인가.

- 1159) 如彼小兒生擒함이 無異探囊取物이니. 저 조그만 아이, 곧 조조를 사로잡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집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 1160) 若而違令이옵거든. 만일에 명령을 어기면.
- 1161) 上告. 윗사람에게 알려서.
- 1162) 處置 宜當事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 1163)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1164)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 1165) 불을 피워.
- 1166) 相互軍令狀.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 쓴 군령장.
- 1167)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1168) 淸道旗. 행군할 때에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청도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도(淸道)’는 행군할 때 맨 앞에 세우던 선도 깃발로 두 개이고, 주작, 청룡, 백호, 현무, 등사는 진중의 동서남북을 나타내던 대오방기(大五方旗), 홍신, 백신, 황신, 청신, 흑신은 중오방기이며, 금고는 취타대를 지휘하던 깃발이다.
- 1169) 淸道. 청도기(淸道旗). 관원(官員)의 행차 때 많은 기(旗) 중에 제일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 화염은 붉은 빛이며 ‘청도(淸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 1170)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 1171) 朱雀. 주작기(朱雀旗).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 전영, 전위를 지휘함.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남색임.
- 1172) 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173) 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174) 紅招. 홍고초(紅縞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175) 藍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176) 靑龍.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앞쪽을 지휘하는데 쓰이던 깃발.
- 1177) 東南角. 의장기의 하나.
- 1178) 西南角. 의장기의 하나.
- 1179) 藍招.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180) 黃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181)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쪽 문에 세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흰 바탕에 백호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 1182) 東北角. 의장기의 하나.
- 1183) 西北角. 의장기의 하나.
- 1184) 黑綃. 흑고초(黑縞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185) 玄武. 현무기(玄武旗). 후문(後門)에 세워 뒤쪽 진영을 지휘하는데 쓰이던 깃발. 검은 바탕에 거북을 그림.
- 1186) 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187) 紅神, 白神, 黃神, 靑神, 黑神. 중오방기(中五方旗). 조선조 때 쓰던 군기(軍旗)의 한 가지로 홍신기(紅神旗) · 남신기(藍神旗) · 황신기(黃神旗) · 백신기(白神旗) · 흑신기

- (黑神旗)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동·서·남·북·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다.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다.
- 1188) 豹尾,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깃발.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데 쓰였음.
- 1189) 金鼓, 군중(軍中)에서 치는 쇠붙이와 북.
- 1190) 號招,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191) 笳, 쇠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
- 1192) 笛, 대로 만든 관악기.
- 1193) 唢囉, 자바라. 쇠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 1194) 簫, 호적(胡笛) 등으로도 불리는 관악기의 일종.
- 1195) 鼓, 북.
- 1196) 令旗, 조선조 때 군중에서 군대의 명령을 전할 때 쓰던 기.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으로 ‘令’ 자를 썼음.
- 1197) 軍牢直列, 한 줄로 죽 늘어선 군뢰. ‘군뢰’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는 병졸.
- 1198) 座馬, 대장이 말을 탈 때 여벌로 데리고 다니던 말.
- 1199) 纛,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던 깃발.
- 1200) 攔後, 부대의 맨 뒤를 호위하던 군대.
- 1201) 親兵, 임금이나 대장이 친히 거느리던 군사.
- 1202) 教師, 군대의 훈련을 맡던 벼슬.
- 1203) 塘報, 적의 행편을 살펴 알리는 임무를 맡은 척후병.
- 1204) 劍光, 칼에서 빛나는 광채.
- 1205) 如霜이라. 서릿발과 같다. 그렇게 위엄이 있음을 나타냄.
- 1206) 用兵, 군사를 부림. 군사를 지휘함.
- 1207) 看審次로, 살펴볼 셈으로.
- 1208) 樊口,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
- 1209) 漸起로다. 점점 일어나는구나.
- 1210) 諸將, 여러 장수.
- 1211) 除防하사이다. 예방하여 미리 재앙을 막읍시다.
- 1212) 冬至 後 一陽이 始生하니. 동지 후 일양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곧 동지가 지난 후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고, 봄기운이 돈다는 말.
- 1213)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214) 火船, 수전에서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적의 배에 불을 옮기는 데 쓰는 배.
- 1215) 靑龍牙旗, 청룡이 그려진 대장기.
- 1216) 船旗上에. 배에 꽂는 깃발에.
- 1217) 先鋒隊將, 맨 앞장을 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

- 1218) 엉크러지거나 흐리지 않고 똑똑하며 분명하게.
- 1219) 靑布帳. 푸른색 천으로 만든 포장. ‘포장’은 피륙을 여러 폭으로 이어 빙 둘러막아 친 장막.
- 1220) 三升斗. 삼승으로 만든 돛. ‘삼승’은 석새 삼베. 곧 올이 굵은 삼베.
- 1221) 추켜 달고, 높이 올려 달고.
- 1222)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1223)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게 흐르는 얇은 곳.
- 1224)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1225)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 1226) 大喜. 크게 기뻐함.
- 1227) 黃公覆. 황개. ‘공복’은 황개의 자.
- 1228)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 1229) 大笑. 소리 내어 크게 웃는 웃음.
- 1230)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 1231) 배라고 한다면.
- 1232) 穩重할데. 무거울 텐데.
- 1233) 搖搖하고. 연달아 자꾸 흔들리고.
- 1234) 泛流하니. 둥둥 떠 물결 따라 흐르니.
- 1235) 奸計. 간사한 계교.
- 1236) 있다면.
- 1237)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테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1238) 防塞.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 1239) 舉火炮. 화포를 설치함. 신기전이 화약을 장치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무기이기 때문에 화포를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음.
- 1240) 神機箭. 조선시대의 로켓 병기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처음에는 한 개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후에 화차를 만든 후에는 신기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았음.
- 1241) 喇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1242) 雷鼓. 타악기의 한 가지. 검은 칠을 한 북 여섯 개를 북틀에 매달아놓고 쳤.
- 1243) 물기가 전혀 없이 마르거나, 타버리는 모양.
- 1244) 火焰. 불꽃.
- 1245)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 1246) 風聲. 바람소리.
- 1247) 戰船 뒤뚱. 전투하는 배가 기우뚱함.
- 1248) 돛을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줄.
- 1249) 돛 위에 가로 댄 나무.
- 1250) 노 젓는 긴 나무.
- 1251)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조그만 배.

- 1252) 足板. 배를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 널빤지.
- 1253) 行裝. 배 안에 깔아놓은 여러 도구.
- 1254) 배의 바닥과 뱃전(배의 양 옆)을 고정하기 위해 가로지른 나무.
- 1255) 砲臺. 포를 쏘기 위해 만들어놓은 축조물.
- 1256) 旗幟. 깃발.
- 1257)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 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 1258) 火箭. 불화살.
- 1259) 弓箭. 활과 화살.
- 1260) 질 나쁜 낚시로 만든 밑이 평평한 솔.
- 1261) 風波江上. 바람에 물결이 이는 강물 위.
- 1262) 火光. 불빛.
- 1263) 戰船. 전투하는 배.
- 1264) 세차게 끓으니.
- 1265) 대낮처럼 밝은 빛.
- 1266) 가련한.
- 1267) 沒殺. 모조리 다 죽음.
- 1268) 비스듬히.
- 1269) 片箭.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
- 1270) 깍지를 낀 손. ‘깍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
- 1271) 힘차게 떼어놓으니.
- 1272) 士帽. 병사의 모자.
- 1273) 석로 만든 도리깨. 무기의 일종.
- 1274) 대상을 위협하며 나아가는 모양인 듯.
- 1275) 神機箭. 조선시대의 로켓 병기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처음에는 한 개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후에 화차를 만든 후에는 신기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았음.
- 1276) 撲殺. 때려 죽임.
- 1277) 一等名將. 제일가는 훌륭한 장수.
- 1278) 엎드리는.
- 1279) 魏陣. 위나라 진영.
- 1280) 一時에. 한꺼번에.
- 1281) 砒霜. 비석(砒石)을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무서운 독이 있음.
- 1282) 자꾸 기어 올라가는 모양.
- 1283) 五代獨身. 오 대를 외아들로 내려온 사람.
- 1284) 船尾. 배 뒤쪽.
- 1285) 鶴髮兩親. 학처럼 머리가 하얗게 늙으신 부모님.
- 1286) 閨中妻子. 집 안에 들어 앉아 있는 아내와 자식.
- 1287) 細說. 쓸데없는 낚두리.

- 1288) 水河. 강물.
- 1289) 뒤틀려서 마구 우그러져.
- 1290) 뻑뻑하게 차서 빈틈이 없음.
- 1291) 無用. 쓸모없음.
- 1292)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1293) 面相. 얼굴.
- 1294)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痴)'라고도 불렸음
- 1295)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 1296) 죽을 뻔하다.
- 1297) 渡江. 강을 건넌.
- 1298) 외치는.
- 1299) 絳袍. 비단옷.
- 1300) 기급(氣急). 갑자기 놀라는 정도가 몹시 심함.
- 1301) 紅袍. 붉은 색 도포.
- 1302) 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1303) 빼앗아.
- 1304) 진짜 조조.
- 1305) 피를 부리며, 양탈(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피를 부림)을 하며.
- 1306)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 1307) 蔣欽.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공혁(公奕). 수군을 통솔하는 데 뛰어나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308) 虞翻. 손권의 모사(謀士). 회계(會稽) 여조 사람. 자는 중상(中翔). 역리에 깊이 통하고 의술을 겸하였으며 박학하였다.
- 1309) 陳武. 오나라 장수. 여강(廬江) 송자(松滋) 사람. 조조의 세 번째 남침을 맞아 싸우다 방덕(龐德)에게 칼을 맞아 전사했음.
- 1310)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이릉 전투에선 남만장수 사마가를 죽였으며 후일 조조(曹操)와의 합비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유비(劉備)와의 싸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1311)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1312) 程普. 오나라 장수. 우북평 토은 사람으로 자(字)는 덕모(德謀).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313)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 1314)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 1315) 승합하여. 둘 이상의 군대를 합쳐서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서.

- 1316) 高聲. 큰 소리.
 1317) 겁이 나는 바람에.
 1318) 退不如前.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감.
 1319) 제 생각만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고집하는 모양.
 1320) 陸戰. 육지에서 하는 전쟁.
 1321) 縮地法. 먼 길을 줄이어서 가깝게 하는 도술.
 1322) 상부터. 위에서부터.
 1323) (땅 따위를 찍어서) 가까이 당기나 보다.
 1324) 蒼黃奔走. 너무 급하여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1325)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1326) 漢將. 한나라 장수.
 1327) 뜻밖에.
 1328) 메추라기. 평과의 겨울 철새로 몸은 병아리와 비슷하나 꼬리가 짧다.
 1329) 무엇에 놀라 갑자기 날아가는 모양.
 1330) 無色. 무안하여 볼 낮이 없음.
 1331) 不可使聞於他人. 다른 사람이 듣게 해서는 안 된다.
 1332) 景概. 경치.
 1333) 險峻. 지세가 높고 험하며 가파름.
 1334) 樹木. 나무.
 1335) 叢雜. 뻘뻘하게 우집.
 1336) 萬壑. 수많은 골짜기.
 1337) 千峰. 수많은 산봉우리.
 1338) 끊어지고. 날지 않고.
 1339) 花草木實. 꽃과 풀과 나무 열매.
 1340) 전혀 없어.
 1341) 올겠는가마는.
 1342) 客死. 객지에서 죽음.
 1343) 冤鬼.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1344) 恨鳥. 한스런 새.
 1345) 曹丞相. 승상 벼슬에 있는 조조.
 1346) 鬼聲. 귀신의 소리.
 1347) 塗炭. (진흙 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 빠졌다는 뜻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1348) 헤이던고.
 1349) 歸蜀道. ‘촉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1350) 不如歸.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 1351) 蜀魂鳥. 두견새의 다른 이름.
 1352) 如山軍糧. 산처럼 많은 군대의 양식.
 1353) 燒盡. 모조리 타서 없어져버림.
 1354) 村廬擄掠. 민가에 대한 노략질.
 1355) 한창이로구나.
 1356) 敗軍. 전쟁에서 진 군대.
 1357) 百計圖生. 온갖 피를 써 살려고 함.
 1358) 궁리로만 한다. 구체적인 행동은 없고 생각으로만 함.
 1359) 草坪大路. 풀이 우거진 넓은 들판의 큰 길.
 1360) 深山叢林. 깊은 산 속 우거진 수풀.
 1361) 冷病. 찬 기운을 얻어서 생기는 병.
 1362)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1363) 半空.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1364) 전라도 무당춤에서, 두 손에 지전을 가지고 팔과 어깨를 활짝 벌린 사위를 이르는 말. 따라서 여기서는 바람막이 자세처럼 두 날개를 짝 벌리고 떠 있는 새를 가리킨 듯.
 1365) 鐵網에. 철망에서. 쇠로 만든 그물에서.
 1366) 火兵. 군대에서 불을 때서 밥 짓는 일을 하는 군사.
 1367) (몹시 성이 나거나 남을 위압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꾸짖음. 또는 그 소리.
 1368) 紅袍. 붉은 색 도포.
 1369) 不遠이라. 멀지 않다. 멀지 않다.
 1370) 赤壁風波. 적벽강의 세차게 일어나는 물결.
 1371) 거위. 본디 기러기의 한 종류를 오랜 세대에 걸쳐 인가에서 기른 결과, 날개가 짧아지고 몸이 비대하게 된 변종인데, 빛은 대개 희고, 부리는 노랑고, 헤엄은 잘 치나 멀리 날지 못한다.
 1372) (성질이) 바르지 못하고 약간 괴상하다.
 1373)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1374) 팽그르르. (작은 것이) 매끄럽고 빨리 한 바퀴 도는 모양.
 1375) 자꾸 해죽거리는 모양을 가리킨 듯. '해죽거리다'는 가볍게 활갯짓을 하며 두 팔을 내젓거나 그렇게 걷다.
 1376) 辭說. 길게 늘어놓는 잔소리나 푸념의 말.
 1377) 鏖戰. 아주 치열한 싸움.
 1378) 敗軍之將. 싸움에 진 장수.
 1379)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픈 추위.
 1380) 汨沒. 어떤 한 일에 파묻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음.
 1381) 丹粧. 얼굴에 분, 연지 등을 발라서 곱게 하고, 머리카락이나 옷차림 등을 매만져 뽀시나게 꾸밈. 여기서는 새의 아름다운 빛깔을 이르는 말.
 1382) 때구루루. (좀 뽀뽀하고 큰)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져서 구르는 소리.

- 1383) 啄木鳥. 딱따구리.
 1384) 大笑. 크게 소리 내어 웃는 웃음.
 1385) 僅僅圖生. 겨우겨우 살아가기를 피함.
 1386) 蒼黃中. 어찌할 겨를이 없이 썩 급한 가운데.
 1387) 웃습니까?
 1388) 병의 아가리 아래쪽의 잘룩한 부분.
 1389) 마치지.
 1390) 鳥林山谷. 오림 산골짜기 ‘오림’은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1391) 兩峯. 양쪽 봉우리.
 1392) 高聲. 큰 소리.
 1393) 火光. 불빛.
 1394)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1395) 荊山.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산. 질 좋은 옥이 남.
 1396) 白玉. 흰 옥.
 1397)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1398) 麟. 기린.
 1399) 長槍. 긴 창.
 1400) 霹靂. 벼락.
 1401) 함부로 크게 질러.
 1402) 常山. 상산 출신의.
 1403) 어느나?
 1404) 모르느냐?
 1405) 올려.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1406) 여기 가서.
 1407) 저기 가서.
 1408) 대상을 위협하며 나아가는 모양인 듯.
 1409) 매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는 36cm, 부리는 3.2cm 가량임.
 1410) 날째게 빼앗거나 움켜어 가지듯.
 1411) 銀粧刀. 의식 때 사용하는 칼의 한 가지로, 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온 몸에 은칠을 하고 끈을 달.
 1412) 橫行.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
 1413) 秋風落葉.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1414) 시내.
 1415) 如山. 산과 같이 쌓여 있음.
 1416)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1417)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1418) 雙接하여. 상대방을 상대하여.

- 1419) 葫蘆谷. 호리병박처럼 갈수록 좁아지는 골짜기.
 1420) 바람, 포성 따위로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소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1421) 器械. 군사들의 무기.
 1422) 行中에. 가는 도중에.
 1423) 救急. 급한 일에 대해 우선 응급 처치를 취함.
 1424) 颯風. 바람을 쏘임.
 1425) 漢水. 중국 섬서성 영강현에서 발원하여 호북성을 관류하는 양자강의 지류.
 1426)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게 흐르는 얇은 곳.
 1427)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1428) 寂寂山谷. 고요한 산골짜기.
 1429) 清溪上. 맑은 시냇물 위.
 1430) 雙雙 白鷗. 짝을 지어 있는 해오라비.
 1431) 흐르듯이 떠 있구나.
 1432) 雨後清江. 비 온 뒤의 맑은 강물.
 1433) 興味. 흥취. 어떤 대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불꽃아 따르는 감정.
 1434) 紅蓼月色. 잎이 지고 빨간 대만 남은 물가의 여뀌풀에 비치는 달빛.
 1435) 곳인가?
 1436) 漁笛數聲. 어부들이 부는 피리 소리 몇 마디.
 1437) 누구의. 누구와의.
 1438) 期約. 때를 정하여 약속함.
 1439)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떠서.
 1440) 勝遊. 즐겁게 놀.
 1441) 무슨.
 1442) 沒死. 모조리 다 죽음.
 1443) 風波如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서리같이 차가움.
 1444) 困한. 위험한 지경에 처한.
 1445) 半生半死. 거의 죽다시피 됨.
 1446) 固兩難. 진실로 모두 어려움.
 1447) 군사에게.
 1448)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1449)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1450) 복명의 ‘복’을 배라는 뜻으로 풀이한 말.
 1451) 號哨. 파수꾼이 외치는 신호.
 1452) 몹시 놀라거나 두려워 크게 뜬 눈이 동그래지며.
 1453) 慄毒한. 사납고 독살스러운.
 1454)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
 1455) 얼굴빛.
 1456)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1457)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수염.
 1458) 蛇矛長槍. 창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1459) 비스듬히 들고.
 1460) 性情. 성질과 심정.
 1461) 猛虎. 사나운 호랑이.
 1462) 바람개비.
 1463) 飛上天. 하늘로 날아 올라감.
 1464) 뒤질까.
 1465) 함부로 지르니.
 1466) 달린다.
 1467) 昏迷하여. 헛갈리고 흐리멍덩하여.
 1468) 휘둘러 내어던지고.
 1469) 엎드러지며. 잘못하여 앞으로 넘어지며.
 1470)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1471) 人馬. 사람과 말.
 1472) 氣盡. 기력이 풀려서 다함. 기운이 다 떨어짐.
 1473) 불에 덴.
 1474) 老弱. 늙고 약한 사람.
 1475) 山高谷深. 산은 험하게 높고 골짜기는 깊음.
 1476) 뒤엎힌.
 1477) 叢林. 우거진 수풀.
 1478) 다리에 힘이 없어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고 좌우로 자꾸 빗나가는 모양.
 1479) 거머쥐어 잡고.
 1480) 蜀道之難. 촉 지방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 촉나라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매우 힘들었다고 함.
 1481) 이보다.
 1482)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1483)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1484)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1485) 後軍. 뒤에 오는 군사.
 1486) 所約之心. 약속한 마음.
 1487) 運籌決勝.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여 승패를 결정함.
 1488) 諸復終始不如意라. 다시금 시작과 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처럼 되지 않는구나.
 1489) 草行露宿. 풀밭을 돌아다니고, 이슬을 맞으며 한데 잠을 잠.
 1490) 어찌된 일인가?
 1491) 一嚔一笑. 한 번 얼굴을 찌푸렸다가 또 한 번 웃었다가 함. 곧 변덕을 부림.
 1492) 別將. 모든 별장. ‘별장’은 본대와는 독립해 구성된 군대인 별군에 속한 장교. ‘전별장’을 ‘전씨 성을 가진 별장’으로 볼 수도 있음.

- 1493) 나선다.
- 1494) 鏖戰. 아주 치열한 싸움.
- 1495) 무슨.
- 1496) 妄想하여. 망령된 생각을 하여.
- 1497) 酒色. 술과 예쁜 여자.
- 1498) 限死. 죽기를 한하고 좋아함. 곧 목숨을 걸듯이 좋아함.
- 1499) 臨戰. 싸움에 임함. 싸움에 나아감.
- 1500) 三傳六師. 세 사람의 태부(太傅)와 여섯 사람의 태사(太師). '태사' '태부'는 주나라 때의 삼정승의 하나임. 따라서 여기서는 천자의 스승이 될 만한 훌륭한 여러 명의 신하를 일컫는 말로, 삼정승 육판서와 비슷한 의미로 썼음.
- 1501) 沒死. 모조리 다 죽음.
- 1502) 謀事. 일 꾸미기. 꾸민 일.
- 1503) 虛事. 헛된 일.
- 1504) 空手. 빈 손. 아무런 소득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 1505) 前伏兵. 앞에 만났던 복병.
- 1506) 後伏兵. 나중에 만났던 복병.
- 1507) 火兵. 불을 때서 취사를 하는 병사.
- 1508)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509) 碌碌하다. 보잘 것 없다.
- 1510) 炊飯火器. 밥을 짓는 도구.
- 1511) 여러 군사.
- 1512) 葫蘆. 호리병 박. 조롱박.
- 1513) 함지박.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여기서는 호리병으로 만든 함지박을 가리킴.
- 1514) 瓢子. 표주박.
- 1515) 凡軍. 모든 군사.
- 1516) 環刀. 옛 군복에 갖추어 차는 긴 칼.
- 1517) 칼, 벼루, 총 따위를 꺼거나 담아 둘 수 있게 만든 것.
- 1518) 赤手空拳. 맨 손과 맨 주먹. 곧,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
- 1519) 예전에, 꼭지가 하나인 상투를 이르던 말. 여기서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
- 1520) 魏國. 위나라.
- 1521) 남자의 성기를 비유하는 말.
- 1522) 死生. 죽고 사는 것.
- 1523) 有命커든. 명이 있거늘. 운명이 있거늘.
- 1524) 斬하리라. 목을 베리라.
- 1525) 山谷. 산골짜기.
- 1526) 落後敗卒. 본대에서 낙오한, 전투에 진 병사.

- 1527) 領去. 거느리고 감.
- 1528) 展布.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 1529) 품질이 낮은 솜씨로 만든 노구술. '노구술'은 솜씨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 1530) 薰氣. 훈훈한 기운.
- 1531) 山祭. 큰 산의 신령께 지내는 제사.
- 1532) 申供. 정성을 드려 소원을 빌.
- 1533) 寂寂山中. 고요한 깊은 산속.
- 1534) 松林間. 소나무 수풀 속.
- 1535) 醉顏. 술에 취한, 곧 술기가 올라서 붉어진 얼굴.
- 1536) 옛날에.
- 1537) 關公. 관우(關羽)를 높여서 일컫는 말.
- 1538) (지난날에) 이정표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네 어귀나 길가에 세운 사람 모양의 형상.
- 1539) 華容 十里 木장승. 화웅까지 십리가 남았다는 글귀가 적힌 나무 장승. '화웅(華容)'은 호북성 감리현의 서북쪽에 있는 곳.
- 1540) 風雲乾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회 정치적 사변으로 어지러운 정세'를 비유한 말.
- 1541) 左右軍兵. 주위에 있는 군사들.
- 1542) 木神. 나무 신.
- 1543) 驚動계. 놀라 움직이게.
- 1544) 겁먹은 마음.
- 1545) 非夢似夢間에. 꿈인지 아닌지 어렵פות한 상태에.
- 1546) 現夢. 죽은 이나 신령이 꿈 속에 나타남.
- 1547) 天地萬物. 이 세상의 모든 사물.
- 1548) 各色草木. 여러 가지 풀과 나무.
- 1549) 有巢氏.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보고, 뱀이나 짐승의 피해를 막으려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가르쳤다는, 중국 고대의 전설의 성인.
- 1550) 神農氏. 신농씨는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551) 構木爲巢. 나무를 엮어 보금자리를 만들.
- 1552)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553) 作舟車. 배와 수레를 만들.
- 1554)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555) 便타. 편리하다.
- 1556) 石上的 梧桐木. 바위 위의 오동나무. 바위 위에 난 오동나무가 현악기 재료로는 최고라고 함.

- 1557) 五絃琴. 순임금이 탔다는 다섯 줄이 있는 비파.
 1558) 腹板. 가야금이나 거문고, 또는 이와 비슷한 악기의 소리가 울리는 부분.
 1559) 大舜. 위대한 순임금.
 1560) 膝上. 무릎 위.
 1561) 비스듬히.
 1562) 南風詩. 남풍가. 순임금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
 1563) 비파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1564) 文王 때 甘棠木. 문왕 시절의 팔배나무. ‘소백(召伯)의 팔배나무’로 해아함. 《시경》 ‘감당’이라는 시에, 주나라 소백의 덕을 기리기 위해, 소백이 그 아래서 쉰 감당목을 자르지도 꺾지도 마라는 내용이 있다.
 1565) 琵琶聲. 비파 소리. 여기서는 ‘감당’이라는 시를 비파에 맞춰 노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임.
 1566) 秦皇帝 五侯木. 태산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난 진시황에게 비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벼슬이 내려진 소나무.
 1567) 柴桑村 五柳木. 진나라의 시인 도연명이 강서성 덕화현 시상촌의 집 앞에 심은 버드나무 다섯 그루.
 1568) 春興. 봄의 흥취.
 1569) 끝이 없네. 한이 없네.
 1570)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1571) 棟樑木. 기둥과 들보로 쓰일 나무.
 1572) 龍成畫彩. 용을 그린 그림의 빛깔.
 1573) 半空.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1574) 死後榮貴. 사람이 죽은 뒤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줌.
 1575) 棺板木. 관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넓고 긴 널빤지.
 1576) 白骨身體. 죽어서 썩어 흰 뼈만 남은 몸.
 1577)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1578) 身發室堂. 죽은 몸이 집을 떠남. ‘실’은 아녀자가 거처하는 곳, ‘당’은 남자가 거처하는 곳.
 1579) 諸栗木. 여러 밤나무.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 밤나무는 밤을 심어 썩이 나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씨밤이 썩지 않으므로, 지손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번창하라는 뜻에서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었다고 함.
 1580) 神柱. 죽은 조상의 벼슬과 이름을 써서 사당에 모시는 나무 패.
 1581) 四時節. 사철.
 1582) 滿盤. 상에 가득참.
 1583) 設位. 자리를 베풀어 만들.
 1584) 焚香. 향을 피움.
 1585) 獻酌. 술잔을 올림.
 1586) 讀祝. 축문을 읽음.
 1587) 上中下品 벗어나서. 아주 좋은 것에서 아주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느 것에도

- 끼지 못하고.
- 1588) 下山作櫟. 산에서 배어져 내려와 작은 집의 들보가 됨.
- 1589) 해이던고?
- 1590) 棟梁. 대들보.
- 1591) 大廣板. 크고 넓은 나무 판.
- 1592) 斫伐. 찍어서 베어냄.
- 1593) 防川말. 독의 흠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는 말뚝.
- 1594) 馬板. 마굿간에 까는 판자.
- 1595)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나무로 만든 그릇의 일종.
- 1596) 작두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작두'는 짚, 콩깍지 따위의 마소의 먹이를 발로 디디어가며 썰는 연장.
- 1597) 所用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 1598) 도막.
- 1599) 몽툭하고 모양이 없이 생긴 코.
- 1600) 방울처럼 동그란 눈.
- 1601) 朱土漆. 나무로 된 기둥이나 마루 따위에 붉은 흙을 묻게 개어 바르는 칠.
- 1602) 八字 없는. 팔자에 없는. 평생의 운수에 없는.
- 1603) 紗帽品帶. 사모와 품대. '사모'는 벼슬아치가 관복을 갖추는 때 쓰는 모자. '품대'는 벼슬아치가 품계에 따라 허리에 두르던 띠.
- 1604) 大道上. 큰 길 위.
- 1605) 不避風雨. 비바람을 피하지 못 함.
- 1606) 우두커니.
- 1607) 進退維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없음.
- 1608) 그렇게.
- 1609) 欺君篡逆. 임금을 속이고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역적질.
- 1610) 拘勞行刑. 애써 잡아서 형벌을 내림.
- 1611) 木神. 나무의 신.
- 1612) 物久則神. 물건이 오래 묵으면 낡아서 귀신이 됨.
- 1613) 深量. 깊이 헤아려서.
- 1614) 千萬千萬. 아주 여러 번. 아주 많이.
- 1615) 바라나이다. 바랍니다.
- 1616) 失體. 체신을 잃음.
- 1617) 放送. 내보냄.
- 1618) 손아랫사람을 '사람'보다는 낮추고 '자'보다는 좀 대접하여 이르는 말.
- 1619)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나 정신. 또는 좇대 있게 행동하는 태도.
- 1620) 吳漢 兩陣 將帥. 오나라와 한나라 양 진영의 장수.
- 1621)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 1622) 잘 울리지 않는 물체를 잇달아 가볍게 두드릴 때 나는 소리. 여기서는 '형편없는'이란

의미로 쓴 듯함.

- 1623) '마음 씹숨이나 하는 행동이 보잘 것 없이 작은 사람'을 욕으로 일컫는 말.
1624)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일가붙이.
1625) 中山靖王. 한나라 경제(景帝)의 여섯째 아들인 승(勝).
1626) 後裔. 핏줄을 이은 후손.
1627) 거만스러운 태도.
1628) 菜麻田. 채소나 삼을 가꾸는 밭.
1629) 왕골이나 꼴풀의 줄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자리. 줄기를 잘게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밭이 가늘다.
1630) 窮班. 가난한 양반.
1631) 河東. 황하의 동쪽 지방. 오늘날 산서성(山西省) 안읍(安邑).
1632) 店人. 토기나 철기 따위를 만드는 사람.
1633) 張飛. 자는 익덕(翼德).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1634) 懷毒. 성질이 사납고 독살스러움.
1635) 涿郡. 지금의 중국 하북성에 있는 지명.
1636) 猪肉장사. 돼지고기 장사.
1637)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1638) 結義兄弟. 의리로 형제를 맺음.
1639) 怪異하여. 이상아룻하여.
1640) '버릇'의 낮은 말.
1641)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1642) 高下間에. 높든지 낮은지 간에.
1643) 實尊長. 실제로 나이가 많은 어른.
1644) 무슨 일이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1645) 世慾.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려는 욕망.
1646) 삼신(三神). '삼신'은 민속에서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본다고 하는 세 신령.
1647) 날짐승을 이르는 비어.
1648) 常山. 하북성 정정현의 서북쪽에 있는 지명.
1649) 根本.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1650) 갑자기 생겨난.
1651)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1652) 農土生. 농사꾼을 얹잡아 일컫는 말.
1653) 趙倫素朴. '초륜'은 범상함을 넘어서서 뛰어나다는 뜻이고, '소박'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자연스럽다는 뜻. 여기서는 '예절이나 배움이 없는 사람' 정도의 의미

로 쓴 듯함.

- 1654)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선생에 뒤이어 비꼬는 투로 이어 붙인 말.
1655) 杜門不出. 집안에만 틀어박혀 세상 밖으로 나다니지 아니함.
1656) 두려워하지. 겁먹지.
1657) 보릿자루. ‘하잘것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 듯.
1658) 少時 때. 젊었을 때.
1659) 關公. 관우.
1660) 面相. 얼굴.
1661) ‘상꼭지라고도 함. 씨름을 할 때에 상대방의 머리를 쥘어 돌려 어지럽게 하여 넘어뜨리는 동작.
1662) 말라서 딱딱한 땅.
1663) 杖毒. 매를 몹시 얻어맞아 생긴 독.
1664) 王侯將相이 씨가 있으리까? 왕, 제후, 장수, 재상이 따로 씨가 없다. 곧,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
1665)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
1666) 點考.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1667) 하십시다.
1668) 散卒. 흩어진 군사.
1669) 鳴金二下 大吹打하라. 임금이 행차하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에 군악인 대취타곡을 연주하라고 선전관이 외치던 소리. ‘명금’은 쟁과리와 징을 치는 군악(軍樂)이며, ‘대취타’는 ‘무녕지곡(武寧之曲)’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신할 때에 쓰던 음악.
1670) 흩어진.
1671) 漢國. 한나라.
1672)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조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1673) 彭越. 한신과 함께 항우를 물리쳐 양의 제후가 되었는데, 뒤에 모반의 의심을 받고 한나라 고조에게 죽임을 당했다.
1674) 죽었던 말인가?
1675) 輔國忠臣. 충성을 다하여 나라 일을 돕는 충직한 신하.
1676) 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노구술. ‘노구술’은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1677) 盲席. 무늬 없는 돗자리.
1678) 절뚝절뚝.
1679) 정도가 어지간하다.

- 1680) 將臺上. 장대 위. '장대'는 장수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나아가 서는 곳.
- 1681) 左手. 왼손.
- 1682) 笏記. 의식의 순서나 임금의 명령을 적은 것.
- 1683) 右手. 오른손.
- 1684) 不參者. 참여하지 않은 사람.
- 1685) 斬. 목을 베어 죽임.
- 1686) 前陣. 군대의 앞부분을 맡은 진영.
- 1687) 物故. '죽었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말.
- 1688) 前部右使. 앞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우사. '우사'는 삼사(三司)에 속한 정이품 벼슬.
- 1689) 千總所. '천총'은 조선 왕조 때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금위영, 진무영 등에 딸린 정삼품 무관 벼슬로, '천총소'는 천총이 소속된 곳일 듯.
- 1690) 옛날 군인이 전쟁할 때에 갑옷과 함께 방위용으로 쓰던 쇠로 만든 모자.
- 1691) 淡淡. (물이나 달빛 등이) 옅고 맑음.
- 1692) 家率. 호주나 세대주에 딸린 식구.
- 1693) 測量없소. 헤아릴 수 없소.
- 1694) 가고 싶어라.
- 1695) 傲然不拜. 거만하게 절을 하지 않음.
- 1696) 들어주십시오.
- 1697) 火戰. 불로 싸우는 싸움.
- 1698) 다리까지.
- 1699) 전혀.
- 1700) 軍禮. 군대의 예절. 군대의 인사.
- 1701) 魂飛魂喚.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제사하는 데로 혼이 날아감.
- 1702) 愛重한. 사랑하여 중하게 여기는.
- 1703) 권속(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1704) 妄發.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이나 행동을 함. 또는 그 말이나 행동.
- 1705) 左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왼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706) 骨內腫이. '뼈 속에 종기가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익살스럽게 일컬은 말.
- 1707)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불쑥 내민 사람.
- 1708) 등뼈가 굽어 큰 혹같이 불거진 등.
- 1709) 눈언저리의 속눈썹이 난 곳.
- 1710) 입까지.
- 1711) 병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불거나 팔뚝이 없는 팔.
- 1712) 가지런히 모아 붙인 두 발.
- 1713) 죽지 않을 정도로 맞는 벼락이라는 뜻으로, 호되게 당하는 재난을 이르는 말.
- 1714) 後患거리.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거리.
- 1715) '눈'의 비어.
- 1716) 人醬食. 사람을 잡아 장국을 끓여 먹음.

- 1717) 右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오른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718) 窒塞. (숨이 꼭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 1719) 張飛. 자는 익덕(翼德).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1720) ‘당신’의 방언.
- 1721) 상한 데 없이 본래대로 온전하나?
- 1722) 회를 쳐서, 회를 만들어. ‘회’는 물고기·고기·야채 따위를 날로 얇게 썬 음식.
- 1723) 別로, 특별히.
- 1724) ‘전쟁’을 우습게 표현한 말.
- 1725) 鍾, 팽과리.
- 1726) 犒軍.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함. 여기서는 호군하는 음식을 가리킴.
- 1727) 實軍士. 실질적인 군사.
- 1728) 바늘 스물네 개를 단위로 세는 말.
- 1729) 어디다.
- 1730) 染病.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1731) 매일. 늘.
- 1732) 戰爭통. 전쟁이 벌어진 환경.
- 1733) 右手. 오른 손.
- 1734) 左手. 왼 손.
- 1735) 情表. 정을 표시한 물건.
- 1736) 四時. 사계절.
- 1737) 治産家.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 1738) 도구와 연장.
- 1739) ‘깊어지게 하라’의 방언.
- 1740) 後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뒤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741) 나아가는 시늉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느리게 비비대며 움직이는 모양.
- 1742) 下身. 아랫도리.
- 1743) 들어주십시오.
- 1744) 八十當年. 그 해의 나이가 팔십 세임.
- 1745) 누구에게.
- 1746) 依託. 남에게 의존함.
- 1747)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 1748) 馬兵長. ‘마병’은 말탄 군사이므로, 마병장은 말탄 군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 듯.
- 1749) 말채찍.
- 1750) 무엇을 하려고 하시오?
- 1751) 몽고에서 들어온 말 종류.

- 1752) 가득.
- 1753) 鳥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754) 趨勢. 세력이 있는 사람을 높이 보고 따름.
- 1755) 말끔히. 모두 다.
- 1756) 飛虎같이. 매우 빠르게.
- 1757) 本是. 본디. 처음부터.
- 1758) 亂中에. 난리 중에. 곧 전쟁을 하는 중에.
- 1759) 거적이나 천 조각의 양쪽에 채를 대서 만들어 두 사람이 맞들게 된 운반기구의 한 가지.
- 1760) '바지계'의 방언. 짜리나 대오리로 만들어 지계에 얹어 짐을 실을 수 있게 된 발채를 얹은 지계.
- 1761) 山谷. 산골짜기.
- 1762) 팔을 가볍게 저어 바람을 내면서 걷는 모양.
- 1763) 萬事太平.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함.
- 1764) '눈'을 상스럽게 일컫는 말.
- 1765) 愚惡. 무지하고 포악함.
- 1766) '깊어지게 하라'의 방언.
- 1767) 後軍長. 뒤를 맡은 군사의 우두머리.
- 1768)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찬찬히 걷는 모양.
- 1769) 兩谷. 양 골짜기.
- 1770) 一員. 한 사람.
- 1771) 醉顏. 술에 취한, 곧 술기가 올라서 붉어진 얼굴.
- 1772) 我生然後殺他라. 내가 산 뒤에 남을 죽일 일이라.
- 1773) 行軍. 군대가 열을 지어 먼 길을 행진함.
- 1774) 半生半死. 거의 죽게 되어 죽을지 살지 모를 지경에 이름.
- 1775) (말이나 소리의)한 마디.
- 1776) 一身. 한 몸.
- 1777) 紛紛天下.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세상.
- 1778)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장수들.
- 1779) 一統天下. 천하를 통일함.
- 1780)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지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781) 苦肉計. 황개가 주유를 찾아가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문서를 보내 어 적을 혼란을 빠트린 계책.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을 이름.
- 1782)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와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리

- 라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림. 양양 사람으로 자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 세로 죽었음.
- 1783) 連環計.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1784) 中官. 내시.
- 1785) 누구에게.
- 1786)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1787) 찰기가 없는 조. 알이 굵고 빛이 노르며 끈기가 적다. 여기서는 조조에 이어서, 조조를 조롱하며 우습게 일컫는 말.
- 1788) 떨어지자마자.
- 1789) 播鼓소리. 쉴 사이 없이 마구 치는 북소리.
- 1790) 魂怯하여. 혼이 빠지도록 겁이 나서.
- 1791) 四時供養. 하루의 네 때 절에서 부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일.
- 1792) 萬壑千峰. 수많은 깊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1793) 劍戟. 칼과 창.
- 1794) 大風. 큰 바람. 세찬 바람.
- 1795) 防塞.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 1796) 案山. 앞산.
- 1797) 後面. 뒤쪽.
- 1798) 조조를 사냥하러 오는 것을 이름.
- 1799) 千兵萬馬. 수많은 군사와 병마.
- 1800) 旗色. 기의 색깔.
- 1801) 大元帥. 전 군(軍)을 통솔하는 대장.
- 1802) 關公. 관우.
- 1803) 三軍. 좌익, 우익, 중군을 합친 전체 군대.
- 1804) 大兵. 대군. 병사의 수가 많은 군대.
- 1805) 誹笑. 비웃음.
- 1806) 淸道旗. 관원(官員)의 행차 때 많은 기(旗) 중에 제일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 화염은 붉은 빛이며 '청도(淸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 1807) 淸道. 청도기(淸道旗).
- 1808)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 1809) 朱雀. 주작기(朱雀旗).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 전영, 전위를 지휘함.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남색임.
- 1810) 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811) 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812) 紅招. 홍고초(紅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813) 藍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814) 靑龍.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앞쪽을 지휘하는데 쓰이던 깃발.
- 1815) 東南角. 의장기의 하나.
- 1816) 西南角. 의장기의 하나.
- 1817) 藍招.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818) 黃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819)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쪽 문에 세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흰 바탕에 백호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 1820) 東北角. 의장기의 하나.
- 1821) 西北角. 의장기의 하나.
- 1822) 黑招. 흑오초(黑綃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823) 玄武. 현무기(玄武旗). 후문(後門)에 세워 뒤쪽 진영을 지휘하는데 쓰이던 깃발. 검은 바탕에 거북을 그림.
- 1824) 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825) 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826) 紅神, 白神, 黃神, 靑神, 黑神. 중오방기(中五方旗). 조선조 때 쓰던 군기(軍旗)의 한 가지로 홍신기(紅神旗)·남신기(藍神旗)·황신기(黃神旗)·백신기(白神旗)·흑신기(黑神旗)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동·서·남·북·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다.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다.
- 1827) 豹尾.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깃발.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못 하게 하는 데 쓰였음.
- 1828) 金鼓. 군중(軍中)에서 치는 쇠붙이와 북.
- 1829) 號招.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830) 笳. 대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
- 1831) 笛. 대로 만든 관악기.
- 1832) 唢囉. 자바라.笳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 1833) 날라리, 호적(胡笛) 등으로도 불리는 관악기의 일종.
- 1834) 鼓. 북.
- 1835) 令旗. 조선조 때 군중에서 군대의 명령을 전할 때 쓰던 기. 사망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으로 ‘令’ 자를 썼음.
- 1836) 軍半直列. 한 줄로 죽 늘어선 군뢰. ‘군뢰’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는 병졸.
- 1837) 座馬. 대장이 말을 탈 때 여별로 데리고 다니던 말.
- 1838) 纛.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던 깃발.
- 1839) 攔後. 부대의 맨 뒤를 호위하던 군대.
- 1840) 親兵. 임금이나 대장이 친히 거느리던 군사.
- 1841) 教師. 군대의 훈련을 맡던 벼슬.
- 1842) 塘報. 적의 행편을 살펴 알리는 임무를 맡은 척후병.
- 1843) 旗幟. 군대에서 쓰던 온갖 기.
- 1844) 日光. 햇빛.
- 1845) 擗鼓. 쉴 사이 없이 마구 치는 북소리.

- 1846) 朱顔. 혈색이 붉은 얼굴.
 1847) 鳳目. 봉의 눈.
 1848)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1849)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1850) 靑龍刀. 청룡언월도.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1851) 昏迷. 헛갈리고 흐리멍텅함.
 1852) 劍光. 칼에서 나는 광채.
 1853) 위엄이나 기세가 매우 당당하고 엄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1854) 風身. 풍채와 용모.
 1855) 仁厚. 마음이 어질고 깊음.
 1856) 關公일시. 관공인 것이.
 1857) 的實. 틀림이 없음. 꼭 그러함.
 1858) 欲退無處. 도망갈 곳이 없으며.
 1859) 欲脫無計. 벗어날 방법이 없음.
 1860) 對敵. 서로 맞서 겨룸.
 1861) 赤手單劍. 맨 손에 칼 한 자루뿐임.
 1862) 五關斬將. 관우가 조조로부터 탈출하면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명의 장수를 죽인 것을 가리킴.
 1863)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짜.
 1864) 더욱이. 더구나.
 1865) 人馬. 사람과 말.
 1866) 氣盡. 기운이 다 떨어짐.
 1867) 當敵. 적에 맞섬.
 1868)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1869) 進退難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없음.
 1870) 極盡.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쓰는) 정성으로.
 1871) 어쩔 수 없이.
 1872) 情狀. 딱한 형편.
 1873) 대머리.
 1874) 고추처럼 생긴 볼품없는 상투.
 1875) 伏拜. 엎드려 절함.
 1876) 寂然터니. 뉘는 지 오래되어 소식이 궁금하더니.
 1877) 氣體. 옷어른에게 편지로 문안을 올릴 때 그를 높여 '정신과 건강 상태'를 이르는 말.
 1878) 無恙하시니까? 이래로 별 탈이 없었습니까.
 1879) 들어 주십시오.
 1880) 濁名寒士. 속세의 가난한 선비.
 1881) 天子. 천제(天帝)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
- 1882) 萬軍. 많은 군대.
- 1883) 紛紛天下.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운 세상.
- 1884)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장수들.
- 1885) 忠功. 충성스러운 공로.
- 1886) 全然. 전혀.
- 1887) 晝夜長戰. 밤낮으로 하는 긴 전쟁.
- 1888) 吳賊. 오나라 도적, 곧 손권을 가리킴.
- 1889) 楚水. 옛 초나라 땅(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의 강물.
- 1890) 吳山. 옛 오나라 땅(지금의 강소성 일대)의 산들.
- 1891) 險山. 험악한 산.
- 1892) 好意. 친절함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
- 1893) 賊臣. 반역하거나 불충한 신하.
- 1894) 義將. 의로운 장수.
- 1895) 놓아 주겠느냐.
- 1896) 洞燭.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 1897) 絶凶. 아주 흉악함.
- 1898) 匈奴.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서역의 통상로를 지배하여 한나라와 대항하였으나, 후한 시절에 토벌되어 서쪽으로 이동하였음.
- 1899) 白登七日之圍. 백등에서 칠일 동안 포위를 당함. 한고조가 흉노와 싸우다가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의 왕 모둔에게 이레 동안 포위당해 있었음. 한고조의 신하인 진평이 모둔의 아내 알씨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음.
- 1900)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양,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1901) 智伯之臣 豫讓. 지백의 신하 예양. 예양은 전국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백이 그를 아꼈는데, 지백이 조(趙)나라를 치다가 죽자, 그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음.
- 1902) 趙襄子. 조나라의 양자. ‘양자’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경(卿).
- 1903) 變形으로. 모습을 바꾸고. 예양이 문둥이처럼 모습을 바꾸고, 병어리인 채하며 조나라 임금인 양자의 궁중에 숨어든 것을 말한다.
- 1904) 挾匕首하고. 비수를 끼고. ‘비수’는 작고 날카로운 칼.
- 1905) 宮中塗廁. 궁중의 변소에 칠을 칠함. 예양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칠을 칠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죽일 기회를 엿본 일을 가리킴. 예양은 조양자를 죽이지 못하고 잡혔으나, 의인이라고 하여 살려주었다. 예양은 다시 문둥이로 변장하여 다리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으나 또 잡히게 되자, 양자의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칼을 뽑아 세 번 찌른 후에, ‘지백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며 자살했다고 함.
- 1906) 義人. 의로운 사람.

- 1907) 吾謹避之. 내가 조심하여 피함.
- 1908) 善心. 착한 마음.
- 1909) 小將. 장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1910) 大怒. 크게 화를 냄.
- 1911) 天中大人. 임금 가운데서도 도량이 크신 분.
- 1912) 一便. 한 편으로.
- 1913) 累世漢祿之臣. 여러 세대에 걸쳐 한나라에 벼슬하여 봉급을 타먹은 신하.
- 1914) 凌上怯下. 웃사람을 깔보고, 아랫사람에게 겁을 주어 복종시킴.
- 1915) 不倫함.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남.
- 1916) 一統天下.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됨.
- 1917) 三分함. 셋으로 나누어짐.
- 1918) 鼎立하고. 세 발 달린 솥처럼 나라가 셋으로 나뉘어 서고.
- 1919) 麒麟閣忠義人. 기린각에 새겨놓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가 항복해 왔는데, 선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 신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해 기린각에 충신 열 사람의 초상과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이를 가리킴.
- 1920) 有情하신. 인정 있는.
- 1921) 前事. 이전의 일.
- 1922) 잊었습니까?
- 1923) 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로 쇠퇴하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曹操)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1924) 敗를 만나. 패배를 당하여.
- 1925) 桃園兄弟.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밭에서 의를 맺은 형제. 곧 유비, 관우, 장비.
- 1926) 居住. 머물러 사는 곳. ‘거주를 모른다’는 말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여기 저기 떠돈다는 말.
- 1927) 糜夫人. 유비의 부인. 유비에게는 미부인과 감부인(甘夫人)이 있었는데, 미부인에게만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은 아명(兒名)은 아두(阿斗), 이름은 선(禪)이며,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미부인은 장관교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조운에게 아두의 보호를 당부한 뒤 자신은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 1928) 甘夫人. 유비의 두 부인 중 한 사람. 미부인이 죽은 뒤 혼자 유비를 받들다가, 유비가 형주(荊州)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 1929)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1930) 朝夕出飯.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함.
- 1931) 三日小宴. 삼일마다 작은 잔치를 벌임.
- 1932) 五日大宴. 오일마다 큰 잔치를 벌임.

- 1933) 色 갈아 待禮하고, 기생을 번갈아 들여보내 예를 차리고.
- 1934) 呂包. 여포는 후한 시대의 장수. 본래 형주자사 정원(丁原)의 의자(義子)로 그를 호위 하였으나, 동탁이 적토마를 주어 매수하는 바람에 아비라고 부르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 붙었다. 왕윤이 초선이로 하여금 미인계를 쓰니, 또 넘어가 동탁을 죽이고, 이각, 광사의 무리와 싸웠다. 후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혀 죽었다.
- 1935) 貂蟬. 중국 삼국시대 때의 절세의 미인으로, 동탁의 횡포와 나라의 어지러움을 한탄하다 왕윤의 눈에 띄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여포의 첩이 되어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그들을 농락하여 결국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였다. 관우가 조조에게 의탁하고 있을 때,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빼앗아 관우에게 주었으나, 관우는 요물이라 하여 죽였다.
- 1936) 別房. 첩.
- 1937) 上馬할 때 金 一千兩. 말을 탈 때에 천 냥의 금을 줌.
- 1938) 下馬할 때 銀 一千兩. 말에서 내릴 때에 천 냥의 은을 줌.
- 1939) 말로 세어서. '말'은 곡식이나 액체 따위의 분량을 재는 데 쓰는 기구로, 용량은 9리터, 혹은 10리터임.
- 1940) 殘命. 남은 목숨.
- 1941) 河北大將. 하북지방에서 일어난 원소(元邵)의 부하 대장이란 뜻.
- 1942) 顏良. 원소의 부하 장수.
- 1943) 文醜. 원소의 부하 장수.
- 1944) 其勇이 相犯키로. 그 용맹으로 장졸들을 번갈아 무찌르므로.
- 1945) 數多. 수다한. 수많은.
- 1946) 自請. 스스로 청함. 자원함.
- 1947) 厚恩. 두터운 은혜.
- 1948) 短劍匹馬. 작은 칼과 한 마리의 말.
- 1949)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 1950) 一合에. 단 한 차례의 창칼이 부딪침에. '합'은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횟수를 세는 단위.
- 1951) 그때에.
- 1952) 敵將. 적장이. 적의 장수가.
- 1953) 魂怯 中으로. 혼이 빠지도록 겁이 나서.
- 1954) 白馬圍陣. 후한 끝 무렵 원소와 조조가 싸울 때 백마에서 원소가 조조의 군사를 포위한 진.
- 1955) 지명인 듯.
- 1956) 一戰. 한 번 싸움.
- 1957) 案冊. 책상 위에 놓인 장부.
- 1958) 愬急. 매우 급함.
- 1959) 움츠리니.
- 1960) 빙긋. 입을 조금 벌리면서 소리 없이 한 번 웃는 모양.
- 1961) 작은 바가지.

- 1962) 피하라? 당하라?
- 1963) 草行露宿. 한데서 잠자고 형편없이 돌아다님.
- 1964)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람.
- 1965) 躁急. (성질이)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함.
- 1966) 나와.
- 1967) 有情타. 유정하다. 인정 있다고.
- 1968) 靑龍刀. 청룡언월도.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1969) 無情之物. 정이 없는 물건.
- 1970) 故誼.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귀어 온 정.
- 1971) 英風. 영특한 기운.
- 1972) 大義. 큰 의로움.
- 1973) 天下得失은 在天이요. 천하를 얻고 잃음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요.
- 1974) 在將軍이오니. 장군에게 있사오니.
- 1975) 別般洞燭. 특별히 헤아려 살핌.
- 1976) 軍令다짐. 군령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벌을 받겠다는 다짐.
- 1977) 놓아 주고.
- 1978) 切迫. 다급하여 여유가 없음.
- 1979) 伏地하여. 땅에 엎드려.
- 1980) 민기를.
- 1981) 草莽. 지푸라기라는 뜻으로, 쓸모없고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982) 依律施行. 법에 따라 다스림.
- 1983) 分公斯 子濯孺子. 춘추시대 때에 정(鄭)나라의 자탁유자가 위(衛)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위나라의 유공사에게 쫓기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활을 잘 쏘았는데, 자탁유자가 윤공타에게 활쏘기를 가르쳤고, 윤공타는 유공사를 가르쳤다. 유공사는 자탁유자를 선생으로 대접하여, 학질에 걸려 활을 못 쏘는 자탁유자를 살려 주면서도, 적을 막아내라는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으므로, 활촉을 뺀 화살 네 대를 마차에 쏘고 돌아갔다.
- 1984) 數多. 수다한. 수많은.
- 1985) 엎드려.
- 1986) 如山如海.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음.
- 1987) 千秋萬歲. 천만 년. 아주 오랜 세월을 잊지 않음.
- 1988) 仰天痛哭. 하늘을 우러르며 슬프게 울.
- 1989) 快히. 하는 것이 시원스럽게.
- 1990) 中軍. 중앙에 배치하는 군대.
- 1991) 回馬하여. 말을 돌려.
- 1992)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함.
- 1993) 庸劣한.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 1994) 關某. 관 아무개. 곧 관우 자신을 가리킴.

- 1995) 놓아 주었사오니. 살려 주었으니.
- 1996) 故로. 까닭에.
- 1997) 世人. 세상 사람들.
- 1998) 七縱七擒. 일곱 번 놓아주었다가 일곱 번 잡음. 제갈량이 남쪽의 오랑캐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어 끝내 복종시킨 일을 가리킴.
- 1999) 燕人.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 사람.
- 2000) 義釋嚴顏. 의로써 엄안을 놓아줌. 엄안은 촉나라 유장(劉璋)의 장수인데, 장비가 엄안을 사로잡은 뒤에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웠다고 비웃자, 엄안이 ‘이 고을에는 머리를 잘리는 장수는 있어도 항복하는 장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장비가 그의 충의를 높이 사서 그를 놓아 주었다.
- 2001)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2002) 말인가?
- 2003) 千古. 아주 오랜 세월.
- 2004) 漢壽亭侯. 한나라 수정후. 관우를 가리키는 말. ‘수정후’는 조조가 관우에게 내린 봉호.
- 2005) 더질더질. 판소리의 끝에 사용하는 말로, 북소리를 흉내낸 말인 듯.

송순섭 창

Sung by Song Sun-seop

1. (도원결의)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자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뜻을 모은다.

[아니리] 천하대세¹⁾가 합구필분²⁾이요, 분구필합³⁾이라.

주나라⁴⁾ 말년⁵⁾에 진시황⁶⁾이 통일하였고,

한고조⁷⁾께서는 인의⁸⁾로 통일하여 사백년을 내려오더니,

난신적자⁹⁾들이 사방에서 별떼같이 일어나 천하¹⁰⁾가 소란할 제,

한나라 말엽 위·한·오¹¹⁾ 삼국시절¹²⁾에 황위¹³⁾ 유약¹⁴⁾하고 군도¹⁵⁾ 병기한데,¹⁶⁾

간흉¹⁷⁾하다 조맹덕¹⁸⁾은 천자¹⁹⁾를 가칭²⁰⁾하여 천하를 엿보았고,

범람타²¹⁾ 손중모²²⁾는 강하²³⁾의 험고²⁴⁾ 믿고 제업²⁵⁾을 명심²⁶⁾하며,

창의할사²⁷⁾ 유현덕²⁸⁾은 종사²⁹⁾를 돌아보아 혈성³⁰⁾으로 구치³¹⁾하니,

충간³²⁾이 공립³³⁾하고 정족³⁴⁾이 삼분할 제,³⁵⁾

모사³⁶⁾는 운집³⁷⁾이요, 명장³⁸⁾은 봉기³⁹⁾로다.

북위⁴⁰⁾ 모사 정욱⁴¹⁾·순유⁴²⁾·순문약⁴³⁾이며,

동오⁴⁴⁾ 모사 노숙⁴⁵⁾·장소⁴⁶⁾·제갈근⁴⁷⁾과 경천위지⁴⁸⁾ 무궁조화⁴⁹⁾

잘긴들⁵⁰⁾ 아니하랴?

1. (Resolution in a Peach Orchard)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make a resolution in a peach orchard to bring peace to the chaotic world.

[Aniri] A long time of division tends to lead to unity, and a long time of unity tends to lead to division.

Qin Shi Huang(秦始皇) unified ancient China at the end of the Zhou(周) Dynasty.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unified ancient China through his virtues, and his dynasty lasted for 400 years.

Traitorous subjects arose everywhere like a swarm of bees, making the world chaotic.

The emperor of the Han(漢) Dynasty was young and weak, and rebellious forces ran around at the end of the Han(漢) Dynasty, i.e., during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Wei(魏) Country, Han(漢) Country, and Wu(吳) Country.

Wicked, Cao Cao(曹操) claims to be the emperor and tries to conquer the world.

Getting above himself, Sun Quan(孫權) relies on the treacherous territory of Jiangxia(江夏) and is determined to become an emperor.

Raising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Liu Bei(劉備) visits many places conscientiously.

Loyal and wicked subjects coexist, and China is divided into three countries.

Strategists gather in a crowd, and great warriors rise up.

Cheng Yu(程昱), Sun You(荀攸), and Sun Yu(荀彧) are the strategists of Wei(魏) Country.

Lu Su(魯肅), Zhang Zhao(張昭), and Zhu Ge Jin(諸葛瑾) are the strategists of Wu(吳) Country. Wouldn't the smart strategists rule the world?

그 때에 한나라 유현덕은 관공⁵¹⁾ · 장비⁵²⁾와 더불어 도원⁵³⁾에서 의형제⁵⁴⁾ 결의⁵⁵⁾를 하는데,

[중모레] 도원이 어디인고? 한나라 탁현⁵⁶⁾이라.

누상춘⁵⁷⁾ 봄이 들어 붉은 안개 피어나고,

반도화⁵⁸⁾ 흐르는 물 아침노을에 물들었다.

제단⁵⁹⁾을 살펴보니, 금줄⁶⁰⁾을 둘러치고 오우백마⁶¹⁾로 제⁶²⁾ 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의맹⁶³⁾을 정하는데,

유현덕으로 장형⁶⁴⁾ 삼고, 관운장⁶⁵⁾은 중형⁶⁶⁾이요, 장익덕⁶⁷⁾ 아우 되어,

몸은 비록 삼인이나 마음과 정신은 한가지라.

유 · 관 · 장 의형제는 같은 연월⁶⁸⁾ 한 날 한 시에 죽기로써 맹약⁶⁹⁾ 하고,

피 끓는 구국충심⁷⁰⁾ 도원결의⁷¹⁾ 이루었구나.

한말⁷²⁾이 불운⁷³⁾하여 풍진⁷⁴⁾이 뒤끓는다.

황건적⁷⁵⁾을 평란⁷⁶⁾하니 동탁⁷⁷⁾이 일어나고,

동탁 난을 평정⁷⁸⁾하니 이곽⁷⁹⁾이 난을 짓고,

이곽을 평정한 후 난세간웅⁸⁰⁾ 조아만⁸¹⁾은 협천자이횡포⁸²⁾하고,

벽안자염⁸³⁾ 손중모⁸⁴⁾는 강동⁸⁵⁾에 웅거⁸⁶⁾하여 부국강병⁸⁷⁾을 자랑한다.

Meanwhile, Liu Bei(劉備) makes a resolution with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in a peach orchard.

[Jungmori] Where is the peach orchard located? It is in Zhuo(涿) County of Han(漢) Country.

Spring comes to Lousang(樓桑) Village. Red fog rises.

A large divine peach blossom flows on the stream which was made red by the morning glow.

An altar is surrounded by a string to indicate off limits. A black cow and a white horse are offered as a sacrifice.

The three people grasp hands and make a righteous pledge.

Liu Bei(劉備) is taken as the eldest brother, Guan Yu(關羽) as the middle one, and Zhang Fei(張飛) as the youngest one.

Although they are of three bodies, they are of one mind.

The three sworn brothers -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 pledge to die at the same time.

The loyalty toward the country resulted in the resolution in the peach orchard.

The Han(漢) Dynasty is unlucky to reach the chaotic end.

After Yellow-Hooded Robbers are put down, Dong Zou(董卓) rises in revolt.

After Dong Zou's (董卓) revolt is quelled, Li Jue(李傕) and Guo Si(郭汜) rise in revolt.

After their uprising is suppressed, Cao Cao(曹操), a wicked subject, does all sorts of cruel things, taking advantage of the King of the Han(漢) Dynasty.

Sun Quan(孫權) has blue eyes and a red beard. He occupies Jiangdong(江東), bragging that his country is rich and his military is strong.

2. (삼고초려 1) 서서가 떠나면서 제갈공명을 천거하니,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공명의 집으로 찾아간다.

[아니리] 그 때에 유·관·장⁸⁸⁾은 삼인이 결심하여 한실⁸⁹⁾을 회복코저 적군과 분투⁹⁰⁾하나
장중⁹¹⁾에 모사⁹²⁾ 없어 주야로 한할⁹³⁾ 적에,
뜻밖에 서서⁹⁴⁾가 떠나며 공명을 천거⁹⁵⁾하되,
“전무후무⁹⁶⁾ 제갈공명 와룡강⁹⁷⁾의 복룡⁹⁸⁾이요,
초당⁹⁹⁾에 깊이 묻혀 상통천문,¹⁰⁰⁾ 하달지리,¹⁰¹⁾ 구궁팔괘,¹⁰²⁾ 둔갑장신¹⁰³⁾을 흉중¹⁰⁴⁾에 품었으니
궁만고지인재¹⁰⁵⁾요 초인간의 철인¹⁰⁶⁾이라.”
이렇듯 말을 하니, 유현덕 반기¹⁰⁷⁾ 여겨 관·장¹⁰⁸⁾과 와룡강을 찾아가
갈 제,
[진양조] 당당한¹⁰⁹⁾ 유현주¹¹⁰⁾는 신장은 칠 척 오 촌¹¹¹⁾이요, 얼굴은
관옥¹¹²⁾ 같고,
자고기이¹¹³⁾하며 수수과슬¹¹⁴⁾ 영웅이라.
적토마상¹¹⁵⁾에 앞서시고,
그 뒤에 또 한 장군의 위인¹¹⁶⁾을 보니, 신장은 구 척이나 되고,
봉¹¹⁷⁾의 눈, 삼각수,¹¹⁸⁾
청룡도¹¹⁹⁾ 빗겨들고¹²⁰⁾ 적토마상¹²¹⁾에 두렷이¹²²⁾ 앉은 거동
운장 위세¹²³⁾가 분명하고,

2. (Visiting a Cottage 1) Xu Shu(徐庶) recommends Kong Ming(孔明) to Liu Bei(劉備), as he leaves him.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visit Kong Ming's(孔明) home.

[Aniri] Meanwhile,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struggle against their enemy to restore the Han(漢) Dynasty.

Having no military strategists, they lament their fate day and night.

Xu Shu(徐庶) recommends Kong Ming(孔明), as he suddenly leaves them.

“Kong Ming(孔明) is a uniquely talented man in Wolonggang(臥龍岡), waiting for an opportunity.

He lives in a cottage in a remote place, having mastered the principles of heaven and earth.

He can make himself invisible to others.

His name will be shiny for a long time, and his ability transcends that of a human being.”

Pleased to know about Kong Ming(孔明), Liu Bei(劉備) leaves for Wolonggang(臥龍岡) with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Jinyangjo] Liu Bei(劉備) is majestic, tall, and handsome.

He is a hero with large earlobes and long arms.

He is on a horse with a white fleck on its forehead, as he is followed by the other two.

Behind Liu Bei(劉備) is a tall warrior.

His eyes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and his beard forms a triangle.

He sits upright on a red horse, holding a Blue Dragon Sword obliquely.

His awe-inspiring appearance indicates he is Guan Yu(關羽).

그 뒤에 또 한 사람을 보니, 신장은 팔 척¹²⁴⁾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고리눈¹²⁵⁾에 사모장창¹²⁶⁾을 눈 위에 번뜻 들고,
 세모마상¹²⁷⁾에 당당히 높이 앉아 산악을 와그르르르르르 무너
 널¹²⁸⁾ 듯,
 세상을 모두 안하¹²⁹⁾에 내려다보니 익덕일시가¹³⁰⁾ 분명쿠나.
 이 때는 건안¹³¹⁾ 팔년 중춘¹³²⁾이라.
 와룡강을 당도하니 경개¹³³⁾ 무궁 기이하구나.¹³⁴⁾
 산불고이수려¹³⁵⁾하고, 수불십이장청¹³⁶⁾이요,
 지불광이평탄¹³⁷⁾하고, 임불대이무성¹³⁸⁾이라.
 원학¹³⁹⁾은 상친¹⁴⁰⁾하고, 송죽¹⁴¹⁾은 교취¹⁴²⁾로다.
 석벽부용¹⁴³⁾은 구름 속에 잠겨 있고,
 청송¹⁴⁴⁾은 천고절¹⁴⁵⁾ 푸른빛을 띠었어라.
 시문¹⁴⁶⁾에 다다라 문을 두드리며,

3. (삼고초려 2) 유비가 세 번째 공명의 집을 찾아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나 공명이 나오지 않으니, 장비가 거만하 다며 화를 낸다.

[아니레 “동자야, 선생님 계옵시냐?”

동자 여짜오되, “선생께옵서 박릉¹⁴⁷⁾의 최주평¹⁴⁸⁾과, 영주¹⁴⁹⁾의 석광
 원,¹⁵⁰⁾ 여남¹⁵¹⁾의 맹공위¹⁵²⁾며 매일 서로 벗이 되어 강호¹⁵³⁾에 배
 띄워 선유태가,¹⁵⁴⁾

There is another tall man behind.
 His face is black, and his chin looks like a swallow.
 White circles are around his eyes, and he holds a long spear
 above his eyes.
 He sits high on a fine-maned horse in a dignified manner as
 if he were ready to break a mountain into pieces.
 He looks down on the world, so he must be Zhang Fei(張飛).
 It is February in the lunar calendar early in the 3rd century.
 They arrive at Wolonggang(臥龍岡) whose landscape is peculiar.
 The mountain is not high, but beautiful. The stream is not deep,
 but clear.
 The land is not wide, but even. The forest is not wide, but thick
 with trees.
 A monkey and a crane get along here. A pine tree and a
 bamboo tree are green.
 Covered by a cloud, a cliff stands up like a lotus flower.
 Representing loyalty, a pine tree is green.
 They arrive at a gate made of small tree branches and knock
 on it.

**3. (Visiting a Cottage 2) Liu Bei(劉備) waits for Kong
 Ming(孔明) in front of his house on the third visit
 in vain. Infuriated, Zhang Fei(張飛) says Kong
 Ming(孔明) is arrogant.**

[Aniri] “Boy, is Kong Ming(孔明) around?”

The boy answers, “He spends time leisurely everyday on a ship
 in a lake and a river with his friends: Cui Zhou Ping(崔州平)
 in Boling(博陵), Shi Guang Yuan(石廣元) in Yingzhou(潁州) and
 Meng Gong Wei(孟公威) in Ruban(汝南).

임간¹⁵⁵)에 바돌¹⁵⁶) 두려 나가신 지 오래이다.”¹⁵⁷)

현덕이 이른 말이, “그럼 선생님이 오시거든 한종실¹⁵⁸) 유헥숙¹⁵⁹)이가 뵈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쭙어라.”

동자다려¹⁶⁰) 부탁하고 신야¹⁶¹)로 돌아와 일삭¹⁶²)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뵈웁고 또 돌아와서, 광음¹⁶³)이 여류하
여¹⁶⁴) 수삼 삭¹⁶⁵) 지낸 후에,

현훈옥백¹⁶⁶)으로 예물¹⁶⁷)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¹⁶⁸) 찾아갈 제,
[중모레 남양용중¹⁶⁹) 당도하여 시문¹⁷⁰)을 두드리니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 계옵시냐?”

동자 여짜오되, “초당¹⁷¹)에 춘수¹⁷²) 깊어 계시나니다.”¹⁷³)

현덕이 반기¹⁷⁴) 여겨 관공·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¹⁷⁵) 들어
가니,

소슬한¹⁷⁶) 송죽성¹⁷⁷)과 청량한¹⁷⁸) 풍경¹⁷⁹) 소리 초당이 한적쿠나.
계하¹⁸⁰)에 대시하고¹⁸¹) 기다려 서 있으되,

공명은 한와하여¹⁸²) 아무 동정¹⁸³)이 없는지라.

[중중모레]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눈¹⁸⁴) 부릅뜨고 검은 팔
뒤건으며¹⁸⁵) 고성대갈 왈,¹⁸⁶)

“아! 우리 가가¹⁸⁷)는 한주¹⁸⁸) 금지옥엽¹⁸⁹)이라.

저만한 사람을 보려하고 수차¹⁹⁰) 수고를 하였거든,
요망¹⁹¹)을 꾀우고 누워 일어나지를 아니하니, 부러¹⁹²) 거만하여이다.¹⁹³)
소제¹⁹⁴)가 초당에 들어가, 초당에 불을 버섯 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하니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동정을 보아,

It has been a while since he went playing go, a kind of game, in the forest.”

Liu Bei(劉備) speaks, “If he comes back, don’t forget to tell him the king’s uncle visited here to see him.”

After telling the boy, Liu Bei(劉備) comes back to Xinye(新野) and stays there for a month.

He visits Kong Ming(孔明) again in vain, acomes back to Xinye(新野), and stay there for several months.

Carrying red silk, pink silk, and white silk as presents, he visits Kong Ming(孔明) for a third time with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Jungmori] After arriving at Longzhong(隆中) Mountain in Nanyang(南陽), they knock on the gate made of small tree branches. The boy comes out.

“Is Kong Ming(孔明) around?”

The boy says, “He is taking a sound spring sleep in a cottage.” Pleased, Liu Bei(劉備) has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wait in front of the gate and slowly goes in.

The cottage is cold and quiet only with the sounds of pine trees, bamboo trees, and small bells hanging on the eaves.

Liu Bei(劉備) waits outside below a stairway.

Kong Ming(孔明) does not move, lying leisurely.

[Jungjungmori] Flaring up, Zhang Fei(張飛) opens his eyes wide, folds up his sleeves, and speaks in a loud voice,

“My brother belongs to the royal family of the Han(漢) Dynasty. He took pains several times to see that little man.

Since the little man doesn’t dare to get up, he must be acting arrogantly purposefully.

Let me go into the cottage and set it on fire.

Given that he is famous for having magical talent, we will see if he continues to sleep or wakes up; dies or lives.

제 만일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노끈¹⁹⁵⁾으로 결박¹⁹⁶⁾하여 신야¹⁹⁷⁾로 돌아가사이다.”
 검불¹⁹⁸⁾을 단박¹⁹⁹⁾ 쏘아 쥐고, 꼬르륵²⁰⁰⁾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루루루루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익덕의 손을 잡고,
 “현제야,²⁰¹⁾ 현제야, 이런 법이 없느니라.
 은왕성탕²⁰²⁾도 이윤²⁰³⁾을 삼빙²⁰⁴⁾하고,
 문왕²⁰⁵⁾도 여상²⁰⁶⁾을 보려하고 위수²⁰⁷⁾에 왕래하니,
 삼고초려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²⁰⁸⁾ 후에,
 “운장은 익덕 데리고 문 밖에 멀리 서 동정²⁰⁹⁾을 기다려라.”

4. (공명 유비 영접) 공명과 유비가 마주 앉아 서로 영웅될 기상을 알아본다.

[아니레] 그제야 공명이 잠에 깨어 풍월²¹⁰⁾을 지어 읊는데,
 [시창] “초당에 춘수죽하니, 창외일지지라.
 대몽은 수선각고, 평생을 아자지라.”²¹¹⁾
 [아니레] 동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²¹²⁾ 두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의 반일²¹³⁾
 이 넘었나이다.”²¹⁴⁾
 [중모레] 공명이 그제야 놀랜 체하고 의관²¹⁵⁾을 정제한다.²¹⁶⁾

If he loathes dying, he will surely come out.
Let's tie him up with a rope and take him to Xinye(新野).”
He quickly grabs a bunch of grass, sets fire to it, and runs to the front of the cottage.
Surprised, Liu Bei(劉備) grabs Zhang Fei's(張飛) hand.
“Brother, this goes against an ethical rule.
King Tang(湯) of the Yin(殷) Dynasty visited Yi Yin(伊尹) three times.
King Wen(文) visited the Wei(渭) River many times to see Lu Shang(呂尙).
Visiting this cottage three times is nothing.” He scolds Zhang Fei(張飛) in a nice manner.
“Guan Yu(關羽), please take Zhang Fei(張飛) outside and wait for me there.”

4. (Kong Ming(孔明) Welcomes Liu Bei(劉備).) Kong Ming(孔明) and Liu Bei(劉備) meet face to face, telling from each other that they will become heroes.

[Aniri] Only then, Kong Ming(孔明) wakes up and recites a poem.
[Poem Tune] “It was a good spring sleep. The day gets longer little by little.
Who will first realize a big dream? I know about my whole life.”
[Aniri] The boy comes in and says,
“Liu Bei(劉備) who was here to see you the other day has been waiting for you outside for almost a quarter of a day.”
[Jungmori] Pretending to be surprised, Kong Ming(孔明) hurriedly sets his clothes straight.

머리에는 팔각 윤건,²¹⁷⁾ 몸에는 학창의²¹⁸⁾로다.

백우선²¹⁹⁾ 손에 들고 당하에²²⁰⁾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여 예필좌정
후에,²²¹⁾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의 기상을 보니,

수수한²²²⁾ 영웅이요, 창업지주²²³⁾가 분명하고,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의 기상²²⁴⁾을 보니

신장은 팔 척이요, 얼굴은 관옥²²⁵⁾ 같고,

미재강산정기²²⁶⁾하여 단념청기²²⁷⁾하고,

밝은 기운이 미간²²⁸⁾에 일어나니 만고영웅²²⁹⁾ 기상이라.

현덕이 속으로 칭찬하며 공손히 앉아서 말을 한다.

5. (유비 간청) 유비가 공명에게 천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아니래 “선생님을 뵈옵고자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실²³⁰⁾이 경복²³¹⁾하고, 간신이 농권²³²⁾하와 종묘사직²³³⁾이 망재조
석²³⁴⁾이라.

이 몸이 제주²³⁵⁾로서 갈충보국 하려 하되,²³⁶⁾ 병미장과²³⁷⁾하고 재주
단천²³⁸⁾하와 흥복치²³⁹⁾ 못하오니,

사직²⁴⁰⁾이 처량하고 불쌍한게 창생²⁴¹⁾이라.

원컨대 선생께옵서 유비와 백성을 아끼시어 출산상조²⁴²⁾하사이다.”

공명이 이른 말이, “양²⁴³⁾은 본래 지식이 천박²⁴⁴⁾하여, 포의야부²⁴⁵⁾
로 남양 땅에서 춘풍세우²⁴⁶⁾ 밭이나 같고, 풍월²⁴⁷⁾이나 지어 읊을지
언정,

An eight-sided hood is on his head, and a large coat with wide sleeves on his body.

Holding a fan made of white feathers, he steps down the stairway, leads Liu Bei(劉備) inside, greets him, and sits down. Raising his head, Kong Ming(孔明) looks at Liu Bei(劉備).

Being an extraordinary hero, Liu Bei(劉備) will certainly become a king.

Liu Bei(劉備) also raises his head and looks at Kong Ming(孔明). He is not tall but handsome.

Natural energy is concentrated between his eyebrows. He looks loyal and full of integrity.

As bright energy rises up between his eyebrows, he is a hero whose name will shine for a long time.

Praising Kong Ming(孔明) in his mind, Liu Bei(劉備) speaks politely.

5. (Liu Bei(劉備) Asks) Liu Bei(劉備) beseeches Kong Ming(孔明) to help him to save the world.

[Aniri] “I visited here three times to see you for the following reason.

While the Han(漢) Dynasty is on the verge of collapse, wicked subjects are running around.

I want to return my favor to this country, but the soldiers and officers are terrible, and I am not talented, so I can't inspire them. The royal family is pathetic, and the people are pitiful. Please be sympathetic to me and my people, and join my government.”

Kong Ming(孔明) responds, “I am not knowledgeable. Being a farmer in Nanyang(南陽), I cultivate my field in the rain and write poems.

국가 대사를 내 어찌 아오리까?
 낭설²⁴⁸을 들으시고 존가²⁴⁹ 허행²⁵⁰하였나이다.
 굳이 사양 마다하니, 현덕이 하릴없어,
 [진양조] 서안²⁵¹을 탕탕 두드리며,
 “여보 선생, 듣조시오. ²⁵² 천하대세²⁵³가 날로 기울어져서 조적²⁵⁴이
 협천자이령제후²⁵⁵를 하니,
 사백 년 한실²⁵⁶ 운이 일조일석에²⁵⁷ 있삽거든,
 선생은 청렴²⁵⁸한 본을 받고 세상 공명²⁵⁹을 부운²⁶⁰으로 생각하니,
 역조창생²⁶¹을 뉘 건지리까?”
 말을 마치고 두 눈에 눈물이 뜰거니²⁶² 맺거니 방울방울 떨어지고,
 가슴을 두드려 복통단장²⁶³ 울음을 우니,
 용의 음성이 와룡강²⁶⁴을 진동한 듯, 뉘라 아니 감동하리!

6. (공명 출전) 공명이 출전하여 곳곳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유비는 조조에게 밀려 강하로 내려가던 중 조조의 대군을 만난다.

[아니리]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늘,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벽상²⁶⁵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²⁶⁶ 지도요, 저건 서천²⁶⁷ 사십일주²⁶⁸라.
 현주께옵선 이 지도로 근본을 삼아 형주병²⁶⁹을 일으켜 양양²⁷⁰에
 나아가고,

How can I know how to govern the country?
You heard a false rumor and visited here for nothing.
Since Kong Ming(孔明) declines, Liu Bei(劉備) has no choice but
to speak as follows:

[Jinyangjo] Liu Bei(劉備) pounds the table.

“Please listen, sir.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Cao Cao(曹操) rules
over feudal lords, taking advantage of the king.

The luck of the Han(漢) Dynasty that lasted 400 years will run
out soon.

But you pursue integrity, placing little value on accomplishing
a great feat and becoming famous.

Who could save the people?”

After finishing his words, Liu Bei(劉備) sheds tears.

He pounds his chest and cries, overtaken by a deep sorrow.

It is as if the sound of a dragon trembled a Wolonggang(臥龍岡).

Who would not be moved?

**6. (Kong Ming(孔明) Goes to War.) Kong Ming(孔明)
goes to war and wins in many places. While
running away, Liu Bei(劉備) meets Cao Cao's(曹操)
huge troops on the way to Jiangxia(江夏).**

[Aniri] Tears fall down from Liu Bei's(劉備) two eyes, soaking
his two sleeves.

Moved, Kong Ming(孔明) accepts his proposal and points to a
wall.

“This is the map of Jingzhou(荊州), and that is the map of forty
towns in Xichuan(西川).

Keep this map in mind, raise an army in Jingzhou(荊州) and
move to Xianyang(襄陽).

서천병²⁷¹⁾을 일으켜 기산²⁷²⁾으로 나가면 중원²⁷³⁾은 가히 회복될 것이요,
 중원만 회복된다면 강동²⁷⁴⁾은 자연²⁷⁵⁾ 황숙의 휘하²⁷⁶⁾로 돌아오리다.”
 현덕이 듣고 좋아라고,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운무²⁷⁷⁾를 헤치고
 일월²⁷⁸⁾을 대하는 듯하여이다.”²⁷⁹⁾
 현덕이 형주 지도를 얻고, 관우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²⁸⁰⁾시킨 후
 에 예단²⁸¹⁾을 올려,
 그날 밤 사인²⁸²⁾이 초당에서 유숙²⁸³⁾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은혜²⁸⁴⁾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²⁸⁵⁾하니,
 너는 송학²⁸⁶⁾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신신²⁸⁷⁾ 부탁하고, 사륜거²⁸⁸⁾에 높이 앉아,
[중모레] 와룡강을 하직하고 신야²⁸⁹⁾로 돌아오니,
 병불만천²⁹⁰⁾이요, 장불십여인²⁹¹⁾이라.
 공명이 민병²⁹²⁾을 초모하여²⁹³⁾ 스스로 팔진법²⁹⁴⁾ 가르칠 제,
 방포일성²⁹⁵⁾하고 금고²⁹⁶⁾를 쿵쿵 울려 조적²⁹⁷⁾과 대결할 제,
 박망²⁹⁸⁾의 소둔,²⁹⁹⁾ 백하³⁰⁰⁾ 엄몰³⁰¹⁾하고,
 장담하던 하후돈³⁰²⁾과 승기 내던³⁰³⁾ 조인³⁰⁴⁾ 등 기창도주³⁰⁵⁾
 패한 분심³⁰⁶⁾ 수륙대병³⁰⁷⁾을 조발³⁰⁸⁾하여 남으로 짓쳐³⁰⁹⁾ 내려갈 제,

If you raise an army in Xichuan(西川) and move to Qi(岐) Mountain, you will restore central China.

If you restore central China, Jiangdong(江東) will naturally become yours.”

Liu Bei(劉備) is pleased. “After listening to you, I feel like I face the sun and the moon after moving through the cloud and fog.”

Liu Bei(劉備) gets Jingzhou(荊州) map, calls Guan Yu(關羽), Zhang Fei(張飛) and introduces them to Kong Ming(孔明), and gives Kong Ming(孔明) silk as present.

That night, the four people sleep in the cottage and leave the following morning.

Kong Ming(孔明) calls his brother, Jun(均).

“I am going out to the world to return Liu Bei’s(劉備) favor of visiting me three times.

Take good care of the pine trees and cranes, and don’t neglect studying.”

After asking him politely, Kong Ming(孔明) sits high on a four-wheeled coach.

[Jungmori] After saying goodbye to Wolonggang(臥龍岡), they come back to Xinye(新野).

They have less than 1,000 soldiers and 10 officers.

He calls up the militia and teaches the eight methods to organize the military.

Kong Ming(孔明) confronts Cao Cao(曹操) by firing cannons and striking gongs.

He sets fire to Bowang(博望) and drowns Cao Cao’s(曹操) soldiers in the Baihe(白河) River.

Confident Xia Jiao Dun(夏侯惇) and Cao Ren(曹仁) throw away their spears and run away.

Angry at being defeated, they raise a large navy and army and move to the south.

원망이 창천이요,³¹⁰⁾ 민심이 소요로구나.³¹¹⁾
 현덕이 하릴없어³¹²⁾ 강하³¹³⁾로 물러나니,
 신야, 번성,³¹⁴⁾ 양양³¹⁵⁾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거늘,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차마 버릴 길이 전혀 없어,
 조운³¹⁶⁾으로 가솔³¹⁷⁾을 부탁하고, 익덕³¹⁸⁾으로 백성을 이끌어 일행
 십리³¹⁹⁾ 행할 적에,
 그 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³²⁰⁾이 우루루루루루루,
 현덕 먼전³²¹⁾에 수자기³²²⁾ 부러져 펄펄 날리거늘,
 경산³²³⁾에 올라 바라보니 조조의 수륙대병³²⁴⁾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기치창검³²⁵⁾은 팔공산³²⁶⁾ 나뭇잎 같고,
 제장³²⁷⁾이 앞으로 공을 다툼 적에, 문빙³²⁸⁾이 말을 채쳐³²⁹⁾ 달려드니,
 익덕이 분기충천,³³⁰⁾ 불같이 급한 성품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덕을 보호하여 장판교³³¹⁾를 지내갈 제,
 수십 만 백성 울음소리 산곡중³³²⁾에 가득하고,
 제장³³³⁾은 사생³³⁴⁾을 모르고 양천통곡³³⁵⁾하며, 진³³⁶⁾을 헤쳐 도망을
 간다.

The grudge of the people rises up to the sky, and the people are in a commotion.

Liu Bei(劉備) cannot but retreat to Jiangxia(江夏).

People in Xinye(新野), Fancheng(樊城) Castle, and Xianyang(襄陽) follow Liu Bei(劉備).

Liu Bei(劉備) can't refuse the people following him.

After asking Zhao Zi Long(趙子龍) to take care of his family, he has Zhang Fei(張飛) lead the people, and they march four kilometers a day.

At the sunset, a fierce wind blows.

A flag pole gets broken and flutters in front of Liu Bei's(劉備) face.

He climbs up Jing(景) Mountain and watches Cao Cao's(曹操) large navy and army come like a wave of water.

Flags, spears, and swords look like leaves of trees on Bagong(八公) Mountain.

While officers try to distinguish themselves, Wen Pin(文聘) whips his horse to attack.

Zhang Fei(張飛) flares up and wields his spear, beating Wen Pin(文聘).

While protecting Liu Bei(劉備), he passes over Changban(長坂) Bridge.

The valley is filled with the people's cries.

In panic, officers wail toward heaven. They are scattered around and run away.

7. (조자룡 두 부인 구출) 조자룡이 전장에서 감부인을 구출하고 미부인을 찾는다.

[아니리] 한 모퉁이³³⁷⁾ 돌아드니, 현덕의 일행이 주민들과 언덕 아래 쉬어 앉아 제장 모이기를 기다릴 적에,

[중중모레] 그 때에 조운³³⁸⁾은 공자 선³³⁹⁾과 양 부인³⁴⁰⁾을 잃고, 일편 단심³⁴¹⁾ 먹은 마음 분함이 추상이라.³⁴²⁾

위진³⁴³⁾을 바라보니 번창휘마³⁴⁴⁾ 가는 거동³⁴⁵⁾ 만리창천³⁴⁶⁾ 구름 속의 편진³⁴⁷⁾하는 용의 모양,

구십춘광³⁴⁸⁾ 새벽 밤에 빠르기는 유성 같고, 단산³⁴⁹⁾ 맹호 기상이라. 풍우같이³⁵⁰⁾ 지나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헤어진 남녀노소 서로 잡고 울음을 우니,

조운이 크게 웨어,³⁵¹⁾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 총중³⁵²⁾ 가는 중에 감부인³⁵³⁾을 보았느냐?”

그 때에 감부인은 오는 장수를 바라보며 나삼³⁵⁴⁾을 무릅쓰고³⁵⁵⁾ 일장 통곡³⁵⁶⁾할 제,

조조의 제장 순우도³⁵⁷⁾가 미축³⁵⁸⁾을 생금하여³⁵⁹⁾ 제 진으로 돌아갈 제, 조운이 얼른 보고 일성포향³⁶⁰⁾에 수년도³⁶¹⁾를 선뜻 들어 탈마위진³⁶²⁾하여 감부인을 호송³⁶³⁾하고,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³⁶⁴⁾으로 가는 백성 막지소향³⁶⁵⁾ 길을 잃어 갈 바를 방황커늘,³⁶⁶⁾

자룡이 크게 웨어,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가는 중에 미부인³⁶⁷⁾을 보았느냐?”

저 백성 이른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전면³⁶⁸⁾ 빈 집 안에 아이 안고 우더이다.”³⁶⁹⁾

7. (Zhao Zi Long(趙子龍) Rescues Two Ladies.) Zhao Zi Long(趙子龍) rescues Lady Gan(甘) and searches for Lady Mi(糜) on the battleground.

[Aniri] Liu Bei(劉備) and his people turn around a corner and take a rest by a hill, waiting for officers to gather together.

[Jungjungmori] Meanwhile, Zhao Zi Long(趙子龍) lost Liu Bei's (劉備) son, A Dou(阿斗), and his two wives: Lady Mi(糜)and Lady Gan(甘). He is infuriated and determined to find them. He charges to the camp of Wei(魏) Country, wielding spears, like a dragon flying through a cloud.

He is as fast as a meteor on a spring night and as fierce as a tiger on Dan(丹) Mountain.

While running fast, he looks at a certain place.

Previously separated from each other, some people huddle together and cry.

He shouts at them. "Hello, folks. Have you seen Lady Gan(甘) in the crowd?"

Just then, Lady Gan(甘) looks at the approaching warrior and cries loudly, covering her face with her silk cloth.

Cao Cao's(曹操) officer, Chun Yu Dao(淳于導), captures Mi Zhu(糜竺) alive and takes him to his camp.

Spotting them, Zhao Zi Long(趙子龍) shouts loudly, pulls up his sword quickly, extorts the horse of Wei(魏) camp, and escorts Lady Gan(甘).

He spots some people going to Xiangyang(襄陽) who are at a loss where to go.

Zhao Zi Long(趙子龍) shouts loudly, "Hello, folks. Have you seen Lady Mi(糜)on your way?"

A person replies, "A lady was crying in an empty house over there, holding a baby in her arms."

조운이 말을 채쳐 그 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 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맞아
일신³⁷⁰)이 운동을 못하고,
슬피 앉아서 울음을 운다.

8. (장관교 싸움 1) 미부인은 우물에 빠져 죽고, 조자룡은 아두를 품에 안고 돌아온다.

[아니리] 조운이 말에서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함은 소장³⁷¹)의 불충지심³⁷²)이라 죄사무석³⁷³)이오나,
추병³⁷⁴)이 급하오니 부인께서는 승마서행³⁷⁵)하옵시면,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끊고 가오리다.”

부인이 이른 말씀, “장군께서 갈성탄력³⁷⁶)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
리까?

한나라 제실지체³⁷⁷) 골육³⁷⁸)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³⁷⁹)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³⁸⁰)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³⁸¹)커늘,

조운이 하릴없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 일신³⁸²) 보존하여 갑옷으로 장신하고,³⁸³)

[자진모리] 마상에 선뜻 올라 채³⁸⁴)를 쳐 도망할 제,

앞으로 마연³⁸⁵) · 장의,³⁸⁶) 뒤로 초촉³⁸⁷) · 장남,³⁸⁸)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조운 일시 함정이라.³⁸⁹)

Zhao Zi Long(趙子龍) arrives there, moving his horse fast.
Indeed, she holds her son without moving because her left arm
is wounded by a spear, and her right leg by an arrow.
She cries plaintively, sitting down.

**8. (Changban(長坂) Bridge Battle 1) Lady Mi(糜)is
drowned in a well. Zhao Zi Long(趙子龍) comes
back, holding A Dou(阿斗) in his arms.**

[Aniri] Zhao Zi Long(趙子龍) gets off the horse, helps her to
stand up, and speaks nice words.

“You are suffering because of my fault, which makes me deserve
to die.

The enemy soldiers are chasing us. Please get on the horse and
get out of here slowly.

I will protect you by beating them, and then follow you.”

The lady says, “How can you save two lives even if you do your
best?

Only this baby can continue the family line of the Han(漢)
Country.

Please save him and let him and his father meet each other.”

She leaves the baby to him and jumps into a well, killing herself.

Zhao Zi Long(趙子龍) destroys the wall of the well and bury
the body.

He saves A Dou(阿斗), protecting him with his armor.

[Jajinmori] Zhao Zi Long(趙子龍) jumps on his horse and gallops
away, whipping the horse.

He is trapped, surrounded by Ma Yan(馬延) and Zhang Yi(張顗)
in the front, and Jiao Chu(焦觸) and Zhang Nan(張南) in the
back.

청공검³⁹⁰) 빼어 들고, 동에 가 번뜻 서장³⁹¹)을 텅그렁,³⁹²) 남장³⁹³)을
 얼리서³⁹⁴) 복장³⁹⁵)을 선뜻,
 이리저리 헤쳐가다 토갱³⁹⁶) 중에³⁹⁷) 가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장합³⁹⁸)이 바라보고 쫓아오니 자룽 생명이 급한지라.
 뜻밖에 오색채운³⁹⁹)이 토갱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탑⁴⁰⁰)이 와그르르르르, 번개불이 번뜻.
 조운 탄 말 용충⁴⁰¹)이라 벽력같이 소리 질러 토갱 밖으로 뛰어나오니,
 장합이 겁을 내어 달아나고, 조운이 말을 놓아 행운유수로⁴⁰²) 도망
 할 제,
 장판교⁴⁰³) 바라보니 일원⁴⁰⁴) 대장 먹장 얼굴,⁴⁰⁵) 장팔사모⁴⁰⁶) 들고,
 “조운은 속래하라!⁴⁰⁷) 오는 추병⁴⁰⁸)을 내 막으마.”
 조운이 말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 제, 인피마곤⁴⁰⁹)하여 기사지경⁴¹⁰)이
 되었구나.

9. (장판교 싸움 2) 장비가 장판교 싸움에서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물리친다.

[아니레] 한 곳을 당도하니 현덕의 일행이 중인들⁴¹¹)과 언덕 아래 쉬
 어 앉아 제장 모이기를 기다릴 적에,
 조운이 말께⁴¹²) 내려 복지⁴¹³)하여 여짜오되,
 “감부인을 호송하고 미부인을 모셔 오려 하였더니,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⁴¹⁴)커늘,

He pulls out his sword and attacks enemy officers in the east,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He moves around here and there, and he falls into a pit, almost killing himself.

Zhang He(張郃) spots him and chases him. Zhao Zi Long(趙子龍) is in jeopardy.

All of sudden, clouds of five colors rise up from the pit.

The sky collapses, the ground sinks, and a thunderbolt flashes. Extraordinary, Zhao Zi Long's(趙子龍) horse shouts like thunder and runs out of the pit.

Zhang He(張郃) runs away in panic. Zhao Zi Long(趙子龍) runs away smoothly with his horse.

He looks at Chang Ban(長坂) Bridge. A general with a black face holds a long triangled spear.

“Zhao Zi Long(趙子龍), come here quickly. I will deter the chasing soldiers.”

When Zhao Zi Long(趙子龍) passes over Changban(長坂) Bridge, both he and his horse are exhausted almost to the point of death.

9. (Changban(長坂) Bridge Battle 2) Zhang Fei(張飛) completely beats Cao Cao's(曹操) soldiers in the Changban(長坂) Bridge Battle.

[Aniri] Zhao Zi Long(趙子龍) arrives at the place where Liu Bei(劉備) and his people take a break by a hill, waiting for officers to gather together.

Zhao Zi Long(趙子龍) gets off the horse, kneels down, and speaks.

“I wanted to escort Lady Gan(甘) and bring Lady Mi(糜)here. She left her son to me and jumped into a well, killing herself.

하릴없이⁴¹⁵ 담을 헐어 시신을 묻고,
 공자 일신⁴¹⁶ 보존하여 근근히⁴¹⁷ 살아왔나이다.”
 갑옷 끌러놓고 보니, 아두⁴¹⁸는 잠이 들어 아직 깨지 않은지라,
 조운이 아두 받들어 현덕에게 드리니, 현덕이 아두 받아 땅에 내던지며,
 “어린 유자⁴¹⁹ 살리려다 중한⁴²⁰ 장군을 손상할 뻔하였고.”
 조운이 급히 내려가 아두 안고 여짜오되,
 “소장⁴²¹은 심혈을 다 바쳐도 만분지일⁴²²을 갚지 못하겠나니다.”⁴²³
 이렇듯 서로 위로할 적에,
 한 곳 바라보니 그 때에 장익덕은 장판교 마상에⁴²⁴ 높이 앉아 조
 적⁴²⁵과 대결을 하는데,⁴²⁶
[엇모레] 위진⁴²⁷을 바라보니, 조조의 수륙대병⁴²⁸이 물밀듯이 쫓아
 온다.
 진두는 편야하고,⁴²⁹ 함성은 통창이라.⁴³⁰ 장판교상⁴³¹ 바라보니
 일원대장⁴³² 먹장 얼굴⁴³³ 장팔사모장창⁴³⁴ 들고 조진⁴³⁵을 한 번
 일컬으며,
 “일원⁴³⁶ 연인⁴³⁷ 장익덕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 번을 호통하니 하늘이 떠그르르르⁴³⁸ 무너져 벽해가 뒤넘는⁴³⁹ 듯,
 두 번을 고함 질러노니 땅이 툭 꺼지는 듯,
 세 번을 호통하니 십이간⁴⁴⁰ 장판교가 중둥⁴⁴¹이 절컹⁴⁴² 무너져 흐
 르는 물이 위로 출렁,
 나는 새도 떨어지니, 조군이 황황⁴⁴³하여 하후걸⁴⁴⁴이가 낙마⁴⁴⁵하고,
 조진⁴⁴⁶이 쟁⁴⁴⁷을 쳐서 퇴병⁴⁴⁸하여 물러가니, 익덕의 위엄 장하다.

I could not help but break down the wall of the well to bury her body.

I managed to come back alive with the baby.”

He opens his armor. A Dou(阿斗) has been sleeping all along. He gives the baby to Liu Bei(劉備), and Liu Bei(劉備) throws the baby on the ground.

“I almost lost a precious general to save my young son.”

Zhao Zi Long(趙子龍) picks up A Dou(阿斗) quickly, and says, “Even if I sacrifice all of my blood for you, I can’t even return a fraction of your favor.” They console each other as said above. Meanwhile, Zhang Fei(張飛) confronts Cao Cao’s(曹操) soldiers, sitting high on a horse on Changban(長坂) Bridge.

[Eonmori] Let’s turn to the camp of Wei(魏) Country. Cao Cao’s(曹操) navy and army come like a flood.

Dust spreads on the field, and shouts pervade everywhere. Let’s turn to Changban(長坂) Bridge.

Holding a long triangled spear, a general with a black face shouts at Cao Cao’s(曹操) formation.

“Zhang Fei(張飛) from Yan(燕) Country stays here.”

With the first shout, the sky seems to collapse and the blue sea seems to turn upside down.

With the second shout, the ground seems to sink.

With the third shout, Changban(長坂) Bridge suddenly breaks in the middle and falls into the flowing water.

Flying birds fall down too. As Cao Cao’s(曹操) soldiers panic, Xia Jiao Jie(夏侯傑) falls from his horse.

Cao Cao’s(曹操) soldiers hit gongs and retreat. Zhang Fei(張飛) looks majestic.

10. (공명 동오로 건너감) 노숙이 공명을 유인하자, 공명은 속는 체하며 동오로 건너간다.

[아니리] 강하⁴⁴⁹)로 물러나와 견벽불출⁴⁵⁰)혈 제,
그 때에 강동의 손권, 주유,⁴⁵¹) 한나라 공명선생의 높은 이름 듣고
노숙⁴⁵²)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커늘,
공명의 깊은 지혜 거짓 속은 체 가기로 허락한 후 현주전⁴⁵³) 하직하니,
현주 대경 탄왈,⁴⁵⁴) “분분한 천하득실⁴⁵⁵) 선생만 민삽는데,⁴⁵⁶) 출타
국⁴⁵⁷)이 웬 일이오? 심량⁴⁵⁸) 처분⁴⁵⁹) 하옵소서.”
공명이 가만히 여짜오되,
“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손권⁴⁶⁰)하고 위건조조⁴⁶¹)하니 한실⁴⁶²)이 미
약이라.
신이 이 때를 타 오나라 들어가 손권·주유를 격동⁴⁶³)하여 조조와
싸움 붙인 후에,
신은 도주이환⁴⁶⁴)하여 중도이기⁴⁶⁵)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일안⁴⁶⁶)에 도취⁴⁶⁷)하여 좌이득공⁴⁶⁸)할 테오
니,⁴⁶⁹) 현주는 염려치 말으시고
금⁴⁷⁰) 동짓달 이십일 자를 일엽선⁴⁷¹) 주어 남병산하⁴⁷²) 오강⁴⁷³)
어귀⁴⁷⁴)로 보내소서.
만일 때를 어기오면 신을 다시 대면⁴⁷⁵)치 못하리다.” 하직하고 물러
나와,

10. (Kong Ming(孔明) Moves Over to Wu(吳) Country.)
With Lu Su's(魯肅) proposal, Kong Ming(孔明)
moves over to Wu(吳) Country, pretending to be
persuaded.

[Aniri] Liu Bei(劉備) and his brothers move to Jiangxia(江夏), build a castle, and hide there.

Meanwhile,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in Wu(吳) Country hear about Kong Ming's(孔明) shiny name, sending Lu Su(魯肅) to entice Kong Ming(孔明) to their country.

Being smart, Kong Ming(孔明) accepts Lu Su's(魯肅) proposal, pretending to be persuaded, and says goodbye to Liu Bei(劉備). Surprised, Liu Bei(劉備) says, "I am relying on you at this important moment. How can you visit a foreign country? Please reconsider."

Kong Ming(孔明) answers softly,

"This is the current situation. Sun Quan(孫權) is the king of Wu(吳) Country. Cao Cao(曹操) is the king of Wei(魏) Country. The Han(漢) Country is weak.

What I will do at this moment is to go to Wu(吳) Country, instigating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to fight against Cao Cao(曹操).

I will flee from them, come back, and mobilize the military in the middle.

I will achieve something easily by getting the two countries fight each other. Your Majesty needn't worry.

Please give a small boat to Zhao Zi Long(趙子龍) and send him to the mouth of the Wu(吳) River at the bottom of Nanping(南屏) Mountain on November 20th.

If you don't send him on time, you will never see me again."
He says goodbye and departs.

[중모래] 공명선생 거동 보소. 머리에는 팔각 윤건⁴⁷⁶ 몸에는 학창
의⁴⁷⁷로다.

노숙 따라 오나라 들어갈 제,
백우선⁴⁷⁸ 손에 들고 일엽편주⁴⁷⁹ 빨리 저어 강동에 당도하니,
노숙이 인도하여 관역⁴⁸⁰ 안혈할새,⁴⁸¹
공명이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아관박대⁴⁸²로 장소⁴⁸³ 등 십여 인이 일좌⁴⁸⁴로 늘어 앉아 설전군
유⁴⁸⁵가 분분할 제,
수다히⁴⁸⁶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기이하구나, 공명선생.
손중모⁴⁸⁷가 호일하매⁴⁸⁸ 주유를 격동할 제⁴⁸⁹ 대략⁴⁹⁰이 무궁하니,
주유 부질없이 시기하여 제 죽을 줄 모르고 욕살공명⁴⁹¹ 가소롭다.
삼일위한⁴⁹² 십만전⁴⁹³을 일야무중자득⁴⁹⁴하니,
만고 높은 재주 귀신도 난측⁴⁹⁵이라.
방통⁴⁹⁶의 연환계⁴⁹⁷와
황개⁴⁹⁸의 교육계⁴⁹⁹인들
공명 기품⁵⁰⁰ 아닐진대 게 뉘라서⁵⁰¹ 성공하리.
[아니래] 공역⁵⁰²을 저버리고⁵⁰³ 주유 용심⁵⁰⁴ 도량하다.⁵⁰⁵
이때는 어느 땐고? 동⁵⁰⁶ 십이월 망간⁵⁰⁷이라.
주유 정군⁵⁰⁸하고 삼강⁵⁰⁹ 육진⁵¹⁰ 착안⁵¹¹할 제,
진세⁵¹²로 정리하고 위풍⁵¹³이 모두 다 엄숙하구나.

[Jungmori] Behold Kong Ming(孔明). On his head is an eight-sided divine hood, and on his body is a large coat with wide sleeves.

He follows Lu Su(魯肅) into Wu(吳) Country.

On his hand is a fan made of white feathers. They row a small boat swiftly and arrive at Wu(吳) Country.

Kong Ming(孔明) is led by Lu Su(魯肅) to a government office, where he takes a rest.

He raises his head and takes a look around.

Several officials, including Zhang Zhao(張昭), are sitting around, arguing with each other.

Extraordinary, Kong Ming(孔明) diffuses numerous questions to him with a couple of words.

Sun Quan(孫權) is broad-minded. He moves Zhu Yu(朱瑜) with numerous strategies.

Jealous of Kong Ming(孔明) in vain, Zhu Yu(朱瑜) dares to plot to kill Kong Ming(孔明) without knowing he might be killed himself, which is ridiculous.

Kong Ming(孔明) gets 100,000 arrows within three days on a foggy night.

Even a god cannot fathom Kong Ming's(孔明) ability.

Pang Tong(龐統) made the plot to burn the enemy's ships after telling them to tie the ships with chains.

Huang Gai(黃蓋) made the plot to sacrifice himself to deceive the enemy.

Those plots could not succeed without Kong Ming's(孔明) plan.

[Aniri] Neglecting his duty, Zhu Yu(朱瑜) runs around.

When is it now? It is around December 15th, winter.

He sets his troops in order, watching three rivers and his military camp on the land.

He arranges his troops in a combat formation. Everybody looks serious.

그 때여 적벽강 조승상⁵¹⁴)은 백만 대병을 조발⁵¹⁵)하여,

11. (조조 호기) 조조가 천여 척의 배로 연환계를 만들어 두고, 병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호기를 부린다.

[진양조] 천여 척 전선⁵¹⁶) 모아 연환계⁵¹⁷)를 굳이 무어⁵¹⁸) 강상육
지⁵¹⁹) 삼아 두고,

일등명장⁵²⁰)이 유진⁵²¹)할 제, 말 달려 창 쓰기며, 활 쏘아 총 놓
기,⁵²²)

십팔기⁵²³) 시습하기⁵²⁴) 백만 군중⁵²⁵)이 요란할 제,

조조 진중⁵²⁶)에 술 많이 빚고, 떡도 치고,⁵²⁷) 밥도 짓고, 우양⁵²⁸)을
많이 잡아 장졸⁵²⁹)을 호궤⁵³⁰)할 제,

동산월색⁵³¹)은 여동백일⁵³²)이요,

장강 일대⁵³³)는 여횡소련⁵³⁴)이라.

그 때 조조는 장대상⁵³⁵)에 가 높이 앉아 남병산색⁵³⁶) 그림경⁵³⁷)을,

“동을 가리켜⁵³⁸) 시상⁵³⁹)이요, 서를 보니 하구성⁵⁴⁰)이요,

남을 가리켜 번성⁵⁴¹)이요, 북을 보니 오림⁵⁴²)이로구나.

사면이 광활커든⁵⁴³) 어찌 성공 못할쏘냐?

내 나이 오십사 세로 여득강남이면⁵⁴⁴) 향부귀하⁵⁴⁵) 낙태평,⁵⁴⁶)

동작대⁵⁴⁷) 좋은 집에 이교녀⁵⁴⁸)를 가취하면,⁵⁴⁹) 모년향락⁵⁵⁰)이 나의
원에⁵⁵¹) 족할지라.⁵⁵²)

Meanwhile, Premier Cao Cao(曹操) gathers a million troops in the Chibi(赤壁) River.

11. (Cao Cao(曹操) Bears Himself Haughtily.) Cao Cao (曹操) binds about a thousand ships together with iron chains. He bears himself haughtily, throwing a party for his soldiers.

[Jinyangjo] Cao Cao(曹操) ties up a thousand ships together with iron chains. The river becomes the land.

Able officers stay in camps, throwing spears from horses, and shooting arrows and rifles.

They exercise martial arts by themselves. The million troops are noisy.

In Cao Cao's(曹操) camp, they make wine, rice cake, and rice, and they kill a lot of cows and sheep to feed the officers and soldiers.

The moon over the east mountain is as bright as the sun.

The Yangzi(揚子) River looks like a long piece of white silk. Cao Cao(曹操) sits high on the commanding post and watches beautiful Nanping(南屏) Mountain.

"In the east is Chaisang(柴桑) Castle, in the west the border of Xiakou(夏口) Castle,

in the south Fan(樊) Castle, and in the north the Wulin(烏林) Forest.

How can I not win with a vast open field in every direction? I am now fifty four. If I obtain Jiangnan(江南) region, I will enjoy wealth, power, and peace.

If I marry two Qiao(喬) sisters and live in Tongque(銅雀) Tower, I will be happy in my old age.

어와, 장졸 영 들어라. 너희들도 주육간에⁵⁵³ 실컷 먹고
 위·한·오 승부⁵⁵⁴를 명일⁵⁵⁵로 결단하자.
 만승제업⁵⁵⁶을 한 사람께 맡겼으랴?
 득천하⁵⁵⁷한 연후에⁵⁵⁸ 천금상⁵⁵⁹ 만호후⁵⁶⁰를 차례로 봉하리라.”
 문무 장졸이 영을 듣더니 군례⁵⁶¹로 모두 늘어서서, “원득개가⁵⁶²하
 오리다.”

12. (군사들 노는 모양) 병졸들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제각기 논다.

[아니레 군사들이 승기⁵⁶³ 내어, 주육⁵⁶⁴을 쟁식하고,⁵⁶⁵
 [중모레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서름겨워 곡⁵⁶⁶하는 놈,
 이야기로 히흐하하 웃는 놈, 투전⁵⁶⁷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⁵⁶⁸ 욕하는 놈, 진취 중에⁵⁶⁹ 토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끝에다 톱 괴인 놈,
 처처⁵⁷⁰ 많은 군병 중에⁵⁷¹ 병루즉장위불행이라.⁵⁷²
 장하⁵⁷³의 한 군사 병치⁵⁷⁴ 벗어 손에 들고 여광여취⁵⁷⁵ 실성발
 광⁵⁷⁶ 그저 퍼버리고⁵⁷⁷ 울음을 우니,

13. (군사 설움 타령 1) 한 군사가 부모와 아내를 그리워하 며 탄식한다.

[아니레 한 군사 내달으며, “아나, 애,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천 리 전장⁵⁷⁸을 나오시어

Officers and soldiers! Listen to my order! Help yourselves to wine and meat today.

Let's put an end to the fight among Wei(魏), Wu(吳), and Han(漢) Countries tomorrow.

I need your help to become an emperor.

After attaining the world, I will give you a lot of money and feudal positions."

In response, everyone stands up in a line as a show of respect to him. "We wish for a victory."

12. (Soldiers Playing) Soldiers enjoy themselves, drinking and eating a lot of wine and meat.

[Aniri] Determined to win, soldiers drink wine and eat meat in competition.

[Jungmori] A soldier sings, dances, and cries, overtaken by grief. Another laughs, while talking. Others quarrel, while gambling. Half-drunk, another speaks curse words. Seriously drunk, another throws up.

Another sleeps, while standing up with his chin on the end of a spear.

Bad luck comes if a soldier sheds tears among many soldiers. A soldier under a tent takes off his fur hat, holds it with his hand, and cries wildly, going crazy.

13. (A Soldier's Sad Song 1) A soldier laments, missing his parents and wife.

[Aniri] Another soldier moves forward. "Our premier has led a huge army away from home to this battlefield.

승부가 미결되어⁵⁷⁹⁾ 천하 대사⁵⁸⁰⁾를 바라는데,
네 이놈, 요망스럽게 왜 울음은 그렇게 우는고?
우지 말고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 연하여⁵⁸¹⁾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내의 설운⁵⁸²⁾ 사정을 들어
봐라.”

[진양조] “고당상⁵⁸³⁾ 학발양친⁵⁸⁴⁾ 배별⁵⁸⁵⁾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혜여 생아시고, 모혜여 육아시니,⁵⁸⁶⁾ 육보지덕택인대 호천망극이
로구나.⁵⁸⁷⁾

화목하던 절내권당,⁵⁸⁸⁾ 규중⁵⁸⁹⁾의 홍안⁵⁹⁰⁾ 처자⁵⁹¹⁾ 천 리 전장에다
가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거나, 내일이나 기별⁵⁹²⁾이 올거나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에 해는 기울어지니 출문망⁵⁹³⁾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데 의리지망⁵⁹⁴⁾이 몇 번이나 되며,

소중량의 홍안거래⁵⁹⁵⁾ 편지를 뉘 전하며,

상사곡⁵⁹⁶⁾ 단장회⁵⁹⁷⁾는 주야 수심⁵⁹⁸⁾에 맺혔구나.

조총⁵⁹⁹⁾ 환도⁶⁰⁰⁾를 들어메고⁶⁰¹⁾ 육전,⁶⁰²⁾ 수전⁶⁰³⁾을 섞어할 적에 생
사가 조석이로구나.⁶⁰⁴⁾

만일 객사⁶⁰⁵⁾를 하거드면, 게 뉘라서 안장⁶⁰⁶⁾을 하며,

골폭사장⁶⁰⁷⁾에 호여저서⁶⁰⁸⁾ 오연⁶⁰⁹⁾의 밥이 된들, 뉘랴 손뼉을 두드
리며, ‘후여!’ 처⁶¹⁰⁾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나?

일일사친십이시로구나.”⁶¹¹⁾

14. (군사 설움 타령 2) 또 한 군사가 집에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렇듯이 설리 우니 한 군사 내달으며,

The result of this important war has yet to come out.
You villain. How can you cry under such grave circumstances?
Don't cry. Come here. Have a drink and have some fun."
The crying soldier responds, "What you say makes sense. But listen to my sad story."

[Jinyangjo] "Numerous days have passed since I left my old parents.

My father has begotten me, and my mother has reared me. I want to return their favor, but it is limitless.

My family and relatives got along with each other. My beautiful wife said goodbye to me leaving for the distant battleground.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about me.

Numerous times, she must have leaned against the gate, waiting for me as the sun set, and at windy and rainy nights.

Su Wu(蘇武) sent a letter to his country, using a wild goose. But how about me?

I miss my family day and night so much that my intestines might disintegrate.

I carry a rifle and a big sword. I fight on land and water, and I could die at any time.

If I die away from home, who will bury me?

If my bones are scattered on the sand and become food for crows and eagles, who will chase the birds away by clapping his hands?

I miss my parents all day long."

14. (A Soldier's Sad Song 2) Another soldier grieves, missing his child at home.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steps forward.

“아나,⁶¹² 애, 내 설움을 들어보니 성효지심⁶¹³ 기특하다.⁶¹⁴
전장에 나와서도 부모한테 효성의 지극한 말을 하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겠다.”

그 중에 또 한 군사 나서면서, “내 설움을 한번 또 들어봐라.”
“어디, 말해 봐라. 설움이 참으로 서러우면 우리도 울력⁶¹⁵으로 한
번씩 울어주마.”

“글랑⁶¹⁶ 그리 해라.”

[중중모리] “여봐라, 군사들아. 네 내 설움을 들어라. 네 내 설움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오대독신⁶¹⁷으로 어려서 장가들어,
근⁶¹⁸ 오십 장근토록⁶¹⁹ 슬하⁶²⁰ 일점혈육⁶²¹이 없어 매일 부부 한탄.
아파,⁶²²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⁶²³을 다 드릴 제,
명산대찰,⁶²⁴ 영신당,⁶²⁵ 고묘,⁶²⁶ 충사,⁶²⁷ 석왕사,⁶²⁸ 석불,⁶²⁹ 보
살,⁶³⁰ 미륵,⁶³¹

노구맞이⁶³² 집짓기와, 칠성불공,⁶³³ 나한불공,⁶³⁴
백일산제,⁶³⁵ 신중맞이,⁶³⁶ 가사시주,⁶³⁷ 인등시주,⁶³⁸
다리 권선,⁶³⁹ 길닦기.⁶⁴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주,⁶⁴¹ 조왕⁶⁴²에 당산,⁶⁴³ 천룡,⁶⁴⁴ 중천군
웅⁶⁴⁵에, 지신제⁶⁴⁶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근 남기⁶⁴⁷ 꺾어지랴!
그 달부터 태기⁶⁴⁸ 있어 석부정부좌⁶⁴⁹하고,
할부정불식⁶⁵⁰하고, 이불청음성,⁶⁵¹
목불시악색⁶⁵²하여 십 삭⁶⁵³이 점점 차더니,
하루는 해복⁶⁵⁴ 기미가 있든가 보더라.

“After listening to your sorrow, I can see that you are a good son to your parents.

You will go back alive because you speak words even in this battlefield indicating how deep your filial piety is.”

Another soldier jumps in. “Listen to my sorrow.”

“Go ahead. If your sad story is touching, we will cry together for you.”

“That sounds great.”

[Jungjungmori] “Hello, soldiers. Listen to my grief. Listen to my sorrow.

I married early because I was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Being almost fifty but not having a child, my wife and I lamented everyday.

Gee, my wife made every effort to have a baby.

She prayed to famous mountains, Buddhist temples, Buddhist shrines, Buddhist statues, and the statues of Buddhist Saints. She built a house for a shamanic god. She prayed to the Great Bear and a Buddhist saint.

She held a ritual for a mountain for a hundred days and a ritual for Buddha. She donated clothes and candles to a Buddhist temple.

She paid money to build a bridge and built a road for others. While at home, she dutifully serves the gods of the house, the kitchen, the village, the food platform, the sky, and the land. Her conscientious efforts finally paid off.

She became pregnant. Since then, she did not sit on a seat, if it was not straight.

She did not eat food, if it was not cut straight. She did not hear indecent words.

She did not see bad colors. Ten months gradually passed.

One day, there was an indication of childbirth.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 중⁽⁶⁵⁵⁾에 탄생하니, 딸이라도 반가울 데⁽⁶⁵⁶⁾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이 삼칠일⁽⁶⁵⁷⁾이 다 지나고,
오륙 삭⁽⁶⁵⁸⁾ 넘어가니,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⁶⁵⁹⁾ 노는 양,
뺨긋 웃는 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⁶⁶⁰⁾ 쥐얌,⁽⁶⁶¹⁾ 잘깡,⁽⁶⁶²⁾ 섬마둥
둥⁽⁶⁶³⁾ 내 아들. 내 아들이지, 내 아들.

웃고름에 돈을 채워, 감을 사 껌질 벗겨 손에 들려서 어르며,⁽⁶⁶⁴⁾
주야 사랑 애중한 게⁽⁶⁶⁵⁾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급한 난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나오너
라!’ 웨는⁽⁶⁶⁶⁾ 소리 아니 올 수 없더구나.

사당⁽⁶⁶⁷⁾ 문 열어놓고 통곡재배⁽⁶⁶⁸⁾ 하직한 후,
간간한⁽⁶⁶⁹⁾ 어린 자식, 유정한⁽⁶⁷⁰⁾ 가솔⁽⁶⁷¹⁾ 얼굴 한 데⁽⁶⁷²⁾ 대고 문지르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 나의 후사⁽⁶⁷³⁾를 전해 주오.’

생이별⁽⁶⁷⁴⁾ 하직하고 전장⁽⁶⁷⁵⁾에를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악아, 응아
.’⁽⁶⁷⁶⁾ 얼리볼거나?⁽⁶⁷⁷⁾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15. (군사 설움 타령 3) 또 한 군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슬피 운다.

[아니레 이렇듯이 설리 우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 애. 자식 두고 우는 정은 즐장부⁽⁶⁷⁸⁾의 말이로구나.

'My belly, waist, and legs hurt!'

She delivered a baby in confusion. Even a daughter would have been good, but the baby was a son.

I always held him with my own hands, so he was never lay down on the ground for the first 21 days.

After five or six months, his robust feet enabled him to play in the room.

He smiled and said 'mommy' and 'Daddy.' He shook his head, folded and unfolded his fingers. I dandled my cute son.

I tied money on his cloth string. I bought chestnuts, peeled them, and had him hold them with his hands.

For me, my child was my only precious thing.

The sudden shout 'A war broke 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came in my ear, so I couldn't help leaving my house.

I bowed twice to the family shrine and bid farewell to my ancestors.

I rubbed my lovely young child's face and my affectionate wife's face.

'Please rear him well and have him continue my family line.'

I came to this battlefield after a hard parting with my family.

When will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child in my arms, and dandle him?

Alas! Woe is me!"

15. (A Soldier's Sad Song 3) Another soldier sighs, missing his wife.

[Aniri] As the soldier wails, many soldiers say,

"You rascal. You are a deplorable man because you weep over your child.

전쟁에 너 죽어도 후사는 전하겠으니 네 설움은 가소롭다.”⁽⁶⁷⁹⁾
그 중에 또 한 군사 나서면서,
[중모레] “이 내 설움 들어봐라. 나는 부모님을 조실⁽⁶⁸⁰⁾하고,
일가친척 바이없어⁽⁶⁸¹⁾ 혈혈단신⁽⁶⁸²⁾ 아내 몸이,
이성지합⁽⁶⁸³⁾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하여,⁽⁶⁸⁴⁾
중가대사⁽⁶⁸⁵⁾ 탁신현정⁽⁶⁸⁶⁾ 일시 떠날 뜻이 바이없어 철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변⁽⁶⁸⁷⁾ 일어나며,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천아성⁽⁶⁸⁸⁾ 웨는⁽⁶⁸⁹⁾ 소리 죽불리지⁽⁶⁹⁰⁾ 나를 끌어내니, 아니 올 수 없
더구나.
군복 입고, 전립⁽⁶⁹¹⁾을 쓰고,
창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었더지며,⁽⁶⁹²⁾
‘날 죽이고 가오.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홍안⁽⁶⁹³⁾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두고 전장을 가랴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랴 제,⁽⁶⁹⁴⁾ ‘허허, 마누
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전쟁 출세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더구나.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⁶⁹⁵⁾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일전쟁⁽⁶⁹⁶⁾
은 불식⁽⁶⁹⁷⁾이라.
살아가기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⁶⁹⁸⁾을 하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Your sorrow is trivial because you can carry on your family line
even if you die in this war.

Another soldier steps forward.

[Jungmori] “Listen to my sorrow. “I lost my parents early.

Having no relative, I was alone.

I married a beautiful and virtuous woman.

She conscientiously took care of the big matters of a head
family. I wasn’t aware of the passage of time, hating to leave
her even for a moment.

A disaster occurred.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The trumpet sound calling soldiers pulled me out, and I had
no choice.

I put on a military uniform and a fur hat.

As I was carrying a spear and leaving, my wife watched me,
ran to me with only socks on her feet, hugged me, and kneeled
down.

‘You can’t leave while I’m still alive.

How can you go to the battlefield, leaving your young woman
here alone?’

Can you imagine how I would have felt? I appeased my wife.

‘Honey, don’t cry.

If a man doesn’t go to war and achieve something after he is
born, he is not a true man.

Please don’t cry.’ I appeased her and got angry with her, but
she didn’t stop crying.

I shook her hand off and came to this battleground. This war
continues day after day.

Even if we thought up a smart idea to survive, we are watched
from four directions.

We are like a tiger in a pit and a fish in a net.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그림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단정회⁶⁹⁹ 풀어
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니,

16. (군사 호기) 한 군사가 나서서 우는 군사를 탓하며, 큰 공을 이루어 돌아가자고 호기를 부린다.

[아니리]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 이애. 네 설움을 들어본개⁷⁰⁰ 네 설움은 올만하다.

가속⁷⁰¹이라 하는 것은 불가무자⁷⁰²라 어쩔 수가 없느니라. 네 설움
도 올만하다.”

그 중에 또 한 군사 나서는데, 이놈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키 작고, 머리 크고, 모기눈,⁷⁰³ 주걱턱⁷⁰⁴에 쥐털수염⁷⁰⁵ 거사리고,⁷⁰⁶
코 벌렁벌렁하면서 착도⁷⁰⁷만한 칼을 내휘두르며,
만군중⁷⁰⁸이 송신하게⁷⁰⁹ 말을 하겠다.

[중중모리] “이놈 저놈, 말 듣거라. 너희들 올 제 줌놈일다.⁷¹⁰

위국자불고가⁷¹¹라 옛 글에도 일러 있고,

남아하필연처자리오? 막향강촌노장년하소.⁷¹²

우리 몸이 군사 되어 전장 나왔다가,

공명⁷¹³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 내 심사⁷¹⁴ 평생 한⁷¹⁵이 요하삼척⁷¹⁶ 드는 칼로 오한 양진⁷¹⁷

장수 머리를 선뜻⁷¹⁸ 땡기렁⁷¹⁹ 베어 들고,

창 끝에 높이 달아, 개가성⁷²⁰ 부르면서, 득승고⁷²¹ 쿵쿵 울리며 본국
으로 돌아갈 제,

When can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wife's hands, and talk with her as much as I like? Alas!"

He weeps.

16. (A Soldier Plays the Hero.) A soldier rebukes sobbing soldiers. He acts like a hero, proposing to go back home after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Aniri] Several soldiers jump in.

"Okay. After listening to your story, I understand why you sob. Your family is part of your fate, so you can't do anything about that. I am sympathetic to your sorrow."

Another soldier comes forward. He looks as follows:

He is small, but his head is big. His eyes are tiny, and his chin looks like a scoop. His small beard is bent up.

His nose makes noisy sounds, as he wields a small knife.

He speaks loudly so that everybody can hear.

[Jungjungmori] "Listen to me, you cowards. You are crying brats. There is a saying that a patriot cannot take care of his family. How can you miss your wives and children? All of you, forget about your homes.

We became soldiers and were taken to this battleground.

Wouldn't it be a disgrace to go back home without a meritorious deed?

I have a longstanding wish. It is to rapidly cut off the heads of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with one move of my long sword,

to put them high at the end of my spear and to go back home while singing a victory song and hitting a victory drum.

부모, 동생, 처자, 권술,⁷²²⁾ 일가친척이 반기하여⁷²³⁾ 팔쩍 뛰어나오며,
'다녀온다, 다녀와. 전장 갔던 낭군이 살아를 오니 반갑네. 이리 오오,
이리 와.'

울며불며 반기할 제, 원근간⁷²⁴⁾ 기쁨을 보이면 그 아니 좋더란 말이
냐? 우지 말라면, 우지 마라.”

17. (싸움타령) 한 군사가 나서서 싸움타령을 하니, 군사들 이 내일 있을 싸움을 걱정한다.

[아니리] 이렇듯이 말을 하니 한 군사 나서면서,
“아나, 애. 네 말이 정 그렇다면 천하장사 항도령⁷²⁵⁾이라고 불러주마.”
그 중에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싸움타령으로 노래를 하겠다.

[중모리] “습용간과⁷²⁶⁾ 헌원씨⁷²⁷⁾ 여염제로⁷²⁸⁾ 판천싸움.⁷²⁹⁾

능작대무 치우작란⁷³⁰⁾ 사로잡던 탁록싸움.⁷³¹⁾

주나라 쇠진 천지⁷³²⁾ 분분한 춘추싸움.⁷³³⁾

위북진황⁷³⁴⁾ 늙은 후에 잠식⁷³⁵⁾ 산동⁷³⁶⁾ 육국싸움.⁷³⁷⁾

봉기제장⁷³⁸⁾ 요란하다, 팔년풍진⁷³⁹⁾ 초한싸움.⁷⁴⁰⁾

칠십여전 공이 없다,⁷⁴¹⁾ 항도령의 우벽싸움.⁷⁴²⁾

통일천하 언제 할고, 위한오 삼국싸움.

동남풍이 훨훨 부니, 위텃구나⁷⁴³⁾ 적벽싸움.”⁷⁴⁴⁾

“애, 아서라,⁷⁴⁵⁾ 싸움타령. 가슴 끔적⁷⁴⁶⁾ 기막힌다.

Parents, brothers, sisters, wife, children, and relatives will welcome us.

I am happy. I am pleased to see my husband coming back alive from a distant battlefield. Come here.'

We will shed tears of joy. Wouldn't it be great to share joy with family and relatives? Don't weep."

17. (War Song) As a soldier steps forward and sings a war song, soldiers are worried about tomorrow's combat.

[Aniri] As the soldier finishes, another soldier moves forward. "Hey soldier. If you talk like that, I will call you Xiang Yu(項羽)." Another soldier comes forward and sings a war song.

[Jungmori] "In the Banquan(阪泉) War, Xuan Yuan Shi(軒轅氏) who invented a spear and a shield fought against Yan Di(炎帝). In the Zhuolu(琢鹿) War, Chi Wang(蚩尤) who could create fog was captured alive.

After Zhou(周) Dynasty became weak, there were a lot of wars amongst ancient countries during the Chunqiu(春秋) era.

After powerful and wealthy Qin Shi Huang(秦始皇) became old, six countries fought each other in Shandong(山東) area.

Many generals fought fiercely in the war between Chu(楚) Country and Han(漢) Country for eight years.

Xiang Yu's(項羽) seventy combats ended in vain.

When will China be unified? Wei(魏), Han(漢), and Wu(吳) Countries are fighting each other.

Some are in danger in the Chibi (赤壁) War where a southwest wind blows.

"Hey, stop the war song. I feel suffocated.

싸움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퇴⁷⁴⁷ 하고지고.”⁷⁴⁸)
 또 한 군사 나서면서, “너희 아직 술잔⁷⁴⁹ 먹고 재담,⁷⁵⁰ 취담,⁷⁵¹
 실담,⁷⁵² 허담,⁷⁵³ 장담,⁷⁵⁴ 패담⁷⁵⁵ 하거니와,
 명일⁷⁵⁶ 대전⁷⁵⁷ 시살⁷⁵⁸할 제 승부를 뉘 알쏘냐?
 유능제강이요, 약능제성이라⁷⁵⁹ 병가⁷⁶⁰의 징험이요,⁷⁶¹
 홍망성쇠 재덕이니,⁷⁶² 승부간에⁷⁶³ 즉사,⁷⁶⁴ 악사,⁷⁶⁵ 몰사⁷⁶⁶할 제
 너희들 어찌 하려느냐?”
 못군사⁷⁶⁷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회심⁷⁶⁸ 걱정을 하올 적에,

18. (오작남비)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니 조조가 취흥에 겨워 시를 읊는데, 장수 유복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하였다가 죽임을 당한다.

[진양조] 뒀다, 저 까마귀.
 월명심야⁷⁶⁹ 고요한데, 남천을 무릅쓰고⁷⁷⁰ 반공⁷⁷¹에 등등 높이 떠서 ‘까옥 까옥 까르르르르르’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묻는 말이, “저 까마귀 여하명고?”⁷⁷²)
 [아니레] 좌우 제장⁷⁷³이 대답하되, “달이 밝으매⁷⁷⁴ 별이 드무니,⁷⁷⁵ 까마귀가 새벽인가 하여 남으로 떠 우나보오이다.”
 조조 취흥이 도도하여⁷⁷⁶ 글 지어 읊었으되,

Cut the war song out. I wish to perform a meritorious deed and go home.”

Another soldier jumps in. “Drunk, you are telling witty stories, drunken stories, mistaken stories, empty stories, confident stories, and unreasonable stories.

We will kill enemies mercilessly in the war tomorrow, but who will win?

A military expert knows from his experience that a soft thing might defeat a hard thing, and that a weak thing might beat a strong thing.

We will rise or fall, depending on whether we are virtuous or not. Whether we win or lose this war, all of us will die instantly and cruelly. What will become of you?”

After listening to him, many soldiers are persuaded and worried.

18. (A Crow and A Magpie Fly in the South Sky.) A crow flies, crying. Liu Fu(劉馥), a general, gets murdered by Cao Cao(曹操) after saying that a crow is an ominous sign.

[Jinyangjo] Lo, behold that crow!

When the moon is bright in the deep quiet night, a crow cries high to the south sky and flies away.

Cao Cao(曹操) asks, “What made that crow cry?”

[Aniri] Many warriors answer, “Becaus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dim, the crow must be thinking that the daybreak has come and flies to the south sky.”

Ela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Cao Cao(曹操) writes and recites a poem.

[시창] “월명성희에 오작이 남비하니,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라.”⁷⁷⁷⁾
 [아니레] “까마귀가 남으로 떠 울고 우리 진을 지나가니, 어땡다 하리오?”
 제장 중 유복⁷⁷⁸⁾이가 여짜오되, “월명성희에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란 곡조는, 명일 임전시⁷⁷⁹⁾에 불길조로소이다.”⁷⁸⁰⁾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네 이놈. 네가 어찌 너의 심중⁷⁸¹⁾에 있는 말을
 하는고?”
 요설⁷⁸²⁾이라 집탈⁷⁸³⁾하고 칼을 빼어 유복의 목을 콕 찢러노니, 애석
 한 그 죽음은 근들⁷⁸⁴⁾ 아니 불쌍하냐!
 이렇게 유복이를 죽여 놓고, 그래도 조조는 허허 웃고 장담하며 전쟁
 을 할 양으로 수륙군⁷⁸⁵⁾을 분발⁷⁸⁶⁾할 제,

19. (조조 장수 분발) 조조가 장수들을 지휘하며 싸울 준비 를 한다.

[자진모래] 차일⁷⁸⁷⁾ 수군도독⁷⁸⁸⁾ 모개,⁷⁸⁹⁾ 우금⁷⁹⁰⁾이요,
 연쇄전선 필쇄하고,⁷⁹¹⁾ 즉일⁷⁹²⁾ 군병 재촉하여,
 조조 누선⁷⁹³⁾에 높이 앉아 수륙군 제장⁷⁹⁴⁾을 분발할 제,
 수진⁷⁹⁵⁾의 중협총⁷⁹⁶⁾ 모개, 우금이요,
 전협총⁷⁹⁷⁾ 장합⁷⁹⁸⁾이요, 좌협총⁷⁹⁹⁾ 문빙⁸⁰⁰⁾이며,
 우협총⁸⁰¹⁾ 여통,⁸⁰²⁾ 후협총⁸⁰³⁾ 여건⁸⁰⁴⁾이라.
 육진⁸⁰⁵⁾의 전사파⁸⁰⁶⁾ 서황⁸⁰⁷⁾이며, 좌사파⁸⁰⁸⁾ 악진⁸⁰⁹⁾이요,

[Poetic Model] “Crows and magpies fly to the south whil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sparse.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Aniri] “A crow passes over our camp to the south while crying. What does that mean?”

Liu Fu(劉馥), a general, responds, “The bright moon, sparse stars, and crows and magpies flying to the south.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which is an ominous sign ahead of a battle.”

Cao Cao(曹操) is infuriated. “You villain. How dare you say what you have in your deep mind?”

Accusing Liu Fu(劉馥) of speaking wicked words, Cao Cao(曹操) pulls out his sword and stabs him in his throat. How pathetic his death is!

Even as Cao Cao(曹操) murders Liu Fu(劉馥) as said above, he laughs and deploys his army and navy in a combat mode.

19. (Cao Cao's(曹操) Deploys His Warriors.) Cao Cao(曹操) commands his warriors to prepare for war.

[Jajinmori] On that day,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charge of Cao Cao's(曹操) navy.

They tied the warships together, ready to move the troops.

Cao Cao(曹操) is high on an observation ship, deploying his army and navy officer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the middle of the navy formation,

Zhang He(張郃) in the front, Wen Pin(文聘) on the left,

Lu Tong(呂通) on the right, and Lu Qian(呂虔) at the back,

Xu Huang(徐晃) in the front of the troops, Le Jin(樂進) on the left,

우사파⁸¹⁰ 하후연⁸¹¹)이며, 수륙응접사⁸¹² 하후돈⁸¹³)이며 조홍⁸¹⁴)이요,
좌우 호위장⁸¹⁵)에 허저,⁸¹⁶ 장요⁸¹⁷)라.

수진에 발방왈,⁸¹⁸ ‘관기청착 이청금고 목시정기

가선여마 건적쟁선 동주공명

종도적주면, 군법부대 관초고동 기거아!’⁸¹⁹)

육진에 분부하되, ‘유유소설하면

적유소시하여 시여청여라.’⁸²⁰)

가증여탈되면 적불급거이니 각대징제하여

불허참전 월후하라!’⁸²¹)

각응성필에⁸²² 전선 풍범으로 연선,⁸²³ 평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아니레] 조조 연습을 관망⁸²⁴)하고 마음이 대희하여,⁸²⁵)

방사원⁸²⁶)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⁸²⁷) · 순욱⁸²⁸)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올진댄⁸²⁹) 어찌 회피하오
리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내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올진댄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
로다.”⁸³⁰)

수륙군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 제,

Xia Jiao Yuan(夏侯淵) on the right. Xia Jiao Dun(夏侯惇) and Cao Hong(曹洪) are communications officers.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protect Cao Cao(曹操) on the left and right.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Follow the orders indicated by flags. Listen to gongs with ears and see flags with eyes.

Ride a ship as if you were riding a horse. If you see enemies, fight and move forward. Live or die together with your ship.

If you just watch an enemy flee, the military law will not condone you! Let each post hit a drum and move forward!' He issues an order to the camps on the land. 'take your time

and prepares for a war calmly little by little.

Gi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lenient to enemies. Act as if you were seeing and hearing.

If enemies do not chase you when you get out of the enemy camp, get your unit ready for a fight.

Don't get involved in the fight. Leave the enemies to the units behind you.

Soldiers take order, tie warships together, and walk on them like on the land.

[Aniri] Cao Cao(曹操) is delighted, watching his soldiers practice.

He boasts of Pang Shi Yuan's(龐士元) strategy of tying ships together.

Cheng Yu(程昱) and Xun Yu(荀彧) ask, "How can fend off their fire attack?"

Cao Cao(曹操) responds, "We are in the north, and they are in the south.

A fire attack will backfire on their camp, so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a victory without fail."

Cao Cao(曹操) prepares the navy and the army for a war.

20. (주유 탄식) 주유가 조조의 진중을 살펴보고 동남풍이 없음을 한탄하니, 공명이 동남풍을 빌겠다고 한다.

[중모레] 그 때여 오나라 주유는 진세⁸³¹⁾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풍이 홀기하여⁸³²⁾ 조채황기⁸³³⁾는 강중에⁸³⁴⁾ 떨어지고, 오진⁸³⁵⁾ 깃발은 주유 면상⁸³⁶⁾ 치고 가니 화공⁸³⁷⁾할 징조로되, 동남풍이 없었으니 육과무계⁸³⁸⁾하여 한 소리 크게 하고 토혈기색⁸³⁹⁾이 가련토다.⁸⁴⁰⁾

[아니레] 도독의 병세⁸⁴¹⁾가 점점 지중⁸⁴²⁾하여 눕고 일자⁸⁴³⁾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⁸⁴⁴⁾ 주유의 병을 볼 제,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⁸⁴⁵⁾을 먹일지라.⁸⁴⁶⁾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질색하여⁸⁴⁷⁾ 아무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십육 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즉 하였으되, ‘육과조병이면 의용화공하고, 만사구비하나 흠은 동남풍이라.’⁸⁴⁸⁾ 주유 보고 탄복하고 물어 왈, “바람은 천지의 조화⁸⁴⁹⁾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⁸⁵⁰⁾

내 할 일 다 한 후에 천의⁸⁵¹⁾야 어찌 아오리까?

오백 장줄⁸⁵²⁾을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⁸⁵³⁾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리다.”

20. (Zhu Yu(朱瑜) Sighs.) Gazing at Cao Cao's(曹操) camp, Zhu Yu(朱瑜) laments over the absence of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says he will pray for a southeast wind.

[Jungmori] Meanwhile, Zhu Yu(朱瑜) of Wu(吳) Country examines military camps.

Suddenly, a strong wind blows. A yellow flag falls down on the river.

A flag in Zhu Yu's(朱瑜) camp hits Zhu Yu's(朱瑜) face and flies away, which is a sign of a fire attack.

Without a southeast wind, he cannot defeat the enemy, so he shouts. He is about to throw up blood, which is pitiful.

[Aniri] His illness gets worse little by little, and he can't get up. Kong Ming(孔明) gets to diagnose Zhu Yu's(朱瑜) illness via Lu Su(魯肅).

He asks the servants to leave. "Give him cool medicine. What is cool is wind."

Struck dumb, Zhu Yu(朱瑜) is silent.

Kong Ming(孔明) gives Zhu Yu(朱瑜) a note of sixteen letters which Zhu Yu(朱瑜) takes.

'Only fire can defeat Cao Cao's(曹操) troops. Everything is ready except a southeast wind.'

Impressed, Zhu Yu(朱瑜) asks, "A wind is created by heaven. How can a human being get it?"

Kong Ming(孔明) answers, "It is up to humans to make a plan. It is up to heaven to make it work.

I will do what I can do. Who knows about heaven's will?

If you give me 500 soldiers, I will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with Lu Su(魯肅) and pray for a southeast wind."

21. (공명 동남풍 기원)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한다.

[자진모래] 주유가 반겨 듣고 오백 장줄을 영솔,⁸⁵⁴⁾

“일백이십 정군⁸⁵⁵⁾은 기 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⁸⁵⁶⁾하라!”

그 때여 공명은 기풍삼일⁸⁵⁷⁾하러 하고 노숙과 병마하여⁸⁵⁸⁾ 남병산 올라가서 지세⁸⁵⁹⁾를 살피더니,

동남방⁸⁶⁰⁾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⁸⁶¹⁾하여 삼층단⁸⁶²⁾을 높이 쌓으니, 방원⁸⁶³⁾은 이십사 장⁸⁶⁴⁾이요, 매 일 층 고⁸⁶⁵⁾ 삼 척, 합하니 구 척이 로구나.

하 일 층⁸⁶⁶⁾ 이십팔수⁸⁶⁷⁾ 각 색 기를 꽂았다.

동방 칠면 청기에는 교룡학호토호표로다, 포창룡지형하여 동방 청기를 세우고,⁸⁶⁸⁾

북방 칠면 흑기에는 해우복서연저유로다, 작현무지세하여 북방 흑기를 세우고,⁸⁶⁹⁾

서방 칠면 백기에는 낭구치계오후원이라, 거백호지세하여 서방 백기를 세우고,⁸⁷⁰⁾

남방 칠면 홍기에는 안양장마녹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⁸⁷¹⁾

제일 층 중루⁸⁷²⁾에는 황신대기⁸⁷³⁾를 세웠으되, 하도낙서 그린 팔괘 육십사괘를 안검,⁸⁷⁴⁾ 팔위⁸⁷⁵⁾를 배립하여⁸⁷⁶⁾ 한가운데 등두렷이 꽂고,

21. (Kong Ming(孔明) Prays for a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climbs Nanping(南屏) Mountain,
makes an altar, and prays for a southeast wind.

[Jajinmori] Pleased to hear, Zhu Yu(朱瑜) leads five hundred soldiers.

“One hundred twenty well-trained troops! Hold flags, protect the altar, and wait for Kong Ming’s(孔明) order!”

Kong Ming(孔明) and Lu Su(魯肅) ride horses and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to pray that a wind blows for three days. They observe the landscape.

Kong Ming(孔明) makes the soldiers build a three-layered altar with red earth from the southeast.

The altar is 72 meters wide, and each story of the altar is 0.9 meters high. Its total height is 2.7m.

There are 28 flags of diverse colors on the first floor.

The seven sides of the blue flag standing on the east like a blue dragon represent a salamander, a dragon, a badger, a fox, a hare, a tiger and a leopard.

The seven sides of the black flag standing on the north like a mythical turtle represent a mythical lion, a cow, a bat, a mouse, a swallow, a pig and a wolf.

The seven sides of the white flag standing on the west like a white tiger represent a wolf, a dog, a pheasant, a chicken, a crow, a monkey and a gibbon.

The seven sides of the red flag standing on the south like a red phoenix represent a wild dog, a sheep, a deer, a horse, a snake and an earthworm.

In the middle of the pavilion, a large flag is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eight directions and the principles of nature.

상 일 층 용사인⁸⁷⁷⁾ 각인을 속발관대하고⁸⁷⁸⁾ 검은 나포⁸⁷⁹⁾ 봉의⁸⁸⁰⁾
 와 박대⁸⁸¹⁾ 주리⁸⁸²⁾ 방군⁸⁸³⁾을 입히고,
 전좌입일인하여⁸⁸⁴⁾ 수집장간하고,⁸⁸⁵⁾
 간침상⁸⁸⁶⁾에 용계우보 이초풍신하고,⁸⁸⁷⁾
 전후입일인⁸⁸⁸⁾ 계칠성호대⁸⁸⁹⁾ 이표풍색⁸⁹⁰⁾하고,
 후좌입일인⁸⁹¹⁾ 봉보검하고,⁸⁹²⁾ 후우입일인⁸⁹³⁾ 봉향로하여,⁸⁹⁴⁾
 “단하예⁸⁹⁵⁾ 이십사인⁸⁹⁶⁾은 각각 정기,⁸⁹⁷⁾ 보검,⁸⁹⁸⁾ 대극,⁸⁹⁹⁾ 장창,⁹⁰⁰⁾
 황모,⁹⁰¹⁾ 백월⁹⁰²⁾과 주변⁹⁰³⁾ 조독⁹⁰⁴⁾을 가져 환요사면하라!”⁹⁰⁵⁾
 차시에⁹⁰⁶⁾ 공명은 목욕재계⁹⁰⁷⁾ 정히⁹⁰⁸⁾ 하고, 전조단발,⁹⁰⁹⁾
 신영백모,⁹¹⁰⁾ 단상에 이르러서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자경.”⁹¹¹⁾
 “예.”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서 공근⁹¹²⁾의 조병합⁹¹³⁾을 도우되,
 만약 내가 비는 바⁹¹⁴⁾ 응함이⁹¹⁵⁾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⁹¹⁶⁾
 약속을 정하여 노숙을 보낸 후에 수다한⁹¹⁷⁾ 장줄⁹¹⁸⁾에게 엄숙히 영을
 하되,
 “불허천리방위하며,⁹¹⁹⁾ 불허실구난언하며,⁹²⁰⁾ 불허교두접이하며,⁹²¹⁾
 불허대경소괴하라!”⁹²²⁾
 만일 위령자⁹²³⁾는 군법으로 참⁹²⁴⁾하리라.”
 그 때에 공명은 완보로⁹²⁵⁾ 단에 올라,

On the top floor, four people tie their hair up, and put on formal hats and belts. They also put on large clothes of black silk, large belts, red shoes, and formal clothes.

On the left front, a man stands and holds up a long pole.

A chicken feather at the end of the pole calls up a wind.

In the front and the back, two men stand and hold up a flag of the Great Bear indicating the presence of the wind.

On the left back, a man stands and holds up a precious sword.

On the right back, a man stand and holds up an incense burner.

“Twenty four soldiers below the altar! Surround the altar, holding flags with feathers, swords, two-branched spears, large spears, yellow flags, white axes, red flags, and black flags.”

Kong Ming(孔明) carefully takes a bath, and then cuts his fingernails and hair.

He decorates himself with white bands, gets on the platform, and grabs Lu Su's(魯肅) hand. “Look, sir.” “Yes.”

“Please go down to the camp and help Zhu Yu(朱瑜) to train his soldiers.

Don't be puzzled even if my prayer does not work.”

After receiving the promise from Lu Su(魯肅) and sending him to the camp, Kong Ming(孔明) issues a grave order to soldiers.

“Don't leave your post. Don't make insensible remarks. Don't whisper to each other. Don't be surprised at a strange thing. Anybody disobeying this order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Kong Ming(孔明) steps up on the platform slowly.

22. (공명 하산) 공명이 빌기를 마친 후 하산하여 조자룡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간다.

[아니리] 분향⁹²⁶ 헌작⁹²⁷ 후에, 하늘을 우러러 독촉⁹²⁸을 하는데,
이 축문⁹²⁹ 조화야 누가 알 리 있겠느냐?

삼일을 제 지내고 하단,⁹³⁰ 장중에 잠깐 쉬어 풍세⁹³¹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

[중모리]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의⁹³²를 거듬거듬⁹³³ 흥당⁹³⁴에다가 딱 붙이고,

장막⁹³⁵ 밖으로 섣뜻⁹³⁶ 통통,⁹³⁷ 남병산을 얼른 넘어 상류를 바라보니,
강촌⁹³⁸은 요락⁹³⁹하고 셋별⁹⁴⁰이 둥실둥실 떠, 지는 달빛 비졌난
데,⁹⁴¹ 오강변⁹⁴²을 당도하니

상산 조자룡⁹⁴³은 배말에⁹⁴⁴ 등대⁹⁴⁵하고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선
생 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 보라. 선미⁹⁴⁶에 바빠 내려 공명전⁹⁴⁷ 절하며,

“선생은 위방진중⁹⁴⁸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룡 손길⁹⁴⁹ 잡고,

“현주⁹⁵⁰ 안녕하옵시며, 제장군졸⁹⁵¹이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⁹⁵² 풍석⁹⁵³을 순풍⁹⁵⁴에 추여 달고,⁹⁵⁵
도용도용⁹⁵⁶ 떠나간다.

22. (Kong Ming(孔明) Climbs Down the Mountain.)
Kong Ming(孔明) climbs down the mountain after
the prayer, and leaves with Zhao Zi Long(趙子龍).

[Aniri] After burning incense and offering wine, Kong Ming(孔明) looks up at the sky and chants a spell.

Who could know about his spell?

After praying for three days, he comes down from the altar. Taking a brief break, he checks for a sign of wind which he gets.

[Jungmori] Kong Ming(孔明) unties his hair and takes his shoes off.

He walks with his formal coat in the middle of his chest.

He goes out of the tent quickly, climbs down Nanping(南屏) Mountain, and watches an upper region of the river.

A river village is visible in a distance. The morning star passes near the setting moon. He arrives at the Wu(吳) River.

Zhao Zi Long(趙子龍), who has been waiting for Kong Ming(孔明) on a boat, sees Kong Ming(孔明).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He gets off from the stern swiftly and bows to Kong Ming(孔明).

“Sir, are you all right in this enemy country?”

Delighted, Kong Ming(孔明) grabs Zhao Zi Long’s(趙子龍) hands.

“How is His Majesty doing? Are the officers and soldiers all right?” “Yes.”

They quickly get on the boat and unfurl a sail high in a favorable wind. Their boat rocks gently as it leaves.

23. (조자룡 탄궁) 주유가 공명을 죽이려고 장군을 보내니, 조자룡이 활을 쏘아 격퇴한다.

[아니레] 그 때여 주유는 일반 문무⁹⁵⁷⁾와 장대상에⁹⁵⁸⁾ 모여 앉아 군병
조발⁹⁵⁹⁾ 예비할 제,⁹⁶⁰⁾

이날 간간근야⁹⁶¹⁾에 천색⁹⁶²⁾은 청명⁹⁶³⁾하고 미풍⁹⁶⁴⁾이 부동커늘,⁹⁶⁵⁾
주유 노숙다려⁹⁶⁶⁾ 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응동⁹⁶⁷⁾ 때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외이다.”⁹⁶⁸⁾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⁹⁶⁹⁾

“공명을 지내보니⁹⁷⁰⁾ 재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⁹⁷¹⁾

[자진모레] 말이 맞지⁹⁷²⁾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⁹⁷³⁾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에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 풍성⁹⁷⁴⁾이 요란커늘,
주유 급히 장대상에 통통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⁹⁷⁵⁾ 주작⁹⁷⁶⁾ 양 기각⁹⁷⁷⁾이 백호⁹⁷⁸⁾ 현무⁹⁷⁹⁾를 응하여 서북으로
펼 펼.

삼시간에 동남대풍이⁹⁸⁰⁾ 불어 기각⁹⁸¹⁾이 와지끈, 움죽,⁹⁸²⁾ 깃폭판⁹⁸³⁾
도 떼그르르르르 천둥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담⁹⁸⁴⁾이 떨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탈조
화⁹⁸⁵⁾는 귀신도 난측이라.”⁹⁸⁶⁾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오의 화근이매,⁹⁸⁷⁾ 죽여 후환⁹⁸⁸⁾을 면하리라.”

23. (Zhao Zi Long(趙子龍) Shoots an Arrow.) Zhu Yu (朱瑜) sends officers to kill Kong Ming(孔明). Zhao Zi Long(趙子龍) repels them by shooting an arrow.

[Aniri] Meanwhile, Zhu Yu(朱瑜) holds a meeting with his officers and civilians in a tent to prepare for war.

The sky gets clear occasionally at night. Even a breeze does not blow. Zhu Yu(朱瑜) speaks to Lu Su(魯肅),

“Kong Ming(孔明) fooled me. How can a southeast wind blow in winter?”

Lu Su(魯肅) responds, “I think he is not the kind of person to deceive us.” “What makes you sure he doesn’t deceive us?”

“I spent some time with him recently. I realized he is a talented hero and virtuous man.

How could a heroic and virtuous man deceive others on such an important matter? Let’s wait some more.”

[Jajinmori] Before Lu Su(魯肅) finishes, a wind starts to blow deep in the night.

All of a sudden, the wind blows hard, creating loud sounds. Zhou Yu(周瑜) runs down to a commanding post and looks at flags.

Facing the flag of a white tiger and the flag of a turtle, the flag of a blue dragon and the flag of a red phoenix flap to the northwest.

All of a sudden, a southeast wind blows, breaking down poles and making sounds as loud as thunders.

Zhou Yu(周瑜) is horrified to observe the scene. “Even a god can’t fathom what Kong Ming(孔明) can do.

If I leave him alone, he will be a threat to Wu(吳) Country. I’ll eliminate future trouble by killing him.”

서성,⁹⁸⁹⁾ 정봉⁹⁹⁰⁾을 불러 은근히⁹⁹¹⁾ 분부하되,
 “너희 수륙으로 나누고 남병산을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⁹⁹²⁾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싹,⁹⁹³⁾ 미명⁹⁹⁴⁾에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재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만일 오래 두어서는 장차에 유환⁹⁹⁵⁾이니 명심불
 망⁹⁹⁶⁾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⁹⁹⁷⁾
 남병산 높은 봉을 나는 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곳 없고, 집기장사⁹⁹⁸⁾는 당풍랍⁹⁹⁹⁾하여
 끈 떨어진 차일¹⁰⁰⁰⁾ 장막¹⁰⁰¹⁾ 동남대풍에 펄렁펄렁.
 기 잡은 군사들은 여기저기 가 이만하고¹⁰⁰²⁾ 서 있거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되, “바람을 얻은 후 머리 풀고, 발 벗고, 이 너머로
 가더이다.”
 두 장수 분을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재차산중이여든 종천강하며
 종지출할까?¹⁰⁰³⁾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하¹⁰⁰⁴⁾로 쫓아가니, 만경창파¹⁰⁰⁵⁾ 너른¹⁰⁰⁶⁾ 바다 물결은 흉용한
 데,¹⁰⁰⁷⁾
 공명의 내거종적¹⁰⁰⁸⁾ 무거치이어늘,¹⁰⁰⁹⁾
 수줄¹⁰¹⁰⁾을 불러, “이놈, 수줄아.”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소줄등¹⁰¹¹⁾은 공명은 모르오나, 작일¹⁰¹²⁾ 일모시¹⁰¹³⁾ 강
 안¹⁰¹⁴⁾에 매인 배, 양양강수¹⁰¹⁵⁾ 맑은 물에 고기 낚는 어선배,

After calling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Zhou Yu(周瑜) gives them a secret order.

“Go to Nanping(南屏) Mountain, using both the land and the river. If you come across Kong Ming(孔明), don’t argue with him. Just grab his topknot, cut his head off, and come back before the sun rises.

After observing him, I realized he is a talented hero and saint. I hate to kill him, but if I don’t, he will be a threat to our country. Keep in mind!”

Xu Sheng(徐盛) gets on a boat, and Ding Feng(丁奉) gets on a horse.

They climb up fast to the top of Nanping(南屏) Mountain and look around.

Kong Ming(孔明) has gone. A man holds a flag and faces the wind.

Sunblinds whose stings are broken and tents flutter in the southeast wind.

Soldiers holding flags stand vacantly here and there.

“Hey soldier!” “Yes!”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The soldier answers, “After he got the wind, he loosened his hair and went over there with his feet bare.”

The two officers are excited. “That’s it. He must be on this mountain. He can neither rise up to the sky nor fall down into the ground. Where can he flee?”

They go down the mountain. Strong water waves run around in the wide blue sea.

They can’t see even a trace of Kong Ming(孔明).

They ask sailors. “Hey sailors!” “Yes.”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We don’t know about Kong Ming(孔明), but I saw what appeared to be a fishing boat on the bank of the river at sunset yesterday.

십리장강벽파상¹⁰¹⁶) 왕래하던 거룻배,¹⁰¹⁷) 동강의 칠리탄¹⁰¹⁸) 업자
룽¹⁰¹⁹)의 낚싯배,

오호상연월 속에 범상공 가는 밴지¹⁰²⁰) 만단¹⁰²¹) 의심을 하였더니,
뜻밖에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분주¹⁰²²) 내려와 선미¹⁰²³)
에 다다르매,¹⁰²⁴)

그 배 안에서 일원대장¹⁰²⁵)이 우뚝 나서는데,

한 번 보매¹⁰²⁶)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통통 내려, 질하며
읍을 치고,¹⁰²⁷)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쭉긋쭉
긋¹⁰²⁸)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어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¹⁰²⁹)

날랜 배를 잡어 타고, “이놈, 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
탄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내 장창¹⁰³⁰)으로 네 목을 땡기룽¹⁰³¹) 베어 이
물에 풍덩 드리치면,¹⁰³²)

네 백골¹⁰³³)을 뉘 찾으리?” 사공들이 황겁¹⁰³⁴)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강¹⁰³⁵)의 고기밥이
되겠구나.

열두 친구야, 키파리¹⁰³⁶) 잡아라. 위겨라¹⁰³⁷) 저어라 저어라 위겨라
여기야뒤야 여기야, 여기야뒤여 어어어허 어어이허기야, 영 여기야
영 여기야.”

은은히¹⁰³⁸) 떠 들어갈 제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 여울¹⁰³⁹) 뚝배 배 흰 부채 뒤적뒤적¹⁰⁴⁰) 공명일시가¹⁰⁴¹) 분명
쿠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게¹⁰⁴²) 머물러
나의 한 말 듣고 가요!”

It might have been a traveling boat on the Yangzi(揚子) River.
It might have been Yan Zi Ling's(嚴子陵) fishing boat.
We thought it might have been Fan Li's(范蠡) leisure boat
floating on lakes in the foggy moonlight.
Unexpectedly, a man came down from the mountain with untied
hair and bare feet and arrived at the boat.
There was an officer standing high on the boat.
A majestic general got off the boat from the stern and bowed
to the other man.
They whispered to each other, nodded to each other, and
moved their mouths.
They got on the boat and went to the upper stream." "Yes! He
must have been Kong Ming(孔明)."
They got on a fast boat. "Hey boatmen!" "Yes." "Pull the oars
fast and catch up with Kong Ming's(孔明) boat.
If you don't, I'll cut your heads off with this long spear and
throw them into this river.
Nobody will ever find your bones!" The boatmen are scared.
"Hello, my fellow boatmen! We might become food for fish in
the Wu(吳) River.
My twelve friends, hold the rudder firmly. Row the oar fast!
Yo-ho! Yo-heave-ho! Yo-ho! Yo-heave-ho!"
They row the boat strongly and watch the upper stream.
A boat floats on a rapids of the Wu(吳) River. The man fanning
himself leisurely on the boat must be Kong Ming(孔明).
Xu Sheng(徐盛) shouts, "Hi, Kong Ming(孔明) over there! Stay
where you are! I need to talk with you!"

공명이 허허허 대소하며,¹⁰⁴³⁾ “너의 도둑¹⁰⁴⁴⁾ 살해 마음 내 이미 아는
지라, 후일 보자고 회보하라!”¹⁰⁴⁵⁾

서성·정봉 못 듣는 체 빨리 저어서 쫓아오며,

“긴히¹⁰⁴⁶⁾ 할 말이 있사오니 게 잠깐 머무소서!”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¹⁰⁴⁷⁾한 놈들을 목전¹⁰⁴⁸⁾에
다가 두오니까?¹⁰⁴⁹⁾

소장의 화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¹⁰⁵⁰⁾를 산적¹⁰⁵¹⁾ 꿔뚫 하오리다.”

공명이 만류하되, “아니, 그는 양국 화친¹⁰⁵²⁾을 생각해서 죽이든 말으
시고 놀래켜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미¹⁰⁵³⁾에 우뚝 나서,

“이놈, 서성, 정봉아! 상산 조자룡을 이는다,¹⁰⁵⁴⁾ 모르는다?¹⁰⁵⁵⁾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의 나라 들어가서 유공¹⁰⁵⁶⁾이 많았거든, 은혜
는 생각지 않고 이놈들, 해코자¹⁰⁵⁷⁾ 따라오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대사를 생각하여 죽이든 앓거니와 나의
수단¹⁰⁵⁸⁾이나 네 보아라.”

가는 배 머무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백 보¹⁰⁵⁹⁾ 안에 가 드듯마
듯,¹⁰⁶⁰⁾

장궁¹⁰⁶¹⁾ 철전¹⁰⁶²⁾을 먹여,¹⁰⁶³⁾ 비정비팔¹⁰⁶⁴⁾하고 흥허복실¹⁰⁶⁵⁾하여,
대투¹⁰⁶⁶⁾를 숙이고, 호무뻘¹⁰⁶⁷⁾ 거들며,¹⁰⁶⁸⁾ 주먹이 터지게 줌통¹⁰⁶⁹⁾
을 짹 쥐고, 하삼지¹⁰⁷⁰⁾에 힘을 올려 궁현¹⁰⁷¹⁾을 따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

귀밑 아씨,¹⁰⁷²⁾ 정기일발¹⁰⁷³⁾ 깎지손¹⁰⁷⁴⁾을 딱 떼니,¹⁰⁷⁵⁾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¹⁰⁷⁶⁾ 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 탄 배 덜컹,¹⁰⁷⁷⁾ 돛대 와지끈¹⁰⁷⁸⁾ 물에 가 풍! 오던 배 가로
쳐¹⁰⁷⁹⁾ 물결이 뒤채어,¹⁰⁸⁰⁾

Kong Ming(孔明) bursts into laughter. "I already know your boss wants to kill me. Tell him I'll see him later."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row fast, pretending they did not hear him.

"I have an important thing to say. Stay there for a moment!"

Zhao Zi Long(趙子龍) is exasperated. "Sir, why do you just watch those unruly villains run around in front of your eyes? My arrow can pierce through their bellies."

Kong Ming(孔明) stops him. "No, we have to keep the friendly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on't kill them. Just scare them away."

Suppressing his anger, Zhao Zi Long(趙子龍) stands on the stern.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you villains! Don't you know about Zhao Zi Long(趙子龍)?"

Kong Ming(孔明) did a favor to your country, but you are chasing us to hurt him without thinking about returning his favor.

I ought to kill you all, but I won't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Just enjoy watching my skill."

Zhao Zi Long(趙子龍) stops his boat and gazes at the coming boat which falls within the range of a hundred steps.

He loads a large bow with an iron arrow, spreads his legs, breathes out, and contracts his belly muscles.

He turns his head down to support his shoulder, firmly holds the center of the bow with his fist, and puts strength on his lower three fingers, and moves the string.

He pulls the arrow up to his ear and releases his thumb. The arrow flies over the river at lightning speed, generating sounds. It hits Xu Sheng's(徐盛) boat, and the mast breaks down into the water. The coming boat moves backward, creating water waves from behind.

소슬광풍¹⁰⁸¹)에 뱃머리 빙 빙빙빙빙 워리렁 출렁¹⁰⁸²) 뒤둥그러
져¹⁰⁸³) 본국으로 떠나간다.

[중모레] 자룽의 거동 보아라.

의기¹⁰⁸⁴) 등등하여¹⁰⁸⁵) 활 든 팔 내리고, 깍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
성¹⁰⁸⁶)으로 호령¹⁰⁸⁷)하되,

“이놈들, 당양¹⁰⁸⁸) 장관교 싸움에 아두¹⁰⁸⁹)를 품에 품고, 필마단
창¹⁰⁹⁰)으로 위국적병¹⁰⁹¹) 십만 대군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룽
이란 명망¹⁰⁹²)도 못 들었는다?¹⁰⁹³)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¹⁰⁹⁴) 너희를 산적죽음¹⁰⁹⁵)
을 못 시키는구나.

어! 분한지고! 사공아!” “예.” “뚝 달고 노 저어라.” 순풍에 돛을 달고
도용도용¹⁰⁹⁶) 떠나간다.

24.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주유는 적벽강 불지를 차비를 하고, 공명은 여러 장수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아니리] 서성·정봉 겁주하여¹⁰⁹⁷) 돌아와 이 사연을 회보하니,¹⁰⁹⁸)
주유 듣고 하릴없이, ‘그러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도하자’¹⁰⁹⁹)
약속을 다시 하고, 수륙군 분발¹¹⁰⁰)할 적에,

[중모레] “감녕¹¹⁰¹)은 채중 항줄¹¹⁰²) 거느리고 조조 진중 들어가서 거
화위호하라!¹¹⁰³)

전영의¹¹⁰⁴) 태사자¹¹⁰⁵)는 각술삼천하여¹¹⁰⁶) 각처에¹¹⁰⁷) 매복¹¹⁰⁸)
하고,

A gust of strong wind hits the bow. The boat turns around, moving left and right by water waves, and goes back to their country.

[Jungmori]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Triumphant, he moves down his hands holding the bow, puts them on his waist, and shouts loudly.

“You rats! Haven’t you heard of Zhao Zi Long(趙子龍) who kept A Dou(阿斗) on his chest and slashed to deaths 100,000 soldiers of Wei(魏) Country alone?

I want to kill you, but I can’t because Kong Ming(孔明) stops me.

I am angry! Boatman!” “Yes.” “Pull up the mast and row the boat.” Their boat rocks gently, as it leaves with a favorable wind.

24.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Prepare for War.) Zhu Yu(朱瑜) prepares to set fire to the Chibi(赤壁) River. Kong Ming(孔明) assigns missions to his officers.

[Aniri] Petrified,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return to their camp and report what happened to Zhu Yu(朱瑜).

Zhu Yu(朱瑜) thinks, “Let’s get rid of Cao Cao(曹操) and then Liu Bei(劉備).”

He makes a promise to himself and gets the navy and the army to move.

[Jungmori] “Gan Ning(甘寧)! You lead Cai Zhong’s(蔡中) prisoners of war into Cao Cao’s(曹操) camp and send a signal with a torch. Tai Shi Ci(太史慈) in the front line! Lead three thousand soldiers and stay in ambush everywhere.

영병¹¹⁰⁹ 군관¹¹¹⁰ 제일대¹¹¹¹ 한당,¹¹¹² 제이대¹¹¹³ 주태,¹¹¹⁴
 제삼대¹¹¹⁵ 장흠,¹¹¹⁶ 제사대¹¹¹⁷ 진무¹¹¹⁸ 등은 삼백 전선¹¹¹⁹ 일
 자¹¹²⁰로 파열¹¹²¹하여,
 상부도독¹¹²² 주유, 정보,¹¹²³ 서성, 정봉, 선봉대장¹¹²⁴ 황개¹¹²⁵라.”
 주유 군중에 호령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승화연여운하고 일제 응진
 하며,
 봉총 휴봉하여 산봉여장도라고 하였으니,¹¹²⁶
 황개 화선¹¹²⁷ 거화¹¹²⁸ 보아 황혼시¹¹²⁹ 호령출¹¹³⁰을 각선에¹¹³¹
 청후하라!¹¹³² 기거아!”¹¹³³
 차시에 한나라 공명 선생 일엽편주¹¹³⁴ 빨리 저어 본국으로 돌아오
 니, 일등명장¹¹³⁵이 벌였는데,
 거기장군¹¹³⁶ 장익덕¹¹³⁷과 진군장군¹¹³⁸ 조자룡 군례¹¹³⁹로 꾸벅꾸
 벅 현신¹¹⁴⁰하니,
 공명 또한 군중에¹¹⁴¹ 답배¹¹⁴²하고 현주께 뵈은 후에,
 장대상에¹¹⁴³ 가 높이 앉아 방포성¹¹⁴⁴의 금고¹¹⁴⁵를 쿵쿵 울리며,
 장졸을 차례로 분발한다.
 “병과장소하니 필용과선이다.”¹¹⁴⁶
 진군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¹¹⁴⁷ 거느리고 오림¹¹⁴⁸ 갈
 대숲에 둔병매복¹¹⁴⁹을 하였다가,
 조병¹¹⁵⁰이 지나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¹¹⁵¹ 지내거든 불 놓아 엄
 습¹¹⁵²하여 사로잡으라. 기거아!”
 거기장군 장익덕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거느리고 오림산등후¹¹⁵³
 호로곡¹¹⁵⁴에 둔병매복을 하였으면,

Han Dang(韓當)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first unit and Zhou Tai(周泰) the second unit.

Jiang Qin(蔣欽)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third unit and Chen Wu(陳武) the fourth unit. Three hundred of their warships stand in a row.

Zhu Yu(朱瑜), Cheng Pu(程普),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are high commanding officers. Huang Gai(黃蓋) is the officer at the vanguard.”

Zhu Yu(朱瑜) gives an order to the multitude. “A military strategy holds that we should move when fire and smoke rise up like a cloud,

and attack the enemy with rifles and axes as if you break a mountain into pieces.

Huang Gai(黃蓋) in the fire ship! When you see the torch at dusk, send an order to each ship! Go!”

Meanwhile, Kong Ming(孔明) moves his sailing boat fast, returning to his country. Top warriors stand in line.

Zhang Fei(張飛) and Zhao Zi Long(趙子龍) salute to Kong Ming(孔明). Kong Ming(孔明) returns the salutes to the crowds and reports to Liu Bei(劉備).

Stepping up high to the commanding post, he hits a gong hard and assigns a mission to each officer and soldier.

“We have shortage of soldiers and officers, so we have to be at the battlefield first.”

He speaks to Zhao Zi Long(趙子龍). “Lead 3,000 soldiers to Wulin(烏林) Forest and stay in ambush in a reed forest.

If Cao Cao’s(曹操) troops pass by, don’t attack them too early. When the first unit is gone, attack them with fire suddenly. Catch them alive. Go!”

He speaks to Zhang Fei(張飛). “You also lead 3,000 soldiers, go over the ridge of the mountain on Wulin(烏林) Forest, and hide in ambush in Hulu(葫蘆) Valley.

명일 오시¹¹⁵⁵)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밥 먹이느라고
연기 날 것이니,
불 놓아 엄살하여 사로잡으라. 기거아.”
미방,¹¹⁵⁶ 미축,¹¹⁵⁷ 유봉¹¹⁵⁸)을 불러들여,
“너희는 각각 모두 전선 타고 강상에 가 멀리 뗏다, 왜군 기계¹¹⁵⁹)를
앗아오너라.”

25. (관운장 항의) 관운장이 자신에게는 아무 임무도 맡기 지 않자 화를 내며 그 이유를 묻는다.

[아니래] 이렇듯이 약속하여 분발¹¹⁶⁰)할 제,
[엇모래]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이는 뉘고¹¹⁶¹) 하니
한수정후¹¹⁶²) 관공¹¹⁶³)이라.
봉의 눈 부릅뜨고, 삼각수¹¹⁶⁴) 거사려,¹¹⁶⁵
청룡도¹¹⁶⁶) 빗겨¹¹⁶⁷) 들고 엄연히¹¹⁶⁸) 들어와, 큰 소리로 여짜오되,
“형장¹¹⁶⁹) 모아¹¹⁷⁰) 전장마다 낙오¹¹⁷¹)한 일이 없삽더니,¹¹⁷²
오늘날 대전시에¹¹⁷³) 찾는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¹¹⁷⁴) 일이니까?”¹¹⁷⁵)

26. (관운장 행군) 관운장은 조조를 반드시 잡아오겠다고 다짐하고, 군대를 인솔하여 화용도로 출발한다.

[아니래] 공명이 허허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¹¹⁷⁶) 화용
도¹¹⁷⁷)로 보내려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¹¹⁷⁸)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Cao Cao's(曹操) troops will make smoke to cook there, as they pass by through the rain around noon tomorrow.

Attack them with fire swiftly and catch them alive. Go!"

He speaks to Mi Fang(糜芳), Mi Zhu(糜竺), and Liu Feng(劉封).

"You stay on warships on a river away from here and deprive the defeated soldiers of their weapons."

25. (Guan Yu(關羽) Complains.) As no mission is assigned to Guan Yu(關羽), he gets angry and asks why.

[Aniri] Kong Ming(孔明) goes into the combat mode, as said above.

[Eonmori] A general comes in. A warrior comes in. He is none other than Guan Yu(關羽).

His eyes are glaring. His whiskers and beard look like a triangle whose end goes up.

Holding his long Blue Dragon Sword obliquely, he comes in gravely. He speaks loudly.

"I helped my brother in every battle, and we won.

But today I am not assigned any mission. What is going on?"

26. (Guan Yu(關羽) Moves.) Guan Yu(關羽) pledges to catch Cao Cao(曹操) without fail and marches forward to Huarong(華容) Road.

[Aniri] Kong Ming(孔明) laughs and answers, "I wanted to send you to the most important place, Huarong(華容) Road.

Cao Cao(曹操) did you a significant favor the other day.

장군께서는 조조를 잡고도 놓을 듯하여¹¹⁷⁹⁾ 정치¹¹⁸⁰⁾ 아니하오.”
 관공이 이 말을 듣고 정색하여¹¹⁸¹⁾ 칼을 쥔고 꿰고 왈,¹¹⁸²⁾
 “군중은 무사정이온데¹¹⁸³⁾ 어찌 사¹¹⁸⁴⁾를 두오리까?”
 만일 조조를 잡고도 놓으면¹¹⁸⁵⁾ 의율당참하올 차로¹¹⁸⁶⁾ 군령장¹¹⁸⁷⁾
 을 올리거늘,
 공명이 허락하여 관공을 화용도로 보낼 적에,
 “장군은 제일 요긴한 화용도를 가지거든,
 화용도 소로¹¹⁸⁸⁾ 높은 봉에¹¹⁸⁹⁾ 불 놓아¹¹⁹⁰⁾ 연기 내고, 조조를 유인
 하여 묻지 말고 잡아오시오.”
 관공이 다시 끓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둘이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 오면 그는¹¹⁹¹⁾ 어찌 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그리 아오.” 맞군령장¹¹⁹²⁾에 두 착
 함¹¹⁹³⁾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화하사¹¹⁹⁴⁾ 관평,¹¹⁹⁵⁾ 주창¹¹⁹⁶⁾ 거느리고, 오교도수¹¹⁹⁷⁾ 앞
 세워 원앙대로¹¹⁹⁸⁾ 배립¹¹⁹⁹⁾하여 화용도로 행군할 제,
 청도기¹²⁰⁰⁾를 벌였는데, 행군¹²⁰¹⁾ 절차가 꼭 요렇게 생겼던가 보더라.
[자진모레] 청도기를 벌였는데, 청도¹²⁰²⁾ 한 쌍, 홍문¹²⁰³⁾ 한 쌍,
 청룡,¹²⁰⁴⁾ 동남각,¹²⁰⁵⁾ 동북각,¹²⁰⁶⁾ 청고초,¹²⁰⁷⁾ 청문¹²⁰⁸⁾ 한 쌍,
 주작¹²⁰⁹⁾ 남동각,¹²¹⁰⁾ 남서각,¹²¹¹⁾ 홍고초,¹²¹²⁾
 홍문¹²¹³⁾ 한 쌍, 백호,¹²¹⁴⁾ 서북각,¹²¹⁵⁾

I didn't assign any mission to you because I thought you would release him free."

Guan Yu(關羽) straightens his face, holds his sword, and kneels down on the ground.

"I am a warrior. How can I act on a personal feeling?"

Guan Yu(關羽) makes a written pledge that his head will be cut off, if he set Cao Cao(曹操) free after catching him.

Kong Ming(孔明) permits Guan Yu(關羽) to leave for Huarong(華容) Road.

"General, please go to the most important place, Huarong(華容) Road.

Please make a fire and a smoke on the high mountain above a small road. Lure Cao Cao(曹操) there and bring him here without hesitation."

Guan Yu(關羽) kneels down and speaks again. "There are two roads. What if Cao Cao(曹操) does not come to the narrow road?"

"Good. I will also make a written pledge that he will go to the narrow road." The two signatures on the two pledges are clear. Delighted, Guan Yu(關羽) marches to Huarong(華容) Road along with Guan Ping(關平), Zhou Cang(周倉), and five soldiers carrying swords.

They carry march flags, and the march procedure looks like below.

[Jajinmori] They carry flags: a pair of cheongdos(清道), a pair of hongmuns(紅門),

cheongryong(青龍), dongnamgak(東南角), dongbuggak(東北角), cheonggocho(青縞綃), a pair of cheongmuns(清門),

jujak(朱雀), dongnam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gocho(紅縞綃),

a pair of hongmuns(紅門), baeko(白虎), seobuggak(西北角),

서남각,¹²¹⁶ 백고초,¹²¹⁷ 백문¹²¹⁸) 한 쌍, 현무,¹²¹⁹ 북동각,¹²²⁰
북서각,¹²²¹ 흑고초,¹²²² 흑문¹²²³) 한 쌍, 황신,¹²²⁴
표미,¹²²⁵ 금고¹²²⁶) 한 쌍, 나¹²²⁷) 한 쌍, 쟁¹²²⁸) 한 쌍,
바라¹²²⁹) 한 쌍, 영기¹²³⁰) 두 쌍, 고¹²³¹) 두 쌍, 세악¹²³²) 두 쌍, 중사
명,¹²³³)
좌관이 우영전¹²³⁴) 집사¹²³⁵) 한 쌍, 군뢰직열¹²³⁶)이 두 쌍,
난후,¹²³⁷ 친병,¹²³⁸ 교사¹²³⁹) 당보¹²⁴⁰) 각 두 쌍으로 좌르르르르 늘
어서서 좌마¹²⁴¹) 독¹²⁴²)으로 가는 거동,
기색¹²⁴³)은 영웅이요, 검광¹²⁴⁴)은 여상이라.¹²⁴⁵)
위엄이 늠름하고, 살기¹²⁴⁶)가 등등¹²⁴⁷)하니, 이런 대군 행차¹²⁴⁸)가
세상에서는 드문지라.

**27. (조조 장담) 정욱이 동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방비를
하자고 하나, 조조는 무시한다. 이 때 황개가 화선을
이끌고 적벽강으로 들어온다.**

[아니리] 현덕이 공명을 치사¹²⁴⁹)하고,
주유 용병¹²⁵⁰) 간심차로¹²⁵¹) 번구¹²⁵²)로 내려가니, 동남풍이 짐기로
구나.¹²⁵³)
[중모레] 그 때여 적벽강 조조는 장대상에 가¹²⁵⁴) 높이 앉아 장검¹²⁵⁵)
을 어루만지며,

seonamgak(西南角), baeggocho(白縞綃), a pair of baengmuns(白門), hyeonmu(玄武), bukdonggak(北東角), bukseogak(北西角), heuggocho(黑縞綃), a pair of heungmuns(黑門), hwangsin(黃神), pyomi(豹尾), and a pair of geumgos(金鼓). Soldiers carry a pair of trumpets, a pair of flutes, a pair of cymbals, two pairs of yeonggies(令旗), two pairs of drums, two pairs of other musical instruments, and a commander's flag.

There are two pairs of soldiers in charge of arrows, officers, and prison guards.

Guards in the back and around the commander, training officers, and scouts are on horses in pairs.

Guan Yu(關羽) looks like a hero, and his sword shines awesomely.

He has an imposing and murderous look. Such a large march is rare in the world.

27. (Cao Cao's(曹操) Confidence) Noticing a southeast wind, Cheng Yu(程昱) asks Cao Cao(曹操) to take an action, which Cao Cao(曹操) rejects. Huang Gai(黃蓋) comes to the Chibi(赤壁) River with a fire ship.

[Aniri] Liu Bei(劉備) praises Kong Ming(孔明).

Zhu Yu(朱瑜) goes to Fankou(樊口) to check his soldiers. A southeast wind blows little by little.

[Jungmori] Meanwhile, Cao Cao(曹操) sits high on the commanding post on the Chibi(赤壁) River, holding a long sword.

“이봐 장졸, 들어서라!¹²⁵⁶ 이내 장창으로 황건¹²⁵⁷ 동탁¹²⁵⁸을 베고,
여포¹²⁵⁹ 사로잡아 사해¹²⁶⁰를 평정¹²⁶¹하니,
그 아니 천운¹²⁶²이냐? 하늘이 날 위하여 도움이 분명하니, 어찌 아니
가 좋을쏘냐?”

정욱이 여짜오되, “분분한¹²⁶³ 흉동¹²⁶⁴ 때에 동남풍이 괴이하니 미
리 예망을 하사이다.”¹²⁶⁵

[아니레] 조조 허허 웃고 대답하되, “동지에 일양이 시생하니¹²⁶⁶ 기
유동남풍가?”¹²⁶⁷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개¹²⁶⁸ 약속을 기다릴 제,
[중머레] 그 때여 오나라 황개는 이십 화선¹²⁶⁹ 거느리고, 청룡아
기¹²⁷⁰ 선기상에,¹²⁷¹ ‘선봉대장¹²⁷²에 황개라’ 두렛이¹²⁷³ 꽃고,
청포장¹²⁷⁴을 둘러치고, 삼승돛¹²⁷⁵ 높이 달아
오강¹²⁷⁶ 여울¹²⁷⁷ 바람을 맞추어 지국충¹²⁷⁸ 소리하며 조조 진중
바라보고 은은히¹²⁷⁹ 떠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대희¹²⁸⁰하여 장졸다려¹²⁸¹ 이른 말이, “정욱아, 네 보아
라. 정욱아, 정욱아, 네 보이라.
황공복¹²⁸²이 나를 위하여 양초¹²⁸³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욱아,
정욱아. 네 보이라. 허허 흐흐.” 대소¹²⁸⁴하니,

28-A. (화공)(송순섭) 황개의 군사들이 조조의 진영을 불로 공격하자 조조는 패하여 도망한다.

[아니레]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¹²⁸⁵ 실은 배량이면¹²⁸⁶ 선중이¹²⁸⁷
온중할데,¹²⁸⁸

“Look, officers and soldiers! I killed Yellow-Hooded Robbers and Dong Zhuo(董卓), and captured Lu Bao(呂包) alive with this long spear, bringing peace to the world.
Isn't that fortunate? Heaven must be helping me. How can I feel bad?”

Cheng Yu(程昱) replies, “It is strange that a southeast wind blows in this cold winter. Let's be ready for it.”

[Aniri] Cao Cao(曹操) laughs and replies, “The day gets longer gradually after the winter solstice. How can there be a southeast wind?”

After telling him not to be suspicious, Cao Cao(曹操) waits for Huang Gai(黃蓋) to appear as promised.

[Jungmori] Just then, Huang Gai's(黃蓋) of Wu(吳) Country leads twenty fire ships, carrying a blue dragon flag which clearly reads: ‘Huang Gai(黃蓋), the vanguard officer.’

His ship is covered with a blue cloth, and the sail of hemp cloth is spread high.

Huang Gai(黃蓋) moves, making oaring sounds, to Cao Cao's(曹操) area with the help of the flow of the Wu(吳) River and the wind.

Exuberant, Cao Cao(曹操) speaks to his officers and soldiers. “Cheng Yu(程昱), look at that.

Huang Gai(黃蓋) is coming to me with a lot of food for men and horses. Look at that. Hahaha.” He laughs loudly.

28-A. (Fire Attack) (Song Sun-seob) Huang Gai's(黃蓋) soldiers set Cao Cao's(曹操) ships on fire. Defeated, Cao Cao(曹操) flees.

[Aniri] Cheng Yu(程昱) asks, “If the ships are loaded with the military food, they must be heavy.

등덩실 높이 떠 요요¹²⁸⁹)하고 범류¹²⁹⁰)하니 만일 간계¹²⁹¹) 있을진
댄¹²⁹²)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이 말에 의심 내어,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병¹²⁹³)
불러 방색¹²⁹⁴)하라.”

문병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뱃나?¹²⁹⁵) 우리 승상님 영¹²⁹⁶)
전에는 진 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자진모래] 이 말이 지듯마듯,¹²⁹⁷) 뜻밖에 살 한 개가 피르르르. 문병
맞어 떨어지니,

황개 화선 이십 척 거화포¹²⁹⁸) 신기전¹²⁹⁹)과 때때때 나팔소리,
두리둥둥 뇌고¹³⁰⁰) 치며 좌우 각선¹³⁰¹) 부대가 동남풍에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조조 백만 군병에다가 한 번을 불이 버쩍,¹³⁰²) 천지가 떠그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버쩍 우주가 바뀌난 듯,¹³⁰³)

세 번을 불로 치니 화염¹³⁰⁴)이 충천,¹³⁰⁵)

풍성이 우루르르, 물결은 출렁, 전선 뒤뚱,¹³⁰⁶) 돛대 와지끈,¹³⁰⁷)

용충,¹³⁰⁸) 활대,¹³⁰⁹) 노사육대,¹³¹⁰) 비우,¹³¹¹) 삼판나리,¹³¹²) 죽
판,¹³¹³)

행장,¹³¹⁴) 명에,¹³¹⁵) 각 포대¹³¹⁶)가 물에 가 풍. 기치¹³¹⁷) 펄펄, 장
막¹³¹⁸) 쪽쪽.¹³¹⁹)

화전,¹³²⁰) 궁전,¹³²¹) 방패, 창과 깨어진 통노구,¹³²²)

거말장,¹³²³) 마름쇠,¹³²⁴) 나발,¹³²⁵) 큰 북, 쟁, 팽과리 웅그렁챙그렁
와그르르 철철 산산이¹³²⁶) 깨어져서,

풍과강상¹³²⁷)에 화광¹³²⁸)이 훔훔.

수만 전선이 간 데 없고 적벽강이 뒤끓을 제,¹³²⁹) 불빛이 난리가 아
니냐?

But they float high on the water and move easily along with the waves. What if a wicked plan is involved with the ships?" Cao Cao(曹操) is persuaded. "Yes! You are right. Have Wen Pin(文聘) deter them."

Wen Pin(文聘) steps forward. "Hey the ship over there! Identify yourself! You can't come into our area without the premier's permission!"

[Jajinmori] No sooner Wen Pin(文聘) finishes than an arrow suddenly flies into him and he falls down.

Huang Gai's(黃蓋) twenty fire ships shoot arrow rockets and blow trumpets.

Hitting drums, Huang Gai's(黃蓋) soldiers charge with the help of the southeast wind, carrying fire.

They set ablaze to Cao Cao's(曹操) one million troops. The world seems to collapse.

With the second fire attack, the universe seems to change.

With the third fire attack, flames rise up to the sky.

A wind blows, and waves run around. Warships shake, and masts break down.

What drops into the water are ropes for sails, pieces of wood supporting sails, long oars, small boats, boards, tools, pieces of wood supporting ships, and casemates. Flags flutter, and tents tear off.

What gets broken into pieces are tents, fire arrows, arrows, bows, shields, spears, broken brass pots, pieces of wood, pieces of sharp iron, trumpets, large drums, gongs, and musical instruments.

Flames move around on the waves of the windy river.

Thousands of warships are destroyed, the Chibi(赤壁) River is boiled, and flames engulf the river.

가련할손¹³³⁰ 백만 군병은 날도, 뛰도, 오도가도 오무락¹³³¹ 꼼짝달
 짝 못히고,
 숨 맥히고 기맥히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찢려,
 앓어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맞어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¹³³² 덜컥 살에 맞어 물에 가 풍 빠져 죽고,
 바사져¹³³³ 죽고, 찢어져 죽고, 가이없이¹³³⁴ 죽고, 어이없이 죽고,
 무섭게 눈 빠져, 서¹³³⁵ 빠져, 등 터져,
 오사,¹³³⁶ 급사,¹³³⁷ 악사,¹³³⁸ 몰사¹³³⁹허여,
 다리도 작신¹³⁴⁰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히¹³⁴¹ 죽고,
 함부로덤부로¹³⁴² 죽고,
 맥때그르르 궁굴다¹³⁴³ 아빨싸¹³⁴⁴ 낙상하야¹³⁴⁵ 가슴 쿵쿵 뛰다리
 며¹³⁴⁶ 죽고,
 “이놈 제기!” 욕하며 죽고, 꿈꾸다가 죽고, 떡 큰 놈 입에다 물고 죽고,
 한 놈은 주머니를 뿌시럭뿌시럭거리더니,¹³⁴⁷
 “어따,¹³⁴⁸ 이 제기를 칠¹³⁴⁹ 놈들아, 나는 이런 다급한¹³⁵⁰ 판¹³⁵¹에
 먹고 죽을라고 비상¹³⁵² 사 넣었드니라.”
 외삭외삭 깨물어 먹고 물에 가 풍.
 또 한 놈은 돛대 끝으로 뽅뽅뽅뽅¹³⁵³ 올라가드니,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삼대독자 외아들이오. 제발 덕분 살려주오.”
 빌다 물에 가 풍.
 또 한 놈은 뱃전¹³⁵⁴으로 우루루루 통통통통¹³⁵⁵ 나가드니, 고향을
 바라보며 망배¹³⁵⁶ 망곡¹³⁵⁷으로,

The pitiful million soldiers can't fly, can't run, and can't move at all.

Some can't breathe, and some are struck dumb. Some are shot by arrows, and some are pierced by spears.

Some die, sitting, and some die, standing. Some die, laughing, and some die, crying.

Some are trampled to deaths, and some are beaten to deaths. Some die, worrying, and some die, angry.

Some die, acting flippantly, and some are suddenly shot by arrows and drown to deaths.

Some are destroyed into pieces to deaths, and some are torn off to deaths. Some die pathetically, and some die, dumfounded. For some, eyes are pulled out. For some, tongues are pulled out. For some, backs are burst.

Some die tragic deaths. Some die sudden deaths. Some die cruel deaths. All of them die.

Some whose legs are broken into pieces die. Some die, trying to die, and some die without reason. Some die, acting rashly. Some die, rolling over, getting hurt from a fall, and hitting their chests.

Some die, while cursing. Some die, while dreaming, and some die with big rice cake in their mouths.

A soldier puts his hand into his pocket and makes sounds. "My goodness. You bastards. I was carrying poison to take and die, in case I fall into such an urgent situation."

He wildly crunches the poison and falls into the water.

Another soldier climbs up to the top of a mast.

"Oh my god! I am the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Please help." While praying, he falls into the water.

Another soldier runs hard to the bow, looks in the direction of his hometown, and gives a big bow while crying.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하릴없이¹³⁵⁸ 죽습니다. 언제 다시 뵈
오리까?”

물에 가 풍, 버끔¹³⁵⁹)이 부그르르르.

또 한 놈은 그 통에 지가¹³⁶⁰) 한가헌 치라고¹³⁶¹) 시조 반 장 빼다
가¹³⁶²) 죽고,

직사,¹³⁶³) 몰사, 대해수중¹³⁶⁴) 깊은 물에 사람을 모도¹³⁶⁵) 국수 풀
듯 더럭더럭¹³⁶⁶) 풀며,

적극,¹³⁶⁷) 조충,¹³⁶⁸) 괴암통,¹³⁶⁹) 남날개,¹³⁷⁰) 도래송곳,¹³⁷¹) 독바
늘¹³⁷²) 적벽풍파¹³⁷³)에 떠나갈 제,

일등 명장이 쓸 데가 없고, 날랜 장수도 무용이로구나.¹³⁷⁴)

화전,¹³⁷⁵) 궁전¹³⁷⁶)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
허저,¹³⁷⁷) 장요, 서황¹³⁷⁸) 등은 조조를 보위하야¹³⁷⁹) 천방지축¹³⁸⁰)
달아날 제,

황개 화연¹³⁸¹) 무릅쓰고 쫓아오며 왜는¹³⁸²) 말이,

“붉은 홍포¹³⁸³)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¹³⁸⁴) 죽어라! 선봉
대장에 황개라!”

호통하니, 조조가 황겁¹³⁸⁵)하야 입은 홍포 벗어버리고, 군사 전립 앓
아¹³⁸⁶) 쓰고 다른 군사를 가리키며, “참 조조 저기 간다!”

제 이름을 제¹³⁸⁷) 부르며, “이놈 조조야, 날다려¹³⁸⁸) 조조란 놈 제가
진정 조조니라.”

황개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것이 조조니라!”

조조 정신 기겁하야,¹³⁸⁹) 긴 수염을 건어잡아 와드득와드득¹³⁹⁰) 쥐어
뜯고 피탈양탈¹³⁹¹) 도망힐 제,

장요 활을 급히 쏘니, 황개 맞아 물에 가 풍 꺼꾸러져 낙수하니,¹³⁹²)

“Alas. Father and mother! I am dying now. When can I see you again?”

He falls into the water, and foams are generated.

Another soldier recites a poem, pretending that he is at leisure in such a situation.

With the many instant deaths, it looks as if noodles were disentangled in water.

Red spears, old rifles, bullet cases, powder cases, drills, and poisonous needles are flown away by the wind of the Chibi(赤壁) River.

The first-rate generals and warriors are useless.

Fire arrows and arrows fly here and there, creating flying sounds.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Xu Huang(徐晃) protect Cao Cao(曹操), and run away hurriedly.

Huang Gai(黃蓋) shouts, as he chase them through fire and smoke.

“That man in the red silk clothes is Cao Cao(曹操)! Don’t run away. Just die. I am the vanguard officer, Huang Gai(黃蓋).

With the shout, Cao Cao(曹操) is petrified, takes off his red coat, snatches a soldier’s hat, puts it on, and points to a soldier. “Real Cao Cao(曹操) goes over there!”

Calling his own name, Cao Cao(曹操) says, “Cao Cao(曹操), you villain. That man calling me Cao Cao(曹操) is real Cao Cao(曹操).”

While chasing Cao Cao(曹操), Huang Gai(黃蓋) says, “That man with a long beard is Cao Cao(曹操)!”

Horried, Cao Cao(曹操) grabs his long beard and pulls it out, while fleeing wildly.

Zhang Liao(張遼) shoots an arrow quickly. Shot by the arrow, Huang Gai(黃蓋) falls over into the water.

“의공¹³⁹³)아, 날 살려라.” 한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
 탈 적에,
 좌우편 호통소리 조조, 장요 녀이 없어 오림계로 도망을 헐 제,
 조조 잔말¹³⁹⁴)이 비상허여, “문 들어온다, 바람 단어라.
 요강 마렵다, 오줌 들어라. 둔중¹³⁹⁵) 났다 똥 칠세라,¹³⁹⁶
 배 아프다, 농치지¹³⁹⁷) 마라. 까딱허면은 똥 싸겠다.
 여봐라, 정욱아, 위급허다, 위급허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조조가 겁짐에¹³⁹⁸) 말을 거꾸로 잡어 타고,
 “아이고, 여봐라, 정욱아. 어찌 이놈의 말이 오늘은 퇴불여전¹³⁹⁹)허여
 적벽강으로만 그저 뿌두등뿌두등¹⁴⁰⁰) 들어가니, 이것이 웬 일이나?
 주유, 노숙이 축지법¹⁴⁰¹)을 못허는 줄 알었더니, 아마도 축천축지
 법¹⁴⁰²)을 허나보다.”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이 말을 거꾸로 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 모가지만 쑥 빠다가 얼른 돌려 뒤에다 쫓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8-B. (화공)(김일구). 황개의 군사들이 조조의 진영을 불 로 공격하자 조조는 패하여 도망한다.

[아니레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¹⁴⁰³) 실은 배량이면¹⁴⁰⁴) 선체¹⁴⁰⁵)가
 온중할데,¹⁴⁰⁶
 요요하고¹⁴⁰⁷) 범류하니,¹⁴⁰⁸) 만일 간교¹⁴⁰⁹) 있을진댄¹⁴¹⁰) 어찌 회피
 하오리까?”

“Han Dang(韓當), help me.” Han Dang(韓當) picks Huang Gai(黃蓋) out of the water swiftly and send him to their camp. Confused by shouts on the left and right, Cao Cao(曹操) and Zhang Liao(張遼) flee to Wulin(烏林) Forest.

Cao Cao(曹操) speaks useless words, “A door is coming in. Close the wind.

Bring a piss in. I want to take a bedpan. I have a tumor in my hip. I might take a shit in the room.

My belly hurts. Don’t shake me. I might take a shit.

Hey Cheng Yu(程昱)! I am in jeopardy! Help me.”

Horried, Cao Cao(曹操) gets on the horse backward.

“Alas! Hey Cheng Yu(程昱)! This horse doesn’t move forward. It keeps going backward to the Chibi(赤壁) River. How can this happen?

I thought Zhu Yu(朱瑜) and Lu Su(魯肅) can’t shorten the distance, but it appears they can do it.

Cheng Yu(程昱) responds, “Mr. Premier, you are on the horse backward.”

“When can I sit on the horse forward! Pull the head of the horse out and attach it to the back quickly.

I am dying. Hurry! Oh god!”

28-B. (Fire Attack)(Kim Il-gu) Huang Gai’s(黃蓋) soldiers set Cao Cao’s(曹操) ships on fire. Defeated, Cao Cao(曹操) flees.

[Aniri] Cheng Yu(程昱) asks, “If the ships are loaded with the military food, they must be heavy.

But they move easily along with the waves. What if a wicked plan is involved with the ships?”

조조 이 말 듣고 의심이 나서 방비¹⁴¹¹)를 해보는데,
 “그래 그래, 그렇잖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¹⁴¹²) 불러 방색¹⁴¹³)하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뱃나?¹⁴¹⁴) 우리 승상님 영¹⁴¹⁵)
 전에는 진 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¹⁴¹⁶)
[자진모레] 이 말이 지듯마듯 뜻밖에 살¹⁴¹⁷) 한 개가 피르르 문
 빙¹⁴¹⁸) 맞아 떨어지고,
 황개 화선 이십 척에 거화포¹⁴¹⁹) 신기전¹⁴²⁰)과 때때때 나발소리,
 두리둥둥 뇌고¹⁴²¹)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고향이 진동하여, 좌우
 각선¹⁴²²) 부대 동남풍에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 불이 버섯,¹⁴²³) 천지가 뜨르르르르르르,
 두 번 불이 버섯, 우주가 바뀌는 듯, 세 번을 불로 치니 화염¹⁴²⁴)이
 충천,¹⁴²⁵)
 풍성¹⁴²⁶)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물결은 출렁, 전선 뒤뚱,¹⁴²⁷) 돛
 대 와지끈,¹⁴²⁸)
 용충,¹⁴²⁹) 활대,¹⁴³⁰) 노사육대,¹⁴³¹) 비우,¹⁴³²) 삼판나리,¹⁴³³) 죽
 판,¹⁴³⁴)
 행장,¹⁴³⁵) 명에,¹⁴³⁶) 각 포대¹⁴³⁷)가 물에 가 풍! 기치¹⁴³⁸) 펄펄, 장
 막¹⁴³⁹) 쪽쪽.¹⁴⁴⁰)
 화전,¹⁴⁴¹) 궁전,¹⁴⁴²) 방패, 창과 깨어진 통노구,¹⁴⁴³)
 거말장,¹⁴⁴⁴) 마름쇠¹⁴⁴⁵), 나발,¹⁴⁴⁶) 장고, 북, 팽과리 땡기령 쟁기령
 와르르 철철 산산이¹⁴⁴⁷) 깨어져서,
 풍과강상¹⁴⁴⁸)에 화광¹⁴⁴⁹)이 훔훔.
 수만 전선¹⁴⁵⁰)이 간 곳이 없고, 적벽강이 뒤끓어¹⁴⁵¹) 붉게 되어 불빛
 이 난리가 아니냐?
 가련할손¹⁴⁵²) 백만 군병은 날도 뛰도 못하고, 오무락¹⁴⁵³) 꿈쩍달짝
 못 하고,

After listening to Cheng Yu(程昱), Cao Cao(曹操) is suspicious of the ships and takes an action.

“Yes! You are right. Have Wen Pin(文聘) deter them.”

Wen Pin(文聘) steps forward. “Hey the ship over there! Identify yourself! You can’t come into our area without the premier’s permission!”

[Jajinmori] No sooner Wen Pin(文聘) finishes than an arrow suddenly flies into him and he falls down.

Huang Gai’s(黃蓋) twenty fire ships shoot arrow rockets and blow trumpets.

Hitting drums, Huang Gai’s(黃蓋) soldiers charge with the help of the southeast wind like lightning, shouting and carrying fire. They set ablaze to Cao Cao’s(曹操) ships. The sky and the ground seem to collapse.

With the second fire attack, the universe seems to change. With the third fire attack, flames rise up to the sky.

A wind blows, and waves run around. Warships shake, and masts break down.

What drops into the water is ropes for sails, pieces of wood supporting sails, long oars, small boats, boards, tools, pieces of wood supporting ships, and casemates. Flags flutter, and tents tear off.

What gets broken into pieces are tents, fire arrows, arrows, bows, shields, spears, broken brass pots, pieces of wood, pieces of sharp iron, trumpets, waist drums, drums, and musical instruments.

Flames move around on the waves of the windy river.

Thousands of warships are destroyed, the Chibi(赤壁) River is boiled and red, and flames engulf the river.

The pitiful million soldiers can’t fly, can’t run, and can’t move at all.

숨 막히고 기막히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찢려,
 앓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¹⁴⁵⁴ 덜컹 살에 맞아 물에 가 풍 빠져 죽고,
 바사져¹⁴⁵⁵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답¹⁴⁵⁶으로 죽고,
 무섭게 눈 빠져, 서¹⁴⁵⁷ 빠져, 등 터져, 오사,¹⁴⁵⁸ 급사,¹⁴⁵⁹
 약사,¹⁴⁶⁰ 몰사¹⁴⁶¹허여, 다리도 작신¹⁴⁶²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히¹⁴⁶³ 죽고, 함부로덤부로¹⁴⁶⁴ 죽고,
 댁때그르르 궁굴다¹⁴⁶⁵ 아뿔싸¹⁴⁶⁶ 낙상하야¹⁴⁶⁷ 가슴 쿵쿵 뛰다리
 다¹⁴⁶⁸ 죽고,
 실없이 죽고, 가이없이¹⁴⁶⁹ 죽고, 어이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또 어떤 놈은 떡 큰 놈을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뿌시럭뿌시럭거리더니마는,¹⁴⁷⁰
 “어따,¹⁴⁷¹ 이 제기를 칠¹⁴⁷² 놈들아, 나는 이런 다급한¹⁴⁷³ 판¹⁴⁷⁴에
 먹고 죽을라고 비상¹⁴⁷⁵ 사 넣었드니라.”
 외삭외삭 깨물어 먹고 물에 가서 풍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돛대 끝으로 뽁뽁뽁뽁¹⁴⁷⁶ 기어 올라가드니마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삼대독자 외아들이오. 제발 덕분에 살려주오.”
 빌다 물에 가 풍, 버کم¹⁴⁷⁷이 부그르르르르.
 또 한 놈은 뱃전¹⁴⁷⁸으로 우루루루루루 통통통¹⁴⁷⁹ 나가드니마는,
 고향 쪽을 바라보며 망배¹⁴⁸⁰ 망곡¹⁴⁸¹으로,

Some can't breathe, and some are struck dumb. Some are shot by arrows, and some are pierced by spears.
Some die, sitting, and some die, standing. Some die, laughing, and some die, crying.
Some are trampled to deaths, and some are beaten to deaths. Some die, worrying, and some die, angry.
Some die, acting flippantly, and some are suddenly shot by arrows and drown to deaths.
Some are destroyed into pieces to deaths, and some are torn off to deaths. Some die truly, and some die funny.
For some, eyes are pulled out. For some, tongues are pulled out. For some, backs are burst. Some die tragic deaths. Some die sudden deaths.
Some die cruel deaths. All of them die. Some whose legs are broken into pieces die.
Some die, trying to die, and some die without reason. Some die, acting rashly.
Some die, rolling over, getting hurt from a fall, and hitting their chests.
Some die without reason, some die pitifully, and some die unfairly.
Some die, while dreaming, and some die with big rice cake in their mouths.
A soldier puts his hand into his pocket and makes sounds.
"My goodness. You bastards. I was carrying poison to take and die, in case I fall into such an urgent situation."
He wildly crunches the poison, falls into the water, and dies.
Another soldier climbs up to the top of a mast.
"Oh my god! I am the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Please help." While praying, he falls into the water. Foams are created.
Another soldier runs hard to the bow, looks in the direction of his hometown, and gives a big bow while crying.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은 하릴없이¹⁴⁸²⁾ 죽습니다. 언제
 다시 뵈오리까?” 빌다 물에 가 풍, 버끔¹⁴⁸³⁾이 부그르르르.
 한 놈은 그 통에 한가한 치라고¹⁴⁸⁴⁾ 시조 반 장을 빼다¹⁴⁸⁵⁾ 죽고,
 즉사,¹⁴⁸⁶⁾ 몰사,¹⁴⁸⁷⁾ 대해수중¹⁴⁸⁸⁾의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 듯 더럭더럭¹⁴⁸⁹⁾ 풀며,
 적극,¹⁴⁹⁰⁾ 조충,¹⁴⁹¹⁾ 괴암통,¹⁴⁹²⁾ 남날개,¹⁴⁹³⁾ 도래송곳,¹⁴⁹⁴⁾ 독바
 늘¹⁴⁹⁵⁾ 적벽풍파¹⁴⁹⁶⁾에 떠나갈 적에,
 일등 명장이 쓸 데가 없고, 날랜 장수가 무용이로구나.¹⁴⁹⁷⁾
 화전,¹⁴⁹⁸⁾ 궁전¹⁴⁹⁹⁾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
 르르르.
 허저,¹⁵⁰⁰⁾ 장요, 서황¹⁵⁰¹⁾ 등은 조조를 호위하야 천방지축¹⁵⁰²⁾ 달아
 날 제,
 황개 화연¹⁵⁰³⁾을 무릅쓰고 쫓아오며 웨는¹⁵⁰⁴⁾ 말이,
 “붉은 홍포¹⁵⁰⁵⁾ 입은 놈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¹⁵⁰⁶⁾ 죽어라. 선봉
 대장 황개라!”
 호통하니, 조조가 황겁¹⁵⁰⁷⁾하여 입은 홍포 훨씬 벗고, 군사 전립 앓아
 쓰고
 죽을 뻔 도망할 제, 다른 군사를 가리키며, “참 조조 저기 간다! 날다
 러¹⁵⁰⁸⁾ 조조란 놈 제가 진정 조조니라!”
 황개가 쫓아오며, “저그¹⁵⁰⁹⁾ 수염 진¹⁵¹⁰⁾ 놈이 조조니라!”
 조조 정신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걷어 잡아 와드득와드득¹⁵¹¹⁾ 쥐어뜯고
 피탈양탈¹⁵¹²⁾ 도망할 제,
 장요 활을 급히 쏘니 황개 맞아 물에 가 풍 꺼꾸러져 낙수허니,¹⁵¹³⁾
 “의공¹⁵¹⁴⁾아, 날 살려라.” 한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
 랄 적에,

“Alas! Father and mother! I am a bad son because I am dying now. When can I see you?” While praying, he falls into the water. Foams are created.

Another soldier recites a poem, pretending that he is at leisure in such a situation.

With the many instant deaths, it looks as if noodles were disentangled in water.

Red spears, old rifles, bullet cases, powder cases, drills, and poisonous needles are flown away by the wind of the Chibi(赤壁) River.

The first-rate generals and warriors are useless.

Fire arrows and arrows fly here and there, creating flying sounds.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Xu Huang(徐晃) protect Cao Cao(曹操), and run away hurriedly.

Huang Gai(黃蓋) shouts, as he chase them through fire and smoke.

“That man in the red silk clothes is Cao Cao(曹操)! Don’t run away. Just die! I am the vanguard officer, Huang Gai(黃蓋).

With the shout, Cao Cao(曹操) is petrified, takes off his red coat, snatches a soldier’s hat, puts it on.

While in such jeopardy, he points to a soldier. “Real Cao Cao(曹操) goes over there! That man calling me Cao Cao(曹操) is real Cao Cao(曹操).”

While chasing Cao Cao(曹操), Huang Gai(黃蓋) says, “That man with a long beard is Cao Cao(曹操)!”

Horried, Cao Cao(曹操) grabs his long beard and pulls it out, while fleeing wildly.

Zhang Liao(張遼) shoots an arrow quickly. Shot by the arrow, Huang Gai(黃蓋) falls over into the water.

“Han Dang(韓當), help me.” Han Dang(韓當) picks Huang Gai(黃蓋) out of the water swiftly and send him to their camp.

좌우편 호통소리 조조, 장요 녀이 없어 오림계로 도망을 할 제, 조조 잔말¹⁵¹⁵)이 비상하여

“문 들어온다, 바람 닫어라. 요강 마렵다, 오줌 들어라. 둔중¹⁵¹⁶) 났다 똥 칠세라,¹⁵¹⁷)

배 아프다, 농치지¹⁵¹⁸) 마라. 까딱허면은 똥 싸겠다. 여봐라, 정욱아, 위급허다, 위급허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조조 정신 기겁하야,¹⁵¹⁹)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까딱허면은 똥 싸겠다. 여봐라, 정욱아!” “예!”

“주유 노숙이 축지법¹⁵²⁰)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마는, 오늘 보니 축지 법도 허나보다.

이 말이 퇴불여전¹⁵²¹)이 되어 앞으로는 아니 가고 적벽강으로만 뿌드 둥뿌드둥¹⁵²²) 들어가니, 이것이 웬 일이냐?”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이 말을 거꾸로 댔소.”

“언제 옳게 타갔느냐? 말 모가지만 쑥 빼어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가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니레 정욱이가 조조 하는 것을 가만히 보더니마는,

“대체 승상님이 허시는 것을 보니, 삼국의 영웅이란 말이 날만도 허시오.”

29. (오림 패주) 조조가 오림으로 달아나다가 메추리를 보고 놀란다.

[중모레] 창황분주¹⁵²³)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르르르르르 날아나도 북병¹⁵²⁴)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버섯 떨어져도 추병¹⁵²⁵)인가 의심을 하여,

엎더지고¹⁵²⁶)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곳을 반생반사¹⁵²⁷) 도망을 간다.

Confused by shouts on the left and right, Cao Cao(曹操) and Zhang Liao(張遼) flee to Wulin(烏林) Forest. Cao Cao(曹操) speaks useless words.

“A door is coming in. Close the wind. Bring a piss in. I want to take a bedpan. I have a tumor in my hip. I might take a shit in the room.

My belly hurts. Don’t shake me. I might take a shit. Hey Cheng Yu(程昱)! I am in jeopardy! Help me.”

Horried, Cao Cao(曹操) gets on the horse backward. “Let’s go. Hurry. I might take a shit. Hey Cheng Yu(程昱)!” “Yes!”

I thought Zhu Yu(朱瑜) and Lu Su(魯肅) can’t shorten the distance, but I think now they can do it.

This horse doesn’t move forward. It keeps going backward to the Chibi(赤壁) River. How can this happen?”

Cheng Yu(程昱) responds, “Mr. Premier, you are on the horse backward.”

“When can I sit on the horse forward! Pull the head of the horse out and attach it to the back quickly. I am dying. Oh god!”

[Aniri] Cheng Yu(程昱) keeps watching Cao Cao(曹操).

“I have been watching you, Mr. Premier. I see why you are said to be a hero of the three countries.”

29. (Fleeing to Wulin(烏林) Forest) Fleeing to Wulin(烏林) Forest, Cao Cao(曹操) is frightened at a quail.

[Jungmori] While fleeing in a hurry, Cao Cao(曹操) takes flying birds to be ambushing soldiers and falling leaves to be chasing soldiers.

As he flees to Wulin(烏林) Forest, he falls over, half-dead and half-alive.

[아니래] 조조가 가다가 목을 움쑥움쑥하니¹⁵²⁸⁾ 정욱이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¹⁵²⁹⁾ 말허리 늘어집니다. 어찌
하여 그리 목은 움치시나이까?”¹⁵³⁰⁾

“야야, 말 마라. 말 말어. 내 눈 위에 칼날이 번뜻번뜻하고, 귓전에
화살이 뽕뽕하는구나.”

정욱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더
러 살펴보옵소서.”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사면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¹⁵³¹⁾ 말굽통¹⁵³²⁾
머리에서 메추리¹⁵³³⁾란 놈이 표루루루루¹⁵³⁴⁾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야야, 정욱아! 내 목 달아났다. 내 목 있나
좀 봐라.”

정욱이 기가 막혀, “눈치 밝소. 그 자그마한 메추리를 보고 그다지
놀래실진댄, 큰 장평¹⁵³⁵⁾ 보았으면 기절초풍¹⁵³⁶⁾할 뻔하였소그려.”
“야야, 그것이 메추리더냐? 허허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마는, 털
뜯어서 갓은 양념하여 보글보글보글 볶아놓으면, 술 안주 몇 점 씹박
하니¹⁵³⁷⁾ 좋으니라마는.”¹⁵³⁸⁾

“아, 우환¹⁵³⁹⁾ 중이라도 입맛은 안 변했소그려.”

조조가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¹⁵⁴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
상¹⁵⁴¹⁾을 원망을 하며 우는데,

이것이 적벽가 새타령이라고 하던가 보더라.

[Aniri] As Cao Cao(曹操) sticks his head in and out repeatedly, Cheng Yu(程昱) is stunned.

“Hello, Mr. Premier. The back of your horse might bend down because you are heavy. Why do you pull your head in and out?”

“Hey don’t even ask. I still see the flashing blades of swords, and I still hear the sounds of arrows.”

Cheng Yu(程昱) responds, “There is no such thing now. Please pull your head out and take a look around.” “Is it really quiet now?”

When Cao Cao(曹操) tries to stretch his neck and take a look around, a quail flies up from horseshoes unexpectedly.

Cao Cao(曹操) is frightened. “Oh god! Cheng Yu(程昱)! My head has been cut off. Check it out.”

Cheng Yu(程昱) is struck dumb. “You have keen eyes. You are frightened at a small quail, so you would passed out at a pheasant.”

“Was it a quail? Although it was small, it could be delicious food that goes well with wine if feathers were removed of it, and if it were roasted with spices in a pot.”

“Oh, your taste hasn’t changed even in such trouble.”

Cao Cao(曹操) pulls his neck out and looks around.

The soldiers who died in the Chibi(赤壁) River already became birds and weep, holding grudges against Cao Cao(曹操).

It is called Bird Song of the Chibi(赤壁) River.

30. (새타령) 조조 군대가 화용도로 들어가니, 죽은 장졸의 원혼이 새가 되어 울음을 운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¹⁵⁴²)하고 수목¹⁵⁴³)은 총잡¹⁵⁴⁴)한데,
만학¹⁵⁴⁵)에 눈 쌓이고, 천봉¹⁵⁴⁶)에 바람칠 제,¹⁵⁴⁷)
화초목실¹⁵⁴⁸)이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끊쳤는데¹⁵⁴⁹) 새가 어이 올라
마는,
적벽대전¹⁵⁵⁰)에 죽은 군사 원조¹⁵⁵¹)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
여 지지거려¹⁵⁵²) 울더니라.
나무 나무 끝끄터리¹⁵⁵³) 앓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¹⁵⁵⁴)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¹⁵⁵⁵) 귀촉도¹⁵⁵⁶) 귀촉
도 붙여귀¹⁵⁵⁷)라 슬피 우는 저 축혼조.¹⁵⁵⁸)
여산군량¹⁵⁵⁹)을 소진¹⁵⁶⁰)하니 춘비노략¹⁵⁶¹)이 한때로구나.¹⁵⁶²) 소탕
소탕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군¹⁵⁶³)이 어인 일고?¹⁵⁶⁴) 입빼죽 입빼
죽 저 빼죽새.
자칭 영웅 간 데 없고 백계도생¹⁵⁶⁵)을 피로만 판다,¹⁵⁶⁶) 피꼬리 수리
루리루 저 피꼬리.
초평대로¹⁵⁶⁷)를 마다하고, 심산총림¹⁵⁶⁸)의 골기악 까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¹⁵⁶⁹)인들 아니 들리? 병에 좋다고 쑥국 쑥쑥국.
장요¹⁵⁷⁰)는 활을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말아라 살 간다 수루루루루
루¹⁵⁷¹) 저 호반새.¹⁵⁷²)
반공¹⁵⁷³)에 둥둥 높이 떠 동남풍을 네가 막아주랴느냐? 너울너울 저
바람막이.¹⁵⁷⁴)

30. (Bird Song) As Cao Cao's(曹操) troops enter
Huarong(華容) Road, birds cry. They are the
malignant spirits of the dead officers and soldiers.

[Jungmori] Mountains are steep, and forests are thick.
Snow is piled up in numerous valleys, and a wind blows on
many mountain tops.
Because there are no flowers, grasses, and fruits, a parrot or a
mandarin duck no longer flies, and there can't be sounds of
birds.
The soldiers who died by fire in the Chibi(赤壁) War were
reborn into evil-spirited birds, and express resentments against
Cao Cao(曹操).
Birds weep, sitting at the end of branches.
How many years are the painful soldiers away from their homes?
The cuckoo says sadly that it cannot go back home.
The huge military food is exhausted, and soldiers are looting
villages. So cries a hungry bird.
How can Cao Cao(曹操) be defeated after bragging about one
million soldiers? So cries a sarcastic bird.
The self-proclaimed hero has gone after playing only a trick to
survive. So cries a parrot.
Cao Cao(曹操) chose a deep mountain with green trees over a
wide road with thick grass. So cries a crow.
How poor! Hungry soldiers must have suffered from the cold
weather. So consoles a bird.
Zhang Liao(張遼) holds only a bow. Don't worry you don't have
an arrow. Here go arrows. So cries a kingfisher.
I will fly high in the sky and block the southeast wind. So cries
a bird with its wings wide open.

철망의¹⁵⁷⁵) 벗어났구나, 화병¹⁵⁷⁶)아 우지 마라, 노고지리 노고지리,
저 종달새.

황개 호통¹⁵⁷⁷) 겁을 내어 벗은 홍포¹⁵⁷⁸)를 내 입었네, 따옥 따오기
저 따오기.¹⁵⁷⁹)

화용도가 불원이로다,¹⁵⁸⁰) 적벽풍파¹⁵⁸¹)가 밀려온다, 어서 가자 저
계오리.¹⁵⁸²)

웃는 끝에는 겁낸 장줄 갈수록 알망긔다.¹⁵⁸³) 복병¹⁵⁸⁴)을 보고서 도
망을 하리?

이리 가며 팽당그르르르,¹⁵⁸⁵) 저리 가며 행똥행똥,¹⁵⁸⁶) 사설¹⁵⁸⁷) 많
은 저 할미새.

순금 갑옷을 어디다가 두고 활도 맞고 창에도 찢려,
기한¹⁵⁸⁸)에 골몰¹⁵⁸⁹)이 되어 내 단장¹⁵⁹⁰)을 부러워 마라. 상처 독
기¹⁵⁹¹)를 쫓아주마.

뽕죽한 저 긴 부리로, 속 텅 빈 고목 안고 오르며 떼그르르르,¹⁵⁹²)
내리며¹⁵⁹³) 꾸뻑 떼그르르르, 뚜드럭 꾸벅 찌꺼¹⁵⁹⁴) 떼그르르르르,
저 때찌구리¹⁵⁹⁵)는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각 새들
아, 너무나 우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¹⁵⁹⁶) 죽은 원귀¹⁵⁹⁷) 되어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31. (조조 조자룡 피해 도망) 조조가 조자룡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장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한다.

[아니래] 이렇듯이 설리 울다가 느닷없는 웃음을 내 가지고,

Don't weep, cook soldier. You escaped from an iron net. So cries a skylark.

I put on a red coat after Huang Gai's(黃蓋) horrifying shout. So cries a sacred ibis.

Huarong(華容) Road is close. The strong waves of the Chibi(赤壁) River are coming. Let's go quickly. So cries a duck.

Soldiers were intimidated after laughing, and then became ill-tempered. Can they flee from an ambush?

So cries a talkative wagtail, turning around here and there.

Without his golden body armor, he was shot by an arrow and a spear.

He is hungry and cold. Don't envy my neat look. Do you want me to peck your poisonous wound?

A woodpecker climbs up and down an old hollow tree, creating sounds with its sharp long beak. It is pathetic.

After listening to each bird's cry, Cao Cao(曹操) laments, "Don't cry. Stop crying. Birds, don't cry so much.

You were my officers. They became evil spirits and hold grudges against me."

31. (Fleeing from Zhao Zi Long(趙子龍)) Cao Cao(曹操) comes across Zhao Zi Long(趙子龍). He narrowly escapes his death with the help of his generals.

[Aniri] After weeping, Cao Cao(曹操) suddenly laughs.

“히히히히히히 해해해”하고 대소¹⁵⁹⁸)하니, 정옥이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¹⁵⁹⁹) 창황중¹⁶⁰⁰)에 슬픈 신세는 생각
잡고 무슨 일로 그렇게 또 웃나니까?”¹⁶⁰¹)

조조 듣고 대답하되, “아야, 내 웃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슬기
는 좀 있으되 껍이 없고,
공명은 껍은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느니라.” 이 말이
지듯마듯¹⁶⁰²)

[옛모레 오림산곡¹⁶⁰³) 양편에서 고성¹⁶⁰⁴) 화광¹⁶⁰⁵)이 충천¹⁶⁰⁶)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산¹⁶⁰⁷) 백옥¹⁶⁰⁸) 같고,
눈은 소상강¹⁶⁰⁹) 물결이라.

인¹⁶¹⁰)의 허리, 곰의 팔, 녹포엄신갑¹⁶¹¹)에 팔척 장검¹⁶¹²)을 빗겨 들어,
당당¹⁶¹³) 위풍¹⁶¹⁴) 일포성¹⁶¹⁵) 큰 소리로 호령¹⁶¹⁶)하되, “네 이놈, 조
조야!

명장¹⁶¹⁷)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는다?¹⁶¹⁸) 조조는 단지¹⁶¹⁹) 말고 내
장창 받아라!”

우레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뒤지르며,¹⁶²⁰) 말 놓아 달려들어 동에 얼
른¹⁶²¹) 서를 쳐, 남에 얼른 북을 쳐,
생문¹⁶²²)으로 들이달아¹⁶²³) 사문¹⁶²⁴)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
낙엽¹⁶²⁵)이라.

여¹⁶²⁶) 와서 번뜻하며 저¹⁶²⁷) 와 땡기령¹⁶²⁸)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며
여기 와 땡기령 베고, 좌우로 충돌.

어름파¹⁶²⁹) 어름파 어름파, 백송골¹⁶³⁰)이 땡 차듯,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¹⁶³¹) 칼 빼듯, 여름날 번개치듯 흥행흥행¹⁶³²) 쳐들어갈 제,

As he laughs loudly “Heeheehee. Haehaehae,” Cheng Yu(程昱) is stunned.

“Hello, Mr. Premier. We are doing our best to survive this trouble. How can you laugh without thinking about our sad fate?”

Cao Cao(曹操) replies, “Hey I laugh because Zhu Yu(朱瑜) is a little intelligent but not sly, and Kong Ming(孔明) is a little sly but not intelligent.” It is at this moment.

[Eonmori] Loud sounds and flashes of flame rise to the sky from both sides of Wulin(烏林) Forest.

A warrior comes out. His face looks like the white jade from Jing(荊) Mountain. His eyes look like the water of the Xiao Xiang(瀟湘) River.

His waist is like that of a giraffe, and his arms are like those of a bear. Wearing an armor made of deer skin, he carries a long spear obliquely.

Looking majestic and stately, he shouts loudly, “You bastard! Do you know about the great general, Zhao Zi Long(趙子龍)? Don’t run away. Here goes my sword!”

Shouting like thunder, Zhao Zi Long(趙子龍) threatens them in the east and attacks them in the west. He threatens them in the south and attacks them in the north.

He goes vigorously through a lucky gate and shows up at an unlucky gate. The heads of officers and soldiers fall down like autumn leaves.

He shows up here abruptly and cuts heads off there. He appears there abruptly and cuts heads off here, clashing with them on the left and right.

He attacks them, as a hawk attacks a pheasant, a toad snatches a fly, as a woman pulls out a silver knife, and as lightning destroys something in the summer sky.

피 흘리 강수¹⁶³³)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¹⁶³⁴)

서황, 장합 쌍접¹⁶³⁵) 겨우겨우 방어하고 호로곡¹⁶³⁶)으로 도망을 간다.

32. (조조 신세 한탄) 조조가 병졸들과 호로곡으로 도망하면서 신세를 한탄한다.

[아니리] 이렇듯 도망을 하여, 호로곡으로 들어가며 신세자탄¹⁶³⁷) 울음을 우는데,

[진양조] 바람은 우루루루루루 지동치듯¹⁶³⁸) 불고, 굶은비는 퍼붓는데,

갑옷 젖고, 기계¹⁶³⁹) 잃고, 어디메로¹⁶⁴⁰) 가야만 살거나?

조조 군중에 영을 놓아 촌려노략¹⁶⁴¹) 양식을 얻고,

말도 잡아 약간 구급¹⁶⁴²)을 하며, 젖은 옷은 쇠풍해 달고¹⁶⁴³) 겨우겨우 살아갈 적,

한 곳을 바라보니, 한수¹⁶⁴⁴) 여울 흐른 물은 이릉교¹⁶⁴⁵)로 닿았는데, 적적산곡¹⁶⁴⁶) 청계상¹⁶⁴⁷)에 쌍쌍 백구¹⁶⁴⁸)만 흘러뒀구나.¹⁶⁴⁹)

두 쪽지를 짝¹⁶⁵⁰) 벌리고, 펄펄 수루루루 등딩. 우후청강¹⁶⁵¹) 좋은 홍미,¹⁶⁵²)

“묻노라, 저 백구야. 너는 어이 한가하여 홍요월색¹⁶⁵³) 어인 일고?¹⁶⁵⁴)

어적수성¹⁶⁵⁵)이 적막한데 뉘¹⁶⁵⁶) 기약을 기다리다가,

범피창과¹⁶⁵⁷) 흘러떠서 오락가락 승유하고,¹⁶⁵⁸) 나는 어이 분주¹⁶⁵⁹) 하여, 천 리 전장을 나왔다가

백만 군사 몰사¹⁶⁶⁰)를 시키고, 풍파¹⁶⁶¹)에 곤한¹⁶⁶²) 신세 반생반사¹⁶⁶³)가 되었으니,

The blood becomes a river, and the bodies become a mountain.
Xu Huang(徐晃) and Zhang He(張郃) manage to confront Zhao
Zi Long(趙子龍) together and flee to Hulu(葫蘆) Valley.

**32.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mself) Cao Cao(曹
操) laments over himself, fleeing to Hulu(葫蘆)
Valley with his officers and soldiers.**

[Aniri] Cao Cao(曹操) flees as said above. Entering Hulu(葫蘆)
Valley, he laments over himself.

[Jinyangjo] The wind makes a loud sound, and bad rain pours
heavily.

Their armors are soaked, and they lost weapons, and they are
confused about where to go.

Cao Cao(曹操) orders his soldiers to plunder villages and get
food.

They manage to hang on, eating their horses as a makeshift
measure, and letting the wind dry their wet clothes.

They reach Yiling(彝陵) Bridge below which the water of the
Hanshui(漢水) River flows.

White herons float in pairs on a clear stream of a quiet valley.
They open their wings wide, fly, and jump into the water. The
clear river after rain arouses a poetic mood.

“I ask you, white herons! Why do you fly leisurely over the river
reflecting the moon?”

This place is quiet except for the sounds of flutes by fishermen.
You must be waiting for somebody.

You have fun, moving back and forth on the blue water. I was
busy to come to a battlefield away from home.

I massacred a million soldiers. I am in hardship and jeopardy,
half alive and half dead.”

무슨 면목으로 고향을 갈거냐. 애닭고 분한 뜻을 어이하면은 갇드란 말이나?”

33. (조조, 장비 피해 도망) 조조가 장비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나, 장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한다.

[아니리] 이렇듯이 설리 울다가 또 “히히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애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 두 번 웃어 죽을 봉변 당하고,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¹⁶⁶⁴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앞은 속에 화를 내어, “아, 이놈들아.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나?

이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커녕 뱃병¹⁶⁶⁵도 없고, 술병만 들어오더라.”

이 말이 지듯마듯 좌우 산곡¹⁶⁶⁶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어서 즐기는 웃음이나 실컷 웃으시오. 죽어도 원¹⁶⁶⁷이나 없게.”

조조 웃음 쑥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자진모리] 장비¹⁶⁶⁸의 거동 봐라. 표독한¹⁶⁶⁹ 저 장수. 먹장낮¹⁶⁷⁰ 고리눈¹⁶⁷¹에 다박수염¹⁶⁷²을 거사리고,¹⁶⁷³ 흑충마¹⁶⁷⁴ 집떠타,¹⁶⁷⁵ 사모장창¹⁶⁷⁶ 들고,

I feel too ashamed to go back home. I am sad and resentful.
How can I recover myself?"

**33. (Cao Cao(曹操) Runs Away from Zhang Fei(張飛).)
Attacked by Zhang Fei(張飛), Cao Cao(曹操)
narrowly escapes the danger with the help of his
generals.**

[Aniri] After wailing as said above, Cao Cao(曹操) laughs,
"Heeheehee. Haehaehae." Cheng Yu(程昱) is stunned.

"Hey soldiers! Mr. Premier laughed again. When he laughed in
the Chibi(赤壁) River, a million soldiers were massacred.

When he laughed twice in Wulin(烏林) Forest, we narrowly
escaped deaths. Whenever he laughs, we fall into an ambush."

Narrow-minded, Cao Cao(曹操) loses his temper. "You villains!
Do we fall into an ambush whenever I laugh?

No matter how hard I laughed at home, I didn't fall into an
ambush. I rather got wine."

No sooner they finish than an ambush rises up from the valleys
on the left and right.

Cheng Yu(程昱) is dumfounded. "Mr. Premier, since you like
laughing, laugh to the degree you don't regret even if you die."

Cao Cao(曹操) stops laughing. Something happens before he
collects himself.

[Jajinmori] Behold Zhang Fei(張飛)! He is a ferocious warrior
with a black face.

White circles surround his eye balls, and his beard is strong.
Riding a black-maned horse, he holds up a long spear obliquely
whose end looks like a head of a snake.

불꽃같이 급한 성정¹⁶⁷⁷) 맹호¹⁶⁷⁸)같이 달려들어, “어따, 이놈 조조야!
 날다?¹⁶⁷⁹ 길다?¹⁶⁸⁰ 길다? 날다?
 팔랑개비¹⁶⁸¹)라 비상천¹⁶⁸²)하며, 뒤제기¹⁶⁸³)라 땅을 팔다?¹⁶⁸⁴ 단
 지¹⁶⁸⁵) 말고 창 받아라!”
 우레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뒤지르며¹⁶⁸⁶) 군중에¹⁶⁸⁷) 횡행가자,¹⁶⁸⁸)
 조조의 약간 남은 군기¹⁶⁸⁹) 일시에 다 뺏는다.
 청도순시,¹⁶⁹⁰) 사명영기,¹⁶⁹¹) 언월환도,¹⁶⁹²) 쟁,¹⁶⁹³) 북, 나발,
 금고,¹⁶⁹⁴) 세악수,¹⁶⁹⁵) 화전,¹⁶⁹⁶) 숙정패,¹⁶⁹⁷) 장창,¹⁶⁹⁸) 대검,¹⁶⁹⁹)
 쇠도리깨,¹⁷⁰⁰) 투구, 갑옷, 화살, 동개,¹⁷⁰¹) 고두리,¹⁷⁰²) 세신바
 늘,¹⁷⁰³) 도래송곳,¹⁷⁰⁴) 마름쇠,¹⁷⁰⁵)
 장막,¹⁷⁰⁶) 통노구,¹⁷⁰⁷) 부시,¹⁷⁰⁸) 화용¹⁷⁰⁹)을 일시에 모두 앗고,¹⁷¹⁰)
 차시¹⁷¹¹)에 대장이 풍백¹⁷¹²)을 호령하니,
 웅성낙조불견하여¹⁷¹³) 나는 새도 떨어지고 땅이 툭툭 꺼지는 듯.¹⁷¹⁴)
 조조가 황겁¹⁷¹⁵)하여 아래턱만 까불까불.¹⁷¹⁶)
 “여봐라, 정욱아. 전일에¹⁷¹⁷) 관공 말이, ‘내 아우 장익덕은 만군
 중¹⁷¹⁸) 장수 머리를 풀같이 베어 온다.’
 주야장천¹⁷¹⁹) 포장터니마는¹⁷²⁰) 그 말이 적실하니,¹⁷²¹)
 이러한 영웅 중에 내가 어이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저, 장요, 서황 등은 안장 없는 말을 타고 한사협공¹⁷²²) 방어할 제,
 조조는 갑옷 벗고 군사 한 데 뒤섞이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천방지
 축¹⁷²³)으로 도망을 갈 제,
[아니레] 한 곳을 당도하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다
 러¹⁷²⁴) 물어 왈,
 “이 길은 어느 지경¹⁷²⁵)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
 나?”¹⁷²⁶)

Hot-tempered, he attacks like a fierce tiger. “Cao Cao(曹操), you villain! Can you fly, crawl, or fly?

You can’t fly because you are not a pinwheel. You can’t dig ground because you are not a mole. Don’t flee. Here goes my spear!”

Shouting like thunder, Zhang Fei(張飛) goes vigorously through soldiers. He deprives Cao Cao’s(曹操) soldiers of a few remaining things:

a blue flag, a commander’s flag, swords, gongs, drums, trumpets, iron gongs, musicians, fire arrows, a piece of wood, long spears, long swords,

iron frails, helmets, armors, arrows, arrow cases, small arrows for catching a bird, needles, awls, sharp pieces of iron, tents, brass pots, flints, and tools for fire at once. At this moment, the general yells at the god of the wind.

Frightened by the loud sound, it looks as if a flying bird falls down and the ground collapses.

Cao Cao(曹操) is frightened, and his lower chin trembles.

Hey Cheng Yu(程昱)! Guan Yu(關羽) said the other day that his brother, Zhang Fei(張飛), can cut off warriors’ heads in multitudes as he cuts off grass.

He praised Zhang Fei(張飛) day and night. I now see what he said is true.

How can I survive such a hero. Help me. Help me.”

Riding horses without saddles,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Xu Huang(徐晃) attack Zhang Fei(張飛) together.

Taking off his armor, Cao Cao(曹操) is mingled with his soldiers. He staggers left and right as he hurriedly flees.

[Aniri] Cao Cao(曹操) arrives at a place where are two roads in front of him. He asks his officers,

“Where does this road lead to? Where does that road lead to?”

제장이 대답하되, “두 길 모두 다 남군¹⁷²⁷⁾으로 통하옵니다마는 대
로¹⁷²⁸⁾로는 초평하오나¹⁷²⁹⁾ 이십 리가 더 머웁고,
소로¹⁷³⁰⁾로는 가까우나 화용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대로¹⁷³¹⁾로 가
사이다.”¹⁷³²⁾

조조 위급함만 생각하고, “소로로 가자.”

정욱이 여짜오되, “소로 산상에¹⁷³³⁾ 화광¹⁷³⁴⁾이 있사온즉,
봉연기처에 필유군마유진하리니¹⁷³⁵⁾ 초평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너 이놈, 내가 병법¹⁷³⁶⁾도 모르고 어찌 군
사¹⁷³⁷⁾라고 따라다니는고?

병서¹⁷³⁸⁾에 하였으되,¹⁷³⁹⁾ 실측허하고 허측실이라¹⁷⁴⁰⁾ 하였느니라.
꽤 많은 공명이가 대로에 복병하고 소로에 헛불¹⁷⁴¹⁾을 놓아 날 못
가게 유인한들,

내가 제까짓 놈 꺾에 빠질쏘냐? 잔말 말고 화용도로 가자.”

장졸을 억제¹⁷⁴²⁾하고 화용도로 들어갈 제,

34. (정욱과 군사 탄식) 도망하던 정욱과 군사들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탄식한다.

[중모레] 이 때 인마¹⁷⁴³⁾ 기진하여 데인¹⁷⁴⁴⁾ 노약¹⁷⁴⁵⁾ 막대 짚고,
상한 장졸¹⁷⁴⁶⁾ 갱려¹⁷⁴⁷⁾하여, 눈비 섞어 오는 달에 산고수첩¹⁷⁴⁸⁾ 험
한 길로

휘어진 잡목이며, 엉클어진 칙읃을 허침허침¹⁷⁴⁹⁾ 검쳐잡고,¹⁷⁵⁰⁾ 후유
끝끝 혀를 차며,

His officers answer, “Both roads lead to Nanjun(南郡). The big road is a wide field filled with grasses, but it is long.

The small road, Huarong(華容) Road, is short but dangerous. So let’s take the big road filled with grasses.”

Cao Cao(曹操) thinks he is in a hurry. “Let’s take the small road.”

Cheng Yu(程昱) speaks, “There are lights on the top of the mountain above the small road.

Where there is smoke, there are soldiers and horses. Let’s take the big road with grasses.”

Cao Cao(曹操) is infuriated. “You fool! How can you act like a strategist without knowing a military strategy?

A military strategy book says that if something appears to exist, it does not exist, and if something appears not to exist, it exists. Smart Kong Ming(孔明) must have placed an ambush on the big road and must have put fake fire above the small road to deceive us.

How can I fall into his trap? Stop arguing. Let’s take Huarong(華容) Road.”

Restraining the officers and soldiers, he enters Huarong(華容) Road.

34. (Cheng Yu(程昱) and Soldiers Lament.) While fleeing, Cheng Yu(程昱) and soldiers lament over their fate.

[Jungmori] The men and the horses are exhausted. A scalded old man uses a cane.

Injured officers and soldiers eat bad food. Snow and rain come down together. The road is rugged.

Soldiers march, grabbing bent bushes and entangled vines, and clicking their tongues.

“축도지난¹⁷⁵¹)이 험타한들¹⁷⁵²) 이에서¹⁷⁵³) 더할쏘냐?”

허저, 장요, 서황 등은 뒤를 살피 방어하고, 정옥이가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의 소약지심¹⁷⁵⁴) 운주결승하겠더니¹⁷⁵⁵) 제부중시불여의로구나.¹⁷⁵⁶)

초행노숙¹⁷⁵⁷) 어인 일고?¹⁷⁵⁸) 승상이 망상하여¹⁷⁵⁹) 주색¹⁷⁶⁰) 보면 한사하고,¹⁷⁶¹)

임전하면¹⁷⁶²) 궤병터니, 삼부육사¹⁷⁶³) 간 곳 없고,

백만 군사가 몰사하니, 모사¹⁷⁶⁴)가 허사되고, 장수 또한 공수¹⁷⁶⁵)로 다.”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전별장¹⁷⁶⁶)도 울고 간다.

“박망¹⁷⁶⁷)의 소둔¹⁷⁶⁸) 겨우 살아 적벽화전¹⁷⁶⁹) 또 웬 일고?¹⁷⁷⁰)

우설¹⁷⁷¹)에 상한¹⁷⁷²) 길을 고치라고만 호령하니, 지친 군사가 원¹⁷⁷³) 없을까? 전복병¹⁷⁷⁴)에 살아오나,

후복병¹⁷⁷⁵) 다시 나면 그 일을 뉘라서 당하더란 말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니,

35. (장승타령) 조조가 장승을 문초하라 하니, 장승이 조조의 꿈에 나타나 원통함을 말한다.

[아니레]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네 이놈들, 사생¹⁷⁷⁶)이 유명커늘¹⁷⁷⁷) 너희 어찌 우는고? 다시 우는 자 있으면, 이놈들, 군법으로 참하리라.”¹⁷⁷⁸)

“Can there be more difficult journey than their journey?”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Xu Huang(徐晃) defend the back of the formation. Cheng Yu(程昱) weeps.

“Alas! How poor my fate is! I promised to myself to bring the war to an end with various methods and to start a new world in vain.

I can’t believe I wander around on the field of grasses, sleeping outdoors. The premier is greedy, enjoying wine and women too much.

He pretends to be ill on a battleground, and his high officials disappeared.

His million soldiers were massacred, his scheme was futile, and his officers gained nothing.”

Because Cheng Yu(程昱) cries, so does an officer.

“I managed to survive the fire attack in Bowang(博望). I can’t believe I suffered from the fire attack in the Chibi(赤壁) River. He is yelling at us to fix the road damaged by rain and snow. Wouldn’t exhausted soldiers hold a grudge? We managed to survive the past ambush.

But who will survive the future ambush? Alas!” He sobs as said above.

35. (Song of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tells his soldiers to interrogate a wooden statue. The statue shows up in his dream and sobs out his sad story.

[Aniri] Cao Cao(曹操) is angry with the soldier. “You cowards! Our life is up to heaven.

How can you sob? Anybody weeping from now on will be beheaded by the military law.”

초원 산곡¹⁷⁷⁹) 아득한데 낙후패줄¹⁷⁸⁰) 영솔¹⁷⁸¹)하여 두세 번 머물러
한 곳을 당도하니,

적적산중¹⁷⁸²) 송림간¹⁷⁸³)에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노목¹⁷⁸⁴)을 질시하
고,¹⁷⁸⁵)

채수염¹⁷⁸⁶) 점잖으니¹⁷⁸⁷) 엄연히¹⁷⁸⁸) 서 있거늘, 조조 보고 대정질겁
하여,¹⁷⁸⁹)

“여봐라, 정욱아! 저 앞에 나를 보고 우뚝 섰는 저 장수가 저 누구냐?
좀 살펴봐라. 어디서 보던 얼굴 같으다.”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그게 장승¹⁷⁹⁰)이오.”

조조 더욱 깜짝 놀래, “장승이라니? 장비네 한 일가¹⁷⁹¹)냐?”

정욱이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승상님. 화용도 이수¹⁷⁹²) 표한¹⁷⁹³)
장승이온데 그다지 놀래시니이까?”¹⁷⁹⁴)

조조 속으로 화를 솔곳이¹⁷⁹⁵) 내가지고, “이 요망한 장승놈이 영웅
나를 속였구나.

네 여봐라, 그 장승놈 잡아들여서 군법으로 시행하라.” “예!”

좌우 군사 소리치고 장승 잡아들일 적에, 조조가 잠깐 졸더니, 비몽사
몽간에¹⁷⁹⁶) 목신¹⁷⁹⁷)이 현몽¹⁷⁹⁸)을 하는데,

[중중모레] “천지만물¹⁷⁹⁹) 삼겨날 제¹⁸⁰⁰) 각색 초목¹⁸⁰¹)이 먼저 나,

유소씨¹⁸⁰²) 신농씨¹⁸⁰³) 구목위소¹⁸⁰⁴)를 하였고,

현원씨¹⁸⁰⁵) 작주거¹⁸⁰⁶) 이제불통¹⁸⁰⁷)을 하였고,

석상의 오동목¹⁸⁰⁸)은 오현금¹⁸⁰⁹) 복판¹⁸¹⁰) 되어 대순¹⁸¹¹) 슬상¹⁸¹²)

에 비껴 누워, 남풍가¹⁸¹³) 지어내어 시르령 등당¹⁸¹⁴) 탈 제

봉황도 춤추고, 산조¹⁸¹⁵)도 날아드니 그 아니 태평이며,

문왕지감당목¹⁸¹⁶)은 비파성¹⁸¹⁷) 띠어 있고, 사후¹⁸¹⁸) 영혼 관관
목¹⁸¹⁹)은 백골신채¹⁸²⁰) 안장¹⁸²¹)하고,

Cao Cao(曹操) leads the defeated soldiers on a vast plain and a valley, taking a few breaks, and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tall warrior in the pine grove of a quiet valley has glaring eyes. His beard is narrow and long. He stands gently and clearly. Cao Cao(曹操) is petrified.

“Hey Cheng Yu(程昱)! Who is the warrior staring at me and standing high over there? Check him out. His face looks familiar to me.”

Cheng Yu(程昱) speaks, “Premier, it is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is all the more frightened. “A wooden statue? Is it Zhang Fei’s(張飛) relative?”

Cheng Yu(程昱) is struck dumb. “Hello, premier. It is a wooden statue indicating how far Huarong(華容) Road is. Why are you frightened?”

Cao Cao(曹操) is a little angry. “The wicked statue deceived me, a hero.

Hey soldiers. Bring it here and punish it in accordance with military law.” “Yes!”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bring the statue. Cao Cao(曹操) dozes briefly, and the god of wood appears in his dream.

[Jungjungmori] “Grasses and trees were the first things created in the world.

You Chao Shi(有巢氏) and Shen Nong Shi(神農氏) taught us how to make a house with trees.

Xuan Yuan Shi(軒轅氏) taught us how to make a ship and a wagon, making it possible to travel to an untrodden place.

A paulownia tree on a rock became the body of a pentachord, was sat obliquely on King Shun’s(舜) knee, and was played.

Even a phoenix danced, and mountain birds visited. Isn’t this peace?

King Wen’s(文) wild pear tree became a lute. Boards of a coffin in which white bones are kept bring wealth and fame to a dead person.

신발실당하올 적에¹⁸²²) 율목¹⁸²³)은 신주¹⁸²⁴) 되어 사시절사¹⁸²⁵) 기
고일¹⁸²⁶)에 만반진수¹⁸²⁷) 설위하고,¹⁸²⁸)

분향,¹⁸²⁹) 헌작,¹⁸³⁰) 독축¹⁸³¹)하니 그 소중이¹⁸³²) 어떠하며,
목물¹⁸³³) 팔자¹⁸³⁴)가 다 좋되, 이내 일신 곤궁하여 하산작량¹⁸³⁵)이
몇 해린고?¹⁸³⁶)

궁궐 동량¹⁸³⁷) 못 될진대 차라리 다 버리고 대광¹⁸³⁸)이나 바랐더니마는,
무지한 어떤 놈이 가지 찢어 방천말¹⁸³⁹)과, 동동이¹⁸⁴⁰) 끊어내어 마
판¹⁸⁴¹) 구유,¹⁸⁴²) 작도판,¹⁸⁴³) 개밥통,¹⁸⁴⁴) 뒷간 가래¹⁸⁴⁵) 소욕대
로¹⁸⁴⁶) 다 헌 후에,

남은 것은 목수를 시켜 어느 험귀¹⁸⁴⁷) 얼굴인지, 방울눈,¹⁸⁴⁸) 다박수
염,¹⁸⁴⁹) 주먹코,¹⁸⁵⁰)

주토칠,¹⁸⁵¹) 팔자 없는 사모품대¹⁸⁵²)

장승이라고 이름 지어, 행인거래¹⁸⁵³) 대도상에¹⁸⁵⁴) 엄연히¹⁸⁵⁵) 세워
두니,

입이 있으니 말을 하며, 발이 있어 걸어갈까? 유이불문,¹⁸⁵⁶) 유목불
견,¹⁸⁵⁷)

불피풍우¹⁸⁵⁸) 우뚝 서서 진퇴중에¹⁸⁵⁹) 있는 나를 숭상님은 모르시고
그다지¹⁸⁶⁰) 놀래시니,

그리하고 대전하며,¹⁸⁶¹) 기군찬역¹⁸⁶²) 아닌 나를 무죄행형¹⁸⁶³)이 웬
일이오?

분간¹⁸⁶⁴) 방송¹⁸⁶⁵)하웁기를 천만천만¹⁸⁶⁶) 바라내다.”¹⁸⁶⁷)

When a person dies, a chestnut tree becomes a divine tag in a family shrine. Good food is offered for rituals every year around.

Incense is burned, wine is offered, and a written prayer is recited, so the divine tag is held dearly.

The fate of all things made of wood is good except me. How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was taken down from a mountain and became a pillar of a small house?

Although I did not wish to be a pillar in a palace, I wished to be a wide board.

But bad people cut me down and avail themselves of my branches to make a stake, a board of a barn, a manger, and a bottom of a straw-cutter, a bowl for dog's food, and a shit spade.

The remaining part of my body was taken to a carpenter who made a ghostly face, big eyes, a short and strong beard, and a flat nose out of it.

He pasted red dirt over me and put an official hat on my head that I was not fated to put on.

I was named 'jangseung' and set up clearly on a wide road where passersby come and go.

I can neither speak nor walk. I can neither see nor hear.

I stand up high without moving forward or backward in the rain and the wind. Mr. Premier, you didn't recognize me and was scared by me.

I didn't hit anybody. Nor did I rebel against a king. I can't believe you are trying to punish me although I am innocent. I sincerely wish that you think harder and release me."

36. (군사 점고) 조조가 한나라 장수들의 험담을 늘어놓다가 군사 점고를 하니, 허무적이가 들어와 무슨 점고냐며 항의한다.

[아니리] 조조가 깜짝 놀래 잠에서 펴뜩¹⁸⁶⁸) 깨더니마는,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목신¹⁸⁶⁹) 행형¹⁸⁷⁰) 마라. 목신 보고 놀랜
것이 내 도리어 실체¹⁸⁷¹)로구나. 분간 방송하여라.” 도로 그 자리에
갓다 세웠것다.

조조가 핫김에 일호주¹⁸⁷²) 취케 먹고 앉아서, 오한 양진 장수¹⁸⁷³) 험
구¹⁸⁷⁴)를 하는데, 이런 가관¹⁸⁷⁵)이 없것다.

“여봐라. 내가 이번 싸움에 패는¹⁸⁷⁶) 좀 보기는 보았지만은, 도대체 오
한 양진 장수 근본¹⁸⁷⁷)인즉 그놈들이 보잘 것 없는 상놈¹⁸⁷⁸)들이니라.
유현덕 요¹⁸⁷⁹) 손¹⁸⁸⁰)은 제가 자칭 한중실¹⁸⁸¹)이라 하되,
양산 채마전¹⁸⁸²)에서 돛자리¹⁸⁸³) 치기,¹⁸⁸⁴) 짚신 삼아 생활하던 궁
반¹⁸⁸⁵)이요,

관공 그 손은 하동¹⁸⁸⁶) 그릇장사 점한¹⁸⁸⁷)이요, 장비 그 손은 탁
군¹⁸⁸⁸) 산육장사¹⁸⁸⁹)놈이라.

그놈의 고리눈¹⁸⁹⁰)에 돌리어¹⁸⁹¹) 유 · 관 · 장 삼인¹⁸⁹²)이 결의형
제¹⁸⁹³) 맺었것다.

또한 조자룡인가 이 손은, 제가 벼룩 신령¹⁸⁹⁴) 아들놈인 체하고 진중
으로 팔팔팔팔팔팔팔 팔뛰어 돌아다니면서 아까운 장수 목만 싹싹¹⁸⁹⁵)
베어가거든.

그놈 근본¹⁸⁹⁶) 뉘 알 수 있나? 그놈은 외갓집도 없이 상산 돌 틈에서
쑥 불거진¹⁸⁹⁷) 놈이라

뉘 놈의 자식인 줄 모르지마는, 저희끼리 차작¹⁸⁹⁸)하여 조자룡이라
하것다.

36. (Inspection of Soldiers) After speaking ill of the warriors of the Han(漢) Country, Cao Cao(曹操) inspects his soldiers. Heomujeok comes and complains about the inspection.

[Aniri] Surprised, Cao Cao(曹操) wakes up quickly.

“Hey soldiers. Don’t punish the statue. I feel ashamed that I was frightened by the statue. Set it free.” The statue is put back. Angry, Cao Cao(曹操) drinks a bottle of wine and speaks ill of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which is quite a show.

“Hey soldiers. Although I was defeated in this war,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are of low and trivial background.

Liu Bei(劉備) claims he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But he was of a fallen upper class person, growing vegetables on Yangshan(陽山) and weaving a mat and shoes with straw for a living.

Guan Yu(關羽) was a craftsman making and selling pottery in Hedong(河東). Zhang Fei(張飛) was a merchant selling raw meat in Zhuo(涿) County.

Liu Bei(劉備) and Guan Yu(關羽) pledged to be brothers with him because they were fooled by his darn white circles around round eyes.

Zhao Zi Long(趙子龍) pretends to be a son of a god. He runs around like a bird, killing my great officers on the battlefield. But who knows his background? He does not have his mother’s parents. He popped up from a crevice of a rock on Changshan(常山).

Nobody know his parents. He is called Zhao Zi Long(趙子龍) among them.

아, 지체¹⁸⁹⁹)는 고사하고 내 나이가 실존장¹⁹⁰⁰)인데, 이 때려죽일 놈이 여차하면,¹⁹⁰¹) ‘이놈, 조조야, 이놈, 조조야.’ 하니 내가 세육¹⁹⁰²)에 뜻이 없어지거든.

그놈 뒤흔으면 좋겠지마는, 죽지도 않고 원수놈이었다.

또한 제갈량인지 요 손은, 제가 술법¹⁹⁰³) 있는 체하고 말은 잘하지마는, 남양 땅에서 밭 갈던 농토생¹⁹⁰⁴)이 아니냐?

현덕이가 용렬한¹⁹⁰⁵) 자라, 그 손을 데려다가 선생이니, 후생¹⁹⁰⁶)이니 하지마는, 다 보잘 것 없는 보리봉태¹⁹⁰⁷)니라.

앞으로 너희들 그놈들 만나거든 미리 겁내지 마라.”

정욱이 여짜오되,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아¹⁹⁰⁸) 예로부터 일렀삽고,¹⁹⁰⁹) 병교지는 패라¹⁹¹⁰) 하니, 남의 험구 그만하고 남은 군사 점고¹⁹¹¹)나 하사이다.”

“점고하잘 것 뭣 있나? 정욱이 너, 나, 나, 너, 모두 합쳐서 한 오십 명쯤 되니,

손가락으로 꼽아도 알겠구나. 정욱이 네가 점고하여 보라.”

정욱이가 군안¹⁹¹²)을 안고 군사점고를 하는데, “대장의 안유병이!” “물고¹⁹¹³)요!”

조조가 듣더니마는, “아차,¹⁹¹⁴) 아까운 놈 죽었다. 안유병이가 어찌하여 죽었느냐?”

“오림에서 자롱 만나 죽었소.” “너희 급히 가서 안유병이 살인 가 물러 오너라.”¹⁹¹⁵)

“아, 승상님 혼자 가겨¹⁹¹⁶) 물러 보시시오.”¹⁹¹⁷)

“야, 이놈들아. 나 혼자 가 맞아 죽게야?”¹⁹¹⁸) “아, 그러면 소졸등¹⁹¹⁹)은 어찌 간단 말썬이오?”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하는 말이다. 또 불러라!” “후사파¹⁹²⁰)에 천충¹⁹²¹) 허무적이!”

Forget about the ranks. I am older than they, but they often call me, ‘You villain, Cao Cao(曹操),’ which makes me give up my worldly ambition.

I wish he dies, but he is an enemy that doesn’t die.

Even though Kong Ming(孔明) pretends to be wise and is eloquent, he was a trivial farmer cultivating a field in Nanyang(南陽).

Liu Bei(劉備) is stupid to take Kong Ming(孔明) on his side and respect him as a teacher or something like that. But he is a worthless punk.

Hey folks! Don’t be intimidated by the punks.”

Cheng Yu(程昱) speaks, “An old saying holds one can raise his social status regardless of his family background.

Those who are arrogant in a combat are bound to be defeated. Stop speaking ill of others and inspect the soldiers.”

“There are not many to be inspected. Cheng Yu(程昱), you, me, me, and you. There are about fifty in total.

It is easy to count them, using fingers. Cheng Yu(程昱), you inspect the soldiers.”

Cheng Yu(程昱) inspect soldiers, holding a soldier roster. “Officer Anyubyeong!” “He died.”

Cao Cao(曹操) says, “Anyubyeong was a good officer. Why did he die?”

“Zhao Zi Long(趙子龍) killed him in Wulin(烏林) Forest.” “You, go back there quickly and bring him here alive.”

“Premier, you go there alone and bring him here alive.”

“You bastards. If I go there alone, I will be beaten to death.”

“If so, how can we, soldiers, go there?”

“I said so because I take pity on him. Call the next!”

“Heomujeok, an officer in the back of the formation!”

[중모래] 허무적이가 들어온다. 투구¹⁹²²⁾ 벗어 손에 들고, 갑옷 벗어
 짊어지고,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짊고 전동전동¹⁹²³⁾ 들어오며,
 “원한하니¹⁹²⁴⁾ 제갈량 동남풍 아닐진대 백만 대병¹⁹²⁵⁾이 다 죽을까?
 어이타¹⁹²⁶⁾ 불에 소진하여¹⁹²⁷⁾ 돌아가지 못할 패군,¹⁹²⁸⁾
 갈 도리¹⁹²⁹⁾는 아니하고 점고는 웬 일이오? 점고 말고 어서 가사이다.”
 조조 화를 내어, “이놈! 너는 천충지도리¹⁹³⁰⁾로 군례¹⁹³¹⁾도 없이 오연
 불배¹⁹³²⁾ 꽤썸하다. 네, 저놈 목 싹 베어 내던져라!”
 허무적이 기가 막혀, “예, 죽여 주오. 승상 장하에¹⁹³³⁾ 죽거드면,¹⁹³⁴⁾
 혼비중천¹⁹³⁵⁾ 고향 가서 부모, 동생, 처자, 권술¹⁹³⁶⁾ 얼굴이나 보겠내다.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 조조 감심하여,¹⁹³⁷⁾ “오냐, 허무적아, 우지
 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네 권술이 내 권술이니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이에, 허무적아,
 우지 마라.”

37. (골래종이, 전동다리, 구먹쇠) 골래종이, 전동다리, 구 먹쇠가 들어와 조조를 조롱한다.

[아니레] “우지 말고 거기 있다가 점고 끝에 함께 가자. 또 불러라!”
 “좌기병¹⁹³⁸⁾에 골래종이!”¹⁹³⁹⁾
 [엇모래] 골래종이 들어온다. 골래종이 들어온다.
 좌편 팔 창을 맞고, 우편 팔 살을 맞아, 다리도 절룩절룩, 반생반
 사¹⁹⁴⁰⁾ 들어와, “예!”

[Jungmori] Heomujeok comes in, weeping. He holds his helmet in his hand and hangs his armor over his shoulder.

He hobbles in, as he uses a broken spear upside down as a cane.

“Would the million soldiers die without the southeast wind by Kong Ming(孔明)?

We are defeated and can’t go back home because we were burned by the fire.

We should think about going back home. What is this inspection for? Stop the inspection and take off now.”

Cao Cao(曹操) is angry. “You rat! But you are arrogant not to salute to me as an officer should. You are arrogant. Cut his head off!”

Heomujeok is dumfounded. “Yes, please kill me. If you beat me to death, my soul will fly to my hometown and see my parents, brothers, wife, and children.

Please kill me right away.” Cao Cao(曹操) is moved. “Okay, Heomujeok. Don’t weep. Your parents are my parents.

Your family members are my family members. So don’t sob. Heomujeok, don’t cry.”

37. (Golnaejong, Jeondongdari, and Gumeoksoe) Golnaejong, Jeondongdari, and Gumeoksoe come in, making fun of Cao Cao(曹操).

[Aniri] “Stop wailing and stay there. Let’s take off after the inspection. Call the next!” “Golnaejong, the left flag soldier!”

[Eonmori] Golnaejong comes in. He comes in.

His left arm is shot by a spear, and his right arm was shot by an arrow. He hobbles in, half dead and half alive, and says. “Yes!”

[아니레] 조조가 보더니, “에끼,¹⁹⁴¹⁾ 어따,¹⁹⁴²⁾ 거 병신 부자로구나.

저놈이 어디서 낮잠 자다가 산벼락¹⁹⁴³⁾ 맞은 놈 아니냐, 저?

네 여봐라, 우리는 죽겠다살겠다¹⁹⁴⁴⁾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느지막히¹⁹⁴⁵⁾ 떨어졌다가 우리 간 곳만 손가락으로 똑똑¹⁹⁴⁶⁾ 가르쳐줄 놈이니, 너그¹⁹⁴⁷⁾ 여러 날 전쟁불식¹⁹⁴⁸⁾에 소중¹⁹⁴⁹⁾인들 없겠느냐?

저놈 큰 가마술에다가 물 많이 붓고 폭신¹⁹⁵⁰⁾ 진케¹⁹⁵¹⁾ 달여라. 한 그릇씩 먹고 가자.”

골래종이 골을 내어 눈을 찢어지게 흘기며, “승상님 눈 뵈¹⁹⁵²⁾이 인장식¹⁹⁵³⁾ 많이 하게 생겼소.”

“어따, 저놈 보기 싫다. 쫓아내고 또 불러라!” “우기병¹⁹⁵⁴⁾에 전동다리!”¹⁹⁵⁵⁾

[중중모레]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들어 메고, 발세치레¹⁹⁵⁶⁾ 건조로¹⁹⁵⁷⁾ 세 발걸음 중뛰엄,¹⁹⁵⁸⁾ 몸을 날려 경정꺽정¹⁹⁵⁹⁾ 섭수¹⁹⁶⁰⁾ 있게 들어와, “예!”

[아니레] 조조 보더니마는, “에끼, 웬 놈이 저리 성하냐?¹⁹⁶¹⁾ 저 놈이 장비 군사 아니냐?”

“누가 장비 군사예요? 성하거든 어서 회쳐¹⁹⁶²⁾ 잡수시오.” “너 이놈아, 그게 웬 소린고?”

“아, 병든 놈 가마술에다 달여 먹자기로, 성한 놈은 회쳐서 잡수라고 했소.”

“어따, 이놈아. 너는 하도 성하기에 반가와서 하는 말이로다.”

“승상님 군사들이 미련해서 죽고 병신이 되지요.” “네 이놈, 그게 웬 소린고?”

“아, 승상님도 생각을 좀 해보시오. 싸움할 때는 뒤로 숨고, 싸움 아니 할 때는 앞에서 저정거리고 다니면¹⁹⁶³⁾ 죽을 바도 없고 병신될 바 만무¹⁹⁶⁴⁾하지요.”

[Aniri] Cao Cao(曹操) responds, “My goodness. You are rich in deformations.

Doesn’t he look like he was hit by lightning while taking a nap? Hey folks. If we flee for our lives, he will fall far behind us and tell the enemy ambush where we went, using his finger. You must miss meat because you have been fighting for several days without a break.

Put that rat in a large iron pot with water and boil it hard. Let’s drink the soup and take off.”

Angry, Golnaejong stares at Cao Cao(曹操). “Mr. Premier, your eyes indicate that you eat a lot of human soup.”

“God. I don’t like that villain. Get him out of here and call another in!” “Jeondongdari, the right flag soldier!”

[Jungjungmori] Jeondongdari comes in. He comes in.

Carrying a broken spear on his shoulder, he walks three steps and runs wildly as if he were playing. “Yes!”

[Aniri] Cao Cao(曹操) has been watching him. “Why isn’t he injured? Isn’t he Zhang Fei’s(張飛) soldier?”

“Who is Zhang Fei’s(張飛) soldier? If I am unwounded, please eat me raw.” “You scoundrel.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You said you would cook and eat a wounded soldier, so I said you should eat an unwounded soldier raw.”

“I said that because I was glad to see you unwounded.”

“The soldiers died and were crippled because they were stupid.”

“You villain. What are you saying?”

“Think about this, Mr. Premier. If you fall behind when the battle goes on, and if you act playfully in the front when no battle goes on, you will neither die nor be crippled.”

“어따, 그놈 두었다가 군중에 씨 할까¹⁹⁶⁵) 무섭구나. 저놈 보기 싫다. 쫓아내고 또 불려라.”

“마병장¹⁹⁶⁶) 구먹쇠!” “예이!” “야, 이놈아, 너는 전장에 잃은 건 없느냐?”

“예, 잃은 건 별로 없습니다.” “야, 그 신통하구나. 말은 다 어쨌는고?” “팔아버렸소.”

“이런 흥한¹⁹⁶⁷) 도적놈이 있나? 아, 이놈아, 그 좋은 말을 날더러¹⁹⁶⁸) 묻지도 않고 네 것 팔듯 팔았던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한나라 공명이가 사러 보내더라고 왔기에, 미리 대돈금¹⁹⁶⁹)으로 열일곱 마리에 양 일곱 돈¹⁹⁷⁰) 받고 팔아버렸소.”

“야, 이놈아, 말 없으면 무엇을 타고 간단 말이냐?”

“아, 승상님도, 타고 가실 것은 걱정 마시오. 들것¹⁹⁷¹)을 만들어서 타고 가시든지,

정 편케 가실 양이면 지계에다 짊어지고 설렁설렁¹⁹⁷²) 가면, 길 분고¹⁹⁷³) 더욱 좋지라우.”¹⁹⁷⁴)

“아, 이놈아, 내가 앓은뱅이 의원이냐? 지계에다 짊어지고 가게, 이 처 죽일 놈아! 그놈 눈구녕¹⁹⁷⁵)이 큰 일 낼 놈이로고.”

“아, 눈이사¹⁹⁷⁶) 승상님 눈이 더 큰 일 내게 생겼지라우.”¹⁹⁷⁷)

“여봐라, 정옥아. 이놈들 말말에¹⁹⁷⁸) 폭폭하여¹⁹⁷⁹) 나 죽겼다.

점고 그만하고 내 시장한깨¹⁹⁸⁰) 어서 군량지기¹⁹⁸¹) 불려 밥 지어라!”

[중모레] 점고하여 보니 불과 백여 명이라.

그 중에 갑옷 벗고, 투구 벗고, 창 잃고 앓은 놈, 누운 놈,

엎진¹⁹⁸²) 놈, 퍼진 놈, 배가 고파 기진¹⁹⁸³)한 놈,

고향을 바라보며 양천통곡¹⁹⁸⁴) 우는 소리 화용산곡¹⁹⁸⁵)이 망망¹⁹⁸⁶)하다.

조조 마상에서¹⁹⁸⁷) 채¹⁹⁸⁸)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길을 재촉하더니마는,

“God! I am afraid others might imitate him. I dislike him. Get him out of here, and call the next.”

“Gumeoksoe, a cavalry soldier!” “Yes!” “Hey, rat! Didn’t you lose anything on the battleground?”

“I didn’t lose very much.” “Good. What happened to the horses?”

“I sold them.”

“You are a wicked robber! Listen, you bastard! How could you sell such good horses without asking me as if you were selling your horses?”

“A man said Kong Ming(孔明) of the Han(漢) Country sent him to buy the horses from me. I sold the seventeen horses at a high price.”

“You fool! How can I go back home without the horses?”

“Oh! Premier, don’t worry about the ride. You can make a stretcher and ride it.

If you insist a comfortable ride, we can carry you on an A-frame carrier. The journey will become shorter, which is better.”

“You scoundrel! Am I crippled to be carried on an A-frame carrier? Villain! Your dam eyes might cause big trouble.”

“Speaking of eyes, your eyes are more ominous than mine.”

“Hey, Cheng Yu(程昱). These villains’ words make me crazy. Stop the inspection. I am hungry. Have a cook prepare food!”

[Jungmori] The inspection reveals only about a hundred soldiers. Some take off their armor and helmets. Some sit down and lie down, after losing their spears.

Some lie on their faces, and some spread out their limbs. Some are exhausted by hunger.

Some look at the sky in the direction of their homes. Their crying sound propagates to the vast valley of Huarong(華容). Cao Cao(曹操) issues orders on his horse with a whip, urging his troops to march forward.

38. (관운장 출현) 조조가 헛웃음을 웃다 관운장이 나타나 니, 정욱이 조조에게 빌어보라고 한다.

[아니리] “히히해해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애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¹⁹⁸⁹)에 두 번 웃어
죽을 봉변당하고,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났으니, 이제는 씨도 없이¹⁹⁹⁰) 다 죽는구나!”
조조 이 말 듣고 얇은 속¹⁹⁹¹)에 화를 내어,
“야, 이놈들아.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나타난단 말이나?
느그놈들¹⁹⁹²)도 내 웃으면 트집 잡지 말고 생각을 좀 해 봐라.
만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가 복병¹⁹⁹³)은 말고 병든 군사 여나
른¹⁹⁹⁴)만 물어 두었더라도,
조조는 말고 비조¹⁹⁹⁵)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히히히히히히해해해
해해!”하고 대소하니,
[자진모래] 웃음이 지듯마듯¹⁹⁹⁶) 복병이 일어난다.
화용도 산상에서¹⁹⁹⁷) 방포성이 ‘궁!’ 이 너머에서도 ‘궁!’ 저 너머에서
도 ‘궁 궁그르르르르르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뇌고 나팔 우, 쿵 쾅 처르르르르
르르르. 화용산곡¹⁹⁹⁸)이 뒤끓으니,¹⁹⁹⁹)
위국 장졸들이²⁰⁰⁰) 혼불부신²⁰⁰¹)하여 면면상고²⁰⁰²) 서 있을 제,

38. (Guan Yu(關羽) Shows Up.) When Cao Cao(曹操) laughs with no reason, Guan Yu(關羽) shows up. Cheng Yu(程昱) suggests Cao Cao(曹操) beg Guan Yu(關羽) for mercy.

[Aniri] Cao Cao(曹操) laughs loudly. ‘Heehee Haehaehae!’ Cheng Yu(程昱) is stunned. “Watch out, folks. The premier laughed again.”

He laughed in the Chibi(赤壁) River, and a million soldiers died. He laughed again in Wulin(烏林) Forest, and we nearly died. He laughed again in this bottle-like place. We will be annihilated!”

Narrow-minded, Cao Cao(曹操) is angry with Cheng Yu’s(程昱) words.

“You scoundrel! Is it true we fall into an ambush whenever I laugh?

Don’t find fault with my laughing. Think about this.

Set aside ambush. If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placed a dozen of sick soldiers here, even a flying bird can’t survive, let alone me. Heeheeheee. Haehae.” He laughs loudly.

[Jajinmori] No sooner Cao Cao’s(曹操) laugh is over than an ambush starts.

Shooting sounds are made from several places of the mountain above Huarong(華容) Road.

The mountain seems to collapse, and the world seems to change radically. Musical instruments generate sounds. The valleys of Huarong(華容) Road shake.

Confused, officer and soldiers of Wei(魏) Country look at each other’s face.

오백 도부수²⁰⁰³)가 양 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²⁰⁰⁴)를 들었는데, ‘대원수²⁰⁰⁵) 관공²⁰⁰⁶) 삼군²⁰⁰⁷) 사명기²⁰⁰⁸)라! 등두렛이²⁰⁰⁹) 새졌는데,²⁰¹⁰) 늠름하다 주안봉목,²⁰¹¹) 와잠미,²⁰¹²) 삼각수²⁰¹³)에 봉의 눈을 부릅뜨고, 청룡도²⁰¹⁴) 빗겨 들고 적토마²⁰¹⁵) 달려오며, 우레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뿜지르며,²⁰¹⁶)

“네 이놈, 조조야! 네 어디로 도망을 갈다?²⁰¹⁷) 짜른²⁰¹⁸)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욱아!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혼을 잃고,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자룡 같소!”

“아, 이 녀석아. 자세히 좀 살펴봐라!” 정욱이 정신 차려 살펴보고 하는 말이,

“기색²⁰¹⁹)은 홍색이요, 위풍²⁰²⁰)이 인후²⁰²¹)하니 관공일시²⁰²²) 분명 하오.”

“더욱 관공이랑이면²⁰²³) 옥도무치²⁰²⁴) 요, 옥탈무계²⁰²⁵)라.”

[아니레] “사세도차²⁰²⁶)하니 암커니²⁰²⁷) 대적²⁰²⁸)하여 불밖에는 도리가 없다. 너희들도 힘껏 한 번 싸워보아라.” 정욱이 여짜오되,

[중모레] “장군님의 높은 채주, 호통 소리 한 번 하면 길짐승²⁰²⁹)도 갈 수 없고,

검광²⁰³⁰)이 번뜻하면 나는 새도 똑 떨어지니, 적수단검²⁰³¹)으로 오관참장²⁰³²) 하던 수단²⁰³³)

인마²⁰³⁴) 기진²⁰³⁵)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만일 당적²⁰³⁶)을 하려다는 씨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전일 장군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Five hundred soldiers armed with long swords and large axes stand in two rows, holding a commander's flag which clearly reads, 'General Guan Yu(關羽) in Charge of Three Units.'

Guan Yu(關羽) looks stately with a red face and long eyebrows. His beard is three-angled.

He opens his phoenix eyes widely, holding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and riding a red horse. He shouts at Cao Cao(曹操) like thunder.

"Cao Cao(曹操), you scoundrel! Where can you run to? Pull out your short neck. Here goes my Blue Dragon Sword!"

Cao Cao(曹操) is struck dumb. "Hey Cheng Yu(程昱)! Who is that general coming at me?"

Cheng Yu(程昱) is confused also. "He shouts like Zhang Fei(張飛), and is fast like Zhao Zi Long(趙子龍)!"

"You fool. Take a close look at him!" Cheng Yu(程昱) gathers himself and says,

"The flag is red. The appearance is majestic and gentle. He must be Guan Yu(關羽)."

"If he were Guan Yu(關羽), we can neither flee nor escape from him."

[Aniri] "Somehow we are in the situation where we have no choice but to fight. You, do our best and confront him." Cheng Yu(程昱) speaks,

[Jungmori] "Guan Yu(關羽) is a great warrior. If he shouts, even an animal with four legs can't move.

If his sword flashes, even a flying bird falls down. He was skillful to kill many of our officers with a sword, going through five gates.

Our men and horses were exhausted. How can we defeat him? If we defy him, he might kill all of us.

You once did him a favor. Please beg him for mercy."

“빌 마음도 있다마는, 나의 웅명²⁰³⁷)이 삼국에 으뜸이라, 사즉사언정²⁰³⁸)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

39. (조조 목숨 애걸) 조조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니 관운장이 꾸짖는다.

[아니레] “애들아. 내가 신통한 피를 하나 생각했다.” “무슨 피를 생각 하셨소?”

“내가 죽었다고 흠이불²⁰³⁹) 덮어놓고 군중²⁰⁴⁰)에 발상²⁰⁴¹)하고, 느그들²⁰⁴²) 모두 발 뺏어놓고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할 것이니, 그 때 흠이불 뒤집어쓰고 그냥 살살 기다가 한달음박질²⁰⁴³)로 달아나 자.”

정욱이 여짜오되, “여보시오, 승상님. 산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²⁰⁴⁴)이 쟁공²⁰⁴⁵)한데,

사승상²⁰⁴⁶) 목 베기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운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

공연한 피 냈다가 목만 허비하고²⁰⁴⁷) 보면 다시 움²⁰⁴⁸) 길어날 수²⁰⁴⁹) 없고,

화용원귀²⁰⁵⁰) 뿔 터이니 얇은 피 내지 말고 어서 들어가 한 번 빌어나 보옵소서.”

조조가 하릴없이²⁰⁵¹) 장군 마하²⁰⁵²)에 빌러 들어가는데,

[중모레] 투구 벗어 땅에 놓고, 갑옷 벗어서 말께²⁰⁵³) 엎고,

장검 빼어서 땅에 꽂고, 대하머리²⁰⁵⁴) 고추상투²⁰⁵⁵) 가는 목을 움츠리고

모양없이²⁰⁵⁶)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히히 해해.”

“I can beg for mercy, but my name is the best in the three countries. I would rather die. If I beg, future generations will laugh at me.”

39.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As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Guan Yu(關羽) rebukes him.

[Aniri] “Folks, I hit upon a smart idea.” “What is the smart idea?” “Cover me with a blanket as if I were dead. Announce that I died.

If you all let your legs loose and cry around me, Guan Yu(關羽) will think of me as being dead and go away.

After he is gone, let’s crawl with the blanket on and then run away fast.”

Cheng Yu(程昱) speaks, “Famous generals of both countries are competing to catch you alive.

It will be easy for Guan Yu(關羽) to cut the dead premier’s head off with his sharp Blue Dragon Sword.

You might lose your life because your useless idea. Your life cannot be brought back.

You will become an evil ghost of Huarong(華容) Road. Forget about the shallow idea and beg for your life.”

Cao Cao(曹操) cannot but move to under the general’s horse to beg for life.

[Jungmori] Cao Cao(曹操) takes off his helmet and puts it on the ground. He takes off his armor and puts it on the horse. He pulls out his long sword and pushes it into the ground. He is bald, and his topknot looks like a pepper. He pulls his slim neck in.

He doesn’t look good. He shortens his height and laughs, “Heehee. Haehae.”

몸을 굽혀 절하며 하는 말이, “장군님 뵈은 지 오래오니, 별래무양하시니까?”²⁰⁵⁷⁾

관공의 어진 마음 마상에서 몸을 굽혀 호언²⁰⁵⁸⁾으로 대답하되,
“나는 봉명하여²⁰⁵⁹⁾ 조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복병해서 기다린 지 오래졌다!”

조조가 비는 말이, “탁명한사²⁰⁶⁰⁾ 조맹덕은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²⁰⁶¹⁾을 거느리고 천리 전장 나왔다가

오적의 패를 보고,²⁰⁶²⁾ 초수²⁰⁶³⁾ 오산²⁰⁶⁴⁾ 험한 길에 황망히도²⁰⁶⁵⁾ 가읍다가,

천만의외²⁰⁶⁶⁾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났으니 어찌 아니 반가리까?²⁰⁶⁷⁾ 유정²⁰⁶⁸⁾하신 장군님은 고정²⁰⁶⁹⁾을 생각하여, 살려 돌려보내 주심을 천만천만²⁰⁷⁰⁾ 바라내다.”

관공이 꾸짖어 왈, “이놈, 네 말이 간사한 말이라.

내 비록 전일에 후은²⁰⁷¹⁾은 입었으나, 오늘날은 오·한 양진사²⁰⁷²⁾에 어찌 사로 공을 폐하리오?²⁰⁷³⁾

진작²⁰⁷⁴⁾ 죽일 것이로되, 전일 면분²⁰⁷⁵⁾ 생각하고 문답²⁰⁷⁶⁾은 서로 하거니와, 필경²⁰⁷⁷⁾은 죽이려니.

네 누세한록지신²⁰⁷⁸⁾으로 능상겁하²⁰⁷⁹⁾할뿐더러,

삼분천하²⁰⁸⁰⁾ 분분함²⁰⁸¹⁾도 널로²⁰⁸²⁾ 하여 요란하고,

기린각충의인²⁰⁸³⁾도 널로 하여 횡파²⁰⁸⁴⁾되니,

난세지간웅²⁰⁸⁵⁾이요, 치세지능신²⁰⁸⁶⁾ 너를 뉘 아니 미워하리?

He bends himself, bows, and speaks, “General,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Virtuous, Guan Yu(關羽) also bends himself down on his horse and replies nicely,

“I received an order to lie in ambush here to catch you. I waited for you here for a long time!”

Cao Cao(曹操) implores, “With an order from the emperor, I, a poor man, led many troops to a distant battlefield.

Defeated by the Wu(吳) Country, I was on the tough journey through the rivers of Chu(楚) Country and the mountains of Wu(吳) Country.

Unexpectedly, I came across you, general. How can I be not glad to see you here?

You are a nice general. I sincerely hope you remember we were good friends and set me free.”

Guan Yu(關羽) yells at him. “You villain. What you said is outrageous.

Even though I received a generous favor from you before, my thought about Wu(吳) Country and the Han(漢) Country takes precedence over my personal feeling toward you.

Although I have to kill you immediately, I am exchanging words with you because we are familiar with each other. Ultimately, however, I have to kill you.

Your family served the Han(漢) Dynasty for several generations. But you looked down on your superiors and threatened your subordinates into obedience.

The unified China was divided into the three chaotic countries because of you.

The names of loyal subjects in Qilinge(麒麟閣) Shrine were destroyed because of you.

You are wicked man in a chaotic time and a talented politician in a peaceful time. Who would not hate you?

좋은 길 다 버리고 화용도로 들어올 제는 네 운명이 그뿐이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다시 애궁히²⁰⁸⁷⁾ 비는 말이, “장군님, 듣조시오.²⁰⁸⁸⁾ 절흥²⁰⁸⁹⁾ 같은 흥노²⁰⁹⁰⁾로되, 백등칠일지위²⁰⁹¹⁾하여 한고조²⁰⁹²⁾를 살렸삽고,²⁰⁹³⁾

지백지신 예양²⁰⁹⁴⁾이는 조양자²⁰⁹⁵⁾를 죽이려고 협비수하고²⁰⁹⁶⁾ 궁중 도측²⁰⁹⁷⁾하였으되,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²⁰⁹⁸⁾이라 이르시고 오근피지²⁰⁹⁹⁾하였으니,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주고, 삼가 피하소서.”

관공이 꾸짖어 왈,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천중대인²¹⁰⁰⁾이라 일이 그러하거니와,

너는 한나라 적자²¹⁰¹⁾요, 나는 한나라 의장²¹⁰²⁾이라,

너 잡으려 예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 보낼쏘냐? 갈 길이 충급²¹⁰³⁾하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40. (관운장 호령) 조조가 과거사를 들먹이며 은혜 갚을 것을 요구하자, 관운장이 그 은혜는 이미 다 갚았다며 칼을 받으라고 소리친다.

[중중모레] 우리같은 호통 소리 조조의 약간 남은 일촌간장²¹⁰⁴⁾이 다 녹는다.

“아이고 여보, 장군님. 시각에²¹⁰⁵⁾ 죽일망정 나의 한 말을 들어보오. 전사²¹⁰⁶⁾를 잊으리까?

Your fate is bad, so you have chosen Huarong(華容) Road over an easy road. Don't argue with me. Here goes my sword!"

Cao Cao(曹操) implores pitifully. "Look, general. Although heinous, Xiungnu(匈奴) Tribe released the first emperor of Han Dynasty(漢) after surrounding him for seven days in Baideng(白登).

Yu Rang(豫讓), Zhi Bo's(智伯) subject, tried to kill Xiang Zi(襄子) of Zhao(趙) Country. He carried a dagger secretly and disguised himself as a bathroom painter in the palace. But he was captured by Xiang Zi(襄子).

Virtuous, Xiang Zi(襄子) called Yu Rang(豫讓) a righteous man and avoided him. General, please set me free and avoid me as he did."

Guan Yu(關羽) rebukes Cao Cao(曹操). "That happened because Yu Rang(豫讓) was righteous and Xiang Zi(襄子) was virtuous. But you are an enemy of the Han(漢) Country, and I am a righteous warrior of the Han(漢) Country.

I came here to catch you. How can I release you? I am in a hurry. Stop arguing. Here goes my sword!"

40. (Guan Yu(關羽) Yells.) As Cao Cao(曹操) talks about the past, he requests Guan Yu(關羽) to return his favor. Guan Yu(關羽) yells at Cao Cao(曹操), saying that he already did, and that he will kill him.

[Jungjungmori] As Guan Yu(關羽) yells like thunder, Cao Cao(曹操) becomes all the more timid.

"Hello, general. Please listen to me for a moment although you kill me. Did you forget what happened between us?

장군님의 장략²¹⁰⁷으로 황건적²¹⁰⁸ 패를 보아,²¹⁰⁹ 도원형제²¹¹⁰ 분
 산하고²¹¹¹ 거주²¹¹²를 모르실 제,
 내 나라로 모셔 들어 삼일소연,²¹¹³ 오일대연,²¹¹⁴
 상마에 천금이요,²¹¹⁵ 하마에 백금이라.²¹¹⁶ 금은보화 아끼잖고 말로
 되어서²¹¹⁷ 드렸으며,
 천하일색²¹¹⁸ 골라 들어 고대광실²¹¹⁹ 높은 집 미녀충공²¹²⁰하였으며,
 조석으로²¹²¹ 문안 등대²¹²² 정성으로 봉양터니
 그 정회²¹²³가 적다하며, 도원형제 만나려고 고귀 없이²¹²⁴ 가실 적에,
 오관 육장²¹²⁵을 다 죽여도 나는 원망을 아니 하고 직지²¹²⁶ 호송을
 하였는데,
 장군님은 어찌하여 고정²¹²⁷을 저버리시고²¹²⁸ 원수같이 미워하니,
 의장²¹²⁹이라 하신 말씀 그 아니 허사²¹³⁰니까?”
[중모레] 관공이 듣고 꾸짖어 왈, “네 이놈, 조조야! 네 말이 모두 당치
 않다.
 내 그 때 운수 불길하여 네 나라 갔을 적,
 하북대장²¹³¹ 안량,²¹³² 문추²¹³³가 네 나라 수다²¹³⁴ 장졸 씨 없이
 모두 죽이거늘,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있기가 미안하여, 신하로 자칭하고²¹³⁵ 전장으
 로 나갈 적에,
 네 손으로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거늘, 잔을 잠깐 머무르고 적토마상
 에²¹³⁶ 선뜻²¹³⁷ 올라 나는 듯이 달려가,
 일고성²¹³⁸ 한 칼 끝에 안량, 문추 두 장수 머리 선뜻 땡기령²¹³⁹
 베어 들고 네 진으로 돌아오니 술이 식지 아니했고,

As a general, you were defeated by Yellow-Hooded Robbers.
 After the firm resolution in the peach orchard, you were
 separated from your brothers and wandered around.
 I invited you to my country and threw a small party every three
 days and a big party every five days.
 I gave you a lot of money when you got on and off your horse.
 I give you gold and jewels generously.
 I selected the most beautiful women so that they console you
 in a large house.
 I did my best to serve you, visiting you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But unsatisfied, you left to meet your sworn brothers without
 saying you would come back.
 When you went through the five gates, you killed six of my
 officers, but I didn't blame you. Rather, I ordered to escort you
 out.
 But you forgot our friendship and you hate me like an enemy.
 It must be a lie that you are a righteous general.”
[Jungmori] Guan Yu(關羽) scolds Cao Cao(曹操). “Cao Cao(曹
 操)! You bastard! What you said is all wrong.
 I was unfortunate to visit your country.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the officers in Hebei(河
 北), killed many officers and soldiers of yours.
 Thinking about your favor, I felt uneasy about doing nothing.
 Volunteering to be your subject, I was on the way to the
 battleground.
 Because you offered me wine, I didn't drink it for a while. I
 got on the red horse quickly and ran as if I flew.
 I shouted and cut off the heads of the two officers, Yan Liang(顏
 良) and Wen Chou(文醜), in one move. When I brought the two
 heads to your camp, the wine was still warm.

적장이 황겁하여²¹⁴⁰ 백마위진²¹⁴¹ 무너지고,
벽산도²¹⁴² 천 리 땅을 일전²¹⁴³ 모두 앗아내야 네 안책²¹⁴⁴에다 기록하니 그 은혜 갚아 있고,
오늘날은 너를 잡을 때라, 군령장²¹⁴⁵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41. (주창의 재촉)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지 않자, 주창이 죽일 것을 재촉한다.

[아니래 칼을 번쩍 빼어들고 조조 앞으로 바짝 달려드니,
조조가 대경질겁²¹⁴⁶을 하여 옷깃으로 덮으면서 칼 막으려 방색²¹⁴⁷하니,
관공이 보시더니, “네 이놈, 네가 박적²¹⁴⁸을 쓰고 벼락은 피할망정, 네 옷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나?”
“글쎄요. 초행노숙²¹⁴⁹하옵다가 겁결에²¹⁵⁰ 잠이 깨어 초풍²¹⁵¹할까 조금²¹⁵²하니, 장군님 제발 가까이 좀 서지 마옵소서.”
“이놈,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²¹⁵³ 하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리는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오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의²¹⁵⁴를 배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칼을 들어 조조 목을 베이는 듯,
“검여 둘이 혼인하면 생기자유혈이라.²¹⁵⁵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번 씻으려 함이로다.”
칼을 번뜻 들어 조조 등 너머의 땅을 킁²¹⁵⁶ 찍어노니, 조조 정신 아찔하여 군사들을 돌아다보며,

When your enemy officer was astonished, you escaped from the seize in Baima(白馬).

I extorted a wide area in a single fight and gave it to you, so I returned your favor.

I swore an oath under the military law to catch you. Stop complaining. Here goes my sword!"

41. (Zhou Cang's(周倉) Pressing) As Guan Yu(關羽) doesn't kill Cao Cao(曹操), Zhou Cang(周倉) presses Guan Yu(關羽) to kill Cao Cao(曹操).

[Aniri] Guan Yu(關羽) pulls up his sword and charges at Cao Cao(曹操).

Startled, Cao Cao(曹操) covers himself with his sleeve to protect himself from the sword.

Guan Yu(關羽) responds, "You rat! A gourd might protect you from lightning, but how can your sleeve protect you from my Blue Dragon Sword?"

"Well, I am wandering around, sleeping outdoors. I am worried I might convulse because I was surprised. General,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You rascal! You said I am friendly. How can you tell me not to come close to you?"

"Well, general. You are friendly, but your Blue Dragon Sword is cruel. I am afraid it might cut our old friendship off."

Guan Yu(關羽) moves as if he would cut Cao Cao's(曹操) head off.

"If my sword touches you, you will shed blood. I intend to clean my sword with your blood."

He pulls up his sword, moves it over the neck, and hits the ground. Feeling faint, Cao Cao(曹操) takes a look at his soldiers.

“애들아,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약기언²¹⁵⁷)이로구나.
 아프잖게도 잘도 도려가신다.²¹⁵⁸) 내 목 있나 봐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으니,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좋삽기로 말은 겨우 하지마는, 혼은 벌써 피란²¹⁵⁹)
 간 지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디 조조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은지라, 조조의 애궁히²¹⁶⁰)
 비는 말에는
 아무리 철석같은²¹⁶¹) 간장²¹⁶²)인들 감동 아니할 리가 있겠느냐? 조조
 를 놓을까 말까 유예미결²¹⁶³)하던 차에,²¹⁶⁴)
[자진모래] 주창²¹⁶⁵)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이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 여태까지 살려두니,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²¹⁶⁶)의 모진 범²¹⁶⁷)이 함양²¹⁶⁸)을 괴한²¹⁶⁹) 후,
 홍문연²¹⁷⁰) 앓은 패공²¹⁷¹) 무심히 그를 놓아 향장²¹⁷²)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계명산²¹⁷³) 추야월에²¹⁷⁴) 장량²¹⁷⁵)의 옥통소²¹⁷⁶)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²¹⁷⁷) 흘렸으니,
 오강풍랑에 자문사라.²¹⁷⁸)
 하물며 조맹덕²¹⁷⁹)은 치세지능신²¹⁸⁰)이요, 난세지간웅²¹⁸¹)이라.
 소량지인²¹⁸²)이요, 양호유환²¹⁸³)이라. 장군이 만일 농사오면 소
 장²¹⁸⁴)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의 목살을 짹 잡으며,
 “왕지명이²¹⁸⁵) 현어주창수²¹⁸⁶)라,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
 쏘냐?” 냅다²¹⁸⁷) 잡고 흔들어노니,

“Hey folks! I heard the Blue Dragon Sword is sharp. What they were saying about it is true.

It cut my head off without pain. Check my head.”

Guan Yu(關羽) laughs, “You can’t live without your head. Can dead Cao Cao(曹操) speak?”

“Yes, his mind is clear, so he can manage to speak, but his soul took refuge a long time ago.”

Guan Yu(關羽) is deeply indebted to Cao Cao(曹操). Cao Cao(曹操) pitifully begged for his life.

Even if his mind is as firm as an iron, how can he be not moved? He hesitates to set Cao Cao(曹操) free.

[Jajinmori] Zhou Cang(周倉) speaks, “General! You haven’t yet killed him when you can kill him with one motion.

Did you forget the past? Xiang Yu(項羽), the fierce tiger of Jiangdong(江東), occupied Xian Yang(咸陽).

He held a party to kill Liu Bang(劉邦), but Liu Bang(劉邦) was released. As a result, Xiang Zhuang’s(項莊) fast sword was useless.

On Jiming(鷄鳴) Mountain, Zhang Liang(張良) played sad music with a jade flute on an autumn night moon, dispersing 8,000 soldiers of Xiang Yu(項羽).

Xiang Yu(項羽) committed suicide on the wind and waves of the Wu(烏) River.

Cao Cao(曹操) is a talented subject in a peaceful time, but he is a wicked man in a chaotic time.

Narrow-minded, he will be a source of future trouble for you, General, if you set him free, I will catch him.”

Suddenly running at Cao Cao(曹操), Zhou Cang(周倉) grabs him by the neck.

“The premier’s life is on Zhou Cang’s(周倉) hands. Where would you run away?” He shakes Cao Cao(曹操) fast.

42. (관운장이 조조를 놓아줌) 조조가 살려달라고 비니, 관운장이 어진 마음으로 조조를 놓아주고 돌아온다.

[아니리] 조조 별별별별 떨며, “아이고 여보, 주별감.²¹⁸⁸ 내 이 다음에 만나거든 주별감 좋아하는 술 많이 받아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시오.”

관공이 가만히 보시더니,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불인견²¹⁸⁹이로구나. 목숨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²¹⁹⁰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막 말머리를 돌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잡아타고 일마장²¹⁹¹을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을 내어,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 보라!”

[중모레] 조조 듣고 말 아래 똑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급하여 장군 마하에²¹⁹²가 두 손 합장²¹⁹³ 비는데 사람의 인륜²¹⁹⁴으로는 못 볼레라.²¹⁹⁵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천 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²¹⁹⁶를 하오리다.”

조조 기가 막혀, “우지 마라! 불쌍한 장졸들아, 우지를 말어라.

나 죽기는 설잖으나,²¹⁹⁷ 잔악한²¹⁹⁸ 너의 정상²¹⁹⁹ 불인견지목²²⁰⁰이로구나.

풍파의 곤한 신세 곤귀고향²²⁰¹ 가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인후 하신²²⁰² 처분으로 설마 살려주시제, 죽일쏘냐?”

42. (Guan Yu(關羽) Set Cao Cao(曹操) Free.) As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benevolent Guan Yu(關羽) sets Cao Cao(曹操) free and comes back.

[Aniri] Cao Cao(曹操) trembles. "Hello, Zhou Cang(周倉). I'll buy you a lot of liquors that you like, if we meet again. Please let me go."

Guan Yu(關羽) responds, "Stop it. Don't do it. It is heartbreaking to watch this. Let's not kill him. Let's take him to our country alive."

Guan Yu(關羽) tells his officers and soldiers to stand in a row, and tries to turn around.

Cao Cao(曹操) gets on a horse swiftly and flees.

Guan Yu(關羽) expresses fake anger. "How can you flee without my permission? Your crime deserves death!"

[Jungmori] Hearing Guan Yu's(關羽) shout, Cao Cao(曹操) falls off his horse.

Cao Cao's(曹操) officers and soldiers hurriedly run to under Guan Yu's(關羽) horse, and beg for mercy with their hands rubbing each other, which is a pitiful scene.

"We beg you, general. We beg you. Please don't kill our premier.

If you spare our premier, we will praise you back in our country away from here."

Cao Cao(曹操) is stunned. "Don't cry. My poor officers and soldiers, don't cry.

I don't feel sorry about my death, but my heart breaks when I see you in this misery.

We ran into a difficult situation, and we met the general on our tough journey to our country. Given the general is merciful, he will spare us."

관공이 거짓 꾸짖어 왈, “이놈, 네 말이 당치않은 말이로다.
 네 너를 잡으러 올 제 군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살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냐?”
 조조가 애연히²²⁰³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님이 장군님 아홉기
 를²²⁰⁴ 오른 팔로 민사오니,
 초로같은²²⁰⁵ 이 몸 조조 아니 잡어가더라도 군율²²⁰⁶ 시행은 안 하
 리다.
 장군님이 타신 적토마²²⁰⁷며 청룡도²²⁰⁸를 소장²²⁰⁹이 드리고, 그 칼
 에 죽잡기는 그 아니 원통허오? 별반통촉²²¹⁰을 허옵소서.”
 관공이 감심²²¹¹하여 조조를 쾌히²²¹² 놓고 회마²²¹³하여 돌아가니,
 세인²²¹⁴이 노래를 하되, “슬겁구나,²²¹⁵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맹덕이가 살아가니, 천추²²¹⁶에 늙름한 대장부는 한수정후²²¹⁷신가
 하노매라.”²²¹⁸
[아니레]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²²¹⁹ 배알²²²⁰하되,
 “용렬한²²²¹ 관모²²²²는 조조를 잡고도 놓았사오니 의율시행²²²³ 하
 읍소서.”
 공명이 급히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²²²⁴ 장군을 그곳에 보냈사오니, 그
 일을 뉘 알리오?”
[엿중모레] 제갈량은 칠종칠금²²²⁵하고, 장익덕은 의석엄안²²²⁶하고,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맹덕²²²⁷이를 살려주니,
 인후²²²⁸하신 관공 이름 천추²²²⁹에 빛나더라. 그 뒤야 누가 알리?
 소리꾼 목도 아프고, 고수²²³⁰ 팔도 아플 것이요, 여러분들도 지루하
 실 테니, 어질더질.²²³¹

Pretending to be angry, Guan Yu(關羽) scolds Cao Cao(曹操).
“You villain! Your words are deplorable.

I made a military pledge before I came here to catch you. Isn't it unfair that you live but I die?”

Cao Cao(曹操) begs in a pitiful manner.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take you as their most important staff.

Given my life is ephemeral, they won't execute the military law even if you don't take me there.

I gave you the red horse that you are on and the Blue Dragon Sword. Wouldn't it be unfair to die by that sword? Please give me a special consideration.”

Moved, Guan Yu(關羽) readily sets Cao Cao(曹操) free, turns his horse around, and goes back.

People sing a song, “How wise! Guan Yu(關羽) let go of Cao Cao(曹操) in narrow Huarong(華容) Road. Guan Yu(關羽) is a manly eternal hero.”

[Aniri] After coming back to his country, Guan Yu(關羽) reports to Kong Ming(孔明).

“Ugly and fool, I captured Cao Cao(曹操) but set him free. Please punish me by the military law.”

Kong Ming(孔明) comes down fast and grabs Guan Yu's(關羽) hands.

“I sent you there because Cao Cao(曹操) is not to be killed. Who would have known about my intention?”

[Eotjungmori] Kong Ming(孔明) captured an enemy king and set him free seven times. Righteous, Zhang Fei(張飛) released Yan Yan(嚴顏).

Guan Yu(關羽) let go of Cao Cao(曹操) in narrow Huarong(華容) Road. Guan Yu's(關羽) generous name will be shiny forever. Who would know what happened after that?

The singer feels tired in his throat, the drummer must feel tired in his arms, and you must feel bored now, so let me finish.

-
- 1) 天下大勢. 온 세상의 큰 흐름.
 - 2) 合久必分. 합한 지가 오래면 반드시 나뉘어짐.
 - 3) 分久必合. 나뉜 지가 오래면 반드시 합해짐.
 - 4) 周나라. 중국의 옛날 왕조. 섬서성에서 일어나 문왕(文王) 때 번영했다. 아들인 무왕(武王)이 동방의 은나라를 쳐부수고 호경(鎬京)에 도읍했다. 기원 전 770년에 만족의 침입을 피하여 동방의 낙양으로 천도했는데, 천도 이전을 서주, 천도 이후를 동주 시대라고 한다. 동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데, 제후들의 세력에 눌려 주나라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무력한 작은 나라로 되어, 기원 전 256년에 진나라에게 망했다.
 - 5) 末年. 끝 무렵.
 - 6) 秦始皇. 진나라의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를 고쳐 천하를 군현으로 나누었으며 흉노 및 남월을 쳐서 강토를 확장한 다음 만리장성을 쌓았음.
 - 7) 漢高祖. 중국 전한을 세운 고조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량,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8) 仁義. 인자함과 의로움.
 - 9) 亂臣賊子.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와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 10) 天下. 온 세상.
 - 11) 魏·漢·吳. 위나라와 한나라와 오나라. 위나라는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조조가 세웠는데, 북쪽에 있었다하여 북위라고도 하며, 한나라는 유비가 세웠는데, 서쪽인 촉(蜀) 지방에서 일어났으므로 서촉, 촉 등으로 일컬어진다. 오나라는 손권이 세웠는데, 양자강 동쪽에서 일어났으므로 동오(東吳)라고도 한다.
 - 12) 三國時節. 위·오·한 세 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시절.
 - 13) 皇位. 황제의 지위.
 - 14) 幼弱. 어리고 나약함.
 - 15) 群盜. 무리지어 다니는 도적떼.
 - 16) 並起한데. 함께 일어나는데.
 - 17) 奸凶. 간사하며 흉악함.
 - 18) 曹孟德. 맹덕은 조조(曹操)의 자(字). 후한 헌제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19) 天子. 천제(天帝)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
 - 20) 假稱. 거짓으로 이름.
 - 21) 氾濫타. 범람하다. 제 분수에 넘치다.
 - 22) 孫仲謀. 손권(孫權). ‘중모’는 손권의 자(字).
 - 22)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 24) 險固.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튼튼함.
- 25) 帝業. 황제가 될 사업.
- 26) 銘心. 마음속에 깊이 새김.
- 27) 倡義할사. 창의를하다. (국난을 당했을 때) 의병을 일으키도다.
- 28) 劉玄德. 161년에 나서 223년에 죽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건설자. 이름은 비(備), 자(字)는 현덕, 시호는 소열제(昭烈帝)임.
- 29) 宗社.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가리킴.
- 30) 血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 31) 驅馳. 치구(馳驅). 몹시 바빠 돌아다님.
- 32) 忠奸. 충성스런 신하와 간사한 신하.
- 33) 共立. 함께 일어섬.
- 34) 鼎足. 솥 밑에 달린 세 개의 발. 셋이 나란히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고대의 솥에는 대개 3개의 다리가 달려 안정을 유지하였는데, 그 세력이나 지위가 이같이 각각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뜻함.
- 35) 三分할 제. 삼분할 때. 세 개로 나누어졌을 때.
- 36)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37) 雲集. 구름처럼 많이 모여듦.
- 38) 名將. 훌륭한 장수.
- 39) 蜂起.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남.
- 40) 北魏.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북쪽에 위치한다 하여 이르는 이름.
- 41)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42) 荀攸. 조조의 모사로, 순욱의 조카. 순욱과 함께 조조의 막하에 들었다가, 조조를 위왕으로 받들려 할 때 간하다가 조조의 노여움을 사, 그로 인해 병들어 10일만에 죽었다.
- 43) 荀文若. 문약은 순욱(荀彧)의 자. 조조의 모사(謀士). 본시 원소의 밑에 있었으나, 조조가 황건적을 치고 위세를 떨칠 때 그의 막하에 들었다. 후에 조조의 노여움을 사 50세에 자살하였다. 조조는 그에게 경후(敬侯)라는 시호를 내렸다.
- 44) 東吳.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양자강 동쪽에 위치했다 해서 이르는 이름.
- 45)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자는 자경(子敬). 임회군(臨淮郡) 동성현(東城縣) 사람. 주유의 천거로 손권의 부하가 되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유가 죽은 뒤에 병권을 장악하였다.
- 46)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47) 諸葛瑾. 손권 막하의 모사. 자는 자유(子瑜). 제갈량의 형이며, 난을 피해 강동에 가 있다가 노숙의 천거로 손권을 섬기게 되었다. 아우 양이 유비를 도와 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비 측과의 외교 접촉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사사로이 만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대장군에 예주목(豫州牧)을 겸했는데 뒤에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각(恪)이 대를 이었으나 권력이 너무 커져 죽임을 당했다.

- 48) 經天緯地. 하늘을 주름잡고 땅을 누빔. 곧 천하를 잘 다스림.
- 49) 無窮造化. 끝없이 남이 모르게 일을 꾸미는 재간.
- 50) 잘긴들. 잘 하긴들. 잘 하기.
- 51) 關公. 관우(關羽)를 높여서 일컫는 말. 자(字)는 운장(雲長). 산서(山西) 사람. 시호는 충의후(忠義侯).
- 52) 張飛.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자는 익덕(翼德).
- 53) 桃園. 중국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밭. 이곳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음.
- 54) 義兄弟. 의리로 맺은 형제.
- 55) 結義. 남남끼리 형제, 자매, 남매, 부자 따위 친족의 의리를 맺음.
- 56) 涿縣. 한나라 때 탁군에 속해 있던 지명으로, 지금의 하북성에 있음.
- 57) 樓桑村. 탁현에 있는 유비가 살던 동네. 동남쪽에 뽕나무가 둘러 있어 높이가 다섯 길이나 되고, 그 무성한 가지와 잎이 수레 위를 덮는 포장과 같다 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함.
- 58) 蟠桃花. 신선이 사는 곳에 있다는 큰 복숭아의 꽃.
- 59) 祭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
- 60) 禁籥. 함부로 사람이 드나들지 못 하게 가로 매어 놓은 줄.
- 61) 烏牛白馬. 검은 소와 흰 말.
- 62) 祭. 제사.
- 63) 義盟. 의로운 맹세.
- 64) 長兄. 제일 큰 형.
- 65) 關雲長. 관우(關羽). 운장은 그의 자(字).
- 66) 仲兄. 둘째 형.
- 67) 張翼德. 장비. '익덕'은 그의 자.
- 68) 같은 年月. 같은 해 같은 달.
- 69) 盟約. 굳게 약속함.
- 70) 救國忠心.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충성스런 마음.
- 71) 桃園結義. 중국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밭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은 일을 가리키는 말.
- 72) 漢末. 한나라 끝무렵.
- 73) 不運. 운수가 사나움.
- 74) 風塵. 전쟁의 북새통, 또는 전란으로 말미암은 어지러운 분위기.
- 75) 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病死)로 쇠퇴하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曹操)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76) 平亂. 난을 평정함.
- 77) 董卓. 후한 사람. 자(字)는 중영(仲穎). 하동 태수로 있을 때 황건적과의 싸움에서 변변한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나, 궁중의 환관들과 줄을 대어 영제(靈帝) 때 전장군(前將軍)

- 이 되고, 그 뒤 헌제(獻帝)를 세워 흥포한 짓을 많이 하다가 여포(呂布), 왕충(王充) 등에 죽임을 당하였음.
- 78) 平定. 평온하게 가라앉힘.
- 79) 李郭. 이각(李傕)과 궤사(郭汜). 모두 동탁의 수하 장수로, 동탁이 죽은 후 잔병을 규합 하여 도성을 점령하고 갖은 횡포를 일삼았으나, 후에 조조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음.
- 80) 亂世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81) 曹阿瞞. 조조의 어렸을 때의 이름.
- 82) 挾天子而橫暴. 천자를 끼고 온갖 포악한 짓을 함.
- 83) 碧眼紫髯. 푸른 눈에 붉은 수염.
- 84) 孫仲謀. 손권(孫權). ‘중모’는 손권의 자(字).
- 85) 江東. 양자강의 동쪽, 지금의 강소성 지방을 가리키는 말.
- 86) 雄據.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군세에 막아 지킴.
- 87) 富國強兵.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들이 강함.
- 88) 劉·關·張. 유비·관우·장비를 아울러 일컫는 말.
- 89) 漢室. 한나라 왕실.
- 90) 奮鬪.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움.
- 91) 帳中. 장막의 안. 여기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리킴.
- 92) 謀士. 남을 도와 꾀를 내어주는 사람.
- 93) 恨할. 한탄할.
- 94) 徐庶.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자(字)는 원직(元直). 단번에 의기가 통하여 유비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 조조가 그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거짓 서면으로 유인하는 통에 그에게로 갔으나, 어머니는 자식의 무모함을 꾸짖고 자살하였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주주에게 한 가지의 꾀도 바치지 않고 아까운 재주를 썩혔다.
- 95) 薦舉. 어떤 자리에 인재를 추천함.
- 96) 前無後無.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음.
- 97) 臥龍岡. 공명이 은거하여 살던 골짜기로, 하남성 남양현 서남쪽에 있음.
- 98) 伏龍. ‘엎드려 있는 용’이라는 뜻으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인재를 가리키는 말.
- 99) 草堂. 억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100) 上通天文. 위로는 하늘의 이치에 통달함.
- 101) 下達地理. 아래로는 땅의 이치에 달통함.
- 102) 九宮八卦. 아홉 가지 하늘의 이치와 여덟 가지의 괘.
- 103) 遁甲藏身. 술법을 써서 제 몸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감춤.
- 104) 胸中. 가슴속.
- 105) 恆萬古之人材. 오랜 세월을 걸쳐 이름을 날릴 뛰어난 인재.
- 106) 超人間의 哲人.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현명한 사람
- 107) 반갑게.
- 108) 關·張. 관우와 장비.
- 109) 堂堂한. 버젓하고 정대한.

- 110) 劉賢主. 유씨 성을 가진 어진 임금이란 뜻으로 유비를 가리키는 말.
- 111) 七尺 五寸. 일곱 자 다섯 치. 약 226cm 정도임.
- 112) 冠玉.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113) 自顧其耳. 두 귀를 손수 돌아봄.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크다는 뜻.
- 114) 垂手過膝.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옴.
- 115) 馱廬馬上. 적로마 위. '적로마'는 이마에 흰 점이 있는 말.
- 116) 爲人. 사람 됨됨이.
- 117) 鳳. 봉황(鳳凰). 상상 속의 새.
- 118)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119)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120) 비스듬히 들고.
- 121) 赤兔馬上. 적토마 위. '적토마'는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붉어 죽었다고 함.
- 122) 똑똑하고 분명하게.
- 123) 威勢. 사람을 두렵게 여기게 하고 복종시키는 힘.
- 124) 八尺. 8자. 약 240cm정도.
- 125) 눈동자의 둘레에 두 개의 흰 테가 있는 눈.
- 126)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 127) 細毛馬上. 갈기의 털이 가는 말 위.
- 128) 무너지게 할.
- 129) 眼下. 눈 아래.
- 130) 翼德일시가. 익덕임이. '익덕'은 장비의 자(字).
- 131) 建安. 중국 후한 헌제 때의 연호. 서기 196년에서 220년까지 임.
- 132) 仲春. 음력 이월을 달리 부르는 말.
- 133) 景概. 경치.
- 134) 奇異하구나. 이상하고도 괴이하구나.
- 135) 山不高而秀麗. 산은 높지 않지만, 빼어나게 아름다움.
- 136) 水不深而澄清. 물은 깊지 않으나 맑고 깨끗함.
- 137) 地不廣而平坦. 땅은 넓지 않으나 평평함.
- 138) 林不大而茂盛. 숲은 크지 않으나 무성함.
- 139) 猿鶴. 원숭이와 학.
- 140) 相親. 서로 친하게 지냄. 원숭이와 학이 친하게 지낼 만큼 깊은 산중이라는 뜻.
- 141)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 142) 交翠. 푸른색. 본래는 비취빛이 섞여 있다는 의미.
- 143) 石壁芙蓉. 연꽃봉오리처럼 솟아 있는 절벽.
- 144) 青松. 푸른 소나무.
- 145) 千古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이름이 남을 절개. 여기서는 푸른 소나무가 천고절을

상징하는 것을 이름.

- 146) 柴門. 사립문.
- 147) 博陵.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북성 안평현에 있었음.
- 148) 崔州平. 남양의 숨은 인재. 박릉 사람으로 제갈량, 석광원, 서서 등과 함께 공부한 사이. 난세에 세상에 나오기를 꺼려 숨어 지냈다.
- 149) 潁州.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 150) 石廣元. 남양의 숨은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최주평, 제갈량, 서서 등과 함께 공부한 사이.
- 151) 汝南.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여남현임.
- 152) 孟公威. 여남 사람으로 제갈량이나 최주평, 석광원, 서서 등과는 친한 사이였는데, 난세에 나오기를 꺼려 술과 글로 세월을 보냈다.
- 153) 江湖. 강과 호수.
- 154) 船遊. 배를 타고 놀며 지냄.
- 155) 林間. 숲속.
- 156) 바둑.
- 157) 오래되었습니다.
- 158)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친척.
- 159)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현재의 아저씨가 되므로, 유비를 높여 일컫는 말.
- 160) 童子다려. 동자에게.
- 161)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162) 一朔. 한 달.
- 163) 光陰. 세월.
- 164) 如流하여. 여류하여. 흐르는 물과 같아서.
- 165) 數三朔. 여러 달.
- 166) 玄纁玉帛. 예물로 쓰는 검은색, 분홍색, 흰색의 비단.
- 167) 禮物. 감사의 뜻이나 기념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물건.
- 168) 三顧草廬. 오막살이집을 세 번 찾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일컫는 말.
- 169) 南陽隆中. 남양에 있는 용중. ‘남양’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 ‘용중’은 중국 호북성 양양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170) 柴門. 사립문.
- 171) 草堂.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역새나 짙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172) 春睡. 봄날에 자는 잠.
- 173) 계십니다.
- 174) 반갑게.
- 175) 緩緩히. 천천히.
- 176) 蕭瑟한. 으스스하고 쓸쓸한.
- 177) 松竹聲.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소나무와 대나무의 소리.
- 178) 淸亮한. 소리가 맑고 깨끗한.

- 179) 風磬. (절 따위의 건물의)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처럼 생긴 물건.
- 180) 階下. 계단 아래.
- 181) 待時하고. 때를 기다리고.
- 182) 閑臥하여. 한가하게 누워서.
- 183) 動靜. 어떤 현상이 움직이거나 벌어지는 김새.
- 184)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185) (옷소매를) 뒤집어 걷으며.
- 186) 高聲大喝曰. 큰 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함.
- 187) 哥哥. 형을 일컫는 말.
- 188) 漢主. 한나라 임금.
- 189) 金枝玉葉. 임금의 집안과 그 자손들을 일컫는 말.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 190) 數次. 여러 차례.
- 191) 妖妄. 요사스럽고 망령됨.
- 192) 일부러.
- 193) 倨慢하여이다. 거만합니다.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깁니다.
- 194) 小弟. 아우가 형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95) 실, 삼, 종이 따위로 가늘게 비비거나 끈 줄.
- 196) 結縛. 두 손을 묶음.
- 197)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198) 마른 풀, 낙엽, 짚 부스러기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199) 그 자리에서. 이내. 한번에.
- 200) ‘꾸러미’의 방언. ‘꾸러미’는 꾸리어 썬 물건. 여기서는 ‘짚이나 풀 따위를 길게 묶은 묶음’을 가리킨 듯.
- 201) 賢弟야. 어진 아우야.
- 202) 殷王成湯. 은나라의 첫 번째 왕인 탕임금. 이름은 이(履). 하나라의 걸왕이 폭정을 일삼았으므로 이를 치고 왕위에 올랐음.
- 203) 伊尹. 은나라 탕임금 때의 재상. 본래는 밭을 갈고 살다가, 탕임금이 세 번이나 찾아가 모시고자 하므로 벼슬길에 나서, 탕임금을 도와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내고 선정을 베풀었음.
- 204) 三聘. 세 번 찾아감.
- 205) 文王.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 성은 희(熙), 이름은 창(昌). 은나라의 주(紂)왕 때 서백(西伯). 주왕이 문왕으로 하여금 은나라의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장으로 삼은 데서 일컫는 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으며,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재후들이 그를 좇아 주군으로 섬겼음.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고 주나라를 세운 뒤, 문왕으로 추존되었음.
- 206) 呂尚. 강태공. 무왕을 도와 재상이 되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웠으며, 후에 제나라의 임금에 봉해졌다.
- 207) 渭水. 중국 감숙성 위원현에서 발원하여 섬서성을 거쳐 황해로 들어가는 강. 강태공이 무왕을 만나기 전 낚시를 하며 보냈다고 함.

- 208) 警戒. 나쁜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조심하게 함.
- 209) 動靜. 어떤 현상이 움직이거나 벌어지는 김새.
- 210) 風月. 바람과 달, 곧 자연의 경치에 부쳐 시가를 읊음, 또 자연의 경치에 부쳐 읊은 시.
- 211) 草堂에 春睡足하니 窓外日遲遲라. 大夢은 誰先覺고? 平生을 我自知라. 제갈량이 읊은 원문은, ‘대몽수선각 평생아자지 초당춘수족 창외일지지(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 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달을까? 평생을 내 스스로 아네. 초당에 봄 낮잠은 족한데, 창밖의 해는 더디고 더디구나.)임.
- 212) 前日. 전 날. 며칠 전.
- 213) 半日. 한 나절.
- 214) 넘었습니다.
- 215) 衣冠. 옷과 모자. 옷차림.
- 216) 整齊한다. 가지런히 한다.
- 217) 八角 綸巾. 여덟 개의 각이 진, 비단으로 만든 두건.
- 218)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219)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220) 堂下에. 대청의 아래에.
- 221) 禮畢坐定 後에.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 222) 粹秀한. 아주 빼어난.
- 223) 創業之主. 나라를 새로 세울 임금.
- 224)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
- 225) 冠玉.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226) 眉在江山精氣하여. 미간(양 눈썹 사이)에 강산의 정기가 어려 있어.
- 227) 丹念清氣하고. 충성스럽고 끝은 생각과 맑은 기운이 있고.
- 228) 眉間. 두 눈썹 사이.
- 229) 萬古英雄.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이 빛날 뛰어난 영웅.
- 230) 漢室. 한나라 왕실.
- 231) 傾覆. 기울어져 없어짐.
- 232) 弄權. 권력을 제 마음대로 씀.
- 233) 宗廟社稷. 종묘와 사직. ‘종묘’는 임금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따라서 ‘종묘사직’은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34) 亡在朝夕. 하루 아침이나 저녁에 망할 판임.
- 235) 濟主. 백성을 구제하는 임금.
- 236) 竭忠報國하려 하되.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되.
- 237) 兵微將寡. 병졸이 보잘 것 없고 장수가 부족함.
- 238) 短淺. 짧고 천박함.
- 239) 興復치. 다시 일으키지.
- 240)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241) 蒼生. 백성.
- 242) 出山上朝. 산을 나와 조정에 나아감.

- 243) 良. 제갈량.
 244) 淺薄. 학문 또는 생각이 얇고 얕음.
 245) 布衣野夫. 벼슬하지 않고 사는 시골 농부.
 246) 春風細雨. 봄바람과 가랑비.
 247) 風月. 바람과 달, 곧 자연의 경치에 부쳐 시가를 읊음, 또 자연의 경치에 부쳐 읊은 시.
 248) 浪說.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이나 헛소문.
 249) 尊駕. 귀하신 분의 행차.
 250) 虛行. 헛걸음.
 251) 書案. 책을 펴 놓고 보는 재래식의 조그만 책상.
 252) 들어보십시오.
 253) 天下大勢. 온 세상의 큰 흐름.
 254) 曹賊. 조조를 도적이라는 뜻으로 부른 말.
 255) 挾天子而令諸侯.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함.
 256) 漢室. 한나라 왕실.
 257) 一朝一夕에.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이라는 뜻으로) 썩 짧은 시간에.
 258) 清廉. 마음이 깨끗하고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음.
 259) 功名. 공을 세워 이름을 드날림.
 260) 浮雲. 뜬구름. 쓸데없는 것.
 261)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262) 떨어지거니.
 263) 腹痛斷腸. 배에 사무치게 원통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픔.
 264) 臥龍岡. 공명이 은거하여 살던 골짜기로, 하남성 남양현 서남쪽에 있음.
 265) 壁上. 벽 위.
 266) 荊州. 지금의 호남, 호북, 광서 및 귀주를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
 267) 西川. 촉 지방(지금의 사천성)을 가리키는 지명.
 268) 四十一州. 마흔 한 개의 고을.
 269) 荊州兵. 형주의 군사.
 270) 襄陽. 중국 호북성 북쪽에 있는 지명.
 271) 西川兵. 서천의 군사.
 272) 岐山. 중국 섬서성 봉산부의 동쪽에 있는 산.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주나라의 터전을 열고, 문왕 때 봉황이 날아와 올었다고 함.
 273) 中原. 중국 문화의 발원인 황하 중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 곧, 하남성, 산서성의 대부분과 허북성, 섬서성의 일부 지역을 포괄함. 이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후에는 '나라 안'이라는 뜻으로 쓰임.
 274)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을 가리킴.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지방의 옛 이름. 삼국 시대 손권 세력의 근거지.
 275) 自然. 자연히.
 276) 麾下. 장수가 지휘하는 깃발 아래.
 277) 雲霧. 구름과 안개.

- 278) 日月. 해와 달.
 279) 합니다.
 280) 相面.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함.
 281) 禮緞. 예물로 올리는 비단.
 282) 四人. 네 사람.
 283) 留宿. 머물러 잠.
 284) 三顧之恩惠. 세 번이나 찾아온 은혜.
 285) 出世. 세상으로 나감.
 286) 松鶴. 소나무와 학.
 287) 申申.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당부를 할 때 거듭해서 간곡하게 하는 모양.
 288) 四輪車. 바퀴가 넷 달린 마차.
 289)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290) 兵不滿千. 병사가 천 명이 되지 못 함.
 291) 將不十餘人. 장수는 열 명이 안 됨.
 292) 民兵. 국가의 위급에 대처하여 민간에서 조직한 군대.
 293) 招募여. 불러 모집함.
 294) 八陣法. 싸움에서 군대를 배치하는 여덟 가지 방법.
 295) 放砲一聲. 한 번 소리 내어 대포 또는 총을 쏘.
 296) 金鼓. 징.
 297) 曹賊. 조조를 도적이라는 뜻으로 부른 말.
 298) 博望.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지명.
 299) 燒屯. 주둔지를 불태움. 박망과 전투에서 공명이 불을 놓아 하후돈을 크게 무찌른 것을 가리킴.
 300) 白河. 신야 가까이 있는 강 이름.
 301) 淹沒. 물에 빠뜨림. 조조의 군사가 백하에 다다랐을 때 운장이 포대로 백하를 막았다가 터서 조조의 군사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을 가리킴.
 302)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303) 勝氣 내딛. 지지 않고 이기려는 기개를 보이던.
 304) 曹仁. 조조의 부하 장수로, 조조의 사촌 동생. 자는 자효(子孝).
 305) 棄槍逃走. 창을 버리고 도망함.
 306) 憤心. 분한 마음.
 307) 水陸大兵. 수군과 육군의 많은 군사.
 308) 調發. 군사를 불러 모음.
 309) 함부로 처서.
 310) 怨望이 漲天이요.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퍼져 가득하고.
 311) 民心이 騷擾로구나. 백성들의 동태가 술렁거리며 소란스럽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312) 어찌할 수 없어.

- 313)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 314) 樊城. 지금의 호북성 양양현 북쪽에 있는 지명. 군사적 요충지임.
- 315) 襄陽. 중국 호북성 북쪽에 있는 지명.
- 316)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317) 家率. 집안 어른에 딸린 식구.
- 318) 翼德. 장비의 자(字).
- 319) 日行十里. 하루에 십 리를 감.
- 320) 狂風. 세차게 부는 사나운 바람.
- 321) 面前. 얼굴 앞.
- 322) 帥字旗. 진중이나 병영의 영문의 뜰에 세우던 대장에 딸린 기. 열두 폭으로 되었는데, 누른 바탕에 검은 글씨로 ‘帥’ 자를 썼음.
- 323) 景山. 호북성 근처에 있는 지명.
- 324) 水陸大兵. 수군과 육군의 많은 군사.
- 325) 旗幟槍劍. 군중에서 쓰던 여러 가지 깃발과 창과 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326) 八公山. 중국 안휘성 봉대현의 동남쪽에 있는 산. 서진(西晉)이 망한 뒤에 화북에서 일어난 오호십육국의 하나인 전진(前秦)의 임금 부견(苻堅)이 동진(東晉)을 칠 때, 이 산에 늘어서 있는 병사들을 동진의 병사인 줄로 잘못 알고 모두 베어버렸다고 함.
- 327) 諸將. 여러 장수.
- 328)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는 중업(仲業).
- 329) 책책을 쳐서.
- 330) 憤氣衝天. 화가 하늘을 찌를 듯함.
- 331) 長坂橋. 호북성 당양현 북쪽에 있는 다리.
- 332) 山谷中. 산골짜기 속.
- 333) 諸將. 여러 장수.
- 334) 死生. 죽음과 삶.
- 335) 仰天痛哭. 하늘을 우러러 슬피 울.
- 336) 陣.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 대오를 배치하는 일, 또는 배치한 곳.
- 337) 모통이.
- 338)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339) 公子禪.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 자는 공사(公嗣). 유비의 오직 하나인 아들로 미부인의 소생이다. 조운이 장관교 전투에서 품에 품고 달리던 아두(阿斗)가 그다. 17세에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으며, 위나라에 항복한 뒤 안락궁에 봉해졌고, 후에 낙양으로 옮겨 거기서 죽었다. ‘공자’는 지체가 높은 집안의 젊은 아들을 이르는 말.
- 340) 兩婦人. 두 부인. 곧 유비의 두 부인인 미부인(糜夫人)과 감부인(甘夫人)을 가리킴.
- 341) 一片丹心.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충성스런 마음을 뜻함.

- 342) 秋霜이라. 추상과 같다. 가을의 찬 서리와 같다. 위엄이나 기세가 매우 당당하고 엄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343) 魏陣. 위나라의 진. '진'은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 대오를 배치하는 일, 또는 배치한 곳.
- 344) 繁槍揮馬.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감.
- 345) 舉動. 행동이나 태도.
- 346) 萬里蒼天. 높고 푸른 하늘.
- 347) 翩進. 가볍게 날 듯이 나아감.
- 348) 九十春光. 구십 일 동안의 봄날.
- 349) 丹山. 단사(丹砂)가 난다는, 봉황이 살고 있다는 산. '단사'는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으로, 정제하여 한방에서 약으로 씀.
- 350) 風雨같이. 비바람같이. '단번에 빨리 몰려 닫는 모양'을 형용하여 이르는 말.
- 351) 외치어.
- 352) 叢中.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모인 가운데.
- 353) 甘夫人. 유비의 두 부인 중 첫째 부인.
- 354) 羅衫.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지은 저고리.
- 355) 뒤집어쓰고.
- 356) 一場痛哭. 한 바탕 슬프게 울.
- 357) 淳于導. 조조의 부하 장수. 장관교 싸움에서 유비의 장수 미축을 사로잡아 가지고 가다가 조자룡을 만나 그의 손에 죽었다.
- 358) 糜竺. 유비의 부하 장수.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누이가 유비의 둘째 부인인 미부인이므로 유비의 처남이다. 아우 미방이 배반하여 오에 항복한 것을 고민하다 병들어 죽었다.
- 359) 生擒하여. 사로잡아서.
- 360) 一聲砲響. 대포 소리와 같은 큰 소리.
- 361) 조자룡이 쓰는 칼 이름.
- 362) 奪馬魏陣. 위나라 진영의 말을 빼앗음.
- 363) 護送. 호위하여 보냄.
- 364) 襄陽. 중국 호북성 북쪽에 있는 지명.
- 365) 莫知所向. 갈 곳을 알지 못 함.
- 366) 彷徨커늘.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거늘.
- 367) 糜夫人. 유비의 둘째 부인으로, 미축의 누이 동생이며, 유비의 외아들인 선(아두)의 어머니임.
- 368) 前面. 앞쪽. 물체의 앞쪽이 되는 면.
- 369) 울터이다. 울고 있었습니다.
- 370) 一身. 한 몸.
- 371)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372) 不忠之心. 충성스럽지 못한 마음.
- 373) 罪死無惜. 죽어도 애석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큼.
- 374) 追兵. 뒤쫓아오는 군사.

- 375) 乘馬徐行. 말을 타고 천천히 감.
- 376) 竭誠彈力.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함.
- 377) 帝室之體. 왕실의 피를 물려받은 몸.
- 378) 骨肉. 뼈와 살. 여기서는 ‘골육지친(骨肉之親)’을 가리킴. ‘골육지친’은 가까운 혈족을 가리키는 말.
- 379) 相逢. 서로 만남.
- 380) 掌中. 손 안에.
- 381) 自刎之死. 스스로 목숨을 끊음.
- 382) 一身. 한 몸.
- 383) 臧身하고. 몸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고.
- 384) 채찍.
- 385) 馬延.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 원소(袁紹)의 부하였는데, 항복하여 적벽대전에 나갔다가 패해 도망 오는 조조를 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는, 장의(張顗)와 함께 감녕(甘寧)에게 죽었다.
- 386) 張顗.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 원소(袁紹)의 부하였는데, 항복하여 적벽대전에 나갔다가 패해 도망 오는 조조를 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는, 마연(馬延)과 함께 감녕(甘寧)에게 죽었다.
- 387) 焦觸. 조조의 막하 장수. 원소(袁紹)의 둘째 아들 원희(袁熙)의 군대를 거느렸다가 상대가 안 될 것을 깨닫고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손권을 칠 때, 적벽대전을 앞두고 장남(張南)과 함께 자진하여 출전하였다가 오나라 장수 한당(韓當)의 창에 찔려 죽었다.
- 388) 張南.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는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袁熙)의 군대를 거느렸다가 상대가 안 될 것을 깨닫고 항복하였다. 조조가 손권을 강상에서 칠 때 적벽대전에 앞서 자진하여 출전하였다가, 동오의 장수 주태의 손에 싱겁게 죽었다.
- 389) 趙雲 一時 陷穽이라. 자룡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함정(陷穽)이로구나.’의 뜻임.
- 390) 青釭劍. 청홍검(靑虹劍)이라고도 함. 조조가 가지고 있던 보검 중의 하나로, 하후은이 가지고 있다가 조자룡에게 빼앗김.
- 391) 西將. 서쪽에 있는 장수.
- 392) 작은 쇠붙이 같은 것이 부딪치거나 깨어지거나 부러질 때 나는 소리.
- 393) 南將. 남쪽에 있는 장수.
- 394) 읊려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 395) 北將. 북쪽에 있는 장수.
- 396) 土坑. 흙구덩이.
- 397) 中에. 가운데에.
- 398)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399) 五色彩雲. 여러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구름.
- 400) 天崩地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어짐.
- 401) 龍驄. 매우 잘 달리는 좋은 말.

- 402) 行雲流水. 하늘에 떠도는 구름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일을 하는 데 막힘이 없이 잘 나감'을 뜻함.
- 403) 長坂橋. 호북성 당양현 북쪽에 있는 다리.
- 404) 一員. 한 사람.
- 405) 먹을 갈아 부은 듯이 검은 얼굴.
- 406) 丈八蛇矛. 길이가 일 장 팔 척(약 5m 40cm)이 되는, 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진 창.
- 407) 速來하라. 빨리 오라.
- 408) 追兵. 쫓아오는 군사.
- 409) 人疲馬困. 사람도 지치고, 말도 힘이 다해서.
- 410) 幾死之境. 거의 죽을 지경.
- 411) 衆人들. 여러 사람들.
- 412) 말에서.
- 413) 伏地. 땅바닥에 엎드림.
- 414) 自刎之死. 스스로 목숨을 끊음.
- 415) 어쩔 수 없이.
- 416) 一身. 한 몸.
- 417) 僅僅히. 겨우겨우.
- 418) 阿斗. 유비가 미부인(糜夫人)에게서 낳은 아들. 이두는 아명(兒名). 이름은 선(禪)이며,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 419) 幼子. 어린아이.
- 420) 重한. 귀중한.
- 421)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422) 萬分之一. 만분의 일. 만 번 가운데 한 번.
- 423) 못하겠습니다.
- 424) 馬上에. 말 위에.
- 425) 曹賊. 조조를 도적이라는 뜻으로 부른 말.
- 426) 對決을 하는데. 상대하여 싸우는데.
- 427) 魏陣. 위나라의 진영(陣營).
- 428) 水陸大兵. 수군과 육군의 많은 군사.
- 429) 塵頭는 遍野하고. 티끌은 들판에 깔렸고.
- 430) 喊聲은 通敵이라. 고함 소리가 곳곳에 깔려 있다.
- 431) 長坂橋上. 장판교 다리 위.
- 432) 一員大將. 한 사람의 대장.
- 433) 먹을 갈아 부은 듯이 검은 얼굴.
- 434) 丈八蛇矛長槍. 길이가 일 장 여덟 자(18자, 약 5m 40cm)나 되는 사모장창(蛇矛長槍). '사모장창'은 창 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로 된 긴 창.
- 435) 曹陣. 조조의 진영(陣營).
- 436) 一員. 한 사람.
- 437) 燕人. 연나라 사람. 장비의 선대가 연나라 땅에 살았으므로 장비를 연나라 사람으로

- 불렀다.
 438) 큰 소리가 좀 먼 데서 갑자기 울리는 소리.
 439) 뒤집혀 넘어지는.
 440) 十二間. 열두 간. 한 간은 사방 약 210cm임.
 441)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
 442) '잘각'보다 센 뜻. 단단한 물체가 갑자기 부러지거나 끊어지는 소리.
 443) 遑遑.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지둥하는 모양.
 444) 夏侯傑. 조조의 부하 장수.
 445) 落馬. 말에서 떨어짐.
 446) 曹陣. 조조의 진영(陣營).
 447) 鎗. 썰과리.
 448) 退兵. 병사들을 물리나게 함.
 449)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450) 堅壁不出. 성벽을 굳건히 하고 나가지 않음.
 451)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452)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임회군 동성현 사람이며, 자(字)는 자경(子敬). 주유의 친거로 손권의 부하 장수가 되었다.
 453) 賢主前. 어진 임금님께.
 454) 大驚 歎曰. 크게 놀라 탄식하여 말함.
 455) 紛紛한 天下得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천하를 잃고 얻는 일.
 456) 믿사웁는데. 믿는데.
 457) 出他國. 다른 나라에 감.
 458) 心量. 마음으로 헤아림.
 459) 處分.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나 결정.
 460) 吳王孫權. 오나라는 손권이 왕이 됨.
 461) 魏見曹操. 위나라는 조조가 왕이 됨.
 462) 漢室. 한나라 왕실, 곧 유비가 세운 촉. 유비의 촉이 한나라의 정통을 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임.
 463) 激動. 심하게 충동함.
 464) 逃走而還. 도망하여 돌아옴.
 465) 中途而起. 중간에 병사를 일으킴.
 466) 一案. 하나의 계획.
 467) 도취(圖取). 꾀하여 손에 넣음.
 468) 坐而得功. 가만히 앉아서 공을 세움.
 469) 할 것이오니.
 470) 今. 이번.
 471) 一葉船. 한 조각 작은 배.
 472) 南屏山下. 남屏산 아래.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473)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474)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 475) 對面. 얼굴을 마주 대함.
- 476) 綸巾. 굵은 실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모자의 일종.
- 477)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478) 白羽扇. 하얀 새의 깃을 모아 만든 부채.
- 479)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480) 館驛. 관역에. '관역'은 관청의 공문을 전달하고, 사신의 왕래나 관리의 부임 때에 말을 대주는 일을 맡은 곳.
- 481) 安歇할새. 편히 쉬니.
- 482) 峨冠博帶. '높은 관과 넓은 띠'라는 뜻으로 벼슬아치들을 가리킴.
- 483)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484) 一座. 한 좌석. 같은 자리.
- 485) 舌戰群儒. 여러 선비들과 입씨름을 함.
- 486) 數多히. 수많은.
- 487) 孫仲謀. 손권(孫權). '중모'는 손권의 자(字).
- 488) 豪逸하매. 예절이나 작은 일에 구속됨이 없이 호방하여.
- 489) 激動할 제. 몹시 흥분하고 충동할 때.
- 490) 大略. 큰 계획.
- 491) 欲殺孔明. 공명을 죽이고자 함.
- 492) 三日爲限. 삼일을 기한으로 함.
- 493) 十萬箭. 십만 개의 화살.
- 494) 一夜霧中自得. 하룻밤의 안개 속에서 스스로 얻음.
- 495) 難測. 헤아리기 어려움.
- 496) 龐統. 양양(襄陽) 사람으로 이름이 통이며, 자가 사원(士元)이다. 유비의 모사(謀士)로, 조조에게 연환계(조조의 군사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쇠줄로 배를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게 하자는 계략)를 쓰도록 하여 대패하게 하였다.
- 497) 連環計. 연환은 쇠고리로 연결함을 뜻하는데, 여기서 연환계란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처서 크게 이긴 계책.
- 498)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499) 苦肉計. (궁한 처지에 몰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 몸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꾸미는 계책. 여기서는 황개가 일부러 주유에게 매를 맞고, 거짓 항복 문서를 조조에게

- 보내어 조조를 속인 것을 말함.
- 500) 氣稟. 타고난 기질과 성품.
- 501) 그 누구가.
- 502) 公役.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우는 의무.
- 503) 지켜야할 의리를 어기고.
- 504) 用心. 마음 씀씀이.
- 505) 跳梁하다. 거리낌없이 함부로 날뛰다.
- 506) 冬. 겨울.
- 507) 望間. 보름 무렵.
- 508) 整軍. 군대를 정돈함.
- 509) 三江. 강소성의 대호(大湖)에서 흘러 내려가는 송강(松江), 누강(婁江), 동강(東江), 또는 오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을 이르는 말.
- 510) 陸陣. 육지의 진.
- 511) 着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정한 사물 현상을 주의 깊게 눈여겨 봄.
- 512) 陣勢. 진영의 형세. 진을 친 형세. '진'은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 대오를 배치하는 일.
- 513) 威風. 위엄 있는 풍채.
- 514) 曹丞相. 승상 벼슬에 있는 조조.
- 515) 調發. 군사를 불러 모음.
- 516) 戰船. 전투하는 배.
- 517) 連環計. 연환은 쇠고리로 연결함을 뜻하는데, 여기서 연환계란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518) 만들어.
- 519) 江上陸地. 강 위의 육지. 여기서는 배를 쇠고리로 연결하여 마치 육지처럼 만들어놓은 것을 가리킴.
- 520) 一等名將. 제일가는 훌륭한 장수.
- 521) 留陣. 군대가 진영에 머뭇.
- 522) 銃. 놓기. 총 쏘기.
- 523) 十八技.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열여덟 가지 무예.
- 524) 私習하기. 스승 없이 스스로 훈련하고 익힘.
- 525) 百萬軍中. 백만 명의 군사 속.
- 526) 陣中. 진 속. '진'은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 대오를 배치하는 일, 또는 배치한 곳.
- 527) 떡을 차지게 하기 위하여 떡매로 반죽을 두들기고.
- 528) 牛羊. 소와 양.
- 529) 將卒. 장수와 병졸.
- 530) 犒餼.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호군(犒軍). 호석(犒餼).
- 531) 東山月色. 동산에 떠 있는 달빛.
- 532) 如同白日. 마치 밝은 대낮과 같음.
- 533) 長江一帶. 양자강 주변의 모든 지역.

- 534) 如橫素練.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듯함.
- 535) 將臺上. 장대 위. ‘장대’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536) 南屏山色. 남屏산의 색깔.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537) 그림景.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
- 538) 가리키면 (그곳은).
- 539) 柴桑. 강서성 구강현 서쪽에 있는 산성.
- 540) 夏口城.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손권이 쌓은 성.
- 541)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542)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543) 廣闊커든. 광활하거든. 전망이 트이어 몹시 넓은데.
- 544) 如得江南이면. 만약 강남을 얻으면.
- 545) 享富貴何. 부귀를 누리는 것이 어떠한가. 혹 ‘향부귀(享富貴)와’로 보기도 한다. ‘향부귀와’는 ‘부귀를 누리는 것과’.
- 546) 樂泰平. 태평함을 즐김.
- 547) 銅雀臺. 조조가 업(위나라의 수도)에 쌓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548) 二喬女. 교공(喬公)의 딸인 대교(大喬)와 소교(小喬)를 가리키는데, 둘 다 매우 미인이었다고 함.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교공은 교국로(喬國老)로, 사람됨이 매우 진실하였다고 함.
- 549) 嫁娶하면. 시집가고 장가들면. 혹 ‘가취(可取)하면’으로 보기도 한다. ‘가취(可取)하면’은 ‘얻을 수 있다면’.
- 550) 暮年享樂. 늙어서 누리는 즐거움.
- 551) 願에. 바라는 바에. 소원에.
- 552) 足할지라. 만족할 것이다.
- 553) 酒肉間에. 술이든지 고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냐.
- 554) 魏·漢·吳 勝負. 위, 한, 오의 세 나라의 승부.
- 555) 明日. 내일.
- 556) 萬乘帝業. 만 대의 수레를 가진 천자가 될 사업. ‘승’은 수레를 세는 단위.
- 557) 得天下. 온 세상을 얻음. 곧 온 세상을 통일함.
- 558) 然後에. 후에. 뒤에.
- 559) 千金賞. 수많은 돈으로 주는 상.
- 560) 萬戶侯. 만 호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후.
- 561) 軍禮. 군대의 예절. 군대의 인사.
- 562) 願得凱歌.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곧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뜻.
- 563) 勝氣. 이기고자 하는 마음.
- 564) 酒肉. 술과 고기.
- 565) 爭食하고. 다투어 먹고.

- 566) 哭. 소리내어 슬피 울.
- 567) 鬪戔. 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고 길이 다섯 치쯤 되게 만들어, 그림과 낱수를 그려 넣은 노름 기구, 또는 그것을 갖고 하는 노름.
- 568) 半醉中에. 술에 절반 쯤 취해서.
- 569) 盡醉中에. 술이 몹시 취한 가운데.
- 570) 處處. 곳곳에.
- 571) 軍兵中에. 병사들 중에.
- 572) 病淚卽將爲不幸이라.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곧 불행한 일이 닥친다.
- 573) 帳下. 장막 아래.
- 574) 병거지. 전립(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575) 如狂如醉. 미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 576) 失性發狂. 정신을 잃고 거의 미칠 지경이 됨.
- 577) 다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제멋대로 앉아.
- 578) 千里戰場. 천 리나 떨어진 먼 전쟁터.
- 579) 未決되어.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여.
- 580) 天下 大事. 온 세상을 차지하려는 큰 일.
- 581) 連하여. 이어서.
- 582) 서러운. 슬픈.
- 583) 高堂上. 고당 위에. ‘고당’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584) 鶴髮兩親. 학처럼 머리가 희옅게 늙으신 부모님.
- 585) 拜別. 이별의 인사를 올림.
- 586) 父兮여 生我시고, 母兮여 育我시니.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 587) 欲報之德澤인데 昊天罔極이로구나. 그 덕택을 갚고자 하면, (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 588) 節內眷堂. 집안의 일가친척.
- 589) 閨中. 아녀자가 기거하는 곳.
- 590) 紅顏. 아주 예쁜 젊은 여자의 얼굴.
- 591) 妻子. 아내와 자식.
- 592) 寄別. 딴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 593) 出門望. 문 밖에 나가 기다림.
- 594) 依閨之望.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세운 문에 기대어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595) 蘇中郎의 鴻雁來去. ‘소중랑’은 한나라의 소무(蘇武). ‘홍안거래’는 소무가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북해로 귀양을 갔는데, 기러기 발에 편지를 묶어 소식을 전하던 일을 가리킴. 소중랑은 19년만에 늙어 돌아왔다.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596) 相思曲.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 597) 斷腸懷.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
- 598) 晝夜 愁心. 밤낮으로 하는 근심스런 생각.
- 599) 鳥銃. 구식 총.

- 600) 環刀. 옛 군복에 갖추어 차는 긴 칼.
- 601) 둘러메고.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고.
- 602) 陸戰. 육지에서 하는 전쟁.
- 603) 水戰. 물에서 하는 전쟁.
- 604) 生死가 朝夕이로구나. 죽고 사는 것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 605) 客死. 객지에서 죽는 죽음.
- 606) 安葬. 편안히 장사를 지냄.
- 607) 骨曝沙場.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 608) 흩어져서.
- 609) 烏鳶. 까마귀와 솔개.
- 610) ‘후여’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세게 하여.
- 611) 一日思親十二時로구나. 하루에 12시간을 어버이를 생각한다.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생각했으므로, 결국 온 종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임.
- 612)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 613) 誠孝之心. 참으로 효성스런 마음.
- 614)奇特하다. 생각이나 행동이 뛰어나고 특별하여 귀엽다.
- 615)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는 일이나 힘.
- 616) 그것일랑은. 그것은.
- 617) 남의 五代獨身. 자신이 (부모의) 오대독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임. ‘오대독신’은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 618) 近. 거의.
- 619) 將近토록. 곧 가깝도록. 거의 다 되도록.
- 620) 膝下. 슬하에. 어버이의 곁에.
- 621)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622) 반가운 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 623) 供. 신이나 부처에게 정성이나 물건을 바치는 일.
- 624)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625)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626) 古廟. 오래 된 사당.
- 627)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628)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 629) 石佛. 돌로 만든 부처.
- 630) 菩薩. 부처의 다음 가는 성인. 도가 높은 중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
- 631) 彌勒.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 632) 老軀맞이. ‘노구’는 ‘할멈’이라는 의미인데, 민속의 신(神)의 하나인 듯. 따라서 ‘노구맞이’는 ‘노구신을 맞이하여 비는 일’로 볼 수 있음. 혹 노구메정성으로 볼 수도 있음. ‘노구메정성’은 노구메를 놓고 산천에 기도하는 정성인데, ‘노구메’는 노구술에 지은

- 밥. ‘노구술’은 낫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 633)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 634)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 635) 百日山祭. 백일 동안 산에 제사 드리는 일.
- 636) 神衆맞이. ‘신중’이 불법을 지킨다는 화엄신장을 뜻하므로, 화엄신장을 맞이하여 비는 일을 가리킨 듯.
- 637) 袈裟施主. 가사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내는 일. ‘가사’는 중이 입는 법의(法衣)로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는 긴 네모로 된 천.
- 638) 引燈施主. 절에서 불을 켤 기름이나 양초를 살 비용을 내는 일.
- 639) 다리 勸善. 다리를 놓는 데 비용을 내는 일
- 640) 길을 만들어 착한 일을 함.
- 641) 城主. 성주신. 민속에서 집을 지킨다는 신령.
- 642) 寵王. 민속에서 부엌의 아궁이를 담당한다는 신.
- 643) 堂山. 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곳.
- 644) 天龍. 민속에서 장독대를 담당한다는 신.
- 645) 中天群雄. 하늘에 있는 군웅신. ‘군웅신(구능신)’은 무속의 신의 하나.
- 646) 地神祭. 땅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 647) (힘들여) 심은 나무가.
- 648) 胎氣. 아이를 뱀 기미.
- 649)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50)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51)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52)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53) 十朔. 열 달.
- 654) 解腹. 출산. 아기를 낳는 일.
- 655) 昏迷中. 정신이 없는 가운데.
- 656) 반가울 텐데.
- 657) 三七日. 21일.
- 658) 五六朔. 5-6개월.
- 659) 터덕터덕거리면서. ‘터덕터덕’은 힘에 벅차서 애처롭게 겨우 움직이는 모양.
- 660)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피우는 재롱.
- 661) 어린아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우는 재롱.
- 662)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 663)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664) 놀려주며 장난하면서.
 665) 愛重한 게. 애중한 것이. 사랑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666) 외치는.
 667) 祠堂.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668) 痛哭再拜. 슬피 울면서 두 번 절을 함.
 669) 마음이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670) 有情한. 다정한.
 671) 家率. 호주나 세대주에 딸린 식구.
 672) 한 곳에.
 673) 後嗣. 대를 이을 자식.
 674) 生離別. 살아 있는 부부끼리 하는 이별.
 675) 戰場. 전쟁터.
 676) 아기가 변을 볼 때 어르는 말. 또는 아기의 변.
 677)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볼거나.
 678) 拙丈夫. 생각하는 게 좁고 겁이 많은 사내.
 679) 可笑롭다. 격에 맞지 않고 못마땅해서 우습다.
 680) 早失. 일찍 잃음.
 681) 전혀 없어.
 682) 孑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운 홀몸.
 683) 二姓之合. 두 성씨가 합치는 일. 두 성씨가 만나 혼인하는 일.
 684) 깔끔하고 안전하여.
 685) 宗家大事. 한 문중에서 만이로만 내려온 집안의 큰 일.
 686) 託身獻情. 몸을 맡겨 정성을 다함.
 687) 불로 인한 재화(災禍)나 변고(變故).
 688) 天鵝聲.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
 689) 외치는.
 690) 足不離地.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않아 아니함.
 691) 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692) 엎드러지며. 잘못하여 엎어지며.
 693) 二八紅顏. 열여섯 살 나이의 젊은이의 혈색이 좋은 얼굴.
 694) 달래려고 할 때.
 695) 사정없이 뿌리쳐.
 696) 日復日戰爭. 하루 또 하루 계속되는 전쟁.
 697) 不息. 그치지 않음.
 698)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699)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 700) 들어보니.
- 701) 家屬.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
- 702) 不可無字. 팔자에 없는 것이 아님. 곧 팔자에 있음.
- 703) 아주 작은 눈.
- 704) 길고 끝이 밖으로 굽어서 주걱처럼 생긴 턱.
- 705) 쥐털처럼 짧은 수염.
- 706)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707) 着刀. 지휘봉으로 쓰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
- 708) 萬軍中. 모든 군대 속.
- 709) 竦身하게. 몸차림이나 몸가짐을 가볍게 가지고 안달하게.
- 710) 줌놈이로다. 줌스런 놈이로다. 보잘 것 없이 작은 놈이로다.
- 711) 爲國者不顧家.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볼 여유가 없다.
- 712) 男兒何必戀妻子리오? 莫向江村老壯年하소. 남자가 하필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는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고향 생각은 하지 마소.
- 713) 功名. 공을 세워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 714) 心思. 마음과 생각. 마음.
- 715) 恨. 여기서는 ‘소원’이라는 의미.
- 716) 腰下三尺. 허리 아래(에 차는) 석 자 되는 것.
- 717) 吳漢兩陣. 오나라와 한나라(촉)의 두 진영.
- 718) 동작이 가볍고 시원스럽게 빠른 모양.
- 719) 멩경. 쇠불이 따위가 세게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굼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사람의 목을 세게 벨 때 나는 소리’임.
- 720) 凱歌聲. 전쟁에 이겨 부르는 노래 소리.
- 721) 得勝鼓. 승전고, 곧 전쟁에서 이겨서 울리는 북소리.
- 722) 眷率. 딸린 식구.
- 723) 반겨하여. 반가와 하여.
- 724) 遠近間.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모두.
- 725) 項도령. 힘이 장사였다는 항우(項羽)를 가리킴.
- 726) 習用干戈. 창과 방패의 사용법을 익혀 사용한. 현원씨가 제후들을 정벌하려고 창과 방패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함.
- 727) 軒轅氏.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현원(軒轅)인데, 토지의 덕으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땅의 누런 빛깔을 따서 황제(黃帝)라고도 한다. 신농씨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덕이 약해지므로 창과 방패를 만들어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통합했다고 함.
- 728) 與炎帝로. 염제에 맞서서. ‘염제’는 염제 유방씨(榆罔氏)이다. 신농씨와 동일계 여겨져 ‘염제 신농씨’라고 한다. 중국 고대 삼황의 한 사람으로 성은 강(姜)인데,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지녔다고 한다. 쟁기를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또 시장을 열어 물건을 바꾸어가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 729) 阪泉싸움. 현원씨와 염제 유방씨가 싸운 싸움. 이곳에서 현원씨가 유방씨를 이기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730) 能作大霧 蚩尤作亂.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우가 난리를 일으킴. 치우는 제후임.
- 731) 琢鹿싸움. 현재의 중국 하북성 탁록현에서 현원씨와 치우가 벌인 싸움. 현원씨가 응룡(應龍)을 시켜 치우를 치게 하자 치우는 바람 신에게 안개를 일으키게 하므로, 현원씨가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지남거를 만들어 탁록벌에서 치우를 사로잡았음.
- 732) 衰盡 天地. 점점 쇠약해져 다 된 세상.
- 733) 春秋싸움. 중국 춘추 시대 천하를 놓고 다섯 나라가 다투던 싸움.
- 734) 威福秦皇. 위력 있고 부귀하던 진시황.
- 735) 蠶食. 조금씩 점차적으로 침략하여 들어감.
- 736) 山東. 중국의 산둥 지방. 중국 동부 황해 연안 지방.
- 737) 六國싸움. 여섯 나라의 싸움.
- 738)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여러 장수들.
- 739) 八年風塵. 8년 동안의 전쟁. ‘풍진’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먼지를 가리킴.
- 740) 楚漢싸움. 초나라의 항우(項羽)와 한나라의 유방(劉邦)이 천하를 놓고 싸우던 싸움.
- 741) 七十餘戰 功이 없다. 칠십여 번이나 싸운 전쟁의 공이 수포로 돌아갔다. 항우가 내내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가, 마지막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저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꿈이 허사가 된 것을 가리킴.
- 742) 羽壁싸움. 항우가 해하에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싸운 싸움.
- 743) 위태롭구나.
- 744) 赤壁싸움. 적벽강에서의 싸움. 중국 삼국시대 때에 오나라와 한나라의 연합군과 조조의 백만 대군이 싸워 조조가 대패한 싸움. ‘적벽강’은 호북성 가여현에 있는 강.
- 745) 그만두어라.
- 746) 끔찍하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참혹하다.
- 747) 功成身退. 공을 세우고 물러남.
- 748) 하고 싶어라.
- 749) 술 몇 잔.
- 750) 才談.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751) 醉談. 술에 취한 김에 하는 말.
- 752) 失談. 실수로 잘못 한 말.
- 753) 虛談. 실상이 없는 빈말.
- 754)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
- 755) 悖談. 사리에 어그러지는 말.
- 756) 明日. 내일.
- 757) 大戰. 큰 싸움.
- 758) 廝殺. 전투에서 적병을 마구 죽임.
- 759) 柔能制剛이요, 弱能制盛이라.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약한 것이 도리어 번성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
- 760) 兵家. 군사학의 전문가.

- 761) 微驗이요. 경험에 비추어 아는 것이요.
 762) 在德. 덕에 달려 있음.
 763) 勝負間에. 이기고 지고 간에. 이기든지 지든지 아무러하든지.
 764) 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765) 惡死. 험악하게 죽음.
 766) 沒死. 모조리 다 죽음.
 767) 여러 군사.
 768) 回心.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769) 月明深夜. 달 밝은 깊은 밤.
 770) 南天을 무릅쓰고. 남쪽 하늘을 무릅쓰고. ‘무릅쓰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건디어
 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남쪽 하늘을 향하여 떠 있다는 뜻으로 쓰였음.
 771) 半空. 그다지 높지 않은 하늘.
 772) 如何鳴고? 어찌 우는가? 왜 우는가?
 773) 諸將. 여러 장수.
 774) 밝으므로. 밝기 때문에.
 775) 별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
 776) 醉興이 滔滔하여. 술에 취한 흥취를 막을 수 없어.
 777) 月明星稀에 鳥鵲이 南飛하니, 繞樹三匝에 無枝可依라.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도다.
 778) 劉瓛. 조조의 부하 장수. 패국(沛國) 상현(相縣) 사람으로 양주자사(揚州刺史)를 지냈음.
 779) 明日 臨戰時. 내일 싸움에 나설 때.
 780) 不吉兆로소이다. 좋지 않은 징조로소이다.
 781) 마음속.
 782) 妖說. 요사스런 말.
 783) 執頗. 남의 잘못을 잡아내어 트집을 잡음.
 784) 그것인들.
 785) 水陸軍. 수군과 육군.
 786) 分撥. 나누어 펼침.
 787) 此日. 이 날.
 788) 水軍都督. 수군의 장수.
 789) 毛玠. 조조의 모사(謀士).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字)는 효선(孝先).
 790)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막하로 들어왔다. 후에 관우에게 항복
 하였다가, 손권이 구하여 조조에게 보내주었다. 조비(曹丕)는 조조의 능 관리를 시켰
 는데, 일국의 대장으로 항복하였다고 하여, 조조의 공적을 그릴 때에 그의 항복하는
 모습을 그려넣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791) 連鎖戰船 畢鎖하고. 전투할 배를 서로 이어놓기를 마치고.
 792) 卽日. 그 날.

- 793) 樓船. 망을 보기 위한 다락집이 있는 배.
- 794) 水陸軍 諸將.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
- 795) 水陣. 수군의 진영.
- 796) 中挾摠. 대오의 한가운데서 황색 기를 들고 지휘하는 장수.
- 797) 前挾摠. 대오의 앞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98)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799) 左挾摠. 대오의 왼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0)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801) 右挾摠. 대오의 오른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2) 呂通. 위나라 장수.
- 803) 後挾摠. 대오의 뒤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4) 呂虔. 조조의 부하 장수로 무성(武城) 사람. 자는 자각(子恪).
- 805) 陸陣. 육군의 진영.
- 806) 前司把. 군대의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7)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808) 左司把. 군대의 왼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809)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810) 右司把. 군대의 오른편을 맡은 장수.
- 811) 夏侯淵.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묘재(妙才). 정서장군을 지냈는데, 평양관에서 추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다.
- 812) 水陸應接使. 수군과 육군의 연락을 맡은 장수.
- 813)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조조와는 본디 같은 족속인데, 조조의 아버지가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달라졌다. 여러 차례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조조가 죽은 뒤 병사하였다.
- 814) 曹洪. 조조의 동생. 자는 자렴(子廉). 벼슬은 표기장군(驃騎將軍).
- 815) 護衛將. 임금을 신변을 지키는 장수.
- 816)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 817)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 818) 水陣에 發榜曰. 수군의 진영에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 819) 官旗聽著 耳聽金鼓 目視旌旗 駕船如馬 見賊爭先 同舟共命 縱逃賊舟면, 軍法不貸 關哨鼓動 起去아! 관기에 나타난 바를 따라, 귀로는 징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군기를 보아라. 말 타듯이 배를 타고, 적을 보면 앞을 다투며, 배와 생명을 같이 하라. 적의 배를 멋대로 도망가게 두면 군법은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 각 조소에 연락해 북을 울리고,

- 일어서서 출발하라.
- 820) 悠悠小設하면 敵有所施하여 視如聽如라. 여유 있고 침착하게 조금씩 싸울 태세를 갖추고, 적에게 베푸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며, 보는 것같이 하고 듣는 것같이 하라.
- 821) 假曾汝脫退면 敵不急據而니 各隊整齊하여 不許參戰 越後하라! 만일에 적진을 빠져나 오는데도 적이 급히 쫓아오지 않으면, 각 부대를 정비하여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뒤의 부대로 그 적을 넘겨라.
- 822) 各應聲畢에. 각각 대답하는 소리를 마친 후에.
- 823) 戰船 風帆으로 連船. 전투하는 배와 돛단배를 연결하여.
- 824) 觀望. 형세를 바라봄.
- 825)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826) 龐士元. 방통(龐統). 양양(襄陽) 사람으로 이름이 통이며, 자(字)가 사원이다. 유비의 모사(謀士)로, 조조에게 연환계(조조의 군사가 수전에 능하지 못 하므로 쇄줄로 배를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게 하자는 계략)를 쓰도록 하여 대패하게 하였다.
- 827)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828) 荀彧. 조조의 모사(謀士). 본시 원소의 밑에 있었으나, 조조가 황건적을 치고 위세를 떨칠 때 그의 막하에 들었다. 후에 조조의 노여움을 사 50세에 자살하였다. 조조는 그에게 경후(敬侯)라는 시호를 내렸다.
- 829) 처온다면. 공격해 온다면.
- 830) 勝戰할 妙法이로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로다.
- 831) 陣勢. 진을 친 형세.
- 832) 狂風이 忽起하여. 세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 833) 曹寨黃旗. 조조의 진에 있는 누런 깃발.
- 834) 江中에. 강물 속에.
- 835) 吳陣. 오나라 진영.
- 836) 面上. 얼굴.
- 837) 火攻. 불로 하는 공격.
- 838) 欲破無計. (조조의 진을) 격파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음.
- 839) 吐血氣塞. 피를 토하고 기절함.
- 840) 可憐도다. 가엾고 불쌍하다.
- 841) 病勢. 병의 되어가는 형편.
- 842) 至重. 매우 위중함.
- 843) 일어나지.
- 844) 攀緣하여. 의지하는 연줄로 하여.
- 845) 涼藥. 서늘한 약.
- 846) 먹도록 하라.
- 847) 窒塞하여. (숨이 꼭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려서.
- 848) 欲破曹兵이면 諠用火攻하고, 萬事具備하나 欠은 東南風이라.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고자 하면 마땅히 불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다만 동남풍

- 이 부족하다.
- 849) 造化.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신통하게 꾸며진 사물, 또는 그런 사물을 나타내는 재간.
- 850)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 851) 天意. 하늘의 뜻.
- 852) 五百 將卒. 오백 명의 장수와 병졸.
- 853)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854) 領率. (식구, 군대 등을) 데리고 거느림.
- 855) 精軍. 정예 군사. 날랜 군사.
- 856) 聽令俟侯. (공명의) 명령을 기다려서 들음.
- 857) 祈風三日. 삼 일 동안 바람이 불기를 빌기.
- 858) 竝馬하여. 함께 말을 타고.
- 859) 地勢. 땅의 형세. 땅의 생김새.
- 860) 東南方. 동남쪽 방향.
- 861) 取用. 가져다가 사용함.
- 862) 三層壇. 삼 층으로 된 단.
- 863) 方圓. 밑바닥 둘레.
- 864) 二十四丈. 스물네 장. '장'은 길이의 단위로 약 3m.
- 865) 每一層高. 각각 한 층의 높이가.
- 866) 下一層. 아래 한 층.
- 867) 二十八宿. 해, 달, 혹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天球)를 스물여덟로 나눈 것.
- 868) 東方 七面 靑旗에는 蛟龍狒狐兔虎豹로다, 布蒼龍之形하여 東方 靑旗를 세우고. 동쪽 일곱 면의 푸른 기는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도롱뇽, 용, 오소리, 여우, 토끼, 호랑이, 표범이로다. 푸른 용의 모양을 본떠서 동쪽에 푸른 기를 세우고.
- 869) 北方 七面 黑旗에는 獬牛蝠鼠燕猪獬로다, 作玄武之勢하여 北方 黑旗를 세우고. 북쪽 일곱 면의 검은색 기는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해태,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이리이로다. 현무의 모양을 만들어 북쪽에 검은색 기를 세우고. '현무'는 민속에서 섬기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북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는데.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 870) 西方 七面 白旗에는 狼狗雉鷄烏猴猿이라, 踞白虎之勢하여 西方 白旗를 세우고. 서쪽 일곱 면의 흰색 기는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이리, 개, 꿩, 닭, 까마귀, 원숭이, 긴팔원숭이로다. 백호의 모양을 만들어 서쪽에 흰색 기를 세우고.
- 871) 南方 七面 紅旗에는 犴羊獐馬鹿蛇蚓이라, 成朱雀之狀하여 南方 紅旗를 세우고. 남쪽 일곱 면의 붉은색 기는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로다.朱雀의 형상을 만들어 남쪽에 붉은 색

- 기를 세우고, ‘주작’은 민속에서 섬기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르는데, 붉은 봉황으로 형상화한다.
- 872) 中樓. 가운데 누대.
- 873) 黃神大旗. 중오방기(中五方旗.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군데에 세우는 군기)의 하나로 중앙에 세우는 큰 기.
- 874) 河圖洛書 그린八卦 六十四卦를 按檢. 하도(중국 고대의 복희씨 때에 황하에서 용처럼 생긴 말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주역 팔괘의 바탕이 되었음)와 낙서(하나라의 우임금 때에 낙수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적혀 있었다는 글)를 그린 팔괘로 육십사괘를 조사하여 살펴서.
- 875) 八位. 여덟 방위.
- 876) 排立하여. 나열해서 세워.
- 877) 上一層用四人. 맨 위층에는 네 사람을 써서.
- 878) 各人을 束髮冠帶하고. 각자 머리를 묶고, 관을 쓰고, 띠를 두르게 하고.
- 879) 羅布. 비단.
- 880) 鳳衣. 품이 넉넉한 옷.
- 881) 博帶. 넓은 허리띠.
- 882) 朱履. 붉은 신.
- 883) 方裙. 옷자락이 네모난 옷.
- 884) 前左立一人. 앞자리의 왼쪽에 한 사람을 세워.
- 885) 手執長竿하고. 손에 긴 장대를 잡게 하고.
- 886) 竿尖上. 장대 끝.
- 887) 用鷄羽葆 以招風信하고. 닭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바람을 부르고.
- 888) 前後立一人. 앞과 뒤에 한 사람씩을 세워.
- 889) 繫七星號帶. 북두칠성이 그려진 깃발을 매달.
- 890) 以表風色. 바람의 색을 표시함.
- 891) 後左立一人. 뒤편 왼쪽에 한 사람을 세움.
- 892) 奉寶劍하고. 보검을 받들게 하고.
- 893) 後右立一人. 뒤편 오른쪽에 한 사람을 세움.
- 894) 捧香爐하여. 향로를 받들게 하여.
- 895) 壇下에. 단의 아래에.
- 896) 二十四人. 스물네 사람.
- 897) 旌旗. 모두 깃발인데, ‘장’은 깃대 끝을 새의 깃털로 꾸민 기임.
- 898) 寶劍. 의장에 쓰던 칼의 한 가지.
- 899) 大戟. 끝이 갈라진 큰 창.
- 900) 長槍. 긴 창.
- 901) 黃耗. 누런 깃발.
- 902) 白鉞. 무기로 쓰던 흰 도끼.
- 903) 朱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붉은 깃발.
- 904) 阜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검은색 대장기.

- 905) 環繞四面하라. 사방을 등글게 둘러싸듯 서라.
- 906) 此時에. 이 때에.
- 907)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908) 淨히. 깨끗이.
- 909) 剪爪斷髮.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깎음.
- 910) 身嬰白茅. 몸을 흰 띠로 싸서 짐승과 같이 꾸밈.
- 911) 子敬. 노숙의 자(字).
- 912) 公瑾. 주유의 자(字).
- 913) 調兵함. 병사를 훈련시킴.
- 914) 비는 바가. 비는 것이.
- 915) 應함이. 어떤 물음이나, 부름, 요구 따위의 사실에 맞추어 행동함이.
- 916) 怪異함을 두지 마오. 이상야릇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 917) 數多한. 수많은.
- 918) 將卒. 장수와 병졸들.
- 919) 不許遷離方位하며. 제멋대로 단을 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 920) 不許失口亂言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 921) 不許交頭接耳하며.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 922) 不許大聲所怪하라. 괴이한 것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923) 違令者. 명령을 어기는 자.
- 924) 斬. 목을 베.
- 925) 緩步로. 느린 걸음으로.
- 926) 焚香. 향불을 피움.
- 927) 獻酌. 술잔을 올림.
- 928) 讀祝. 축문을 소리 내어 읽음.
- 929) 祝文. 제사 때에 신명께 고하는 글.
- 930) 下壇. 단을 내려옴.
- 931) 風勢. 바람의 형세.
- 932)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933) 대강 자꾸 걷는 모양.
- 934) 胸膛. 가슴의 한복판.
- 935)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둘러치는 포장.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 936)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937) 빈 통이나 널빤지 따위를 두드리거나 발로 구를 때 나는 소리.
- 938) 江村. 강가에 있는 마을.
- 939) 遙落. 멀리 떨어져 보임.
- 940)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을 가리킴.
- 941) 비스듬히 비치는데.

- 942)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943) 常山 趙子龍. 상산 출신의 조자룡.
 944) 배 가까이예.
 945) 等待.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 따위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946) 船尾. 배의 뒷부분.
 947) 孔明前. 공명 앞에. 공명께.
 948) 危邦陣中. 위험한 적의 진영 속.
 949) 손바닥을 펴 내민 손.
 950) 賢主. 어진 임금. 자신이 섬기는 임금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951) 諸將軍卒.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
 952) 一片. 한 조각.
 953) 風席. (배의) 돛을 만드는 데 쓰는 돛자리.
 954) 順風. 순조로운 바람.
 955) 추켜 달고. 높이 올려 달고.
 956) 滔滔滔滔. 넘실넘실.
 957) 文武. 문신과 무신.
 958) 將臺上. 장대 위. ‘장대’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959) 調發. (군사를) 불러 모음.
 960) 豫備할 제. 예비할 때. 미리 차비를 갖추어 준비할 때.
 961) 間間近夜. 간간히 한밤중.
 962) 天色. 하늘의 빛깔.
 963) 晴明. 맑고 밝으며.
 964) 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965) 不動커늘. 일어나지 않거늘.
 966) 魯肅다려. 노숙더러. 노숙에게.
 967) 隆冬. 한겨울.
 968) 듯하옵니다. 듯합니다.
 969) 아느냐?
 970) 서로 사귀면서 껴보니.
 971) 봄시다.
 972) 마치지.
 973) 三更時. 한밤중. ‘삼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974) 風聲. 바람소리.
 975) 青龍. 청룡기(靑龍旗). ‘청룡기’는 대오망기의 하나로 진영의 문 왼편에 세움.
 976) 朱雀. 주작기(朱雀旗). 대오망기의 하나로 진영의 앞문에 세움.
 977) 兩旗脚. 양 깃발이. ‘기각’은 깃대의 반대쪽에 있는 깃폭의 귀에 붙인 긴 조각.
 978)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망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움.
 979) 玄武. 현무기(玄武旗). 대오망기의 하나로 진영의 후문에 세움.

- 980) 東南大風. 큰 동남풍.
- 981) 旗脚. 깃발.
- 982) 몸의 일부를 움츠리거나 펴거나 하며 움직이는 모양.
- 983) 깃발의 복판.
- 984) 肝膽. 깊이 간직한 속마음.
- 985) 脫造化. 사람이 부릴 수 없는 조화.
- 986) 難測이라. 짐작하기 어렵다.
- 987) 禍根이매. 화근이므로. 재앙의 근원이므로.
- 988) 後患. 훗날의 근심.
- 989)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 990)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 991) 慇懃히. 속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간절하거나 깊게.
- 992) 長短. 옳고 그름.
- 993) 칼이나 가위로 단번에 베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994) 未明. 날이 채 밝기 전에. 날이 썰 무렵.
- 995) 遺患, 양호유환(養虎遺患). 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뜻으로,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환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 996) 銘心不忘. 깊이 마음속에 새겨 잊지 않음.
- 997) 말을 달려.
- 998) 執旗壯士. 기를 잡고 있는 장사.
- 999) 當風立. 바람을 마주하고 섬.
- 1000) 遮日.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 1001)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친.
- 1002) 물끄러미. 멍하니.
- 1003) 只在此山中이어든 從天降하며 從地出할까? 다만 이 산 속에 있을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며, 땅에서 나올까?
- 1004) 壇下. 단의 아래.
- 1005) 萬頃蒼波.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 1006) 넓은.
- 1007) 洶湧한데. 물결이 아주 세차게 일어나는데.
- 1008) 來去踪跡. 오고 간 발자취.
- 1009) 無去處이어늘. 간 곳이 없거늘.
- 1010) 水卒. 수군의 병사.
- 1011) 小卒等. 소졸들. '소졸'은 병사가 상급자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012) 昨日. 어제
- 1013) 日暮時. 해질 때.
- 1014) 江岸. 강 언덕.

- 1015) 洋洋江水. 넓고 넓은 강물.
- 1016)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장강(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 1017)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1018) 桐江의 七里灘.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울인데, 엄자룽이 낚시하던 곳으로 유명함.
- 1019) 嚴子陵. 이름은 광(光). ‘자룽’은 그의 자(字). 한나라의 광무제와 글공부를 같이 했으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다. 황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라는 벼슬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 1020) 五湖上煙月 속에 范相公 가는 뱃지. 오호의 달밤 안개 자욱한 속에 범상공이 가는 배인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호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서시를 데리고 도 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 1021)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 1022) 倉惶奔走. 너무 급하여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 1023) 船尾. 배의 뒷부분.
- 1024) 다다르니.
- 1025) 一員大將. 한 사람의 대장.
- 1026) 보니.
- 1027) 뺨을 치고. 읊을 하고. ‘읊’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내리는 인사.
- 1028) 말을 하려고 입을 자꾸 달짝이는 모양.
- 1029) 공명이로다.
- 1030) 長槍. 긴 창.
- 1031) 땡깡. 쇠불이 따위가 세계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쿵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사람의 목을 세계 벨 때 나는 소리’임.
- 1032) 푹 적시면.
- 1033) 白骨. 살이 다 썩고 남은 하얀 뼈.
- 1034) 惶怯. 겁을 집어 먹고 얼떨떨하여.
- 1035)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1036) ‘키’는 배의 뒷부분에 장치하여 배의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기구이며, ‘키따리’는 키를 조종하도록 손으로 잡는 부분임.
- 1037) 노를 저으면서 내는 소리.
- 1038) 殷殷히. (떨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고 우렁차게.
- 1039)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계 흐르는 얇은 곳.
- 1040) 물건들을 자꾸만 이리저리 뒤집는 모양.
- 1041) 공명인 것이.
- 1042) 거기에.
- 1043) 大笑하며. 크게 웃으며.

- 1044) 都督.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1045) 回報하라. 돌아가서 알려라.
 1046) 緊히. 몹시 간절하게.
 1047) 氾濫. 제 분수를 모름.
 1048) 目前. 눈앞. 바로 앞.
 1049) 두시웁니까.
 1050) ‘배’의 비어.
 1051) 散炙. 쇠고기 따위를 길쭉하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1052)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이 의종게 지냄.
 1053) 船尾. 배 뒤쪽.
 1054) 아느냐?
 1055) 모르느냐?
 1056) 有功. 공이 있음.
 1057) 害코자. 해하고자. 해치고자.
 1058)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피.
 1059) 百步. 백 걸음.
 1060) 들어오자마자.
 1061) 長弓. 큰 활.
 1062) 鐵箭. 쇠로 만든 화살.
 1063) 화살을 시위에 메어.
 1064) 非丁非八. 丁 자도 아니고 八 자도 아닌 모양으로 하여, 활을 쏠 때의 발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
 1065) 胸虛腹實. 숨을 다 내쉬고 배에 힘을 줌.
 1066) 머리 뒤. 뒤통수.
 1067) 호미뼈. 견갑골. 어깨 뒤에 있는 삼각형의 뼈.
 1068) 남이 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도우며.
 1069) 활의 한가운데 손으로 쥐는 부분.
 1070) 下三脂. 손을 쥐었을 때, 집게 손가락 밑의 세 손가락.
 1071) 弓弦. 활을 맨 줄.
 1072) 아쑈. 갑자기 찬 기운이 몸을 스쳐가는 느낌을 느끼는 모양.
 1073) 正機一發.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한 번 쏜.
 1074) 깎지긴 손. ‘깎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
 1075) 힘차게 떼어놓으니.
 1076) 海上으로. 바다 위로. 여기서는 ‘강물 위로’라고 해야 옳음.
 1077) 단단하고 큰 물건이 세게 부딪칠 때 나는 소리.
 1078)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1079) ‘가로 자빠져’라는 뜻으로 쓴 듯함.
 1080) 뒤쳐져. 뒤집혀 쫓혀져.

- 1081) 蕭瑟狂風. 세차게 부는 으스스하고 쓸쓸한 바람.
- 1082) 물결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양.
- 1083) 뒤틀려서 마구 우그러져.
- 1084) 意氣.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마음이나 기개.
- 1085) 騰騰하여. 드러내는 기세가 무서울 만큼 드세어.
- 1086) 雄聲. 큰 소리.
- 1087) 號令. 지휘하여 명령함. 큰 소리로 꾸짖음.
- 1088) 當陽. 호북성에 있는 지명. 이곳의 당양현의 북쪽에 장판교가 있음.
- 1089) 阿斗. 유비가 미부인(糜夫人)에게서 낳은 아들. 아두는 아명(兒名). 이름은 선(禪)이며,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 1090) 匹馬單槍. 한 필의 말과 한 개의 창. 곧 혼자서.
- 1091) 魏國敵兵. 위나라 적의 군사.
- 1092) 名望. 명성(名聲)과 인망(人望). '인망'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덕망.
- 1093) 들었느냐?
- 1094) 命令下에. 명령 아래. 명령을 따라.
- 1095) 散矣죽음. 산적처럼 꼬챙이에 꿰어져 죽는 죽음. 여기서는 화살에 맞아 죽는 죽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쭉하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치에 꿰어 구운 음식.
- 1096) 滔滔滔滔. 넘실넘실.
- 1097) 怯走하여. 겁에 질려 달아나.
- 1098) 回報하니. 돌아와 알리니.
- 1099) 後圖하자. 나중에 일을 꾸미자.
- 1100) 分撥. 나누어 펼침.
- 1101) 甘寧. 손권의 부하 장수. 자(字)는 흥패(興覇). 파군 임강 사람. 양자강을 오르내리며 수적절을 하여 용맹을 떨치다가 손권에게 항복하여 그의 부하 장수가 되었다.
- 1102) 蔡中 降卒. 채중의 항복한 병사들. '채중'은 유효(劉表)의 처남이자 수군대장이었던 채모(蔡瑁)의 사촌. 조조를 거짓 배반하고 주유에게 항복했다가, 이를 간파한 주유에게 역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음.
- 1103) 炬火爲號하라. 횃불로 신호를 하라.
- 1104) 前營의. 앞의 진영에 있는.
- 1105)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자(字)는 자의(子義).
- 1106) 各率三千하여. 각각 삼천 명씩을 이끌고.
- 1107) 各處에. 각각의 장소에.
- 1108) 埋伏. (적을)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1109) 領兵. 병사를 거느림.
- 1110) 軍官. 장교.
- 1111) 第一隊. 첫 번째 부대.
- 1112)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 1113) 第二隊. 두 번째 부대.
- 1114)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이릉 전투에선 남만장수 사마가를 죽였으며 후일 조조(曹操)와의 합비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유비(劉備)와의 싸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1115) 第三隊. 세 번째 부대.
- 1116) 蔣欽.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공혁(公奕). 수군을 통솔하는 데 뛰어나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117) 第四隊. 네 번째 부대.
- 1118) 陳武. 오나라 장수. 여강(廬江) 송자(松滋) 사람. 조조의 세 번째 남침을 맞아 싸우다 방덕(龐德)에게 칼을 맞아 전사했음.
- 1119) 戰船. 전투용 배.
- 1120) 一字. 일 자 모양으로 나란히.
- 1121) 擺列. 늘어 세움.
- 1122) 上部都督. ‘도독’은 한 부대의 총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상부도독은 전방 부대의 총대장을 가리키는 말인 듯.
- 1123) 程普. 오나라 장수. 우북평 토은 사람으로 자(字)는 덕모(德謀).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124) 先鋒大將. 부대의 가장 앞에 나아가는 대장.
- 1125)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126) 乘火煙如雲하고 一齊 應陣하며, 捧銃 携棒하여 山崩如壯圖라고 하였으니. 불이 붙어 연기가 구름처럼 일어날 때를 타서 일제히 군대를 움직여,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산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공격하라고 하였으니. ‘휴봉’은 ‘부휴대(斧攜帶. 도끼를 지니고)’로 해야 맞음.
- 1127) 黃蓋 火船. 황개가 거느린 화선. ‘화선’은 화약과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 1128) 炬火. 횃불.
- 1129) 黃昏時. 해질 무렵.
- 1130) 號令出. 행동의 개시를 알리는 명령이 내림.
- 1131) 各船에. 모든 배에.
- 1132) 聽候하라. 청령사후(聽令侯)하라.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라.
- 1133) 起去아. 일어서서 출발하라.
- 1134) 一葉片舟. 한 조각 작은 배.
- 1135) 一等名將. 제일가는 훌륭한 장수.
- 1136) 車騎將軍. 공이 큰 장군에게 붙여주는 호.
- 1137) 張翼德. 장비(張飛). 자는 익덕(翼德).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

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1138) 鎮軍將軍. 조운을 가리킴. 처음에는 익군장군(翊軍將軍)이었음.
- 1139) 軍禮. 군대에서 하는 인사.
- 1140)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뵈.
- 1141) 軍中에. 군중에. 군사들 가운데서.
- 1142) 答拜. 답례로 하는 인사.
- 1143) 將臺上에. 장대 위에. '장대'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1144) 放包聲. 대포 또는 총을 쏘는 소리.
- 1145) 金鼓. 쇠북. 징.
- 1146) 兵寡將少하니 必用派先이라. 병사가 적고, 장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 전장에)먼저 군대를 보내는 방법을 써야 한다.
- 1147) 三千軍. 삼천 명의 군사.
- 1148) 烏林.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는 지명.
- 1149) 屯兵埋伏. 군사를 주둔시키고 숨어 있음.
- 1150) 曹兵. 조조의 군사.
- 1151) 先軍. 맨 앞에 가는 부대.
- 1152) 掩襲. 갑자기 덮침.
- 1153) 烏林山嶺後. 오림 고개 넘어.
- 1154) 葫蘆谷. 오림에 있는 골짜기 이름.
- 1155) 午時.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 1156) 糜芳. 미축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1157)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1158)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 1159) 敗軍 器械. 전쟁에서 진 군사들의 무기.
- 1160) 分撥. 나누어 펼침.
- 1161) 누구이고.
- 1162) 漢壽亭侯. 한나라 수정후. 관우를 가리키는 말. '수정후'는 조조가 관우에게 내린 봉호.
- 1163) 關公. 관우(關羽)를 높여 일컫는 말.
- 1164)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1165)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1166) 靑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 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1167) 비스듬히.
- 1168) 嚴然히.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게. 여기서는 '매우 엄하게' 정도의 의미임.
- 1169) 兄長. 형님.
- 1170) 모셔. 모시고.
- 1171) 落伍. 대열에서 떨어짐.
- 1172) 없사옵더니. 없더니.
- 1173) 大戰時에. 큰 싸움을 할 때에. 혹은 '대전시(對戰時)'로 보기도 한다. '대전시(對戰時)'에는 '싸움을 할 때에'.
- 1174) 어떤. 어떠한.
- 1175) 일입니까.
- 1176) 要緊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 1177)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 1178) 厚待한. 잘 대접한.
- 1179) 놓아줄 듯하여
- 1180) 定치. 정하지.
- 1181) 正色하여. 얼굴에 엄정한 빛을 보이고.
- 1182) 跪告曰. 무릎을 꿇고 고하여 말하기를.
- 1183) 無私情이온데. 사사로운 감정을 두지 못하는데.
- 1184) 私. 사사로움.
- 1185) 놓아주면.
- 1186) 依律當斬하을 次로. 법에 따라 목 베임을 당할 것으로.
- 1187)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1188) 小路. 작은 길.
- 1189) 峰에. 산봉우리에.
- 1190) 불을 피워.
- 1191) 그것은.
- 1192) 맞軍令狀.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 쓴 군령장.
- 1193) 着銜. 문서에 성명을 적는 따위의 결재.
- 1194) 大喜하사. 크게 기뻐하시어.
- 1195) 關平. 관우의 양자. 본래 관우가 조조의 보호로부터 탈출하여 오관참장하고 유비를 찾아나섰을 때 도움을 받은 관정(關定) 노인의 작은 아들이었음. 평생 양부를 따라 행동하다 형주 함락 후에 관우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 1196) 周倉. 관우의 부하로 천하장사. 본래 황건적 장보의 부하로 와우산에서 산적질을 하다가, 관우를 만나 최후까지 충성을 다하였다.
- 1197) 五校刀手. 칼을 든 다섯 명의 병사.
- 1198) 駕騫大路. 장수의 행차를 가리키는 듯함.

- 1199) 排立. 줄을 지어 죽 늘어섬.
- 1200) 淸道旗. 관원(官員)의 행차 때 많은 기(旗) 중에 제일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 화염은 붉은 빛이며 '청도(淸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 1201) 行軍. 군대가 행진함.
- 1202) 淸道. 청도기(淸道旗).
- 1203)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붉은 색 깃발.
- 1204) 靑龍. 청룡기(靑龍旗),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의 왼편 문에 세워져 좌군, 좌영, 좌위를 지휘함. 푸른 바탕에 청룡과 운기(雲氣)를 그렸으며 가장자리의 화염은 검은빛임.
- 1205) 東南角. 의장기의 하나.
- 1206) 東北角. 의장기의 하나.
- 1207) 靑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208) 靑門. 군대에서 쓰이던 푸른 색 깃발.
- 1209) 朱雀. 주작기(朱雀旗). 전문(前門)에 세워져 전군, 전영, 전위를 지휘함.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남색임.
- 1210) 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211) 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212) 紅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213)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붉은 색 깃발.
- 1214)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흰 바탕에 백호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 1215) 西北角. 의장기의 하나.
- 1216) 西南角. 의장기의 하나.
- 1217) 白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218) 白門. 군대에서 쓰이던 흰색 깃발.
- 1219) 玄武. 현무기(玄武旗). 후문(後門)에 세웠음. 검은 바탕에 거북을 그림.
- 1220) 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221) 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222) 黑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223) 黑門. 군대에서 쓰이던 검은색 깃발.
- 1224) 黃神. 군대에서 쓰던 깃발. 중오방기의 하나.
- 1225) 豹尾.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깃발.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못 하게 하는 데 쓰였음.
- 1226) 金鼓. 휘타수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 1227) 鑼. 놋쇠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
- 1228) 鉦. 정(鉦). 징.
- 1229) 曄囉. 자바라. 놋쇠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 1230) 令旗. 군중에서 명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슈' 자를 썼음.

- 1231) 鼓. 북.
- 1232) 細樂. 군대에서 장구, 북, 피리, 쯏대, 깡깡이 등으로 구성된 음악.
- 1233) 中司命. '중앙에 사명기'라는 뜻. '사명기'는 대장이 군대를 지휘하는 기.
- 1234) 左貫耳 右令箭. '왼쪽에 관이, 오른쪽에 영전'이라는 뜻. '관'은 군대에서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일 사람의 귀를 꿰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화살. '영전'은 군대의 명령을 전하는 화살. 여기서서는 그 화살을 담당하는 군사.
- 1235) 執事. 장교. 또는 나라의 의식 때 식을 진행시키는 관원.
- 1236) 軍牢直列. 한 줄로 죽 늘어선 군뢰. '군뢰'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는 병졸.
- 1237) 攔後. 부대의 맨 뒤를 호위하던 군대.
- 1238) 親兵. 임금이나 대장이 친히 거느리던 군사.
- 1239) 教師. 군대의 훈련을 맡던 벼슬.
- 1240) 塘報. 적의 형편을 살펴 알리는 임무를 맡은 척후병.
- 1241) 座馬. 대장이 말을 탈 때 여벌로 데리고 다니던 말.
- 1242) 纛.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던 깃발.
- 1243) 氣色. (회로에락 등)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 1244) 劍光. 칼에서 빛나는 광채.
- 1245) 如霜이라. 서릿발과 같다. 그렇게 위엄이 있음을 나타냄.
- 1246) 殺氣. 독살스러운 기운. 사납고 무서운 기운.
- 1247) 騰騰. 드러내는 어떤 기세가 무서우리만큼 드높음.
- 1248) 行次. 옷어른이 길 가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
- 1249) 致謝.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냄.
- 1250) 用兵. 군사를 부림. 군사를 지휘함.
- 1251) 看審次로. 살펴볼 셈으로.
- 1252) 樊口.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
- 1253) 漸起로구나. 점점 일어나는구나.
- 1254) 將臺上에 가. 장대 위로 가서. '장대'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1255) 長劍. 긴 칼.
- 1256) 들어보아라.
- 1257) 黃巾. 황건적(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로 쇄퇴하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曹操)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1258) 董卓. 후한 사람. 자(字)는 중영(仲穎). 하동 태수로 있을 때 황건적과의 싸움에서 번번한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나, 궁중의 환관들과 줄을 대어 영제(靈帝) 때 전장군(前將軍)이 되고, 그 뒤 헌제(獻帝)를 세워 흥포한 것을 많이 하다가 여포(呂布), 왕충(王充) 등에 죽임을 당하였음.
- 1259) 呂布. 후한 시대의 장수. 본래 형주자사 정원(丁原)의 의자(義子)로 그를 호위하였으

나, 동탁이 적토마를 주어 매수하는 바람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 붙었다. 왕윤이 조선이로 하여금 미인계를 쓰니 또 넘어가 동탁을 죽이고, 이각, 곽사의 무리와 싸웠다. 후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혀 죽었다.

- 1260) 四海. 온 세상.
- 1261) 平定.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킴. 적을 무찌르고 자기편에 예속시킴.
- 1262) 天運. 하늘이 내려준 운. 아주 좋은 기회.
- 1263) 紛紛한. (눈 따위가 흩날리는 모양이) 뒤섞이어 어수선했다.
- 1264) 隆冬. 추위가 지독한 겨울.
- 1265) 하십시오. 하십시오.
- 1266) 冬至에 一陽이 始生하니. 동지에 양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곧 동지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고, 봄기운이 돈다는 말.
- 1267) 豈有東南風가? 어찌 동남풍이 있겠는가.
- 1268)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지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269) 二十火船. 스무 척의 화선. '화선'은 수전에서 장작, 쥔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적의 배에 불을 옮기는 데 쓰는 배.
- 1270) 靑龍牙旗. 청룡이 그려진 대장기.
- 1271) 船旗上에. 배에 꽂는 깃발에.
- 1272) 先鋒隊將. 맨 앞장을 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
- 1273) 엉크러지거나 흐리지 않고 똑똑하며 분명하게.
- 1274) 靑布帳. 푸른색 천으로 만든 포장. '포장'은 피륙을 여러 폭으로 이어 빙 둘러막아 친 장막.
- 1275) 三升甬. 삼승으로 만든甬. '삼승'은 석재 삼베. 곧 올이 굵은 삼베.
- 1276)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1277)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게 흐르는 얇은 곳.
- 1278)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1279) 殷殷히.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고 우렁차게.
- 1280) 大喜. 크게 기뻐함.
- 1281) 將卒다려. 장수와 병졸에게.
- 1282) 黃公覆. 황개. '공복'은 황개의 자(字).
- 1283)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 1284) 大笑. 크게 웃음.
- 1285)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 1286) 배 같으면.
- 1287) 船中이. 배 가운데가.
- 1288) 穩重할데. 무거울 텐데.
- 1289) 搖搖. 연달아 자꾸 흔들림.

- 1290) 泛流. 둥둥 떠 물결 따라 흐름.
- 1291) 奸計. 간사한 계략.
- 1292) 있다면.
- 1293)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지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1294) 防塞.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 1295) 배인가?
- 1296) 습. 명령.
- 1297) 떨어지자마자.
- 1298) 舉火炮. 화포를 설치함. 신기전이 화약을 장치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무기이기 때문에 화포를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음.
- 1299) 神機箭. 조선시대의 로켓 병기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처음에는 한 개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후에 화차를 만든 후에는 신기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았음.
- 1300) 雷鼓. 타악기의 한 가지. 검은 칠을 한 북 세 개를 북틀에 매달아놓고 칠.
- 1301) 各船. 각각의 배.
- 1302) 버썩. 물기가 전혀 없이 마르거나, 타버리는 모양.
- 1303) 바뀌는 듯.
- 1304) 火焰. 불꽃.
- 1305)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 1306) 戰船. 뒤통. 전투하는 배가 기웃등함.
- 1307)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 1308) 돛을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줄.
- 1309) 돛 위에 가로 댄 나무.
- 1310) 노 젓는 긴 나무.
- 1311) 뱃바닥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 1312) 삼판나리.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조그만 배.
- 1313) 足板. 배를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 널빤지.
- 1314) 行裝. 배 안에 깔아놓은 여러 도구.
- 1315) 배의 바닥과 뱃전(배의 양 옆)을 고정하기 위해 가로지른 나무.
- 1316) 砲臺. 포를 쏘기 위해 만들어놓은 축조물.
- 1317) 旗幟. 깃발.
- 1318)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 1319) 형겅 따위가 찢어지는 소리.
- 1320) 火箭. 불화살.
- 1321) 弓箭. 활과 화살.
- 1322) 질 나쁜 낚시로 만든 밑이 평평한 솔.
- 1323) '면장'인 듯. '면장'은 돛대의 밑 부분을 고정하는 확처럼 생긴 '개밥통'을 고정하기

- 위해 엇비슷하게 뱃전에 대는 나무토막.
- 1324)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 1325)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1326) 散散이. 여지없이 깨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
- 1327) 風波江上. 바람에 물결이 이는 강물 위.
- 1328) 火光. 불빛.
- 1329) 한데 마구 섞여서 몹시 끓을 때.
- 1330) 가련한.
- 1331) 자꾸 오므라지게 하는 모양.
- 1332) 가슴의 한복판.
- 1333) 부서져.
- 1334) 가엾게.
- 1335) 허.
- 1336)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음.
- 1337) 急死. 갑자기 죽음.
- 1338) 惡死. 험악하게 죽음.
- 1339) 沒死. 모조리 다 죽음.
- 1340) 지긋이 힘을 주어 부러뜨리는 모양.
- 1341) 無斷히.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 1342)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또는 대충대충.
- 1343) 뒹굴다가.
- 1344) 뉘우쳐서 탄식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 1345) 落傷. 자빠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칩.
- 1346) 두드리며.
- 1347) 자꾸 부스럭거리더니.
- 1348) 아파. 마음에 못마땅할 때 조금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 1349) 언짢을 때에 불평스러워 욕으로 하는 말.
- 1350) 미처 어떻게 할 여유가 없이 몹시 급한.
- 1351) 처지, '관국', '형편'.
- 1352) 砒霜. 비석(砒石)을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무서운 독이 있음.
- 1353) 느릿느릿 자꾸만 기어 올라가는 모양.
- 1354) 배의 양 옆 부분.
- 1355) 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세게 구르며 빨리 걷는 소리.
- 1356) 望拜.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절할 대상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는 절.
- 1357) 望覷. 먼 곳에서 아버지의 상사를 당했을 때 그 쪽을 바라보고 슬피 우는 일.
- 1358) 어찌 할 수 없이.
- 1359) 거품.
- 1360) 제가.

- 1361) 한가한 채하느라고.
 1362) 時調 半章 빠다가. 시조의 반 장 노래 부르다가. 시조 한 수는 3장 6구로 되어 있음.
 1363) 즉사(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1364) 大海水중. 큰 바닷물 속.
 1365) 모두.
 1366) 여기서는 ‘자꾸만 계속해서’라는 의미.
 1367) 赤戟. 붉은 색 창.
 1368) 鳥銃. 구식 총.
 1369) 총알을 넣는 통.
 1370)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화약, 탄약을 넣는 그릇의 총칭.
 1371) 끝이 반달 모양으로 된 송곳. 굵은 자루가 위에 가로 박혔는데, 이쪽저쪽으로 비틀면
 서 큰 구멍을 뚫게 되어 있음.
 1372) 독침(毒針). 살인 수단이나 무기로 쓰는, 독물을 문힌 바늘.
 1373) 赤壁風波. 적벽강의 풍파.
 1374) 無用이로구나. 쓸모가 없구나.
 1375) 火箭. 불화살.
 1376) 弓箭. 활과 화살.
 1377)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
 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1378)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
 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1379) 保衛하여. 보호하고 지켜.
 1380)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모양.
 1381) 火煙. 불과 연기.
 1382) 외치는.
 1383) 紅袍. 붉은 색 도포.
 1384) 쉽게. 빨리.
 1385)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1386) 빼앗아.
 1387) 제가.
 1388) 나더러.
 1389) 氣怯하여.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라서.
 1390) 단단한 물건을 자꾸 부러뜨리거나 힘껏 잡아 뜯을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391) 피를 부리며, 양탈(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피를 부림)을 하며.
 1392) 落水하니. 물이 떨어지니.
 1393) 義公. ‘의공’은 한당(韓當)의 자(字). ‘한당’은 오나라 장수로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1394)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1395) 臀腫. 불기작이나 그 근처에 나는 종기.

- 1396) (거동을 못하여 대변을 방에서 보아) 똥을 치워야 할까 염려된다.
 1397) 이리저리 흔들지.
 1398) 겁이 나는 바람에.
 1399) 退不如前.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감.
 1400) 제 생각만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고집하는 모양.
 1401) 縮地法. 도술에 의해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1402) 縮天縮地法. 도술로 하늘과 땅의 거리를 줄이는 술법.
 1403)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1404) 배량이면. 배라고 한다면.
 1405) 船體. 배의 몸체.
 1406) 穩重할데. 무거울 텐데.
 1407) 搖搖. 연달아 자꾸 흔들리고.
 1408) 泛流. 둥둥 떠 물결 따라 흐르니.
 1409) 奸巧. 간사한 계교.
 1410) 있다면.
 1411) 防備. (침입이나 손해 따위를) 미리 막아 지킴.
 1412)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는 중업(仲業).
 1413) 防塞.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1414) 배인가?
 1415) 습. 명령.
 1416) 말라고 하신다.
 1417) 화살.
 1418)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는 중업(仲業).
 1419) 舉火砲. 화포를 설치함. 신기전이 화약을 장치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무기이기 때문에 화포를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음.
 1420) 神機箭. 조선시대의 로켓 병기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처음에는
 한 개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후에 화차를 만든 후에는 신기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았음.
 1421) 雷鼓. 타악기의 한 가지. 검은 칠을 한 북 여섯 개를 북틀에 매달아놓고 칠.
 1422) 各船. 각 배.
 1423) 물기가 전혀 없이 마르거나, 타버리는 모양.
 1424) 火焰. 불꽃.
 1425)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1426) 風聲. 바람소리.
 1427) 戰船. 뒤뚱. 전투하는 배가 기우뚱함.
 1428)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1429) 돛을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줄.
 1430) 돛 위에 가로 댄 나무.
 1431) 노 젓는 긴 나무.

- 1432) 뱃바닥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1433)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조그만 배.
 1434) 足板. 배를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 널빤지.
 1435) 行裝. 배 안에 깔아놓은 여러 도구.
 1436) 배의 바닥과 뱃전(배의 양 옆)을 고정하기 위해 가로지른 나무.
 1437) 砲臺. 포를 쏘기 위해 만들어놓은 축조물.
 1438) 旗幟. 깃발.
 1439)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치.
 1440) 형곶 따위가 찢어지는 소리.
 1441) 火箭. 불화살.
 1442) 弓箭. 활과 화살.
 1443) 질 나쁜 낫쇠로 만든 밑이 평평한 솔.
 1444) '면장'인 듯. '면장'은 돛대의 밑 부분을 고정하는 확처럼 생긴 '개밥통'을 고정하기 위해 엇비슷하게 뱃전에 대는 나무토막.
 1445)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1446) 나발.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1447) 散散이. 여지없이 깨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
 1448) 風波江上. 바람에 물결이 이는 강물 위.
 1449) 火光. 불빛.
 1450) 戰船. 전투하는 배.
 1451) 한데 마구 섞여서 몹시 끊어.
 1452) 가련한.
 1453) 자꾸 오므라지게 하는 모양.
 1454) 가슴의 한복판.
 1455) 부서져.
 1456) 才談.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1457) 혀.
 1458)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음.
 1459) 急死. 갑자기 죽음.
 1460) 惡死. 험악하게 죽음.
 1461) 沒死. 모조리 다 죽음.
 1462) 지긋이 힘을 주어 부러뜨리는 모양.
 1463) 無斷히.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1464)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또는 대충대충.
 1465) 뒹굴다가.
 1466) 누우쳐서 탄식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1467) 落傷. 자빠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침.
 1468) 두드리며.

- 1469) 가없이. 가없게.
 1470) 자꾸 부스럭거리더니.
 1471) 아따. 마음에 못마땅할 때 조금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1472) 언짢을 때에 불평스러워 욕으로 하는 말.
 1473) 미처 어떻게 할 여유가 없이 몹시 급한.
 1474) 처지, '관국', '형편'.
 1475) 砒霜. 비석(砒石)을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무서운 독이 있음.
 1476) 느릿느릿 자꾸만 기어 올라가는 모양.
 1477) 거품.
 1478) 배의 양 옆 부분.
 1479) 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세게 구르며 빨리 걷는 소리.
 1480) 望拜.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절할 대상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는 절.
 1481) 望哭. 먼 곳에서 아버지의 상사를 당했을 때 그 쪽을 바라보고 슬피 우는 일.
 1482) 어찌 할 수 없이.
 1483) 거품.
 1484) 한가한 체하느라고.
 1485) 時調 반 장을 빼다. 시조의 반 장 노래부르다가. 시조 한 수는 3장 6구로 되어 있음.
 1486) 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1487) 沒死. 모조리 다 죽음.
 1488) 大海水中. 큰 바닷물 속.
 1489) 여기서는 '자꾸만 계속해서'라는 의미.
 1490) 赤戟. 붉은 색 창.
 1491) 鳥銃. 구식 총.
 1492) 총알을 넣는 통.
 1493)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화약, 탄약을 넣는 그릇의 총칭.
 1494) 끝이 반달 모양으로 된 송곳. 굵은 자루가 위에 가로 박혔는데, 이쪽저쪽으로 비틀면
 서 큰 구멍을 뚫게 되어 있음.
 1495) 독침(毒針).
 1496) 赤壁風波. 적벽강의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1497) 無用이로구나. 쓸모가 없구나.
 1498) 火箭. 불화살.
 1499) 弓箭. 활과 화살.
 1500)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
 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1501)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
 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1502)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모양.
 1503) 火煙. 불과 연기.
 1504) 외치는.

- 1505) 紅袍. 붉은 색 도포.
 1506) 쉽게. 빨리.
 1507)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1508) 나더러.
 1509) 저기.
 1510) 긴.
 1511) 단단한 물건을 자꾸 부러뜨리거나 힘껏 잡아 뜯을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512) 피를 부리며, 양탈(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피를 부림)을 하며.
 1513) 落水하니. 물이 떨어지니.
 1514) 義公. ‘의공’은 한당(韓當)의 자(字). ‘한당’은 오나라 장수로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1515)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1516) 臀腫. 볼기짝이나 그 근처에 나는 종기.
 1517) (거동을 못하여 대변을 방에서 보아) 똥을 치워야 할까 염려된다.
 1518) 이리저리 흔들지.
 1519) 기급(氣急)하여. 갑자기 놀란 정도가 몹시 심하여.
 1520) 縮地法. 도술에 의해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1521) 退不如前.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감.
 1522) 제 생각만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고집하는 모양.
 1523) 蒼黃奔走. 너무 급하여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1524)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1525) 追兵. 뒤쫓아 오는 군사.
 1526) 엎드러지며. 잘못하여 엎어지며.
 1527) 半生半死. 반은 살고, 반은 죽음. 거의 죽게 된 모양.
 1528) 자꾸 움츠리는 모양.
 1529)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1530) 움츠리십니까.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을 갑자기 오그려 작아지게 합니까.
 1531) 意外에. 뜻밖에.
 1532) 말의 발굽의 몸통을 일컫는 말.
 1533) 메추라기. 평과의 겨울 철새로 몸은 병아리와 비슷하나 꼬리가 짧다.
 1534) 무엇에 놀라 갑자기 날아가는 모양.
 1535) 장끼. 평의 수컷.
 1536) 몹시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질겁을 함.
 1537) ‘쌘박하다’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시원스럽도록 마음에 들 때 하는 말.
 1538) 종다마는.
 1539) 憂患. 집안에 복잡한 사건이나 환자가 생김으로 인한 근심이나 걱정. 여기서는 ‘전쟁 중의 근심’을 뜻함.
 1540) 怨鳥.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변하여 되었다는 새.
 1541) 曹丞相. 승상 벼슬에 있는 조조.

- 1542) 險峻. 지세가 높고 험하며 가파름.
 1543) 樹木. 나무.
 1544) 叢雜. 뾰뾰하게 우집.
 1545) 萬壑. 수많은 산골짜기.
 1546) 千峰. 수많은 산봉우리.
 1547) 바람이 세차게 불 때.
 1548) 花草木實. 꽃과 풀과 나무 열매.
 1549) 끊어졌는데. 날지 않는데.
 1550) 赤壁火戰. 적벽강에서 불로 싸운 싸움.
 1551) 冤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화하여 된 새.
 1552) 지절거리면서. 낮은 소리로 잇따라 자꾸 지절이면서.
 1553) 맨 끄트머리.
 1554) 塗炭. (진흙 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 빠졌다는 뜻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1555) 헤이던고.
 1556) 歸蜀道. ‘촉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1557) 不如歸. ‘돌아가지 못하다’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 소리.
 1558) 蜀魂鳥. 두견새의 다른 이름.
 1559) 如山軍糧. 산처럼 많은 군대의 양식.
 1560) 燒盡. 모조리 타서 없어져버림.
 1561) 村匪擄掠. 민가에 대한 노략질.
 1562) 한창이로구나.
 1563) 敗軍. 전쟁에서 진 군대.
 1564) 일인가?
 1565) 百計圖生. 온갖 꾀를 써 살려고 함.
 1566) 궁리한다.
 1567) 草坪大路. 풀이 우거진 넓은 들판의 큰 길.
 1568) 深山叢林. 깊은 산 속 우거진 수풀.
 1569) 冷病. 찬 기운을 얻어서 생기는 병.
 1570)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1571) 큰 새가 날개를 치며 나는 모양.
 1572) 湖畔새. 물총새과에 딸린 물새. 날개 길이 12cm, 부리 5.5cm 쯤 되며, 등은 적갈색에 자줏빛을 띠었고, 등의 아랫부분과 허리는 회고, 아랫도리는 황갈색, 부리는 붉은데 굵고 크며, 다리도 붉음.
 1573) 半空. 그다지 높지 않은 하늘.

- 1574) 전라도 무당춤에서, 두 손에 지전을 가지고 팔과 어깨를 활짝 벌린 사위를 이르는 말.
따라서 여기서는 바람막이 자세처럼 두 날개를 짝 벌리고 떠 있는 새를 가리킨 듯.
- 1575) 鐵網의. 철망에서. 쇠로 만든 그물에서.
- 1576) 火兵. 군대에서 불을 때서 밥 짓는 일을 하는 군사.
- 1577) (몹시 성이 나거나 남을 위압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꾸짖음. 또는 그 소리.
- 1578) 紅袍. 붉은 색 도포.
- 1579) 저어새과의 겨울 철새. 몸은 희고 부리는 검다.
- 1580) 不遠이로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
- 1581) 赤壁風波. 적벽강의 세차게 일어나는 물결.
- 1582) 거위. 본디 기러기의 한 종류를 오랜 세대에 걸쳐 인가에서 기른 결과, 날개가 짧아지고 몸이 비대하게 된 변종인데, 빛은 대개 희고, 부리는 노랑고, 헤엄은 잘 치나 멀리 날지 못한다.
- 1583) (성질이) 바르지 못하고 약간 괴상하다.
- 1584)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 1585) 팽그르르. (작은 것이) 매끄럽고 빨리 한 바퀴 도는 모양.
- 1586) 자꾸 해죽거리는 모양을 가리킨 듯. '해죽거리다'는 가볍게 활갯짓을 하며 두 팔을 내젓거나 그렇게 걷다.
- 1587) 辭說. 길게 늘어놓는 잔소리나 푸념의 말.
- 1588)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픈 추위.
- 1589) 汨沒. 어떤 한 일에 파묻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음.
- 1590) 丹粧. 얼굴에 분, 연지 등을 발라서 곱게 하고, 머리카락 등 옷차림 등을 매만져 맵시하게 꾸밈. 여기서는 새의 아름다운 빛깔을 이르는 말.
- 1591) 毒氣. 독의 성분이나 기운.
- 1592) 때구루루. (좀 탄탄하고 큰)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져서 구르는 소리.
- 1593) 내려가며.
- 1594)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1595) 딱따구리. 딱따구리과에 속한 새의 총칭.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나무줄기에 붙어 앓기 알맞고, 꼬리 깃은 뾰뾰하고 뽕뽕하여 이것을 줄기에 대고 몸을 버티면서 교묘하게 기어오름. 부리가 곧고 날카로워서 썩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음.
- 1596) 諸將. 여러 장수.
- 1597) 冤鬼.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 1598) 大笑. 크게 소리 내어 웃는 웃음.
- 1599) 僅僅圖生. 겨우겨우 살아가기를 꾀함.
- 1600) 蒼黃中. 어찌할 겨를이 없이 썩 급한 가운데.
- 1601) 웃습니까?
- 1602) 끝나자말자.
- 1603) 烏林山谷. 오림 산골짜기. '오림'은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 1604) 高聲. 큰 소리.
- 1605) 火光. 불빛.
- 1606)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 1607) 荊山.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산. 질 좋은 옥이 남.
- 1608) 白玉. 흰 옥.
- 1609)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 1610) 麟. 기린.
- 1611) 鹿布掩身甲. 사슴 가죽으로 몸을 가린 갑옷.
- 1612) 八尺長劍. 길이가 여덟 자(약 240cm)나 되는 긴 칼.
- 1613) 堂堂. 버젓하고 정대한.
- 1614) 威風. 위엄 있는 풍채.
- 1615) 一咆聲. 한 차례 성내어 크게 외치는 소리.
- 1616) 號令. 큰 소리로 꾸짖음.
- 1617) 常山名將. 상산 출신의 유명한 장수. 곧 조자룡을 일컫는 말. '상산'은 하북성 정정현의 서북쪽에 있는 지명.
- 1618) 아느냐, 모르느냐?
- 1619) 달리지.
- 1620) 함부로 지르며.
- 1621) 올리.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 1622) 生門.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길한 방위의 문임.
- 1623) 힘차게 달려 들어와.
- 1624) 死門.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흉한 방위의 문임.
- 1625) 秋風落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 1626) 여기.
- 1627) 저기.
- 1628) 멍경. 쇠불이 따위가 세계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굵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사람의 목을 세계 벨 때 나는 소리'임.
- 1629) 대상을 위협하며 나아가는 모양인 듯.
- 1630) 매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는 36cm, 부리는 3.2cm 가량임.
- 1631) 銀粧刀. 은으로 만든 장도. '장도'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
- 1632) 橫行(橫行).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
- 1633) 江水. 강물.
- 1634) 주검이 如山이라.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다.
- 1635) 徐晃 張郃 雙接. 서황과 장합이 함께 상대방을 상대하여. '서황'은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장합' 역시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1636) 葫蘆谷. 오림에 있는 골짜기 이름. 호리병박처럼 갈수록 좁아지는 골짜기를 뜻함.

- 1637)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1638) 바람, 포성 따위로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소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1639) 器械. 군기(軍器). 전쟁에 쓰이는 병기.
 1640) 어느 곳으로. 어디로.
 1641) 村廬擄掠. 시골 집에 대한 노략질.
 1642) 救急. 급한 일에 대해 우선 응급 처치를 취함.
 1643) 曬風해 달고. 췌풍해서 매달고. ‘췌풍’은 ‘바람을 췌다’는 뜻.
 1644) 漢水. 중국 섬서성 영강현에서 발원하여 호북성을 관류하는 양자강의 지류.
 1645) 彝陵橋. 이릉에 있는 다리로. ‘이릉’은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이릉으로’로 부르기도 한다.
 1646) 寂寂山谷. 고요한 산골짜기.
 1647) 清溪上. 맑은 시냇물 위에.
 1648) 雙雙 白鷗. 짝을 지어 있는 해오라비.
 1649) 흐르면서 떠 있구나.
 1650) 활짝.
 1651) 雨後清江. 비 온 뒤의 맑은 강물.
 1652) 興味. 호칭. 어떤 대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불췌아 따르는 감정.
 1653) 紅蓼月色. 잎이 지고 빨간 대만 남은 물가의 여뀌풀에 비치는 달빛.
 1654) 어찌된 일인가?
 1655) 漁笛數聲. 어부들이 부는 피리 소리 몇 마디.
 1656) 누구의. 누구와의.
 1657)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떠서.
 1658) 勝遊하고. 즐겁게 놀고.
 1659) 奔走.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1660) 沒死. 모조리 다 죽음.
 1661) 風波. 소란스럽고 험상궂게 일크러진 분란이나 분쟁.
 1662) 困한. 위험한 지경에 처한.
 1663) 半生半死. 거의 죽다시피 됨.
 1664)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1665) 복병의 ‘복’을 배라는 뜻으로 풀이한 말.
 1666) 山谷. 산골짜기.
 1667) 怨. 원한(怨恨).
 1668) 張飛. 자는 익덕(翼德).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1669) 懷毒한. 사납고 독살스러운.
 1670) 먹을 갈아 부은 듯이 검은 얼굴.

- 1671)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1672)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수염.
 1673) 끝이 위로 올라가게 나 있고.
 1674) 黑驄馬. 몸은 청백색이고 갈기만 검은 말.
 1675) 몸을 솟구치어 힘차게 타고.
 1676) 蛇矛長槍. 창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1677) 性情. 성질과 심정.
 1678) 猛虎. 사나운 호랑이.
 1679) 날겠는가?
 1680) 기어가겠는가?
 1681) 바람개비.
 1682) 飛上天. 하늘로 날아 올라감.
 1683) 두더지.
 1684) 파겠느냐?
 1685) 달리지. 달아나지.
 1686) 함부로 지르며.
 1687) 軍中에. 군사들 가운데에.
 1688) 橫行가자. 횡행하며 가자.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가자.
 1689) 軍器. 전쟁에 쓰이는 병기.
 1690) 清道巡視. 청도기와 순시기. ‘청도기’는 행군할 때 앞에 세워 길을 치우는 데 쓰는 기.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는 붉은 빛이며, ‘清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순시기’는 군인들의 행동을 순찰하여 죄 지은 자를 잡아올 때 쓰던 기.
 1691) 司命令旗. 사명기와 영기. ‘사명기’는 군대의 지휘권을 적어서 드러운 기. ‘영기’는 군대에서 명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1692) 偃月環刀. 언월도와 환도. ‘언월도’는 자루 끝에 초생달과 같은 칼날을 단 칼. ‘환도’는 차고 다니다가 뽑아 쓸 수 있을 정도의 칼.
 1693) 鍾. 징.
 1694) 金鼓. 쇠북. 징.
 1695) 細樂手. 군대에서 장구, 북, 피리, 잣대, 강강이 등으로 구성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1696) 火箭. 불화살.
 1697) 肅靜牌. 군령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떠들지 못 하도록 ‘肅靜’ 두 글자를 써서 세우던 나무 조각.
 1698) 長槍. 긴 창.
 1699) 大劍. 큰 칼.
 1700) 쇠로 만든 도리깨처럼 생긴 무기.
 1701) 활과 화살을 함께 넣어 지니고 다니던 기구.
 1702) 고두리살. 작은 새를 잡는 데 쓰는 화살. 철사나 대 따위로 고리처럼 테를 만들어 살줄 대신으로 살 끝에 가로 끼운 것이다.
 1703) 바늘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1704) 끝이 반달 모양으로 된 송곳. 굵은 자루가 위에 가로 박혔는데, 이쪽저쪽으로 비틀면서 큰 구멍을 뚫게 되어 있음.
- 1705)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 1706)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씌.
- 1707) 질 나쁜 낫쇠로 만든 밑이 평평한 술.
- 1708) 부싷돌을 쳐서 불을 일으키는 쇳조각.
- 1709) 火茸. 혹은 ‘화용(火絨)’이라고도 함. ‘화용’, 혹은 ‘화용’은 부싷깃임. 부시를 칠 때 불뚱이 박혀 불이 붙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
- 1710) 빼앗고.
- 1711) 此時. 이 때.
- 1712) 風伯. 바람의 신.
- 1713) 雄聲落鳥不見하여. 큰 소리에 놀라 새가 떨어져 보이지 않음.
- 1714) 길이 우묵하게 들어가는 듯.
- 1715)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 1716) 자꾸 위 아래로 흔드는 모양.
- 1717) 前日에. 전 날에. 예전에.
- 1718) 萬軍中. 수많은 군사 속.
- 1719) 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않고 늘.
- 1720) 褒獎터니마는. 포상하더니만. 칭찬하여 권장하더니.
- 1721) 的實하니. 사실이어서 틀림이 없이 확실함.
- 1722) 限死挾攻. 죽기를 다하여 협공을 함. ‘협공’은 앞뒤 또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함.
- 1723)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상태.
- 1724) 諸將다려. 제장다려. 여러 장수들에게.
- 1725) 地境. 땅의 경계. 여기서는 ‘지역’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 1726) 行하느냐? 가느냐?
- 1727) 南郡. 중국의 지명. 형주(荊州)에 속하는 군으로 현재의 호북성 강릉.
- 1728) 大路. 큰 길.
- 1729) 草坪하오나. 풀이 무성한 넓은 벌판이오나.
- 1730) 小路. 작은 길.
- 1731) 草坪大路. 풀이 무성한 넓은 벌판으로 난 큰 길.
- 1732) 가십시다.
- 1733) 山上에. 산 위에.
- 1734) 火光. 불빛.
- 1735) 烽煙起處에 必有軍馬留陣하리니. 봉화 연기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군사와 말이 있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것이니. ‘봉화’는 나라에 병란이 있을 때 하던 신호불. 주요한 산봉우리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우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하였음.
- 1736) 兵法. 군사를 쓰는 방법. 군사에 관한 모든 법칙.

- 1737) 軍師. 군대에서 책략이나 수단을 꾸며내는 사람.
 1738) 兵書. 군사에 관한 법칙과 군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써놓은 책.
 1739) 말하였으되.
 1740) 實卽虛. 하고 虛卽實이라. 있는 것 같으면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것 같으면 있느니라.
 1741) 거짓으로 꾸민 불.
 1742) 抑制.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함.
 1743) 人馬. 사람과 말.
 1744) 불에 덴.
 1745) 老弱. 늙고 약한 사람.
 1746) 傷斃 將卒. 다친 장수와 병졸.
 1747) 羹藜. 명아주로 국을 끓여 먹는다는 뜻으로, 아주 좋지 않은 식사를 이르는 말.
 1748) 山高水疊. 산은 높고 물은 겹겹이 가로막힘.
 1749) 허청허청. 허청거리면서.
 1750) 거머쥐어 잡고.
 1751) 蜀道之難. 촉 지방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 촉 나라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매우 힘들었다고 함.
 1752) 險惡한들. 험하다고 한들.
 1753) 이보다.
 1754) 所約之心. 약속한 마음.
 1755) 運籌決勝하겠더니.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여 승패를 결정하자고 했더니.
 1756) 諸復終始不如意. 다시금 시작과 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처럼 되지 않는구나.
 1757) 草行露宿. 풀밭을 돌아다니고, 이슬을 맞으며 한데 잠을 잡.
 1758) 어찌된 일인가?
 1759) 妄想하여. 망령된 생각을 하여.
 1760) 酒色. 술과 예쁜 여자.
 1761) 限死하고. 죽기를 한하고 좋아함.
 1762) 臨戰하면. 싸움에 임하면.
 1763) 三傳六師. 세 사람의 태부(太傅)와 여섯 사람의 태사(太師). ‘태사’ ‘태부’는 주나라 때의 삼정승의 하나임. 따라서 여기서는 천자의 스승이 될 만한 훌륭한 여러 명의 신하를 일컫는 말로, 삼정승 육판서와 비슷한 의미로 썼음.
 1764) 謀事. 일 꾸미기. 꾸민 일.
 1765) 空手. 빈 손. 아무런 소득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1766) 別部將. 모든 별장. ‘별장’은 본대와 따로 독립해 구성된 군대인 별군에 속한 장교.
 1767) 博望.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지명.
 1768) 燒屯. 주둔지를 불태움. 박망과 전투에서 공명이 불을 놓아 하후돈을 크게 무찌른 것을 가리킴.
 1769) 赤壁火戰. 적벽강에서 불로 싸운 싸움.
 1770) 일인가? 일인가?
 1771) 雨雪. 비와 눈.
 1772) 傷斃. 다친. 부서진.

- 1773) 怨. 원망.
- 1774) 前伏兵. 앞에 있던 복병.
- 1775) 後伏兵. 뒤에 일어나는 복병.
- 1776) 死生. 죽고 사는 것.
- 1777) 有命커늘. 명이 있거늘. 운명이 있거늘.
- 1778) 斬하리라. 목을 베리라.
- 1779) 山谷. 산골짜기.
- 1780) 落後敗卒. 본대에서 낙오한, 전투에 진 병사.
- 1781) 領率. (식구, 군대 등을) 데리고 거느림.
- 1782) 寂寂山中. 고요한 깊은 산속.
- 1783) 松林間. 소나무 수풀 속.
- 1784) 怒目. 성낸 눈.
- 1785) 嫉視하고. 흘겨보고.
- 1786) 술은 많지 않으나 길이가 긴 수염.
- 1787) 젊장개.
- 1788) 嚴然히.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게.
- 1789) 大驚질겁하여. 갑작스런 일에 크게 놀라.
- 1790) (지난날에) 이정표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네 어귀나 길가에 세운 사람 모양의 형상.
- 1791) 一家. 한 집안.
- 1792) 里數. 거리가 몇 리나 되는가 하는 수.
- 1793) 標한. 표시한.
- 1794) 놀라십니까.
- 1795) 슬며시.
- 1796) 非夢似夢間에. 꿈인지 아닌지 어렵פות한 상태에.
- 1797) 木神. 나무의 신.
- 1798) 現夢. 죽은 이나 신령이 꿈속에 나타남.
- 1799) 天地萬物. 이 세상의 모든 사물.
- 1800) 생겨날 때.
- 1801) 各色草木. 여러 가지 풀과 나무.
- 1802) 有巢氏.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보고, 뱀이나 짐승의 피해를 막으려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가르쳤다는, 중국 고대의 전설의 성인.
- 1803)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804) 構木爲巢. 나무를 엮어 보금자리를 만들.
- 1805)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806) 作舟車. 작주거에. 배와 수레를 만들어.
- 1807)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808) 石上的 梧桐木. 바위 위의 오동나무. 바위 위에 난 오동나무가 현악기 재료로는 최고라고 함.
- 1809) 五絃琴. 순임금이 탔다는 다섯 줄이 있는 비파.
- 1810) 腹板. 가야금이나 거문고 또는 이와 비슷한 악기의 소리가 울리는 부분.
- 1811) 大舜. 위대한 순임금.
- 1812) 膝上. 무릎 위.
- 1813) 南風歌. 순임금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
- 1814) 비파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1815) 山鳥. 산새.
- 1816) 文王之甘棠木. 문왕의 팔배나무. '소백(召伯)의 팔배나무'로 해야함. 《시경》 '감당'이라는 시에, 주나라 소백의 덕을 기리기 위해, 소백이 그 아래서 쉰 감당목(팔배나무)을 자르지도 꺾지도 말라는 내용이 있다.
- 1817) 琵琶聲. 비파 소리. 여기서는 '감당'이라는 시를 비파에 맞춰 노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임.
- 1818) 死後. 죽은 뒤.
- 1819) 棺板木. 관의 널빤지로 쓰는 나무.
- 1820) 白骨身體. 죽어서 썩어 흰 뼈만 남은 몸.
- 1821)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1822) 身發室堂하을 적에. 죽은 몸이 집을 떠날 때에.
- 1823) 栗木. 밤나무.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 밤나무는 밤을 심어 싹이 나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씨밤이 썩지 않으므로, 자손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번창하라는 뜻에서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었다고 함.
- 1824) 神柱. 죽은 조상의 벼슬과 이름을 써서 사당에 모시는 나무 패.
- 1825) 四時節祀. 사철 올리는 제사.
- 1826) 忌故日. 죽은 날.
- 1827) 滿盤珍羞. 상에 가득 찬 좋은 음식.
- 1828) 設爲하고. 차리고. 차려놓고.
- 1829) 焚香. 향을 피움.
- 1830) 獻酌. 술잔을 올림.
- 1831) 讀祝. 축문을 읽음.
- 1832) 所重이. 소중함이.
- 1833) 木物. 나무로 된 물건.
- 1834) 八字.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따른 그 사람의 일평생의 운수.
- 1835) 下山作樑. 산에서 베어져 내려와 작은 집의 들보가 됨.
- 1836) 해이던고.
- 1837) 宮闕 棟梁. 궁궐의 대들보.
- 1838) 大廣. 대광판(大廣板). 크고 넓은 나무 판.

- 1839) 防川말. 독의 흡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는 말뚝.
 1840) 토막토막.
 1841) 馬板. 마굿간에 끼는 판자.
 1842)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나무로 만든 그릇의 일종.
 1843) 작두바탕. 작두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작두’는 쥔, 콩깍지 따위의 마소의 먹이를 발로 디디어가며 썬는 연장.
 1844) 개의 밥을 주는 통.
 1845) 변소에서 똥을 처내는 데 쓰는 가래. ‘뒷간’은 변소. ‘가래’는 삼처럼 생긴 농기구의 한 가지.
 1846) 所欲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1847) 險鬼. 험상궂게 생긴 귀신.
 1848) 방울처럼 동그란 눈.
 1849) 다박솔처럼 짧고 억세며 더부룩한 수염. 다박나룻.
 1850) 몽푹하고 모양이 없이 생긴 코.
 1851) 朱土漆. 나무로 된 기둥이나 마루 따위에 붉은 흙을 물게 개어 바르는 칠.
 1852) 紗帽品帶. 사모와 품대. ‘사모’는 벼슬아치가 관복을 갖추는 때 쓰는 모자. ‘품대’는 벼슬아치가 품계에 따라 허리에 두르던 띠.
 1853) 行人去來. 행인이 오고감. 행인이 오고가는.
 1854) 大道上에. 큰 길 위에.
 1855) 嚴然히.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게.
 1856) 有耳不聞.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1857) 有目不見.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1858) 不避風雨. 비바람을 피하지 못함.
 1859) 進退中에.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1860) 그렇게.
 1861) 對戰하며. 상대하여 싸우며.
 1862) 欺君篡逆. 임금의 속이고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역적질.
 1863) 無罪行刑. 죄 없이 형벌을 줌.
 1864) 分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려 헤아림.
 1865) 放送. 내보냄.
 1866) 千萬千萬. 아주 여러 번. 아주 많이.
 1867) 바라나이다. 바랍니다.
 1868) 어떤 물체나 생각이 별안간 나타나거나 떠오르는 모양. 놀란 듯이 갑자기.
 1869) 木神. 나무의 신.
 1870) 行刑. 형벌을 시행함.
 1871) 失體. 체신을 잃음.
 1872) 一壺酒. 한 병의 술.
 1873) 吳漢 兩陣 將帥. 오나라와 한나라 양 진영의 장수.
 1874) 險口. 남의 힘을 드러내어 헐뜯는 말.

- 1875) 可觀. 가히 볼만한 구경거리.
- 1876) 敗는. 패배는.
- 1877)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 1878) 常능. 예전에, 신분이 낮은 남자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 1879) 이.
- 1880) 손아랫사람을 일컫는 말.
- 1881)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일가붙이.
- 1882) 陽山 菜麻田. 양산의 채소나 삼을 가꾸는 밭. 유현덕은 탁군 누상촌 사람이므로 양산과는 관련이 없음.
- 1883)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자리. 줄기를 잘게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밭이 가늘다.
- 1884) 만들기.
- 1885) 窮班. 가난한 양반.
- 1886) 河東. 황하의 동쪽 지방. 오늘날 산서성(山西省) 안읍(安邑).
- 1887) 店漢. 토기나 철기 따위를 만드는 사람.
- 1888) 涿郡. 지금의 중국 하북성에 있는 지명.
- 1889) 날고기를 파는 장사치.
- 1890)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1891) 속아서.
- 1892) 劉關張 三人.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
- 1893) 結義兄弟. 의리로 형제를 맺음.
- 1894) 神靈.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 신이나 사람의 영혼.
- 1895) 칼이나 가위 따위로 단번에 연이어 베는 소리.
- 1896) 根本.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
- 1897) 갑자기 생겨난.
- 1898) 借作. 남에게 부탁해 지은 글(여기서는 조자룡이란 이름을 가리킴).
- 1899) 地體.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 지위나 문벌.
- 1900) 實尊長. 실제로 나이가 많은 어른.
- 1901) 如此하면. 무슨 일이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 1902) 世慾.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려는 욕망.
- 1903) 術法. 음양과 점술에 관한 이치, 또는 그 실현 방법.
- 1904) 農土生. 농사꾼을 얹잡아 일컫는 말.
- 1905) 庸劣한.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함.
- 1906)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선생에 뒤이어 비꼬는 투로 이어 붙인 말.
- 1907) 보릿자루. ‘하잘것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 듯.
- 1908) 王侯將相이 寧有種乎아? 왕, 제후, 장수, 재상이 어찌 씨가 있겠는가? 곧,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
- 1909) 일렀고, 말하였고.
- 1910) 兵驕者는 敗라. 병사를 사용하는 데 교만한 자는 패배한다.

- 1911) 點考.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1912) 軍案. 군사의 이름을 적은 문서.
 1913) 物故. '죽었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말.
 1914)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에 놀라서 튀어나오는 소리.
 1915) 샀거나 바꿨었던 물건을 도로 주고 값으로 치른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오너라.
 1916) 가서서.
 1917) 보십시오.
 1918) 죽으려고 그래?
 1919) 小卒等. 저희 졸병들.
 1920) 後司把. 군대의 뒷편을 맡은 장수.
 1921) 千摠. 조선조 때의 정삼품 무관 벼슬.
 1922) 옛날 군인이 전쟁할 때에 갑옷과 함께 방위용으로 쓰던 쇠로 만든 모자.
 1923) 절뚝절뚝.
 1924) 怨恨하니. 원망하고 한스럽게 생각하니.
 1925) 百萬大兵. 100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
 1926) 어찌하다가.
 1927) 燒盡하여. 다 타버려서.
 1928) 敗軍. 전쟁에서 진 군사.
 1929) 道理.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1930) 千摠之道理. 천총의 도리.
 1931) 軍禮. 군인들이 하는 인사.
 1932) 傲然不拜. 거만하게 절을 하지 않음.
 1933) 杖下에. 몽둥이 아래에. 몽둥이에.
 1934) 죽는다면.
 1935) 魂飛中天. 영혼이 하늘을 날아감.
 1936) 眷率. 권속(眷屬). 딸린 식구.
 1937) 感心하여. 마음 속 깊이 느껴. 감동하여.
 1938) 右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오른 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1939) 骨內腫이. '뼈 속에 종기가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병든 사람을 익살스럽게 일컫는 말.
 1940) 半生半死. 반은 살고, 반은 죽음. 거의 죽게 된 모양.
 1941)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1942)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1943) 죽지 아니할 정도로 맞은 벼락.
 1944) 죽을 힘을 다하여.
 1945) 느지막하게. 상당히 늦게.
 1946) 틀림없이 분명하게.

- 1947) 너희들.
- 1948) 戰爭不息. 싸움이 그치지 않음.
- 1949) 素症. 채소 따위만 줄곧 먹어서 고기가 몹시 먹고 싶은 증세.
- 1950) 폭. 충분히.
- 1951) 진하게.
- 1952) 본새. 뒤편이. 생김새.
- 1953) 人醬食. 사람을 잡아 장국을 끓여 먹음.
- 1954) 右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오른 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955) '절뚝거리는 다리'라는 뜻으로, 부상당하여 절뚝거리는 병사를 익살스럽게 일컫는 말.
- 1956) 걸음 걷는 발 모양을 나타냄. '치레'는 '치러 내는 일' 또는 '겉으로만 꾸미는 일'을 뜻하는 말.
- 1957) 乾調로. '건'이라는 창조(唱調)로. 혹은 아무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하는 모양으로.
- 1958) 세 번 발걸음을 옮기다 크게 뛰는 모양.
- 1959) 긴 다리를 힘 있게 모으고 넓다 연거푸 뛰는 모양.
- 1960) 수단. 일을 다루어 처리하는 능력이나 솜씨.
- 1961) 상한 데 없이 본래대로 온전하나?
- 1962) 회를 쳐서. 고기나 생선으로 회를 만들어. '회'는 물고기·고기·야채 따위를 날로 얇게 썬 음식.
- 1963) 흥에 겨워 흥청거리고 다니면.
- 1964) 萬無. 결코 없음.
- 1965) 원인이 되어 널리 퍼뜨릴까.
- 1966) 馬兵長. '마병'은 말 탄 군사이므로, 마병장은 말 탄 군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 듯.
- 1967) 똬한. 흉악한.
- 1968) 나에게.
- 1969) '대돈변'이 한 달에 1할씩 내는 비싼 이자를 무는 돈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한 달에 1할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라는 뜻으로 쓴 듯함.
- 1970) 한 냥 일곱 돈. '냥'과 '돈'은 조선 시대 화폐의 단위로, 한 냥은 열 돈임.
- 1971) 거적이나 천 조각의 양쪽에 채를 대서 만들어 두 사람이 맞들게 된 운반기구의 한 가지.
- 1972) 팔을 가볍게 저어 바람을 내면서 걷는 모양.
- 1973) 길을 가는 거리가 쉽게 늘어나고. '불다'는 수량이 많아지다는 뜻.
- 1974) 좋지요.
- 1975) '눈'의 비어.
- 1976) 눈이야.
- 1977) 생겼지요.
- 1978) 말마다에.
- 1979) 매우 답답하여.
- 1980) 배가 곱니.
- 1981) 軍糧지기. 군대의 식량을 맡은 군사.

- 1982) 얹어진.
- 1983) 氣盡. 기운과 힘이 풀려서 다함.
- 1984) 仰天痛哭. 하늘을 우리러 슬피 울.
- 1985) 華容山谷. 화용도 산골짜기.
- 1986) 茫茫. 넓고 아득함.
- 1987) 馬上에서. 말 위에서.
- 1988) 채찍.
- 1989)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990) 모조리.
- 1991)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 1992) 너희놈들.
- 1993)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 1994) 열 명 남짓.
- 1995) 飛操. '날아가는 조조'라는 뜻으로 조조를 조롱하여 일컬은 말.
- 1996)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 1997) 華容道 山上에서. 화용도 산 위에서. '화용도'는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 1998) 華容山谷. 화용도 산골짜기.
- 1999) 세차게 끓으니.
- 2000) 魏國 將卒들이. 위나라 장수와 병졸들이.
- 2001) 魂不附身. 정신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음. 곧 정신이 나감.
- 2002) 面面相顧. 얼굴만 서로 쳐다봄.
- 2003) 刀斧手. 큰 칼과 큰 도끼를 쓰는 군사.
- 2004) 大將旗. 대장이 부하 장수를 지휘할 때 쓰던 기. 좌우 양쪽의 기폭은 청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은 황색으로 불꽃 속에 하늘로 치솟는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음.
- 2005) 大元帥. 전 군(軍)을 통솔하는 대장.
- 2006) 關公. 관우.
- 2007) 三軍. 좌익, 우익, 중군을 합친 전체 군대.
- 2008) 司命旗. 군대의 지휘권을 적어서 드리운 기.
- 2009) 크고 뚜렷하게.
- 2010) 새겨져 있는데.
- 2011) 朱顏鳳目. 붉은 얼굴과 봉새의 눈.
- 2012) 臥蠶眉. 누운 누에처럼 길고 굽은 눈썹.
- 2013)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2014)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2015) 赤兔馬. 온 몸에 붉은 빛이 나는 명마로, 본래 여포가 타던 것인데, 조조가 관우에게 주었음.

- 2016) 함부로 지르며. 크게 지르며.
 2017) 가려고 하느냐?
 2018) 짧은.
 2019) 旗色. 기의 색깔.
 2020) 威風. 위엄 있는 풍채.
 2021) 仁厚. 마음이 어질고 깊음.
 2022) 關公일시. 관공인 것이. 관공임이.
 2023) 관공이라면. 관공일 것 같으면.
 2024) 欲逃無處. 도망갈 곳이 없음.
 2025) 欲脫無計. 벗어날 방법이 없음.
 2026) 事勢到此. 일의 형편이 여기에 이룸.
 2027) 아무러하거나. 어찌 되었든지.
 2028) 對敵. 적과 맞서 겨룸.
 2029)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2030) 劍光. 칼날이 번쩍거리는 빛.
 2031) 赤手單劍. 맨 손에 칼 한 자루뿐임.
 2032) 五關斬將. 관우가 조조로부터 탈출하면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명의 장수를 죽인 것을 가리킴.
 2033)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피.
 2034) 人馬. 사람과 말.
 2035) 氣盡. 기력이 풀려서 다함. 기운이 다 떨어짐.
 2036) 當敵. 적에 맞섬.
 2037) 雄名. 큰 이름.
 2038) 死即死언정. 죽게 되면 죽을지언정.
 2039) 안을 두지 않고 훌쩍으로 된 이불. 요나 이불 위에 덧씌우는 넓은 천.
 2040) 軍中. 군대 내.
 2041) 發喪. 사람이 죽었을 때 초혼을 하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일.
 2042) 너희들.
 2043) 한 차례의 달음질.
 2044) 名將. 훌륭한 장수.
 2045) 爭功. 서로 공을 다툼.
 2046) 死丞相. 죽은 승상.
 2047) 헛되이 써버리고.
 2048) 새로 돌아나는 어린 짝.
 2049) (짜이) 자라날 수가.
 2050) 華容怨鬼. 화용도에서 원통하게 죽은 귀신. ‘화용도’는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2051) 어쩔 수 없이.

- 2052) 馬下. 말 아래.
 2053) 말에게.
 2054) 대머리.
 2055) 고추처럼 생긴 불품없는 상투.
 2056) 불품없이.
 2057) 別來無恙하시니까? 이래로 별 탈이 없었습니까?
 2058) 好言. 친절하고 듣기 좋은 말.
 2059) 奉命하여. 임금이나 윗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2060) 濁名寒士. 속세의 가난한 선비.
 2061) 萬軍. 많은 군대.
 2062) 吳賊의 敗를 보고. 오나라 도적(손권을 가리킴)에게 패배를 당해서.
 2063) 楚水. 옛 초나라 땅(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의 강물.
 2064) 吳山. 옛 오나라 땅(지금의 강소성 일대)의 산들.
 2065) 慌忙히도. 황망하게도.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면서.
 2066) 千萬意外. 전혀 뜻밖의 일.
 2067) 반가우리까? 반갑겠습니까?
 2068) 有情. 인정 있음.
 2069) 古情. 옛 정.
 2070) 千萬千萬. 아주 여러 번. 아주 많이.
 2071) 厚恩. 두터운 은혜. 많은 은혜.
 2072) 吳·漢 兩陣事. 오나라와 한나라 양 진영의 일.
 2073) 私로 공을 廢하리오? 사사로운 일 때문에 공공의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겠는가?
 2074) 미리 바로 그 때에.
 2075) 面分. 얼굴을 알 만할 정도의 사귄.
 2076) 問答. 묻고 대답하는 일. 대화.
 2077) 畢竟. 마침내.
 2078) 累世漢祿之臣. 여러 세대에 걸쳐 한나라에 벼슬하여 봉급을 타먹은 신하.
 2079) 凌上怯下. 윗사람을 깔보고, 아랫사람에게 겁을 주어 복종시킴.
 2080) 三分天下. 셋으로 나누어진 세상. 셋으로 나누어진 나라.
 2081) 紛紛함.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움.
 2082) 너로.
 2083) 麒麟閣忠義人. 기린각에 새겨놓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가 항복해 왔는데, 선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 신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해 기린각에 충신 열 사람의 초상과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이를 가리킴.
 2084) 毀破. 헐고 부서뜨림.
 2085) 亂世之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2086) 治世之能臣.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잡힌 세상의 능력 있는 신하.
 2087) 哀矜히. 불쌍하게.
 2088) 들어보십시오.

- 2089) 絶凶. 아주 흉악한.
- 2090) 匈奴.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서역의 통상로를 지배하여 한나라와 대항하였으나, 후한 시절에 토벌되어 서쪽으로 이동하였음.
- 2091) 白登七日之圍. 백등에서 칠일 동안 포위를 당함. 한고조가 흉노와 싸우다가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의 왕 모돈에게 이레 동안 포위당해 있었음. 한고조의 신하인 진평이 모돈의 아내 알씨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음.
- 2092)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량,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2093) 살렸사옵고.
- 2094) 智伯之臣 豫讓. 지백의 신하 예양. 예양은 전국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백이 그를 아꼈는데, 지백이 조(趙)나라를 치다가 죽자, 그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음.
- 2095) 趙襄子. 조나라의 양자. '양자'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경(卿).
- 2096) 挾匕首하고. 비수를 품고. 비수를 감추고.
- 2097) 宮中塗廁. 궁중의 변소에 칠을 칠함. 예양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칠을 칠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죽일 기회를 엿본 일을 가리킴. 예양은 조양자를 죽이지 못하고 잡혔으나, 의인이라고 하여 살려주었다. 예양은 다시 문둥이로 변장하여 다리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으나 또 잡히게 되자, 양자의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칼을 뽑아 세 번 찌른 후에, '지백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며 자살했다고 함.
- 2098) 義人. 의로운 사람.
- 2099) 吾謹避之. 내가 조심하여 피함.
- 2100) 天中大人. 임금 가운데서도 도량이 크신 분.
- 2101) 賊子. 도적.
- 2102) 義將. 의로운 장수.
- 2103) 愬急. 매우 급함.
- 2104) 一寸肝腸. (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애가 타는 마음을 비유하는 말.
- 2105) 時刻에. 곧. 즉시.
- 2106) 前事. 이전의 일.
- 2107) 將略. 장수로서의 지략.
- 2108) 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로 쇠퇴하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曹操)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2109) 敗를 보아. 패배를 당하여.
- 2110) 桃園兄弟.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밭에서 의를 맺은 형제. 곧 유비, 관우, 장비.
- 2111) 分散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 2112) 居住. 머물러 사는 곳. '거주를 모른다'는 말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여기

저기 떠돈다는 말.

- 2113) 三日小宴. 삼일마다 작은 잔치를 벌임.
2114) 五日大宴. 오일마다 큰 잔치를 벌임.
2115) 上馬에千金이요, 말을 탈 때에 천 냥의 금을 주고.
2116) 下馬에 百金이라. 말에서 내릴 때에 백 냥의 금을 줌.
2117) 말로 세어서. '말'은 곡식이나 액체 따위의 분량을 재는 데 쓰는 기구로, 용량은 9리터, 혹은 10리터임.
2118) 天下一色.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
2119) 高臺廣室. 높은 다락집과 넓은 방이 있는 큰 집.
2120) 美女充空. 아름다운 여자로 공허함을 달랠.
2121)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2122) 等待.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2123) 情懷. 생각하는 마음.
2124) 告歸 없이. 돌아온다는 말없이.
2125) 五關 六將. 관우가 조조로부터 탈출하면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죽인 여섯 명의 장수.
2126) 直旨. 직지로. 임금이 직접 내린 명령으로.
2127) 古情. 옛 정.
2128) 당연히 마음 속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을 잊거나 어기시고.
2129) 義將. 의로운 장수.
2130) 虛辭. 허언(虛言). 헛된 말. 거짓말.
2131) 河北大將. 하북지방에서 일어난 원소(元邵)의 부하 대장이란 뜻.
2132) 顏良. 원소의 부하 장수. 일찍부터 용맹을 떨쳐 원소가 늘 자랑하였고, 백마 전투 때는 조조의 여러 장수를 베어 조조 진의 두려움을 샀으나, 관우에게 죽었다.
2133) 文醜. 원소의 부하 장수. 일찍부터 용맹을 떨쳐 안량과 함께 원소가 늘 자랑하였고, 백마 전투 때는 조조의 부하 장수인 장요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나, 관우에게 죽었다.
2134) 數多. 수다한. 수많은.
2135) 自稱하고. 자칭하고. 스스로 일컫고.
2136) 赤兔馬上에. 적토마 위에. '적토마'는 온 몸에 붉은 빛이 나는 명마로, 본래 여포가 타던 것인데, 조조가 관우에게 주었음.
2137)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2138) 一高聲. 한 번의 큰 소리.
2139) 텅텅. 큰 물체가 단번에 잘려 나가거나 무겁게 떨어지는 모양.
2140) 惶怯하여.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하여.
2141) 白馬圍陣. 후한 끝 무렵 원소와 조조가 싸울 때 백마에서 원소가 조조의 군사를 포위한 진.
2142) 지명인 듯.
2143) 一戰. 한 번 싸움.
2144) 案冊. 책상 위에 놓인 장부.

- 2145)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2146) 大驚질겁. 갑작스런 일에 크게 놀람.
- 2147) 防塞,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음.
- 2148) 바가지.
- 2149) 草行露宿, 한데서 잠자고 형편없이 돌아다님.
- 2150) 겁이 나는 바람에.
- 2151) 驚風(驚風, 경련을 일으키는 병)을 일으킬 정도로 깜짝 놀람.
- 2152) 躁急, (성질이)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함.
- 2153) 有情타. 유정하다. 인정 있다고.
- 2154) 故誼, 전부터 오래 두고 서로 사귄 정.
- 2155) 劍汝 둘이 婚姻하면 生其子流血이라. 칼과 너 둘이 혼인을 하면 그 자식으로 생기는 것은 유혈(피를 흘림)이다. 곧 내 칼로 너를 치면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 2156) 각, 세계 박거나 찌르거나 부딪치는 모양.
- 2157) 果若其言, 과연 그 말과 같다.
- 2158) 빙 돌려서 배어내거나 파내어 가신다.
- 2159) 避亂, 난리를 피함.
- 2160) 哀矜히, 불쌍하게.
- 2161) 鐵石같은, 쇠나 돌과 같은.
- 2162) 肝腸, 마음.
- 2163) 猶豫未決, 망설이여 결정을 짓지 못함.
- 2164) 次에, 순간에.
- 2165) 周倉, 관우 수하의 천하장사. 본시 황건적 장보(張寶)의 부하 장수였다가 관우를 만나 그를 섬겼다. 관우와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하다가 죽었다.
- 2166) 江東, 양자강 동쪽 지방. 여기서는 항우가 군사를 일으킨 곳을 말한다.
- 2167) 마음씨가 몹시 사납고 독한 호랑이. 항우를 이룸.
- 2168) 咸陽, 중국 섬서성 장안현에 있는 지명.
- 2169) 破한, 무너뜨린. 무찌른.
- 2170) 鴻門宴, 진나라 끝 무렵에 하남성의 상구현(商丘縣)과 우성현(虞城縣)의 경계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다 죽이려고 벌인 잔치.
- 2171) 沛公, 한나라의 고조가 된 유방.
- 2172) 項莊, 항우의 사촌 동생. 홍문연에서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으나, 항우의 숙부인 항백(項伯)의 방해로 죽이지 못하였음.
- 2173)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 2174) 秋夜月에, 가을 달밤에.
- 2175) 張良, 이름이 양(良), 자(字)가 자방(子房). 뛰어난 지략가로 한나라의 고조를 도운 개국 공신이었으나, 뒤에는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와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선도에 기울어 동해의 신선인 적송자와 놀았다 함.
- 2176) 옥으로 만든 등소. '동소'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의 한 가지.
- 2177) 八千兵, 팔천 명의 병사.

- 2178) 烏江風浪의 自刎死라. 오강의 풍랑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음.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도망을 가다가 오강에서 자결한 것을 이룸.
- 2179) 曹孟德. 조조(曹操)의 자. 후한 현재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2180) 治世之能臣.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잡힌 세상의 능력 있는 신하.
- 2181) 亂世之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2182) 小量之人. 도량이 좁은 사람.
- 2183) 養虎遺患. 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뜻으로,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환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 2184)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185) 王之命이. 왕의 명령이.
- 2186) 懸於周倉手. 주창의 손에 달려 있음.
- 2187) 몹시 세차고 빠른 모양.
- 2188) 周別監. 조조가 겁이 나는 바람에 주창을 주별감으로 부른 것으로, 우습게 표현한 것임. ‘별감(別監)은 좌수(座首)에 버금가는 향청의 한 벼슬.
- 2189) 目不忍見.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음.
- 2190) 諸將軍卒.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
- 2191) 一馬장. 마장은 거리의 단위. 십리가 열 마장.
- 2192) 馬下에. 말 아래에.
- 2193) 合掌. 두 손을 한 데 모음.
- 2194) 人倫.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 2195) 보겠더라.
- 2196) 呼號萬歲. 만세를 외쳐 부름.
- 2197) 서럽지 않으나.
- 2198) 孱弱한. 가냘프고 약한.
- 2199) 情狀. 딱한 형편.
- 2200) 不忍見之目.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함.
- 2201) 困歸故鄉. 위험한 지경에 처하여 고향으로 돌아감.
- 2202) 仁厚하신. 마음씨가 어질고 너그러우신.
- 2203) 哀然히. 슬픈 기분이 들게.
- 2204) 아시기를.
- 2205) 草露같은. 풀잎에 맺힌 이슬같은.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혹은 ‘초개(草芥)같은(풀처럼 하찮은)으로 부르기도 함.
- 2206) 軍律. 군대의 규율.
- 2207) 赤兔馬.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붉어 죽었다고 함.
- 2208)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2209) 小將. 장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2210) 別般洞燭. 특별히 헤아려 살핌.
 2211) 感心. 마음에 느끼어 감동함.
 2212) 快히. 너그럽게.
 2213) 回馬. 말을 돌림.
 2214) 世人. 세상 사람들.
 2215) 슬기롭구나.
 2216) 千秋. 오래고 긴 세월. 먼 장래.
 2217) 漢壽亭侯. 한나라 수정후. 관우를 가리키는 말. '수정후'는 조조가 관우에게 내린 봉호.
 2218) 하노라. 한다.
 2219) 孔明前. 공명께. 공명 앞에.
 2220) 拜謁. 지위가 높고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
 2221) 庸劣한.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2222) 關某. 관 아무개. 곧 관우 자신을 가리킴.
 2223) 依律施行. 법에 따라 다스림.
 2224) 아닌 까닭에.
 2225) 七縱七擒. 일곱 번 놓아주었다가 일곱 번 잡음. 제갈량이 남쪽의 오랑캐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어 끝내 복종시킨 일을 가리킴.
 2226) 義釋嚴顏. 의로써 엄안을 놓아줌. 엄안은 촉나라 유장(劉璋)의 장수인데, 장비가 엄안을 사로잡은 뒤에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웠다고 비웃자, 엄안이 '이 고을에는 머리를 잘리는 장수는 있어도 항복하는 장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장비가 그의 충의를 높이 사서 그를 놓아 주었다.
 2227) 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2228) 仁厚. 마음씨가 어질고 너그러움.
 2229) 千秋. 오래고 긴 세월. 먼 미래.
 2230) 鼓手. 판소리에서 북으로 반주하는 사람을 가리킴.
 2231) 판소리의 마지막에 하는 말로, 북소리를 흥내낸 소리인 듯.